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사 자료제 12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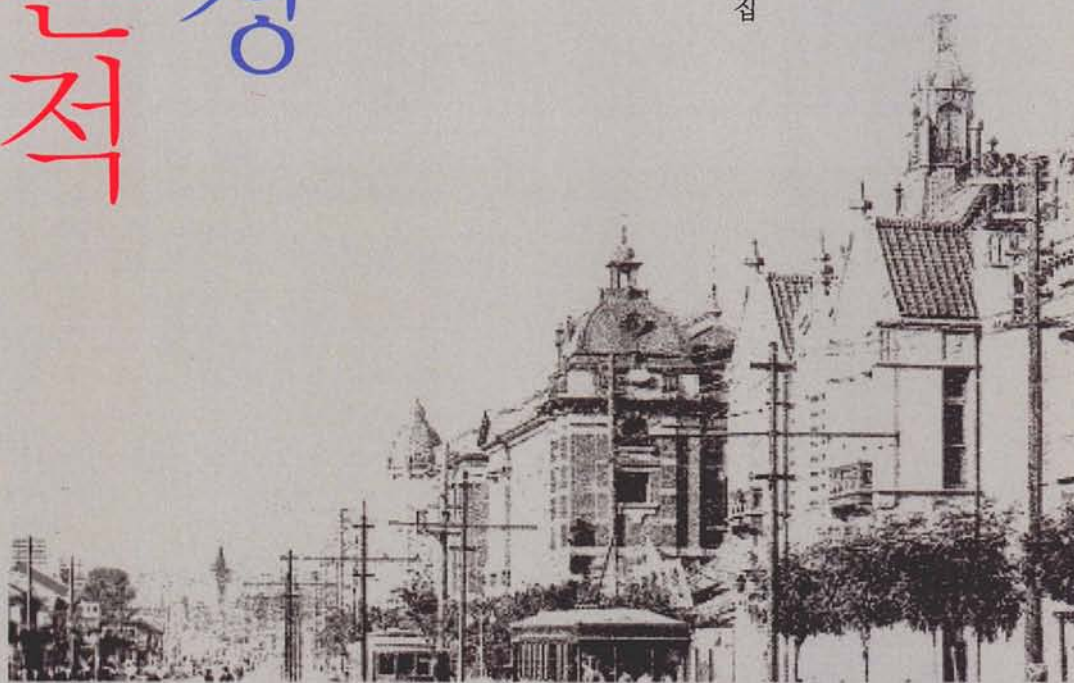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사 자료 제 12집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Contents

발간사

시작하면서

일러두기

제 1부 남겨진 풍경 : 중구 도시경관의 변화

13 중구의 도시경관, 그 변화의
특징

18 자연을 향해 열린 도심

22 견고한 성곽과 성문

30 실개천과 다리

34 따로 또 같이

37 투시도 효과의 가로 경관

40 삼풍(三風)의 대결

46 노면과 노변의 혁명

48 중구 속의 또 다른 중구

50 명동 성당, 도시 경관의
새로운 중심축

54 자주독립의 구심점,
환구단과 그 주변

57 도심을 향해 열린 공간

60 도시경관 디자인의 리더들

63 춤추는 스카이라인

71 황홀한 빛의 축제

76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로

78 생태 도심을 위한 첫 걸음

**제 2부 지나간 흔적 :
1920-30년대 중구 도시건축의 원형**

89 1920-30년대 중구 도시
건축의 원형

92 건축물의 위치

93 건축물의 수량과 연대

83 보이지 않는 공간

94 건축물의 구조와 층수

95 설계자와 시공자

116 모던의 중심 중구의 변화

142 대표적인 건축물의 개요

제 3부 부록

151 1920-1945년 중구
주요 건축물 목록

155 1800-2009년 중구
건축및 도시사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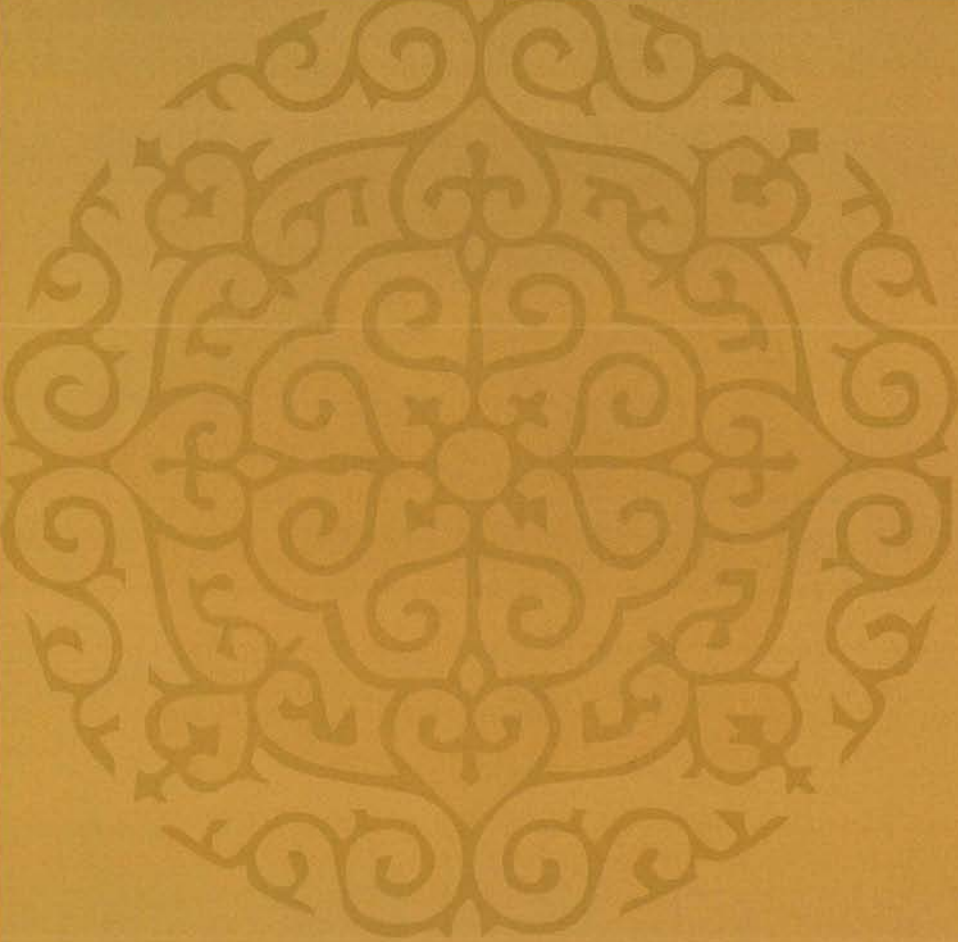
161 주요 건축물 개요 및
신구 도면 자료

신구 지명 대조표

마무리 하면서

저자약력

참고문헌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조선의 과거를 모르고 현재를 모른다. 조선의 과거를 알려면 우선 역사를 보는 안식을 길러 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현재를 알려면 우선 현대의 문명을 이해하고 세계의 대세를 살펴서 사회와 문명을 이해할 만한 안식을 기른 뒤에 조선의 모든 현재 상태를 주밀히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의 나갈 방향을 알려면 그 과거와 현재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야 할 것이다. 옳다 내가 지금껏 생각하여 오던 바, 주장하여 오던 바는 모두 어린애의 어린 수작이다.

-이광수, 무정



발간사



중국향토사 자료집 제12집 『서울 중구, 남겨진 풍경·지나간 흔적』 발간을 중구문화가족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1394년 조선 정도 이래 오늘날까지 수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며 “서울 속의 서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고장” 으로 자리 매김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전통과 또 다른 모습들의 근대건축물이 일부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중구문화원은 그동안 우리 중구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모든 역사를 간과하지 않고 향토사연구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구의 향토사를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과 보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제12집 『서울 중구, 남겨진 풍경·지나간 흔적』은 근대시기 가로와 골목 등에서 이루어진 ‘남겨진 풍경과 지나간 흔적’ 을 차별화된 관점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근대사를 연구하거나 건축사에 관심이 많은 독자 제위 여러분에게는 중구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생각되면서 앞으로도 중구문화원은 우리 중구의 향토사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향토사연구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동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구문화원의 향토사연구위원님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원고 집필에 노력해 주신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의 토미이 마사노리 교수님과 한동수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여환진, 한양대학교의 최지해 두 석사과정 학생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서울 중구문화원장 남상만
2009년 12월 31일



시작하면서

서울은 1394년 조선 왕조가 도읍을 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615년간 수도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그 속에 25개 자치구의 하나인 중구가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중구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물었을 때 그 대답이 과연 어떨지 궁금하다. 아마 어떤 이는 패션 1번지를, 또 어떤 이는 금융 1번지를, 아니면 어떤 이는 종교 1번지 내지 영화 1번지를 이야기할 것이며, 외교 1번지를 떠올린다면 한국근대사에 조금은 관심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건물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성의 관문 숭례문이나 철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인 서울역, 은행의 대부인 한국은행이나 호텔의 원조인 조선포텔, 대한제국 통치의 중심이었던 덕수궁이나 황제의 상징인 환구단, 서울의 행정중추인 시청이나 시민운동의 중심인 시청 앞 광장,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이나 SK, 우리나라 언론을 대표하는 조선, 중앙 등을 연결 지어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로 중구의 대표하는 얼굴이자 상징이고 이미지이다. 그리고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구에 산재된 109개의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와 104개에 달하는 각 시대에 걸쳐 있는 문화유적은 중구의 변화무쌍하고 다사다난 했던 역사의 흔적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증거들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자세한 것은 부록의 중구 건축사 연표를 참조)

시각을 바꾸어 공간적 차원에서 중구를 바라보면 어떨까. 중구는 강남과 강북을 포함한 현행 서울



(그림1) 성동구와 중구의 경계를 알려주는 표식들



(그림2) 서울특별시(상)와 중구(하)의 행정구역 현황도

특별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볼 때 거의 기하학적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는 남쪽에 치우쳐 있어 중구라는 단어가 무색하였으나 이제는 중(中)이라는 문자의 의미와 일치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의 심장(Heart of Seoul)이 되었다.

오늘날 중구는 조선시대 도성공간의 절반 가까이를 포함하면서 동쪽으로는 황학동과 신당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중림동을 서쪽의 끝으로 동서방향으로 길게 펼쳐져 있고, 북쪽은 청계천을 경계로 종로구와 마주하며, 조선시대 남산 위에 쌓은 성곽을 남쪽의 경계로 삼아 남북의 폭은 좁은 형상을 하고 있다.(그림1)

특히, 서울 성곽의 1/3 정도가 중구에 걸쳐 있으며 성문도 8개 가운데 숭례문, 광희문, 소덕문 등 3개가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중구의 형상은 세계의 중심 미국의 지도를 무척이나 빼어 닮았다. 그리고 남쪽에 용산구, 서쪽에 마포구와 서대문구, 북쪽에 종로구, 동쪽에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중구를 사방에서 감싸고 있다.(그림2)

이처럼 동서로 길고 남북이 좁은 중구의 도시공간에는 청계천로, 을지로, 퇴계로, 회현로 등이 동서 가로망의 축을 형성하고 태평로, 남대문로 등이 남북으로 교차하면서 기본적인 간선도로망을 형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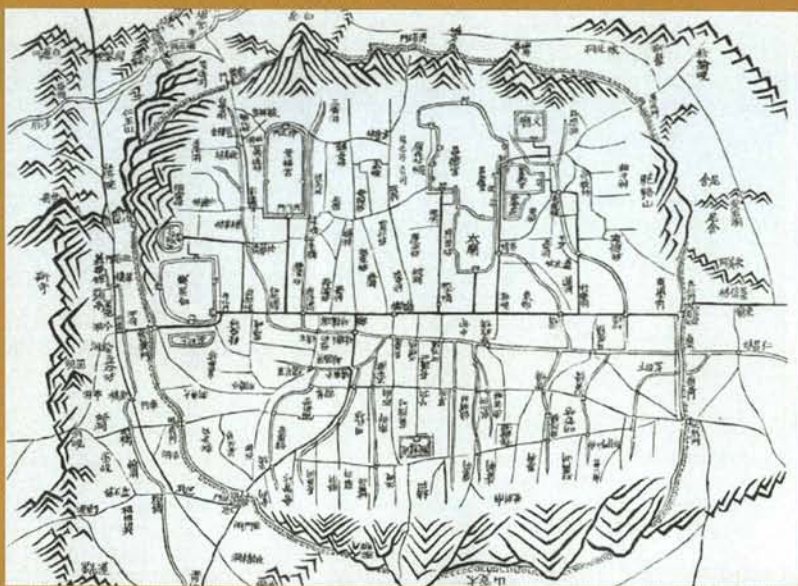


(그림 3) 서울 성곽과 사대문, 사소문, 내사산이 표시된 모습

다. 또한 지형적으로는 남산의 산록에서부터 청계천에 이르기까지 중구 전체가 북쪽을 향해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서 방향으로도 청계천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대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그림3, 4)

본래 연결도로망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의 도시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은 도심부의 간선도로들이 군사적, 풍수적 이유에 따라 서로 직교하지 않고 어긋나게 만나도록 짜여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구는 남산의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하천들과 병행하는 작은 도로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으며 다시 그 사이에 골목길들이 각각의 개별 건물로 사람을 유도한다. 이러한 폐쇄적 도로망이 개방적 도로망으로 전환되는 것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라는 차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대화의 뚜렷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그동안 중구문화원에서 중구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기 위해 간행한 10여권의 향토사 논저들이 다룬 개별 건축물의 설명내지는 단편적인 주제(예를 들면 시장, 축제, 영화, 거리, 세시풍속, 구전설화 등)를 종합하여 공간과 시간이 연결된 입체적인 시각으로 중구의 변화를 바라보고자 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장소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풍경이 어떻게 남아 있고 사라



(그림 4)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의 경조 오부 부분, 서울의 가로와 수계가 표시됨

진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일말의 대답을 찾기 위한 작은 행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흔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라지며 덧칠해져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껍질을 하나 둘 씹 벗기다 보면 누적된 삶의 흔적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궤적을 추적하고 사라진 것을 생동감 있게 복원해 보고자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남겨진 풍경을 전제로 중구의 경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나간 흔적을 조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건축잡지인 『조선과 건축』에 소개된 건축물 가운데 소재지가 중구인 건축물의 원형과 변형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사연표를 만들어 중구의 건축과 도시공간이 변화하는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 1부 남겨진 풍경 :

중구 도시경관의 변화



중국의 도시경관, 그 변화의 특징

전하가 천명을 받아 나라를 세우고 이미 모든 제도를 고쳐서 만세의 법통을 세웠으니
도읍지도 정하여 만세의 기반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한양의 산하가 홀륭함은 옛날부
터 칭송되어 온 것이요, 사방의 거리가 균일하고 수륙교통이 편리하니 이곳에 도읍을 정
하여 후세에 영원토록 하자.(태조실록 권 6 태조 3년 8월 신미조)

1392년 7월 조선왕조를 개창한 이성계는 왕조의 면목과 인심을 일신할 목적으
로 승려인 무학국사와 하륜 등 중신들의 의견에 따라 1393년 도읍지를 한양으
로 정하고 종묘·사직·궁궐을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 11월 한양천도를 단행하
였다. 1395년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하고 경복궁을 준공하였으며, 1396년 4월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설정하고 같은 해 9월 도성과 문루를 완성하였다.

행정구역은 도성(都城)과 성저(城底)로 구성되었는데, 도성은 성 안의 땅으로
궁궐·관청·도로·하수도·시장 등의 위치가 정해졌다. 성저는 성벽으로부터
터 사방 10리에 이르렀는데, 북으로는 북한산, 남으로는 한강 노도(露渡), 동으
로는 양주의 송계원(松溪院)·대현(大峴: 牛耳川)·중랑포(中浪浦)·장안평(長
安坪), 서로는 양화도·고양의 덕수원(德水院: 응암동)·모래내[沙川]를 따라
난지도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성부는 수도로서의 내용과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398년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정종이 즉위하면서 한때는 수도를 개성으로 옮겼
다가 태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한성으로 환도하였다. 그 이듬해 궁궐을 수축하고
도읍지로서의 시설을 보완하였다. 운종가(종로 1~2가)를 비롯하여 각종 도로를

설치하고, 그 양편에는 가가(街家:상점)를 만들었다. 간선도로변에는 구거(溝渠: 배수구)를 설치하였다.

1428년 성 안 인구는 10만 3328명, 성 밖 인구까지 합하면 11만 명이었고, 그 뒤 200여 년간 20만 명 선을 유지하였다. 1592년 선조 때의 임진왜란과 정유 재란, 그리고 1624년 인조 때에 일어난 병자호란으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당시의 도시 형태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우에 종묘와 사직을 배치하고 주요 관청이 들어서 있는, 지금의 세종로와 상업지역으로 행랑과 시전이 있는 종로가 있었다. 종로 북쪽은 양반계급의 주거지인 북촌이 있었으며, 남쪽은 하급 관리와 세력이 없는 선비들의 주거지인 남촌이 있었다.

행정구역은 조선왕조 500년을 통하여 성 안을 가리키는 도성과 성저로 크게 구별되었다. 관할구역인 도성과 성저를 동·서·남·북·중의 5부(部)와 성저 10리 지역으로 나누었다. 각 부에는 영(令)을 두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구(區)에 해당하는 것이다. 5부는 처음 태조 때 52방(坊)으로 구분하고 그아래 계(契)·동(洞)·통(統)을 두었으며, 성종 때는 52방을 49방으로 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때 5부제(部制)를 5서제(署制)로 고치고 47방 288계 775동으로 하였다.

경성은 예로부터 조선에서 으뜸가는 도시였다. 하지만 왜인들은 내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지의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조선 땅을 영구히 낙후된 상태로 놔두길 원했는지, 자신들이 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손을 보는데서 그쳤다. 그 때문에 경성은 아시아의 다른 이름난 도시들에 비해 한 발짝 뒤쳐진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경성에는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다. 베이징처럼 웅장하지도 않고, 상하이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오사카처럼 번성하지도 않고, 도쿄처럼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고졸하고 단아한 맛이 살아 있는 도시였다. 뒤로는 높은 산이 떠받치고 앞으로는 큰 강이 흐르는 넓은 분지의 남쪽은 본정통에서 황금정에 이르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흥청대는 변화가였으나 북쪽은 푸른색 기와지붕이 넓게 펼쳐진 고즈넉한 거리였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기와집이란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이었다. 문제는 남과 북을 가르고 근대와 전통을 구분하는 경계선 청계천이었다. 천변에 허름한 판잣집이 끝도 없이 늘어섰고 다리 밑엔 버럭질로 연명하는 거지떼가 우글거렸다. 장맛비가 쏟아지면 금세 물이 불어나 도로까지 차올랐지만 가뭄이라도 들면 바짝 말라붙어 보기 흉한 바닥을 드러냈다.(한동진, 경성탐정록)

1876년 개항 이래 새로운 문명시설이 생겨났다. 근대적인 병원·학교·교회·신문사 등이 세워졌으며, 1898년 서대문과 홍릉 사이에 전차가 개통되었다. 1895년 한성군으로 격하되고 5부가 5서로 개칭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한성부가 되었다.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고 전차가 가설되었으며, 1900년 한강 가교(假橋)가 준공되었다.

1910년 국권을 침탈한 일본은 한성부를 경성부(京城府)로 바꾸고 경기도 밑에 두어 그 지위를 격하시켰다. 1911년 경성부의 하부기관을 5부 8면으로 구분하여 성 안은 동·서·남·북·중의 5부로, 성밖은 용산·서강·송신·두모·인창·은평·연희·한지의 8개면으로 구분하였다. 1914년 면(面) 제도를 폐지하고 부제(府制)를 실시하면서 용산·송신·인창·한지·두모면의 일부를 경성부에 편입시켜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확대시켰다. 명칭은 정(町)으로 바꾸었다.

읍사조약 당시 약 25만 명이었던 인구가 자체의 인구증가와 일본인 거류민의 급격한 증가로 1936년에는 73만 명을 돌파하게 되자 행정구역을 133.94km²로 확장하였는데, 이때 고양군·시흥군·김포군 관내의 면들이 편입되었다. 지역 확대에 따라 용산·동부·영등포에는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종로·남대문로·태평로를 중심으로 변화한 도심지가 형성되었고, 청량리·마포·돈암동·영천·영등포 등의 전차 종점과 전차노선 부근에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남산 북사면 일대의 필동·남산동·인현동·쌍림동·장충동·회현동과 남대문 밖 서울역 부근의 후암동·용문동·원효로 등지 및 용산 방면에 일본인 주택지가 생겨 일본식 목조가옥이 들어섰다. 8·15광복을 2년 앞둔 1943년에는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종로·중구·동대문·성동·서대문·용산·영등포의 7개 구로 나누어 구제(區制)를 실시하였고, 1944년에는 인접지역인 연희면을 편입하여 다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여기에 마포구를 신설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서울은 나날이 눈을 떠보면 딱한 이야기와 몬지만 쌓여간다. 파스한 봄이 쪼이고 기름비가 뿌려도 짝 트지 않는 불모의 땅-그것이 엘리얼의 황무지였다…… 그러기에 이 황무지에서는 꽃 피는 사월도 도리어 잔인한 말인 것이다. 그렇다고 울더쓰 헉슬레의 훌륭한 세 세계의 파라독스를 나의 서울을 위해 연상해야 옳은가? 그는 현대문명의 물질주의와 기계론이 끌고 갈 끝판의 세계의 바삭바삭한 기계 그것과 같은 생활과 환경을 가상해 놓고 그것에 빈정대는 의미에서 ‘훌륭한’ 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던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나의 서울에는 그런 의미의 물질문명이나 기계문명이라도 진행

하고 있는 것인가?……승강기 하나 에스컬레이터 하나 구경할 수 없는 서울-그러면서도 국제정국의 사나운 바람이란 바람은 모조리 받아드려야 하는 벽찬 도시……(김기림, 민성, 나의 서울설계도)

1945년 8·15광복과 동시에 경성부가 서울시로 개칭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경기에서 분리되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서울특별자유시가 되었으며 종전까지의 일본식 동명이었던 정(町)을 동(洞), 정목(丁目)을 가(街), 통(通)을 로(路) 등의 명칭으로 바꾸었다.

1949년 서울은 특별시로 승격되면서 고양군 독도면, 송인면, 은평면 일원과 시흥군 도림리, 구로리, 반대방리 등이 편입되어 시역이 136.06km²에서 268.35km²로 확장되었다. 그 해 성북구가 신설되어 모두 9개의 구로 개편되었고 인구는 140만여 명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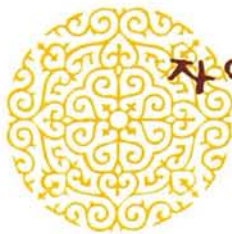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을 겪고 1955년 부산에서 수도를 서울로 환도하자 인구가 급증하였고 수도로서의 기능 역시 급격히 팽창하였다. 이후 1962년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서울은 국무총리의 직속 기구가 되었다. 시장의 행정적 지위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1963년 시역을 대규모로 확장하여 593.75km²가 되었다. 이 시기에 편입된 지역은 양주군, 광주군, 시흥군, 김포군, 부천군의 일부 지역 7개면 54개리로 주로 강남지역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1973년 서울은 3번째로 시역의 확장이 이루어져 605.33km²가 되었으며, 도봉구와 관악구가 신설되어 11개구가 되었다. 1975년 강남구, 1977년 강서구, 1979년 은평구와 강동구, 1980년 동작구와 구로구가 각각 신설되었다. 1988년 중랑구가 동대문구에서, 노원구가 도봉구에서, 양천구가 강서구에서,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각각 분리, 신설되었다. 1994년은 서울 정도(定都) 6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였다.

천 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은 감수성과 사유와 영감의 거대한 학교이다. 누구는 서울이라는 감옥의 수인으로써 누구는 서울이라는 고아원의 원아로서, 또 서울이라는 셋집의 지하 생활자도 있고 서울이라는 성곽 밖 진입로의 가족, 서울이라는 극장의 연인, 서울이라는 위태롭고 아름다운 도로의 울보 운전자도 보인다. 그들은 우리가 어느 날 무심코 바라본 거울 속 내 얼굴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순간의 삶의 낯섦과 무자비함을 포착한

다……공룡의 도시 서울의 뒷면에는 애잔한 활기와 소란이 있고 저도 몰래 숨어 흐르는
다기한 감정의 격랑이 있다. 연대의 안간힘과 차마 말하지 못한 희망이 또한 거기에 있
다.(은희경, 김영찬,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다)

1995년 3월에는 강북구가 도봉구에서, 광진구가 성동구에서, 금천구가 구로구
에서 각각 분리, 신설되었다. 1973년 시역의 확장 이후, 고정된 면적에서 구의
증설은 모두가 관할 지역의 인구조정을 위해서 취해진 행정적인 조치였다. 그
리고 2001년 현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
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
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강북구 등 모두
25개구 52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구는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을
잇는 중심구가 되었다.



자연을 향해 열린 도심

오늘날의 중구는 조선시대 한성부의 중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대략 한성부 5부의 남부 전역과 중부, 서부의 일부가 각각 모여서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보편적으로 배산임수의 지형을 택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은 자연히 산(山)과 수(水), 즉 자연이 도시를 감싸게 된다. 한성부 역시 그러한 입지의 탁월한 선택을 보여준다. 자연을 향해 열린 도시, 그것은 한양의 속성이자 중부가 가진 또 하나의 혜택이 아닐 수 없다. (그림1) 중국의 문헌 가운데 『관자』라는 책에서는 도성의 입지와 계획에 대하여 특히 “인지제의, 인지취재(因地制宜, 因地取材)”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주어진 땅의 조건을 잘 살려 제도를 맞추고 그 지역의 산물을 취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바로 우리나라 도시, 특히 한성부의 입지와 계획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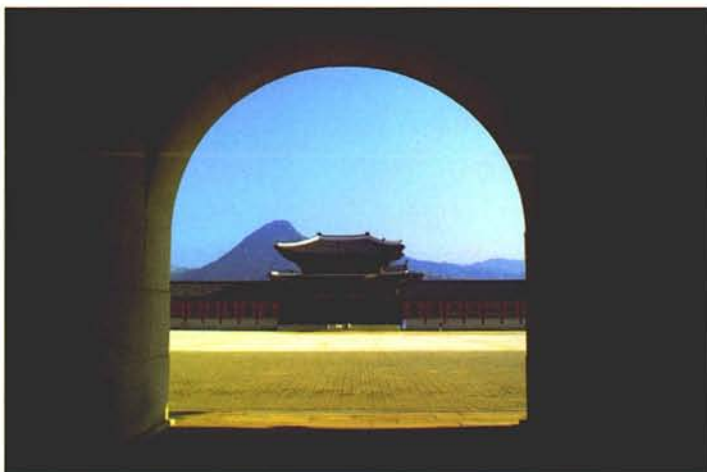


(그림1) 1904년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역동적인 주변 산세가 불만하다.(일본 학습원 대학 소장)

한성부 시절 중구는 당시 도성의 한 가운데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사방이 자연을 향해 열려 있고 그 가운데는 개천, 즉 청계천이 관통을 하고 있었다. 자연을 향해 열린 공간은 당시 건축은 2층을 이상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건축은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확장을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없다. 공간 확장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건물의 숫자를 증가 시켜 수평적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해결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불교계통의 탑을 제외하면 고층의 건물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고만고만한 높이의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찬 과거의 한양을 바라보면 오늘날의 건축물처럼 서로를 가리고 자신의 시야만을 확보하는 양태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변의 산세를 닮은 둥글둥글한 초가집 사이에 날렵한 처마선을 가진 기와집이 적절히 섞여 들어가 있고 또 그 중간 중간에 큼직한 영역을 마련한 궁궐이나 관아와 같은 국가의 시설들이 보인다. 그리고 산등성이 자락에는 지형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ㄱ자, ㄴ자, ㄷ자, ㄹ자 등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서로서로 기대어 있다.

그래서 궁궐을 포함해서 도성 안의 모든 집들은 자연을 배경으로 삼게 되며 마루로 나오거나 마당에 서게 되면 담장 너머로 펼쳐진 주변의 자연풍광을 자신의 시야로 가져올 수 있었다.(그림2) 이같은 조선의 건축과 자연이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일본의 유명한 민예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는 “건축이 자연을 장식하고 자연이 건축을 보호한다.” 라는 말로써 규정지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시선을 가리는 지붕이나 담장이 간혹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양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주변의 빼어난 자연풍광은 어떤 특정인의 독점물이 아니라 한양의 도시민 모두가 더불어 향유하는 그런 것이었다. 다만 바라다 볼 수 있는 그 자연의 모습과 방향이 달랐을 뿐이다.



(그림2) 백악산이라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경복궁 흥례문의 모습(문화재청 소장 자료)



(그림3) 근정전 월대 위에서 바라본 근정문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는 이남위귀(以南爲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쪽을 바라보는 것으로 귀함을 삼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궁궐은 풍수지리의 원칙에 따라 배산임수를 하여 백악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왕으로 하여금 남쪽 바라보게 하면서 동, 서, 남쪽으로 펼쳐진 한양의 주변 산세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한양이라는 분지형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중

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왕이 볼 수 없는 북쪽까지도 포함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펼쳐진 한양의 자연풍광을 자신의 눈에 담을 수 있었다. 여기서 잠시 1265년경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후들에게 보낸 답신을 인용해 보자.

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선택해야한다 사람들은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서는 떠나기 싫은 법이다.....곳곳에 평지가 펼쳐지고 울창한 숲과 근처에 산도 있어 전망이 아름다운 곳, 숲이 풍경을 장식해 주고 여기 저기 작은 개울이 흐르는 곳, 이런 곳이 도시가 들어서기에 딱 알맞다.....풍경을 즐기는데도 절도가 필요하다.

마치 한양의 입지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다만 그 풍광이 대중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퀴나스가 주장하는 바와 유사한 한양의 탁월한 입지선정은 세계적인 규모의 대도시로 발돋움한 오늘날까지도 서울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견고한 성곽과 성문

성곽은 과거 도시의 영역을 인지시켜주는 중요한 시설 가운데 하나였으며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진 풍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중국 문헌 『오월춘추(吳越春秋)』에 보면 “곤, 축성이위군, 조곽이수민, 차성곽지시야.(鯀, 築城以衛君, 造郭以守民, 此城郭之始也.)” 즉, “곤이 성을 축조하여 임금을 보위하고 곽을 만들어 백성을 지켰는데 이것이 성곽의 시작이다.” 라고 하여 성과 곽은 본래 각기 다른 기능이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성곽에 경제활동과 물자의 유통 기능을 발휘하는 시장(市場)이 결합된 것을 동아시아에서는 성시(城市)라고 불렀고 이는 도시를 의미했다. 다시 말해서 도시는 공간의 범주를 한정짓는 하드웨어(Hardware)인 성곽과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Software)인 시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는 대부분 분지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주변을 감싸는 산의 능선을 따라 성곽을 쌓았다. 그리고 그 외곽을 흐르는 하천이 해자의 역할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중적인 방어망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곽은 군사적인 방어의 실제 기능을 발휘하기 보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한양의 성곽은 이렇다 할 방어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보다는 성벽과 여장으로만 구성되어 중국의 성곽에 비해서 무척 단조롭다. 그것은 한양의 성곽이 도시공간의 영역을 한정짓는 요소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하겠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수원 화성처럼 다양한 방어시설이 갖추어진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역대로 우리나라 각 도시에 조성된 성곽은 한양의 성곽과 유사한 성격을 보여준다. 이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전투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의 주변에 방어적인 시설로써의 산성을 반드시 설치하여 도성과 산성 또는 읍성과 산성의 이중적인 방어체계를 운영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양의 경우도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사실 도성의 방어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다.(그림4)



(그림 4) 한양 성곽의 방어산성인 남한산성(방철린 촬영)과 북한산성(김관석 촬영)

길이 9975보, 17922m에 달하는 한양의 성곽은 백악(白嶽)·낙산(駱山)·남산(南山)·인왕산(仁王山)의 능선을 따라 1396년(태조 5년)에 완성되었다. 이후 역대 조선의 왕들에 의해 부단히 수축되고 보수되어 왔다. 처음 축성될 당시 성벽은 천자문(千字文) 97자(字)의 구획으로 나누고 매자구간(每字區間)을 600척으로 한 다음 세분화된 전체 구역을 다시 5개의 구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각 도(道)에 노역을 분담시켰다. 제1구역은 천자(天字)에서 시작하여 일자(日字)까지의 9개 자간구역(字間區域)으로 백악의 정점 동쪽부터 숙정문 부근까지, 제2구역은 월자(月字)부터 한자(寒字)까지 8개 자간구역으로 숙정문 부근부터 동소문까지, 제3구역은 내자(來字)부터 진자(珍字)까지 41개 자간구역으로 동소문부터 남산 잠두(蠶頭)까지, 제4구역은 이자(李字)부터 용자(龍字)까지 15개 자간구역으로 남산 잠두부터 홍화문 대궐 뒤 고지(高地)까지, 제5구역은 사자(師字)부터 적자(吊字)까지 24개 자간구역으로 홍화문 대궐 뒤 고지부터 백악의 정점 서쪽까지 각각 설정하였다. 이 때 쌓은 성벽은 석성(높이 15척) 1만 9200척, 평지의 토성(土城:下廣 24척, 上廣 18척, 높이 25척) 4만 30척이며, 수구(水口)에는 홍예를 틀고 좌우에는 석성을 축조하였다. 홍예 높이는 16척, 석성 등을 포함한 길이는 1,050척이었다. 그리고 26년 뒤인 1422년(세종 4년)에 이르러 모두 석



(그림5) 장충동 일대에 있는 태조 때(좌)와 숙종 때(중) 쌓은 성벽의 모습, 그리고 공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담당의 이름을 넣은 각자성석(우, 康熙四十五年[1705年] 丙戌三月日 訓局 牌將 金守善 石手 吳有善)

성으로 수축되었으며 1704년(숙종 30년) 즉 태조가 한양 성곽을 축조한지 309년이 되는 해에 세 번째의 성곽 수리가 이루어졌다.(그림5)

그러나 일제강점기 전차와 차량의 통행을 위한 도로의 개설과 함께 성문 주변의 성벽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철거가 진행되었고 도시공간의 확장으로 성벽을 이용해 건물을 지으면서 적지 않은 훼손이 있었다. 예를 들면 남대문 좌우측 성벽은 1907년 성벽철거위원회가 설치된 다음 이듬해인 1908년 곧 바로 철거되어 도로로 바뀌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중구는 대략 서울 성곽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관할 구역의 성곽은 동대문에서 광희문까지, 남대문에서 서소문까지, 남대문에서 남산 방향 등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여장과 석축이 허물어진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1975년부터 추진된 종합적인 서울 성곽 복원사업은 서울의 성곽이 그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 주었다. 중구에 위치한 사소문의 하나인 광희문 역시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복원되었는데 문루는 목조가 아닌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장충동 부근의 성벽은 여장의 복원이 이루어졌으며 주변 여건상 성벽을 복원할 수 없는 곳은 남대문의 경우처럼 발굴을 통해 성벽의 흔적을 찾아내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밑부분만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그원형을 찾아가고 있다.(그림 6)



(그림6) 장충동 부근 여장이 복원된 성벽(좌)과 철거된 성벽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밑부분만을 복원한 남대문 부근의 모습(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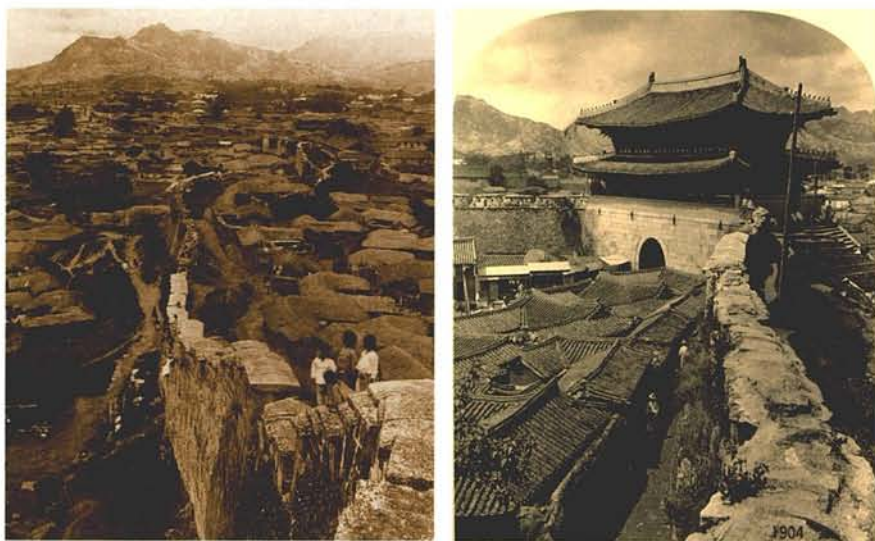
또한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세계적인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파크”의 건설과정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던 동대문과 광희문 사이의 123m에 달하는 성벽이 확인되었고 이간수문교의 아치 부분과 기록으로만 전해오던 치성이 발견되었다.(그림7) 이러한 유구 역시 새로 들어설 건물의 설계에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보존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그림7) 발굴로 드러난 이간수문의 아치 부분 잔존 유구(좌), 새로 확인된 치성 부분(우)

다음은 성곽을 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인 출입을 위한 성문을 살펴보자. 한양의 경우는 동서남북에 4대문을 두고 그 사이에 4개의 소문을 설치하여

8개의 성문이 외부와 연결하는 통로로 삼았다. 4대문은 동쪽의 흥인지문, 서쪽의 돈의문, 남쪽의 숭례문, 북쪽의 숙정문 등이고 4소문은 서북쪽의 창의문, 서남쪽의 소의문(원래의 명칭은 소덕문), 동남쪽의 광희문, 동북쪽의 혜화문 등이다. 그 가운데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볼 때 중구에 위치한 성문으로는 사대문의 하나인 남대문을 비롯하여 광희문과 소의문의 두 소문을 합쳐 모두 세 개의 성문이 있다. 남대문은 예나 지금이나 도성의 관문(그림8)으로서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의 출납을 관장



(그림8) 20세기 남대문 원경(좌) 및 근경(우)



(그림9) 남대문과 그 안쪽에 널찍하게 자리잡은 선혜청의 모습, 현재 건물은 모두 사라졌지만 남대문 시장이 들어서 여전히 유통 경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학습원 대학 소장)

하던 선혜청의 창고들이 즐비하여 한양을 지탱하는 물류의 중심이기도 했다.(그림9)오늘날에도 남대문 주변은 대표적인 상업공간이 자리 잡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남대문은 정남향이 아닌 서남쪽에 치우쳐 한양의 조산(朝山)인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진압하는 위치에 세워졌으며 편액을 세로로 걸고 이름을 숭례(崇禮)라고 붙임으로써 풍수적인 비보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이상을 실천하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림10)

여기서 잠깐 편액에 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글씨를 써서 건물에 거는 것을 통칭해서 현판(懸板)이라고 하는데 현판에는 일반 가정집의 문패처럼 건물의 명칭을 알려주는 편액(扁額)이 있고 기둥에 붙이는 주련(柱聯)과 주련이 쌍을 이룬 대련(對聯) 등으로 구분이 된다. 이러한 편액 문화는 동아시아 건축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로써 그 편액에 쓰여진 글귀를 보면 건물의 축조목적, 용도 등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편액은 숭례문을 비롯해서 경복궁 집옥재 등 몇 개의 건물에서만 세로로 거는 편액이 존재할 뿐 대부분 가로로 걸고 중국의 경우는 세로로 건다. 『지봉유설』의 기록에는 “숭례문”이라고 쓴 현판을 양녕대군이 썼다고 한다.



(그림10) 화재 전 숭례문 편액(좌)과 화재 이후 복원과정을 거쳐 고유제 때 공개된 편액(우)

건축적으로 볼 때 남대문은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조선시대 초기 목구조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곽의 문루건축 뿐만 아니라 국보 1호로써 목조건축문화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태조 4년(1395)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에 완성하였다. 지금 있는 건물은 세종 29년(1447)에 고쳐 지은 것인데 1961~1963년 해체·수리 때(그림 11) 성종 10년(1479)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림 11) 1962년 서울 남대문 보수현장의 모습(서울시 언론담당관 촬영)

이 문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육축의 중앙 부분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두고, 그 위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지은 누각형 2층 건물이다. 도성 안쪽으로 활처럼 휘어 들어온 곳에 위치한 관계로 동대문처럼 옹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앞쪽에 남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지붕형식은 본래 팔작 지붕이 변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정면에서 보았을 때 사다리꼴 형태를 하는 우진각 지붕이며 지붕 처마를 받치는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곡이 심하지 않고 짜임도 건실해 조선 전기 목조 건축형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그림 12) 일제강점기 도로의 개설로 인해 섬처럼 놓여 있던 남대문은 주변 차량의 흐름을 바꾸고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2008년 2월 방화로 인해 문루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어 현재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12) 2008년 화재가 나기 전(위)과 이후(아래)의 남대문 전경)



실개천과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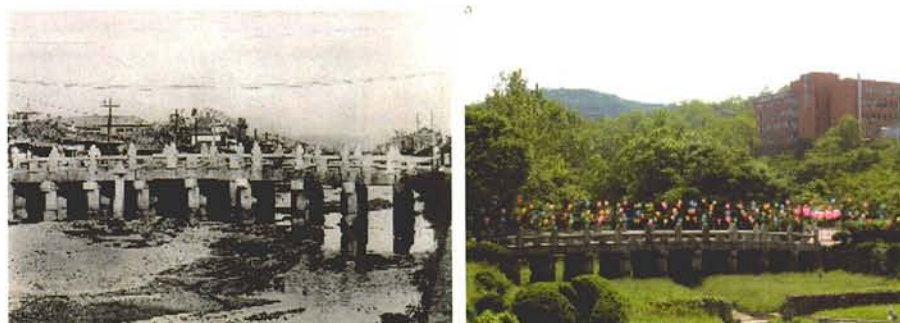
한양은 청계천이라고 하는 내명당수를 중심으로 그 남북에 수많은 실개천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실개천과 나란히 하거나 혹은 교차하는 크고 작은 길들이 분포하는 그런 도시였다. 하천이 있으면 그걸 건너기 위한 다리가 당연히 요구된다. 한양은 중국 남방의 유명한 수상도시 소주나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니스에 못지않은 상당한 수량의 다리가 있었다. 물론 다리의 성능이나 구조, 재료도 천차만별이었다. 돌덩이를 그냥 덩빙덩빙 놓은 징검다리에서부터 나무로 만든 목교, 돌로 만든 석교 등이 있고 홍예를 틀어 교각을 만든 아치형식의 다리도 있었다.

도성 안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성곽의 수문과 다리의 형식을 겸하던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이다.(그림13) 이 두 다리는 부드러운 홍예를 튼 교각을 만들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교각을 자세히 보면 물이 들어오는 곳은 삼각형으로 만들어 물살의 힘을 덜 받도록 처리하였다. 이러한 수법은 중국에 있는 다리의 축조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림13) 1931년 이전의 오간수문 모습(조선고적도보 11권)(좌)과 발굴로 드러난 이간수문 모습(우)

그리고 특수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는 청계천의 수위변화를 측정하던 수표교를 들 수 있는데 이 다리는 도성 내 다른 다리들 형식의 기준이 될 정도로 정형화된 요소들을 골고루 갖춘 다리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표교는 청계천 복원의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청계천 복개 당시 옮겨진 장충단에 여전히 남아 있다.(그림14)



(그림14) 1931년 이전 수표교 모습(조선고적도보 13권)(좌)과 장충단으로 옮겨져 있는 현재의 수표교 모습(우)

여기서 잠시 1902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양의 지도를 한 번 살펴보자. 오늘날 중구와 종로의 경계가 만나는 청계천은 물론 청계천을 향해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하천 위에는 곳곳에 다리가 놓여져 있다.(그림15) 그러므로 누군가 남대문에서부터 출발하여 경복궁까지 가려고 한다면, 먼저 창동 부근에 있는 수교(水橋)를 건넌 다음 소광교(小廣橋)와 광통교(廣通橋)를 거치고도 다시 다리 하나를 더 건너가야 육조거리에 접어들어 경복궁 광화문으로 들게 된다.



(그림15) 1902년경에 제작된 한양지도에서 오늘날 중구의 범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청계천을 비롯하여 곳곳에 다리가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리는 단순히 하천을 건너간다는 의미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가만히 살펴보면 도시에 진입을 할 때, 마을에 들어갈 때, 궁궐을 들어갈 때, 사찰에 들어갈 때, 서원이나 향교에 들어갈 때, 종묘에 들어갈 때, 사대부의 집에 들어갈 때 등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대부분 다리를 건너야 한다.(그림16) 그래서 그런지 이런 전통은 남산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림16) 비록 이전 복원된 것이지만 덕수궁에 진입하기 위해 건너야 할 금천교(좌)와 창덕궁 연경당 앞에 있는 다리(우)

이것은 영역의 전환이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학자인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이론에 따르자면 다리는 이쪽과 저쪽을 인식시키고 성(聖)과 속(俗)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물을 건너감으로써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단순한 기능적 역할을 뛰어 넘어 마음과 신체를 정화하는 의미도 갖게 된다.

이처럼 실제적인 기능이외에 다리와 관련된 민속 행사로 대표적인 것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다리밟기를 들 수 있다. 특히,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가 서로 만나는 청계천 위에 놓여진 다리 가운데 남대문과 궁궐을 연결하는 중심도로에 놓여 있어 광교라고도 부른 광통교는 교통량도 많아 폭도 넓었으며 수표교와 더불어 가장 인기 있는 다리밟기의 장소였다.

조선시대 화가 임득명의 가교보월(街橋步月)이라고 하는 그림에는 정월 대보름 광통교에서 행해진 다리밟기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그림17) 광통교에서는 다리밟기 이외에도 하천 바닥이 동서로 뚫려 있어 바람이 잘 통했기 때문에 연날리기도 빼놓을 수 없는 행사였다. 이처럼 다리는 도시의 생활에서 삶의 활력소를 불어 넣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림17) 가교보월 그림(좌)(街橋步月, 옥계12승첩, 임득명, 1786년, 종이에 얇은 채색, 24.2X18.9cm, 삼성출판박물관)과 현재 복원된 광통교(우)

최근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광통교도 복원이 되었다. 물론 예전과 같은 모습에서 많이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하천을 건너는 것 이상의 다양한 행위들이 점차 되살아나고 있다. 감추고, 허무는 것보다는 드러내어 바라보고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우회적으로 전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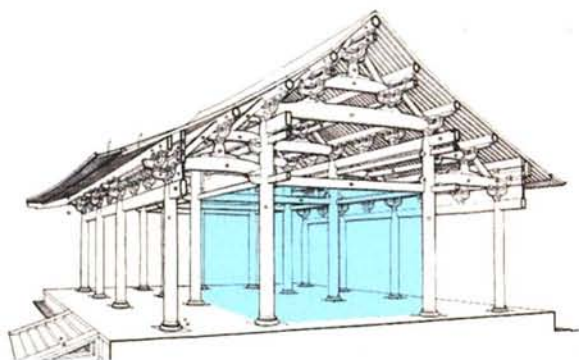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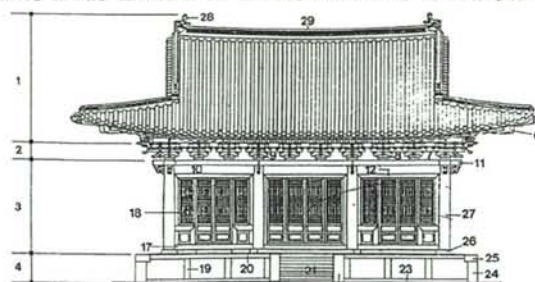


따로 또 같이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은 지면과 맞닿아 있는 기단, 그 위에 공간을 형성하는 축부(또는 몸체라고도 함), 그리고 지붕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과거에는 하분(下分), 중분(中分), 상분(上分)이라고 불렀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은 네 개의 기둥이 만드는 하나의 단위 공간, 이른바 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다.(그림18) 이 칸의 개념은 경우에 따라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주칸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은 이 칸의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 공간의 필요에 따라 전후, 좌우로 칸을 확장하면 그것이 하나의 건물이 된다. 그리고 그 건물의 규모는 정면 몇 칸, 측면 몇 칸에 따라 결정된다.

(1). 輪圖:

1. 지붕 2. 공포 3. 축부 4. 기단 5. 사대 6. 주녀 7. 포벽 8. 공안포 9. 주심포 10. 창방
11. 평양머리 12. 상인양 13. 14. 15. 16. 피살문 17. 하인양 18. 피살상 19. 명주 20. 감식
21. 계단 22. 소맷돌 23. 지대석 24. 우주 25. 모서리돌 26. 초석 27. 기둥 28. 휘두 29. 용마루



(그림18) 기단(4), 축부(3), 공포대(2), 지붕(1)으로 구성된 전통건축의 입면(좌)과 칸의 개념을 보여주는 그림(우)

여기서 더 많은 공간의 수요가 생기게 되면 마당의 영역을 설정한 다음, 마당을 중심으로 별도의 건물을 증가시켜 상호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완결된 건축군(建築群)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군이 크고 작은 길을 공유

하며 공동체의 의식을 만들어 간다. 따라서 하나, 즉 단독으로의 존재가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가치는 다수가 모여 만들어내는 군집의 존재가치가 형성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이것은 서양의 건축이 수직으로 발달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건물은 수평적인 확장의 개념에 충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나의 건물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공존하는 부차적인 건물들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그림19)



(그림 19) 덕수궁 덕홍전과 주변 건물들

또한 건물로 진입하는 방향이 좌우로 긴 정면 방향이기 때문에 전후의 측면 깊이는 상대적으로 깊지 않다. 따라서 중요한 목표 건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입의 과정이 중요시된다. 이러한 모습을 서양의 성당과 우리나라의 사찰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일이다. 서양의 성당은 단일의 건물이 기념비적인 공간을 창조해 내지만 우리나라의 사찰은 대웅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문과 다양한 전각을 지나는 통과 의례가 필요하다.

(그림 20)은 서울 근교의 초가집군을 찍은 사진이고, (그림 21)은 서울 시내의 개량 한옥군을 찍은 사진이다. 이 두 장의 사진은 바로 우리의 건축이 개별적인 존재면서도 함께 어우러져 유기적인 공통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마땅한 시각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만 조선시대 한양은 바로 이런 구성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건축의 묘미이기도 했다.



(그림20) 서울 근교의 초가집
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모습
(미국 Life 잡지 소장)



(그림21) 전통한옥의 연장선상
에서 부분적인 개량이 이루어진
한옥군의 모습(미국 life 잡지
소장)

시각적으로 유사한 건축어휘를 공유하며 집단을 형성하는 과거의 건축들은 오늘날 개체의 특성을 과시하는 건축과 비교해 볼 때 표상하는 바가 질적으로 다르다.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서로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부드러운 화음이 잔잔히 울려 퍼지도록 하는 모습은 공동체의 무한한 역량을 건축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물론 근대의 잣대로 바라보자면 그것은 한 없이 부족하고 뒤떨어진 후진성을 면치 못할 지도 모른다. 아니 실제로 대다수의 의견이 그러했다. 그래서 개량과 계몽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전근대성의 표상으로 비추어지기도 했다. 아쉽지만 한양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전통건축은 대량생산과 표준화, 기능화의 그늘에서 활력을 잃고 재기의 기회를 얻는 것은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오늘에서 와서 인 것 같다.



투시도 효과의 가로 경관

과거 조선의 도시에 형성된 가로는 서로의 맞은편을 볼 일도 없었고 가로의 끝은 경성을 감싸 안은 내, 외사산, 즉 내외의 산을 목표점으로 삼고 있었다. 지금은 고층빌딩에 가려 대부분이 상실되었지만 종로쪽에서 들어와 인사동길을 걷다보면 이같은 장면이 실감나게 다가온다.(그림22)



(그림22) 많은 건물이 들어섰지만 그래도 건물 사이 인사동길 끝자락에는 백악산이 살아 있다.

그런데 1930년대 도시계획의 핵심적 부분이었던 경성시가지계획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변화의 결과를 남겼다. 서울은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로 확장되었으며 체계적으로 도로망이 구축되었고 공장지와 주택지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도로공사나 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된 토지들은 해방과 더불어 모든 통제가 정지되면서 토지이용이나 소유관계에서 견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훗날 도시계획이 재개되었을 때 여전히 법적, 경제적 부담으로 남았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측면에서 잊혀지는 도시의 이미지도 크게 달라졌다. 과

거의 가로 경관의 시점과 배경을 이루던 산의 중요도가 점차 감소하고 가로를 중심으로 마주보는 경관이 중요해졌으며 광장, 로터리,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투시도적 구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그림23)



(그림23) 1920년대 경성의 대조적인 모습, 왼편의 가로경관은 점차 오른편처럼 바뀌어갔다.

한동진은 최근에 간행된 추리소설 『경성탐정록』에서 그 변화된 도시의 이미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경성은 조선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남대문통은 경성의 중심이었다. 하늘을 가릴 듯이 일어난 높다란 건물을 양 옆으로 낀 넓은 길에는 전차와 자동차, 인력거와 사람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부글부글 끓는 술처럼 인파로 붐비는 소란스런 큰 길을 지나 남대문통 2정목의 식산은행 옆의 셋길로 들어가면 굴직한 예서체로 중화각이라고 쓴 커다란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또 박태원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아래와 같이 길을 걸으며 맞은편의 건물이 주는 암시에 잊혀진 생각이 떠오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은 과거처럼 천편일률의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지닌 기능과 능력을 밖으로 분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앞을 지나 밤늦은 거리를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대낮에도 이 거리는 행인이 많지 않다. 차 요사이 무슨 좋은 일이 있소. 맞은편에 경성우체국 삼 층 건물을 바라보며 구보씨는 생각난 듯이 물었다. 좋은 일이라니. 돌아보는 벗의 눈에 피로가 있었다. 다시

걸어 황금정으로 향하며 이를테면 조그만 기쁨, 보잘 것 없는 기쁨, 그러한 것을 가졌소.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인용문을 통해 서울의 가로 경관이 급격하게 변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른바 근대 도시로 진입하여 서구식 도시의 가로 경관이 연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종전의 단조롭고 무미건조하며 들쭉날쭉한 가로의 모습을 사라졌다. 대신 도로는 자동차, 전차, 인력거들로 채워지고 보도에는 오가는 인파가 넘쳐흐르며 가로변의 건물은 하나의 연속적인 스크린이 되어 행인들의 시선을 끌어당긴다.(그림24) 특히 서양 도시의 독점물로만 여겨지던 로터리의 분수, 광장은 그 주변에 병풍처럼 둘러싼 신식 건물들에 의해 일종의 커다란 투시도적인 풍경화를 행인에게 선사한다.



(그림 24) 1930년대 경성역에서 바라본 남대문통 풍경, 박태원의 글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조선은행 앞의 선은광장이다. 이 두 곳에는 경성을 대표하는 조선은행 경성우체국, 미즈코시 백화점 등 강한 상징성을 띤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서구적 가로 경관의 모습을 점차 갖추어갔다. 그리고 이 장소는 정치적 공간이었던 총독부 주변의 거리와 더불어 경제, 상업, 소비의 중심으로써 각인되었다.



삼풍(三風)의 대결

근대 시기 개별 건축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것은 비단 경성부 중구에만 국한된 일은 아닐 것이다. 전통건축은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일본인에 의해 주도된 화양, 즉 일본건축이 전통건축의 자리를 잠식해가는 한편 서양에서 수입된 양풍건축이 또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마치 서로 결투를 벌이듯이 도심의 공간을 메워갔다.(그림 25)

이러한 건축에서 삼풍의 대결은 주거건축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수공업적 제품인 한옥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반 수공업적 제품으로 전환되어 이른바 집장수집, 또는 개량한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개량한옥은 여전히 시대를 풍미하는 권력가와 기업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주거건축에서 벌어지는 양상을 한동진의 『경성탐정록』에 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정원의 한쪽 끝에 세워진 양옥집, 그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꿈꾸고 동경하는 전형적인 문화주택이었다. 본채는 남쪽을 향해 머리를 돌린 높고 넓은 2층집, 뒤에 붙은 별채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아담한 단층 건물이었다. 외벽은 바깥 담장과 같은 색깔의 벽돌이었고 지붕에 청기와를 얹었다. 본채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마루를 깔 거실과 다다미를 깔 안방이 보였다. 양식과 한식과 일식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모양새는 어쩌면 오늘날 조선의 형세와 흡사했다.

이러한 공간의 갈등은 일본인 다카하마코시의 “조선”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한옥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모습과 바뀔 수 없는 사람의 습속을 이중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소위 상류층의 한인 주택으로 대문을 들어가서 다시 중문으로 들어가고 또 돌계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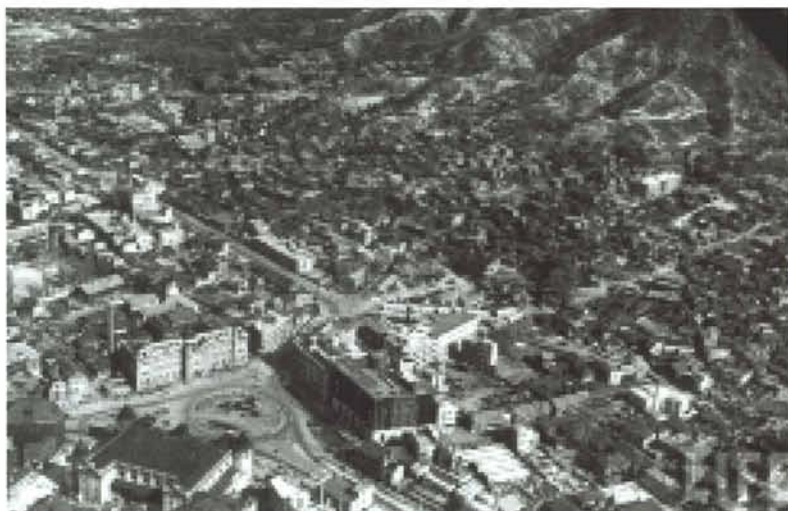
올라가서 거기 있는 응접실 같은 테이블 위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인삼차를 마시기도 하고 또 일본차를 마시기도 했다. 이 응접실은 원래 조선에서는 대청이라고 해서 가장 큰 공간으로 연회를 할 때에 상용된다는 것을 지금의 주인이 서양식 응접실로 만들었다고 했다-아내의 이야기에 의하면 부인의 거처는 일본식 다다미를 깔고 꽃으로 장식된 차 서랍 등 일본 물건으로 꾸며놓고 세 명의 아이들 방도 일본식이었다고 했다-하지만 대문, 중문의 좌우에 있는 여러 방에는 한복을 입은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긴 곰방대를 피우며 떼 지어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시 시대를 앞서가는 길은 아마도 일본식 주택을 닮는 것으로는 부족했고 무작정 양풍을 모방하여 따라 가는 것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광수는 『무정』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김장로의 서재는 양식으로 되었다. 그가 일찍 미국공사로 갔다 와서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서양식 생활을 하려 한다.

방바닥에는 붉은 모란 무늬가 있는 모전을 깔고 사벽에는 화액에 넣은 그림을 걸었다. 그림은 대개 종교화다.....김장로는 방을 서양식으로 꾸밀뿐더러 옷도 양복을 많이 입고 잘 때에도 서양식 침상에서 잔다. 그는 서양, 그 중에도 미국을 존경한다. 그래서 모든 것에 서양을 본받으려 한다. 그는 과연 이십여 년 서양을 본받았다.

(그림 25) 1945년의 사진이지만 일제 강점기 남산자락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일식주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미국 Life 잡지 소장)



여기서 잠깐 조선일보사출판부에서 간행한 1939년 3월호 『여성』이란 잡지에 설샘이란 필명으로 실린 “문화주택”이란 제목의 시를 하나 살펴보자.

벽에서 으르렁대는 족자범이
 호올로 낮을 직히는 房
 窓에 기어든 별이
 房마루 毛席 후에 어른대다 가고
 靜寂에 잠긴 이 집은
 다뭇 潤나는 廊下 미끄러운 마루 짱에
 지날 때마다 소리 곱게 잘울곤 하였다.
 소란한 거리 아름다운 建物들이
 멀-니 눈 아래에 전개되어
 한손에 쥐일듯이 高臺의 베란다
 이 住宅主人 文化人은
 때가곰 藤椅子를 이리로 끌고나와
 따스한 별을 쏘이며 沈想하기를 즐긴단다
 오오 아름다운 저 피아노소리에
 어느 平和한 房
 어여쁜 少女가 듣는 陶醉曲이뇨
 어느 平和한 房
 어여쁜 少女가 듣는 陶醉曲이뇨
 己卯正月二日

높이 마련된 베란다와 베란단에 등나무를 가지고 나와 따사로운 별을 쏘이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장면으로 문화주택의 단면을 묘사하고 있다. 문화주택은 단순히 베란다라고 하고 이질적인 요소로 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시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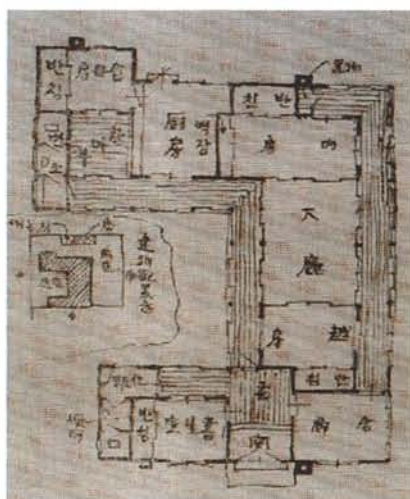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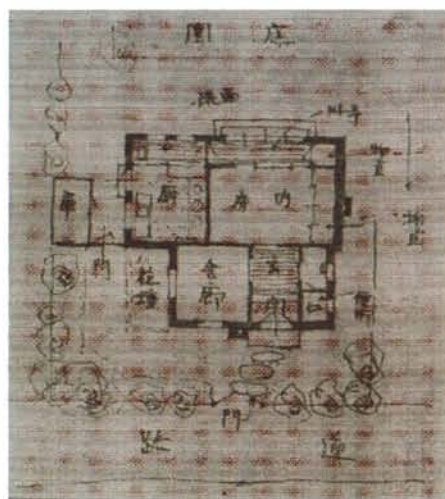
하지만 문화주택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이 시대의 모든 주택문화를 주도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사회문제에 가장 민감했던 신문사 기자의 눈에 비친 문화주택과 재래주택 즉, 전통주택의 갈등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그 대신 문화주택은 경제적이지 못되어 수선에 비용이 많이 먹고 잘 설비를 못하면 겨울에 춥다. 요컨대 자기의 취미, 경제적, 가족의 처지에 맞아 선택할 것이지만 집장사가 종래의 가옥을 많이 짓는 것을 보면 아직 종래의 가옥이 일반의 환영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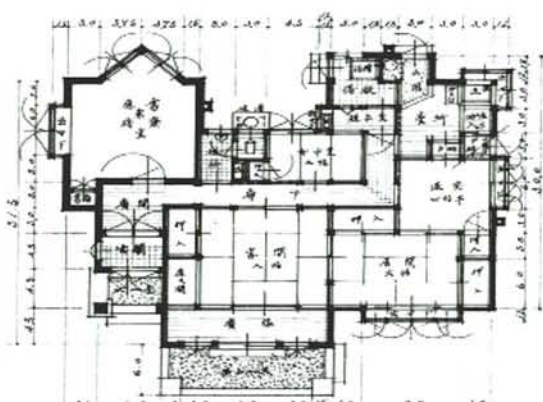
이 글은 조선일보사출판부에서 발간한 1938년 9월호 『여성』이란 잡지에 함상훈이란 기자가 “조선가정생활제도의 검토”라는 제목으로 쓴 것이다. 이것을 통해 여전히 주택문화의 주류는 전통주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전통주택은 전적으로 과거의 것이 아니라 당시 부단히 개선이 되어 가고 있던 개량 한옥이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기왕에 개량 한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자. 1930년대가 되면 조선의 생활개선과 주거문화에 대한 반성의 글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 가운데 글로써 뿐만 아니라 실제 도면을 통해 다양한 주택개량안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박길룡이다. 그는 조선의 주택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장산사(獎産社)에서 발행한 『실생활(實生活)』이나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朝鮮)』 등의 잡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택개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잡지에 소개된 도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전통주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부엌이나 식당, 화장실, 출입구 등의 부분에서는 일본 주택이나 서구 주택의 요소를 채용하고 변화를 주는 한편, 전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인 온돌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그림26)

한편, 도심지의 택지난으로 중구에서는 1931년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의 주도로 신당동과 장충동을 중심으로 주택지 개발이 이루어졌다.(그림27) 신당동은 3만여평에 이르는 대규모의 주택지가 개발되었고 장충동은 대형필지로 구획되어 분양한 고급주택지가 들어섰다. 이들 지역에는 앞서 한동진의 소설에 나오듯 문화주택이라는 것이 들어서 새로운 도시주거건축을 주도해 갔다.



(그림26) 조선총독부 간행 잡지 『조선』 (1928년 10월)과 장산사 간행 잡지 『실생활』 (1932년 2월)에 실린 박길룡의 개량주택의 실례로써 두 안모두 전통주택의 평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림27) 1930년대 개발된 신당동 주택지에 들어선 문화주택의 전경과 평면도

그 가운데 장충동 주택지는 지금도 여전히 고급주택지로 남아 있으며 그다지 어렵지 않게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이라는 당시 간행된 건축잡지에까지 소개되었던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살았던 집이다.(그림28) 물론 내부는 상당 부분 개조가 되어 과거의 평면이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담장과 필지는 여전히 건축 당시의 당당함을 잃지 않고 있다.



(그림28) 위쪽 사진은 당시 장충동에 조성된 고급주택지의 일부로 한 눈에 보아도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축대는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 일대는 현재 대부분 삼성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아랫쪽은 신당동 주택지에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당시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사택 모습으로 장충동에 비해서 규모가 작았다.



노면과 노변의 혁명

근대 도시화의 길로 접어든 서울에는 서양식 건물이 들어서고 반듯하게 정비된 도로에 전차와 자동차가 요란하게 질주하였다. 낯선 외국인들이 거리를 활보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집결한 일종의 박람회이자 백화점으로 탈바꿈하였다. 근대 도시는 강렬한 음향과 색채를 동원하였고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문화를 좀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 오감의 촉수를 뻗는다.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짝반짝 전기등이 켜졌다. 전차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회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 울리는 나막신 소리가 합하여 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쫘삭하게 들린다.

“도회의 소리!” 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 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그 나라가 잘 된다.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 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실로 현대의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다. 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종로나 남대문통에 서서 서로 말소리 아니 들리리만큼 문명의 소리가 요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쌍하다. 서울 장안에 사는 삼십여 만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이 소리의 뜻을 모른다. 또 이 소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네는 아 소리를 들을 줄을 알고 듣고 기뻐할 줄을 알고 마침내 제 손으로 이 소리를 내도록 되어야 한다.

이광수의 『무정』에 나오는 내용으로 과거 질퍽한 노면에서 속도감 없이 한가로이 거닐던 그런 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불과 얼마 전 조선을 찾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묘사한 진흙탕 길에 분료 냄새로 진동을 하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면의 혁명과 더불어 노변의 혁명도 가속화 되었다. 노변의 혁명에 대하여 『조선』이라는 기행문에 가까운 소설에서 다카하마 코시(高濱虛子)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경성의 남대문에 도착한 것은 밤 무렵이었다. 영등포에 정차하고 쓸쓸한 정거장을 통과해 온 나는 경성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신했는데 눈부신 전등 빛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남대문에 도착해 보니 과연 식민지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전등이 빛을 발하고 있었고 게다가 송영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여행객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다.

소리와 빛으로 대변되는 당시 노변과 노면의 혁명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도시민들에게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더욱 강하게 받아드리게 했다. 진고개라고 불릴 정도로 질퍽한 흙길은 평탄하고 시커먼 아스팔트로 대체되었고 칠흙처럼 캄캄해 감히 나돌아 다니지 못했던 거리는 휘황찬란한 색색가지 전등의 불빛이 과거의 기억을 서서히 잠식해 갔다. 여기에 생활의 리듬이 빨라지면서 속도에 대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그 결과, 지금의 노면은 빠른 이동을 위한 단순한 통로의 공간으로 바뀌었고 넘쳐나는 차량의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것은 노변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양한 형태의 가로등과 가로수, 휴지통, 안내판 등 각종 거리의 가구들이 줄지어 서 있으며 오가는 행인을 멈추게 하는 노점상들이 한 쪽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나무, 버드나무 일색의 가로수들이 점차 사라지고 우리의 고유 수종인 소나무가 대거 이식되기 시작하면서 도시경관의 새로운 모습을 제공한다.



중구속의 또 다른 중구

시간이 갈수록 중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성의 경제, 문화, 소비의 중심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중구의 서쪽 끝에는 경성의 이색지대가 하나의 핵심구역을 이루고 있었다. 원래는 구한말 권력의 중심지이자 몰락하는 제국의 마지막 몸부림¹ 처절하게 느껴지던 곳으로 이제는 총독부, 경성부청사와 더불어 경성법원이 자리 잡아 통치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일본 이외의 외국 풍물이 넘쳐흐르는 장소가 되었다. 박태원은 이 지역에서 느껴지는 소회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올라가는 전차는 아직 있어도 내려가는 전차는 이미 끊어졌다. 태평통 쪽을 향하여 정동 골목을 터덜터덜 내려오던 노동자는 건국문 앞에까지 와서—그냥 건국문 하면 아는 이가 드물 게다. 대한문 앞에서 덕수궁 돌담을 끼고 정동 골목을 쭉욱 들어가노라면 아 니 경성지방법원 맞은편 쪽에 있는 것은 용강문, 거기까지 가지 말고 바른편에는 전등 안 달린 전신주 그 사이에 음침하게 울적하게 닫혀 있는 문이 바로 건국문이다. 노동자는 그 앞까지 가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바른손 검지로 바른편 콧방울을 누르고 히, 오른편 콧방울을 누르고 히히 다음에 손바닥으로 코밑을 훔치고 그것을 전등 안 달린 전신주에다 쓰윽 문지르고 나서 이번에는 뒤통하고 보기 좋게 가래침까지 뱉었다...건국문 바른편에 서 있는 전신주에 달린 전등도 또 그 맞은편으로 훨씬 이 아래 중추원의 외등도, 그 경성지방법원 분실 정문 앞 한 구획을 어둠에서 구할 수는 없었다.

반면 일본인의 눈에 비친 이 지역은 한가로이 산책하며 이색체험을 하는 그런 장소로 그려지고 있다.

봄 밤 같은 느낌이 드는 저녁이었다. 달은 종루에 높이 걸려 있고 작은 초롱불을 든 조선인이 의관을 차려입은 채로 인력거를 끌고 있었고 장옷의 파란 소매 속에서 흰 분칠한 여자가 흰 얼굴을 드러내놓고 걷고 있었다. 나는 고오조와 홍씨 두 사람과 같이 덕수궁

옆에서 각국 영사관-이전의 공사관- 주변을 산책하고 나서 지금 종로 거리로 나온 것이다. 고오조와 홍씨 두 사람은 덕수궁의 높은 담벼락을 올려 보기도 하고 포플러가 무성한 각국 영사관의 기와지붕을 바라보기도 하고 포플러가 무성한 각국 영사관의 기와지붕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민비사건에 대한 정변을 이야기했다.

다카하마 료시(高濱虛子)의 『조선』에 언급된 정동의 모습은 지극히 목가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미 권력을 잃은 채 비워져 있을 덕수궁도 높은 담장에 가려 실체를 잃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향후 조선의 운명을 바꿀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신문화가 유입되어 뿌리를 내리는 산실로서 그런 운명의 땅이었다. 그것은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활짝 만개되었고 정동교회 역시 한 몫을 단단히 했다.

이곳은 지금도 서울은 물론 중구의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근대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가의 누적된 모습을 가장 잘 남기고 있으며 세계를 향해 중구를 알리는 문화와 외교, 교육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명동성당,

도시경관의 새로운 중심축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도시를 상징하는 구심점이 존재한다. 처음부터 고층의 시각적 초점이 없던 경성은 주변의 산을 제외하면 도심 어느 곳에서든지 인지되는 경복궁 근정전이 이탈리아 도시의 구심점인 두오모(DUOMO)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1898년 종현에 천주교 성당이 준공되면서 그 양상은 달라졌다. 이제 두 개의 경관축이 생겨난 것이다.

본래 종현성당의 터는 1만여평의 광대한 땅으로 외무대신 조병식(趙秉式) 씨가 별장을 두고 봄에는 꽃을, 여름에는 달을, 가을에는 단풍을 보기 위해 1년에 몇 차례씩 다니는 유락지였다고 한다. 당시 천주교 신부 코스트는 이 땅의 높고 웅장함을 탐내어 조병식과 교섭하여 한 평에 120전 정도를 주고 사들여 천주교 성당을 지었다. 그러나 당시 경성에는 벽돌과 양회는 물론 건축도구조차 제대로 없어 중국 상해로 사람을 보내 중국인 목공과 석공, 노동자를 초빙하는 한편, 경성역 부근에 땅을 파서 코스트 신부가 고안한 방법으로 벽돌을 구워 조달하였다.

종현성당은 6년간 우여곡절의 공사과정을 거쳐 1898년 완성되었으며 낙성식에는 조병식을 위시하여 정부의 고관들과 각국 외교사절, 장안의 명사들 다수가 모여 성대한 예식을 거행하였다. 종현성당이 준공되고 나자 시민들은 창천을 찌르는 종각을 보고 송곳처럼 뾰족하다 하여 “뾰족집” 이라고 불렀으며 천주당이나 성당보다 더 친숙한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곧 바로 경성 제1의 고층건물로 자리매김을 하여 그 왕좌를 수십년간 유지하였다. 조선일보사출판부에서 간행한 잡지 『조광』 1937년 7월호에는 “경성 제일의 고지건축(高地建築), 종현 천주교당의 성자(聖姿)” 라는 제하로 다음과 같이 명동성당의 위상을 묘사하고 있다.

인왕산두에 아침빛이 서리기도 전에 전 경성 육십만 시민의 고막을 울리는 은은한 종성(鍾聲)을 들을 수 있다. 그 유량(劉亮)한 종성! 그 종소리는 형언할 수 없는 무상감 또

는 베토벤의 장엄 미사곡 같은 장엄미를 우리에게 준다. 남산과 억개를 나란히 하여 창공을 노리는 거구의 괴물! 북한산에서 바람에 등실 몰려오는 구름 쫓아 머리로 부빌듯한 종현 천주교당은 경성의 명물이다. 그리고 교당의 종소리는 육십만 시민의 경성종(警醒鍾)이다. 남대문에서 차를 타고 조금 드려오면 경성을 동에서 서로 북으로 어데를 가든지 그 건물을 잘 볼 수가 있다.

종현성당은 이처럼 종로의 종각 종소리를 대신하여 경성 도시민을 깨우는 소리의 구심점이자 경복궁 근정전을 대신한 시각적인 초점이 되어 세상이 변하고 경성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그림29)

이 보다 한 해 전에 간행된 가톨릭청년사의 『가톨릭청년』 1936년 11월호의 내용 역시 종현성당의 탁월한 입지선택을 찬양하고 있다.

경성의 명소로 또는 조선의 명소로 신자, 미신자를 물론하고 누구나 다 아는 종현성당은 언제던지 그 웅자를 경성 중앙 높은 곳에 뚜렷히 보이고 있다.....옛 경성 즉 근물이 빈약하고 인구가 희소할 때에도 처음 경성에 온 사람은 남대문 근처에서부터 이 종현성당의 고식 근물을 보기는 하지만 경성 시가를 몇주(周)던지 하면서도 하로 종일 종현성당 구내에 드려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만큼 종현성당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훌륭한 증명이 된다.

또 한 번 종현성당 구내에 드려와 경성 시가를 바라본 사람은 이 성당이 경성 한 중앙에 있음으로 한 폭의 그림같이 시가를 조감할 수 있다. 즉 종현성당의 위치는 전망적으로도 훌륭하다. 또 경성의 인구가 급작스러히 많아진 이 때는 신선한 대기와 자연의미를 찾아 시외로 주택을 옮기고 있을 만큼 시내의 공기는 대판같은 공업도시보다는 나스나 그리 좋지는 않다.

그러나 종현성당 구내는 춘하추동을 물론하고 언제던지 신선한 대기가 충만하고 있다. 더구나 봄과 여름을 맞이한 때의 아침 저녁의 대기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신선하다.

종현성당은 경관적으로 볼 때 경성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조차 신선한 청정 지역으로 인식되는 종교적인 성지가 되어갔다.



(그림 29) 1930년대 명동성당의 전경(〈조선지리풍속〉, 동경, 신광당, 1930)과 현재의 모습

해가 인왕산 마루턱에 걸렸다. 종로 전세대 그림자가 길게 가로누웠다. 종현 천주교당 뽕죽탑의 유리창이 석양을 반사하여 불길같이 번쩍거린다. 두부장수의 ‘두부나 비지드령’ 하는 소리도 이제는 아니 들리게 되고 집집에는 앞뒷문을 활짝 열어 놓고 한 손으로 땀을 씻어 가며 저녁밥을 먹는다.

북악의 황토가 가로쓰는 햇빛을 받아 빨간빛을 발하고 경복궁 어원 늪은 나무 수풀에는 저녁 까치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 종일 빨갳게 달았던 기왓장이 한강으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을 받아 뜨거운 입김을 후끈후끈하게 토한다.

이것은 이광수의 『무정』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는 저녁 노을빛에 의해 드러나는 경성의 도시공간을 인왕산과 북악(즉, 백악), 그리고 종현성당이 형성하는 삼각축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실 종현성당이 터를 정해지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고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입지선택에 탁월한 안목을 가졌던 조선인의 머릿속에는 이같은 구도를 이미 예견했을 것이다.

공간지배의 권력을 양분하는 듯한 종현성당이 궁극적으로 완성된 것은 실로

대단한 종교적 승리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리고 힘을 잃은 하나의 축을 대치하며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써 일본이 독주하는 경성의 과속을 묵묵히 지켜보며 암묵적인 견제세력을 유지하였다.

당시 종현성당 구내에는 성당을 중심으로 여러 건물이 속속 들어섰다. 정면 오른쪽에는 경성의 중등학교와 전문학교 또는 경성제대에 있는 신자학생들으로써 희망자만을 수용하는 성가기숙사(聖家寄宿舍), 경성 가톨릭학우회 회관, 주교관 등이 자리 잡았으며 왼편에는 본당신부와 보좌신부의 신부사택, 계성보통학교 구교사(여자부), 종현청년회관, 본당신부 복사택이 세워졌다. 그리고 종현성당 후면에는 오른쪽으로 계성보통학교 신교사(남자부), 일본내지인 교회, 일본내지인측 본당 신부사택, 본사택이 배치되고 왼편으로는 유치원, 수녀원, 여학생기숙사, 계성학원 등의 건물이 있어 전체 평수는 앞서 언급한 대로 만여평을 상회했다.

3-4천명을 수용하는 성당의 내부의 정면에는 돌로 만든 제대가 있고 제대 뒤편에는 화가 장발(張勃)이 그린 12사도가 있으며 제대 왼편에 설치된 수녀창가대 벽 위에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조선순교복자의 그림이 걸렸다. 또한 종각 2층에는 당시 조선 유일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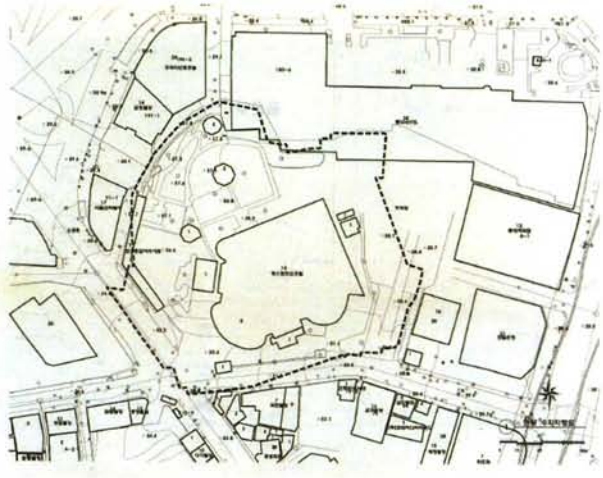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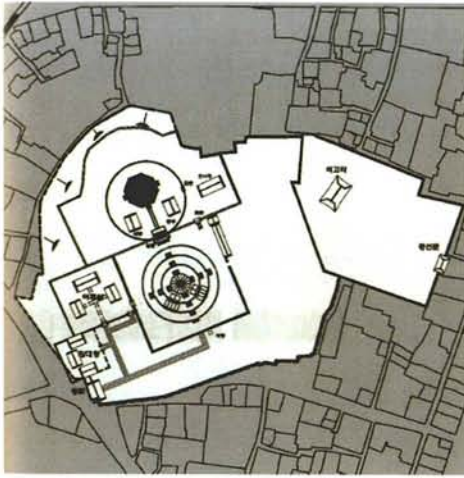
자주독립의 구심점, 환구단과 그 주변

태종의 부마 조대림의 집터로부터 시작되는 남별궁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머문 이래로 중국 사신들의 숙소나 연회장으로 자주 이용되던 곳이었으며 임오군란 이후에는 부임해온 진수당도 이곳에 여장을 풀고 시무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이곳은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상징하던 장소로 여기에 세워진 환구단은 대한제국의 역사상 경운궁과 더불어 중요한 건축물의 하나이다. 특히 시대적 혼란 속에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국가의 유지를 위해 몸부림쳤던 고종의 정치적 실험이 전개된 구심점으로 그 의미는 단순히 대청 사대관계의 종식을 알리는 차원을 넘어 대내외적인 홍보효과도 대단히 높았다.(그림30)



(그림30) 환구단의 전체 전경과 환구 및 황궁우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경운궁으로의 환궁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칭제건원의 상소가 올라오면서 연호를 제정하고 환구단을 건립하여 환구의례를 통해 황제로 즉위했다. 이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만 고종의 의지와는 달리 불과 1달 남짓한 시간에 급속도로 조성된 환구단은 그 속도만큼이나 빨리 훼손되어갔다.



(그림31) 영건 당시를 추정 복원한 환구단의 배치도와 현재의 배치도

고종이 강제로 퇴위 당하고 순종이 즉위한 이듬해인 1908년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국가제례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절차를 과감하게 축소하면서 환구의례는 소멸되었다. 더구나 1913년 철도호텔의 건립으로 제단조차 사라지는 운명에 처함으로써 반일의 상징인 장충단에 박문사가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주권의 변동과 더불어 상징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원래 환구단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던 어제실과 향대청, 황궁우, 전사청, 석고각 등 여러 전각은 환구단의 철거를 필두로 하나 둘씩 이전되거나 철거되어 호텔의 정원으로 전락했으며 현재는 황궁우와 석고, 석난간 일부와 출입문 정도가 남아 있다.

오늘날 환구단 일원은 1967년 신축된 웨스턴 조선호텔을 비롯하여 프레지던트 호텔 롯데호텔 등 현대식 고층건축물에 둘러싸이고 지하주차장, 도로 등에 의해 잠식되어 원대한 국가의 꿈을 접은 채 명들어 있다.(그림32)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인 건축가 테블러가 설계를 한 웨스턴조선호텔의 설계자문이 조선 황실의 후손 이구씨였다는 점이다.

얼마 전에는 도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한다며 인공폭포까지 만들었다가 최근 우이동 그랜드 파크 호텔의 정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옛 환구단의 정문을 발견되자 이를 해체하여 다시 이전을 하고 있다.

사실 이 장소는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과 자주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장소이다. 종묘, 사직이 국가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지만 환구단의 지역 역시 국가의 자존심을 고양시켰던 장소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 프레지던트 호텔 옥상에서 바라본 황궁우와 새로 복원된 환구단 정문



도심을 향해 열린 공간

도심에 세워지는 건물은 자신을 드러내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직상승을 하고 1층의 점유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마련인데 을지로 입구 지하철역에서 명동쪽 출구를 나오면 예상롭지 않은 건물이 하나 서 있다. 교차로의 모퉁이 삼각형 대지를 이용하여 세워진 이 건물의 원래 이름은 서울투자금융 본사 사옥으로 현재는 오퍼스 일레븐(Opus Eleven)이란 상호가 붙어 있다. 선진엔지니어링의 전신인 한양엔지니어링의 설계로 1986년 준공되었는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일약 중구의 명물이 되었다.(그림33)



(그림33) 서울투자금융 전경과 1층의 통로 부분

그 파격적인 설계의 첫 번째는 건축주와 설계자가 대중을 향해 열린 건물이라는 설계원칙에 의기투합하여 우선 가장 비싼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1층의 절반을 양보하여 보행자를 위한 통로로 개방한 것이다. 아마도 이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건물의 좌우로 돌아서 명동으로 들어가는 불편함을 감수했어야 했다. 이와 유사한 형식의 건물로는 홍콩의 중환지역에 있는 홍콩상하이뱅크가 있지만 이 경우는 대중을 위한 배려에 앞서 홍콩 사람들의 광적인 풍수논리가 만들어 낸 것으로 차이가 있다.

대중을 향해 열린 이 건물의 설계원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과감하게 층간의 3개 층을 비워 하나의 공간으로 만든 다음 스카이 플라자(Sky Plaza)라고 명명하고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할 수 있는 장로로 제공하였다. 이 공간은 건물의 외관에서도 인지가 된다. 정면의 중간을 보면 기둥이 여럿 세워진 부분이 보이는데 바로 이곳이 스카이 플라자의 위치이다. 사무소 건물의 중간층에 이같은 전시공간이 있는 건물은 지금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창의적인 발상이었다.

세 번째로는 1층 부분의 개방공간과 연계시켜 통로의 끝에 조각가 윤석원씨의 작품인 마이너 트라이엄프(Minor Triumph)라는 제목의 환경조각을 설치한 것이다. 이 조각작품은 어느 한 가족의 시소 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환희에 찬 가족 구성원들의 박진감 있고 역동적인 동작은 무미건조한 명동의 거리에 시각적인 즐거움을 부여했다.(그림34) 건물 주변에 환경조각을 설치하는 인식이 거의 전무했던 당시로서는 이 역시 새롭고 신선한 시도였다.

이와 더불어 이 건물에서 독특한 모습을 띠고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환기통이다. 일반적으로 환기통은 직사각형의 상자모양으로 만들어져 건물 주변의 빈터에 무의미하게 놓여지고 환기통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풍도 지나가는 행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얼굴을 향해 쏟아 붓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설계자는 건물의 평면과 입면에 대한 설계에 국한되지 않고 사소해 보이는 환기통까지도 조형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했으며 종전의 불합리한 바람의 배출방향까지 사람을 고려한 결과 지금과 같은 환기통이 탄생했다. 건축주 역시 공감대를 갖고 이 부분의 설계비를 부담했다.(그림34)



(그림34) 마이너 트라이엄프라는 제목의 환경조각과 조형미를 고려한 환기통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을 지나가며 별로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건물의 하나로 느껴지는 모르지만 1980년대 후반 서울의 한 복판 중구에 유럽에서나 생각해 보았을 법한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것은 한국현대건축의 변천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고 평가된다.



도시경관 디자인의 리더들

스페인의 빌바오가 건축물 하나로 일약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으며 호주의 시드니라는 지명도를 높이는 것은 다름 아닌 오페라하우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와 도시를 대표하는 것은 대부분 건축물이다. 이처럼 건축물은 그 어떤 것보다 상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중구는 근대시기에 접어들면서 서울에서 가장 먼저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선 곳이며 가장 먼저 고층빌딩이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 서울의 도시형상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공헌을 해 온 중구의 건축물들이 오늘날 또다시 도시디자인의 리더가 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세워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파크이다. 2007년 국제공모전을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작품이 선정되었고, 그 작품은 세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물론 많은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지향적 건축물임에는 틀림없고 그 여파는 대단히 크다.(그림35)



(그림35)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파크의 형상

여기서 잠시 건축가 자하 하디드에 대한 살펴보면 그녀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서 태어났다. 원래 전공은 수학이었으나 영국으로 건너가 건축설계교육의 명문
AA 스쿨을 졸업하고 당대의 저명한 건축가 가운데 한 명인 렘 콜하스 밑에서 일
하며 건축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기존에 지어지지 않았던 특이한 형상의 건축물
을 주로 짓는 그녀는 200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여성
최초로 수상했으며 현재는 오스트리아 빈응용예술대학의 교수로 재직중 이다.

이 첨단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동대문운동장은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 서울
성곽을 허물고 건립한 공설운동장으로 축구장은 2003년 풍물시장 및 주차장으
로 이용되면서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했고, 야구장 또한 시설이 노후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주변 지역이 의류·패션산
업의 중심지로 개발되면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절반인 연간 약 210
만명이 들르는 중요한 관광거점으로 성장해왔으나, 유동인구의 수용 및 활동을
위한 공연, 전시, 휴식공간 등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하여 즐거운 쇼핑공간으로서
필수적인 쾌적한 보행환경이 절실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패션상권의 중심에 위치한 옛 동대문운동장의 기능대체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자문수렴을 거쳐 공원화로 방향을 설정하고 휴식, 녹지,
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동대문디자인파크를 조성하되, 동대문상권의 부활과 높
은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가진 디자인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자인전문종합인
프라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파크를 함께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모두 4천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서울의
도시형상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고 중구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
을 것이다. 또한 공사과정에서는 조선시대 초기의 한양 유적이 속속 발견되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것
도 이 공사로 인한 부수적인 성과였다.

그 결과 21세기의 첨단을 걷는 서울의 삶과 600년 역사 속에 묻혀 있던 한양
의 삶이 하나의 공간으로 융합되어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으로 전환될 것이다.

물론 적지 않은 유적이 다시 묻히거나 제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일
이 있기는 하지만 설계안의 변경과 다양한 전시방법을 통해 600년 전 한양의
소중한 유적은 다시 우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그림36)



아무튼 이 건축물을 통해 중구는 근대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의 도시공간을 주도하는 리더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춤추는 스카이라인

도시에 대한 정의는 그 수량만큼이나 다양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현대 도시를 “선”으로 정의한 것이 있다. 그래서 한 때 “도시는 선이다. 선! 선! 선!”이라고 쓴 표어가 거리의 한 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선으로써 다가오는 도시의 이미지로는 우선 길을 들 수 있고 그 길 위에 그려진 차선에서부터 시작하여 꼬리를 물고 그 위를 달리는 차량의 행렬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약속에 따라 일사불란 하게 움직인다. 이와 더불어 보도를 건너나 차를 타고 가면서 가로변에 늘어선 각양각색의 건물과 간판, 보도블록이 만들어 내는 수직, 수평의 선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도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선들이 경쟁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끈다.

그 가운데 건물의 최상부가 하늘과 서로 맞닿아 이루는 들쭉날쭉한 높낮이의 선을 우리는 스카이라인(Skyline) 또는 천공선(天空線)이라고 부른다. 스카이라인은 도시화와 더불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오늘날 도시화는 범세계적인 추세로 중국의 도시화는 공포스럽기까지 할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니어서 급속한 도시화의 추세에 한반도의 절반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는 19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의 한 복판에서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상을 소개하기 위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던 것이 바로 남산에서 내려다 본 중구 일대의 고층 건축군과 삼일고가도로를 배경으로 우뚝 솟은 삼일빌딩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뉴욕의 맨하튼에 높이의 제한을 거부하듯 경쟁적으로 치솟아 오른 초고층 건축군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또 지향해야 할 도시의 이미지로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본래의 자연 및 지형이 위주로 되어 있었지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건조환경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산지가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특수성 때문으로 도시는 대부분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하며 주위의 산세가 곧 바로 도시의 스

카이라인이었다.(그림37)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시가 자연의 스카이라인에서 인위적인 건조환경의 스카이라인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은 근대의 역사와 문화의 산물로서 이제는 그것이 대세가 되었다.



(그림37) 1904년에 촬영된 서울의 풍경, 주변의 산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인위적인 건조환경을 감싸 안고 있다.(일본 학습원 대학 소장)

하늘을 향한 인류의 소망은 비단 어제, 오늘은 아니다. 최근 세계의 빌딩을 분석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엠포리스(EMPORIS)라는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홍콩, 뉴욕에 이어 세계 제3위의 고층 스카이라인을 가진 도시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20, 30층의 건물은 낯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부러워하던 뉴욕과 어깨를 겨룰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할의 양대 동력을 만들어낸 곳은 강남과 중구이다.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가장 일찍부터 고층건축물이 들어서 도시의 경관을 바꾼 장소가 바로 중구였다. 금융회사와 무역회사의 본사가 자리 잡기 시작한 중구야말로 이러한 건물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중구의 스카이라인은 1960년대 이후 부단히 변화를 해 왔다.

한때, 중구의 스카이라인이 고층화의 가속도를 내다가 제동이 걸린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서울 시내 고층 건물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 21층짜리 대연각 호텔의 1971년 12월 25일 화재였다. 당시 대연각 호텔의 주변은 서울의 고층 건축군이 자리 잡은 중심지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으로까지 중계가 되었고 큰 희생자를 낸 이 화재는 이후 고층으로 변화하는 건축물의 문제점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그림38)

(그림 38) 대연각 호텔의 1971년
12월 25일 화재장면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구에는 속속 고층 건물이 들어서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도심지 재개발이라는 과정이 주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도심 내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하에 저층의 무허가 또는 불량 주거지를 철거하고 대형의 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섰고 그 상당 부분이 중구에서 추진되었다. 을지로, 남대문로, 태평로, 서소문로, 청계천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주변, 회현동, 명동, 무교동, 장교동 일대, 서울역 앞 등 중구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도심지 재개발 사업은 일정 부분의 환경개선과 도시 미관을 바꾸는데 일조를 했다. 하지만 주변의 수려한 자연을 차단하는 장벽을 형성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부작용도 수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역 앞에 들어선 대우빌딩으로 서울역에 내려 남산을 바라보던 옛 정취는 이제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재개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중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서울시는 물론 종로구와 중구의 오랜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세운상가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재개발을 들 수 있다. 종로 3가와 퇴계로 3가 사이에 걸쳐 있는 세운상가는 1968년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획기적인 설계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최첨단 주

상 복합 타운으로 70~80년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국내외 유명 건축설계사무소의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안이 확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아마 이 사업이 완료되면 1968년 종로구의 일부를 포함해서 중구의 동쪽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김수근씨의 야심작 세운상가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이 주변의 스카이라인은 또 한 번 요동을 칠 것이다.(그림39)



(그림39) 1968년 개발 당시의 세운상가(좌)와 재개발 완료 이후의 종로 3가 쪽의 조감도(우)

또 중구의 스카이라인을 이야기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동대문운동장 주변 동대문 관광특구이다. 해방 직후 이 지역에는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 시설, 군부대와 학교 등 대형필지의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 한가로운 도심지 교외의 분위기 그대로였다.(그림40)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월남 피난민의 생활 터전으로 생활필수품과 군용물자·외래품의 암거래를 포함하는 동대문 시장의 번성하면서 인접한 이 지역에는 2-3층 이하의 나즈막한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빈 공간을 메워갔고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무허가 주거지가 형성되어 그야말로 낙후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청계천의 복개와 고가도로의 건설로 이 일대 일부 무허가 주거지가 철거되고 정비가 되었으나 여전히 무질서의 온상이라는 인상은 쉽게 버리지 못했다. 그 후 2003년부터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의 근원적인 해소, 환경 친화적인 도시 공간 조성,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회복, 주변 개

발을 통한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청계천의 복원과 고가도로의 철거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봉제 산업을 기반으로 한 동대문 주변 지역과 연계되어 이 일대는 패션과 쇼핑의 일번지로 새롭게 탈바꿈 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명소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규모가 큰 대형 패션상가들을 위해 지어진 건물들은 이 지역의 스카이라인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다.(그림41)



(그림40) 1945년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풍경, 군부대와 학교 등 대형 필지로 남겨져 있다.



(그림41) 2009년 동대문운동장 발굴현장에서 바라 본 주변의 패션상가 건물군

중구의 이러한 변화는 중심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중구의 주변지역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중구의 남동쪽 경계를 이루는 신당동 일대의 지역은 산 등성이의 경사지를 따라 빼곡히 들어섰던 단독주택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단

독주택 몇 채가 모여 다가구주택 또는 연립주택으로 그 모습을 바꾸더니 다시 고층의 아파트군으로 생경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연출하고 있다.(사진42)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등성이와 나무숲이 하늘과 서로 만나 보여주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은 점점 사라지고 날카로운 기하학적인 직선들이 가로, 세로로 얹히고 얹혀 우리의 시선을 피곤하게 한다.

이러한 아파트군의 등장은 비단 혼란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생산해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기자기한 골목길의 묘미도 함께 빼앗아 갔다. 원림건축, 즉 조경에서 많이 쓰는 수법 가운데 억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수목이나 바위, 담장, 건물 등과 같은 장애물로 잠시 가려 두었다가 갑자기 보여 줌으로써 감정을 고조시키는 수법의 하나이다. 골목길은 억경(抑景), 즉 앞으로 다가올 경관을 한꺼번에 다 노출시키지 않고 살짝 감추었다가 갑자기 드러내는 조경의 수법이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호기심과 신비함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른 아파트군에서 기능이라는 편리함이 강조될 뿐 삶의 흔적이 배어나는 골목의 공간을 찾을 수 없는 아쉬움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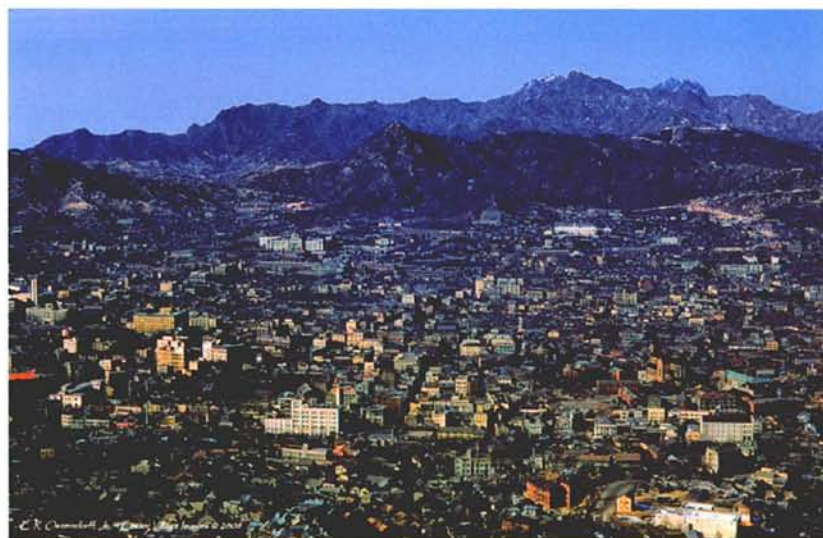


(그림42) 2009년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의 스카이라인, 아파트군이 들어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대조적이며 아파트군은 주변의 자연을 감싸는 병풍이 되었다.

여기서 잠시 (그림 43)와 (그림 44)을 서로 비교해 보자. 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중구가 지닌 스카이라인의 변화는 실로 대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진을 다시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큰 줄기의 산들이 그토록 애써 파헤치고 쌓아 올려 만든 건조환경 속에 의연히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자연은 넘을 수 없는 벽임을 실감하게 된다.

현재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도시 이미지 또는 도시의 정체성(Identity) 확보가 도시 환경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도시 이미지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구 역시 서울의 중심으로서 앞으로도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며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서울의 도시 형성이 600년의 역사와 문화의 소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구의 건축물이 역사와 문화 환경 및 자연환경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층화가 적절한 지역과 저층으로 보존되어야 할 지역 등으로 건축물 높이의 계획적 관리가 아쉽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시가 처해 있는 입지조건을 한 번 더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우리의 선현들은 집 지을 때, 집짓는 시간 보다 상지(相地), 즉 땅을 읽고 해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지 않던가. 무턱대고 짓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짓기 전에 중구에서 필요로 하는 이 시점의 스카이라인은 어떤 것인지 유념해 볼 일이다.



(그림 43) 1956년 서울의 전경, 고층 건물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림 44) 2009년 서울 중구 일대의 고층건축군,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변화무쌍하다.



황홀한 빛의 축제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에 머물지 않는다. 때로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스러움의 표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한 국가의 도시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그 나라의 상공에서 위성이 찍은 밤하늘 밝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조도(照度)는 공간의 문명화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지 오래다. 실례로 밤하늘에 찍힌 한반도의 모습에서 남북한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지도에서 읽혀지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도 이러한 조도의 차이를 통해 극명하게 구분된다.(그림45) 그리고 그것은 에너지의 소모와도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한다.



(그림45) 공간의 문명화 정도를 알려주는 밤하늘의 위성사진(좌)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남북한 지역(우)

김승옥은 『서울, 1964년 겨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소설 속에서 서울의 밤거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964년 겨울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오델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

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트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 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예전에 겨울이면 흔히 연상되는 풍경이다. 지금은 이 역시 찾아보기 어려워졌지만 가로등도 변변치 않던 시기, 카바이트 불의 길쭉한 불꽃은 거리의 후미진 구석구석을 간간히 밝히며 지나가는 행인과 취객을 유혹하는 것이 밤거리 빛의 유일한 분출구였다.

밤거리를 밝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의 명물이 바로 1874년 영국의 크룩스가 발명한 네온사인이다. 중구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네온사인은 패션 일번지 명동의 상가와 백화점에도 있었지만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광장으로 나오면 좌측 맞은편 건물면 전체를 장식하던 대형의 네온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전해 주었다. 왜냐하면 밤차를 타고 지방에서 서울에 처음 올라와 말로만 듣던 서울의 화려함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림 46)은 대낮에 찍은 것이라 그 효과가 극명하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채의 건물이 서로 맞붙어 있는 벽면 위에 재봉틀에서부터 시작하여 타이어, 카라멜, 분유 등 각종 공업제품과 식료품을 선전하기 위한 네온사인이 하나로 덩어리로 엉켜 붙어 구성되어 있다. 밤에는 이것들이 색색가지의 현란한 빛을 발하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재봉틀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졌으니 시골에서 촛불이나 희미한 백열등에 만족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비로움은 절로 더해졌을 것이다.

1960년대 서울의 관문에서 명물로 서 있던 이 네온사인이 정확히 언제 철거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 자리에는 현재 연세빌딩이 과거를 잊은 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위풍당당 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림46) 1966년 서울역 맞은 편 빌딩 전면이 온통 네온사인으로 장식되어 있는 모습과 2009년 현재의 모습

네온사인 말고도 첨단과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오늘 갑작스럽게 서울의 밤거리를 요란스럽게 하는 것이 등장했다. 그것은 루미나리에 또는 루비체스 타라고도 하는 빛의 축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천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2003년 10월 1일부터 20일 동안 부천 상동공원에서 열렸던 부천 루미나리에가 처음이며, 이후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열렸다. 2004년부터는 매년 12월말부터 1월말까지 중구 관할의 청계천 및 시청 앞 광장에 조성되어 겨울밤 연인들을 불러 모으는 명소로서 각양각색의 현란한 조명이 밤거리를 수놓는다.

2008년 하이 서울 겨울 축제'의 일환으로 지속되는 이번 겨울 시청 앞 루비체스타는 예년과 달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순백의 서울, 순수의 서울'을 슬로건

으로 대부분의 조명에 전력소모가 적은 LED를 사용, 동양적인 순백색 빛을 은은히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은 윤재석이 쓴 『나의 살던 서울은』이라는 글에서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2008년도 루미체스타의 빛을 동양적인 순백색의 은은한 빛이 밝히는 서울 거리를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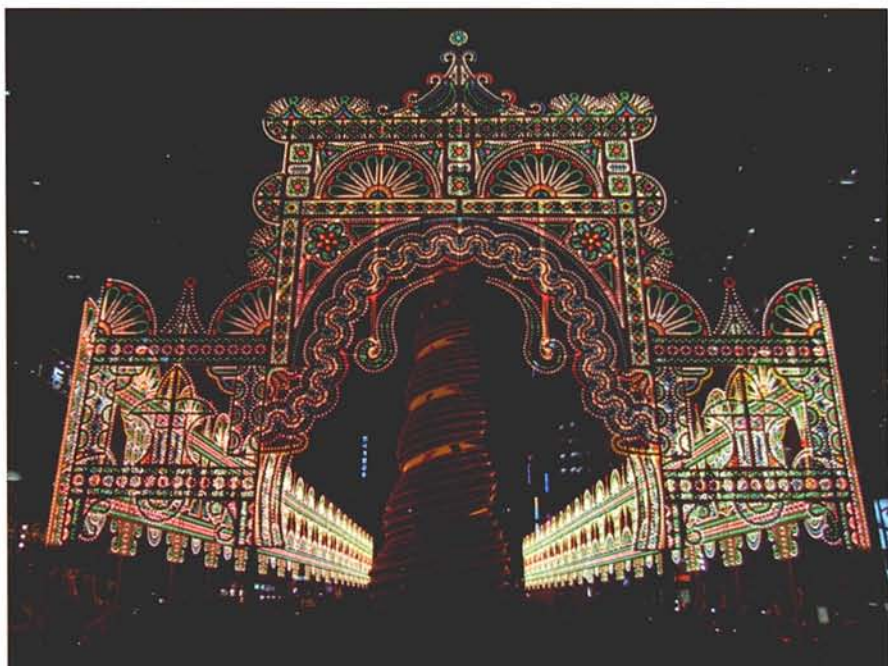
현재 중구에서는 청계천 광장과 시청 광장, 덕수궁 앞 등에서 겨울철마다 하나의 축제로서 루미나리에(LUMINARIE)라고 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것은 조명으로 건축물을 만들거나 치장하는 축제로서 빛의 예술 또는 빛의 조각이라고도 한다.

루미나리에는 르네상스 시대 말기인 16세기에 이탈리아 나폴리 왕국에서 왕가(王家)의 행차를 기념하기 위한 장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유럽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성인(聖人)을 기리고 빛이 가진 정신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종교의식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오늘날에는 색깔과 크기가 다른 전기조명을 이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3차원 빛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루미나리에의 종류에는 곧게 뻗은 도로에 아치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빛의 터널 같이 보이도록 하는 갤러리아(GALLERIA), 평면형 구조물로 원형 마름모형 등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스파리에라(SPALLIERA), 화려함과 웅장함을 표현하기 위해 갤러리아 입구에 설치되는 파사드(FACADE) 등이 있다.



(그림 47) 2004년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루미나리에의 화려한 모습



(그림48) 2006년 청계천 광장에 설치된 루미나리에의 화려한 모습

참고로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 등이 루미나리에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12월 개최되는 일본의 고베 루미나리에가 유명하다.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고베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고베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1995년 12월 처음 개최된 고베 루미나리에는 화려한 대규모 축제로 고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가로

가로는 만남과 소통을 위한 장소이며 사회와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그리고 가로는 일단 차도와 보도로 구분되어 그 경계에는 가로수가 심어지고 가로등이 밤을 밝힌다. 또한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벤치, 휴지통, 정거장, 가판대 등 노변의 시설[이것을 통칭해서 거리의 가구(STREET FURNITURE)라고 함]들이 따라 들어오고 이러한 것들은 가로를 구성하는 하나의 시각적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

조선시대 한양에는 규모의 위계에 따라 가로는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가로망은 하천의 흐름과 그 방향을 함께 하며 발전했다. 그러므로 주요 가로를 제외하고는 직선보다 구불구불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직선으로 곧게 뻗은 가로는 신작로라고 해서 일제 강점기 1930년대를 전후로 실시된 시구개정사업과 함께 등장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의 가로망은 시대가 변화되어도 조선시대의 골격을 크게 흔들지 않고 유지되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일제 강점기 바로크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방사형 가로망의 구축에 대한 계획과 부분적인 실천을 통해 일부 지역에 대한 가로체계가 변하고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도시에는 서구에 서와 같이 광장이 발달하지 않았고 광장문화라는 것이 형성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가로는 골목길에서부터 큰 대로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사람과 차량의 흐름을 위한 통로 이상의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해 왔다. 특히 골목길은 이같은 의미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세상사를 바라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생활의 한 부분이었다. 그것은 가로의 위계가 달라져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현재 서울의 가로는 OO로, OO가, OO길, OO번 골목 등으로 그 위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중구를 구성하는 주요 가로에는 청계로, 을지로, 남대문로, 회현로,

퇴계로, 충무로, 태평로, 서소문로 등을 비롯해서 충무로 O가, 퇴계로 O가, 을지로 O가 등이 있으며 칠패길, 장충단길, 왕십리길, 애오개길, 명동길, 마른내길, 남산길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주요 가로의 대부분은 조선시대부터 개설되어 사용되어 왔던 것이고 퇴계로를 비롯한 태평로, 소공로 등이 일제 강점기 새로 열린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구의 가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입체적인 구조를 가진다. 그것은 주요 가로의 지하에 지하철이 지나감으로써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는 결국 가로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명동길은 이같은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공간의 가로라고 할 수 있다. 이 길에는 일찍부터 그 명성과 역사에 걸맞게 차 없는 거리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거리축제가 정착되었다. 거리축제는 거리문화축제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가 아주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중구에는 패션과 쇼핑의 천국을 추구하는 명동 축제 이외에도 음식을 주제로 삼는 다동·무교동 음식문화축제도 있으며,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과 관련된 충무공 이순신탄생 기념축제, 영화를 주제로 한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거리축제가 벌어지는 문화의 가로가 있다. 또한 가로변의 건물 사이사이에 버려진 자투리 공간 파리공원을 이용한 금요정오음악회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시도로서 먹고 마시는 축제에서 탈피하여 도심에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이다.(그림49)



(그림 49) 2007년 명동 거리축제의 모습(좌)과 2008년 금요정오음악회의 연주모습(우)



생태도심을 위한 첫 걸음

윤재석은 자신의 에세이 『나의 살던 서울은』에서 남산에 올라 “마치 두 겹의 꽃잎으로 감싸인 장미와 같은 형상, 그것이 서울이었다.”라고 하며 자연의 축복을 받은 서울의 풍경을 예찬했다. 그는 또 같은 책에서

누군가 서울은 깊다고 했지만 내가 느끼는 서울의 사계는 그 무엇보다도 각별하다고 자부한다. 그도 그럴 것이 천변만화, 동서고금이 어우러진 서울의 사계는 같은 듯하면서 다르게, 다른 듯하면서 같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으로 윤회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라고 하며 서울이 받은 자연의 혜택을 윤회와 진화로까지 승화시키고 있다. 분명 서울은 그 어느 나라의 도시보다 자연과 가깝고 자연 속에 파묻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중심 중구는 어떠한가? 중구는 북쪽으로 청계천을 경계로 종로구와 맞닿아 있으므로 청계천은 종로의 영역이자 중구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재 청계천은 두 개의 행정구가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사실 서울의 입장에서 보면 청계천 양쪽의 공간은 각기 청계천을 향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크고 작은 실개천이 모여들어 한강으로 흘러가는 배수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구의 남쪽은 남산자락에 기대어 있어 중구의 전체적인 모습은 북향을 한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그래서 남향을 선호하는 우리의 심성이 북향집을 만들어야 하는 고충이 따르는 이 지역에 근대시기 외지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는지도 모른다.

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지기 전 청계천은 자연상태의 하천이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서울의 지리적 특성상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도성 한가운데로 물길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왕조가 도성 안에 있는 수로를

정비하기 전에 이미 자연스럽게 물길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기후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봄·가을에는 건조하고 여름에는 고온다습 했기 때문에 청계천은 비가 적은 봄, 가을은 대부분 말라있는 건천(乾川)이었던 반면,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우기에는 조금만 비가와도 물이 넘쳐 홍수가 날 정도로 건기, 우기에 따라 유량의 변화가 심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청계천은 경성부의 도시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골칫거리 중의 하나였으며 문학가들에게 낭만적인 삶의 소재를 제공하는 주요한 원천이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청계천에 대한 구상으로 제기된 매우 흥미로운 계획안이 하나 있다. 그것은 청계천을 복개하여 도로를 개설하되 그 밑에는 지하철과 지하상가, 도시 공동구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청계천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자는 제안이었다.(그림50) 이것은 1938년에 조선건축회가 발간한 『건축자료형록(建築資料型錄)』이란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데 합자회사인 하수(河手) 시멘트 공업소 대표였던 오오노스테조우(大野捨藏)가 경성의 도시발전을 예측하여 청계천의 장래를 구상해 본 것이다. 그 어떻게 7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1. 차도, 2. 인도, 3. 배수구(높이 3m, 폭 8m), 4. 하수구(높이 1.5m, 폭 2m), 5. 수도, 가스, 전선통(높이 15m, 폭 2m), 6. 지하철(높이 6m, 폭 8m), 7. 소매가로(높이 6m, 폭 6m), 8. 소매가로(높이 6m, 폭 6m), 9. 전주 검 배기통, 10. 절취선(깊이 12m)
(그림50) 청계천의 계획참고도

도시에서 하천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의 기능이고 다음으로는 천변의 풍경을 통해 도시민이 자연과 호흡하며 휴식을 취하는 낭만의 장소로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를 거치면서 도시의 이미지는 자연과는 거리가 먼 인위적인 건조환경의 삭막한 숲이 되어 버렸다. 서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성장의 그늘 속에 서울의 도심 역시 차량이 홍수를 이루는 무미건조한 환경이 지배를 하고 말았다. 게다가 편리함의 추구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구실로 크고 작은 도시의 하천을 메우거나 복개하여 도로로 변화하는 일이 별다른 저항 없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크고 작은 실개천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던 서울 도시의 수계는 완벽하게 해체되어 우리의 가시권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청계천의 복개는 하천 복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복개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고가도로까지 건설하여 이중 삼중의 살벌한, 하지만 당시에는 경제성장의 상징으로써 40년간 자리 매김을 해왔다. 물론 1955년부터 시작된 청계천의 복개와 1971년 완공된 고가도로의 개설은 그 동안 청계천 주변에 판자집의 난립(그림51), 오페수의 문제, 우기 때의 범람 등과 같은 하천의 기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는 하다.(그림52)



(그림51) 1966년 복개 전 청계천변의 무질서한 풍경



(그림 52) 고가도로의 공사 장면(좌)과 준공된 3.1 고가도로의 모습(중), 그리고 서울의 자랑으로 국민학교 종합장 표지(우)에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최근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지속가능 환경, 즉 친환경적인 도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잠재된 도시의 자연성을 발굴하고 사라진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청계천의 복원과 고가도로의 철거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시도된 야심찬 사업이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고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뿐만 아니라 복개된 청계천의 밑바닥에 숨어 있던 조선 600년의 역사, 특히 민중의 생활사가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졸속 복원의 논란도 가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었고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5년 10월 1일 복원된 결과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평가되었다.(그림53)



(그림 53)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청계천(좌)과 준공 이후 물이 흐르는 청계천(우)의 모습

고가도로의 철거를 포함한 청계천의 준공은 환경, 도심산업, 교통 등 여러 가지의 파급효과를 주고 있으며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도시경관의 복원이라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환경의 복원이다.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웠던 도심 내 가로변 경관을 정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는 다른 도로 위에 세워진 고가도로의 철거로까지 이어져 도심 내 적지 않은 고가도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리고 생태환경의 복원은 생태도심을 가꾸는 첫걸음으로 이후 이 역시 다른 실개천의 복원으로 이어졌으며 다른 도시에서도 복원으로 사라진 하천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에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생태도심을 위한 과감한 첫발인 청계천의 복원과 고가도로의 철거는 현재 중구와 종로구가 서로 만나는 접점에서 그 본연의 기능 이외에도 관광의 명소로, 도시민의 휴식처로, 생태체험의 장소로,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문화축제의 무대로서 과거의 역사를 품에 안고 제2의 봄을 맞이하고 있다.(그림54)



(그림54) 2007년 청계천 축제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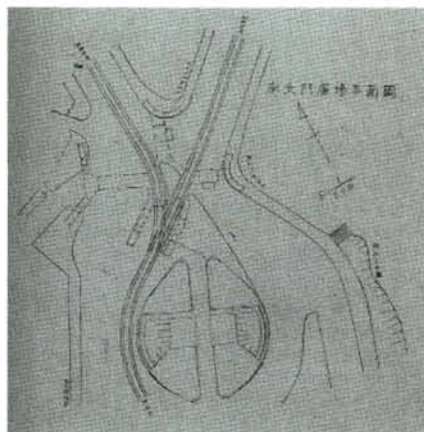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공간

오늘날의 도시는 위로만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도 깊어지고 있다. 그것은 제한된 땅의 면적에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초고층의 빌딩들이 지상의 공간을 하나 둘씩 메워나갈 때 지하의 공간 역시 하루가 다르게 깊이를 달리 하며 연결되고 있다.

중구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 즉, 지하세계가 세 가지 존재한다. 하나는 단순한 통로로서의 지하도이고, 두 번째로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상점이 늘어선 지하상가이며, 세 번째로는 지하철이다. 이것을 지상의 경우로 보면 지하도는 건물 목이요, 지하상가는 노변의 상점에 해당할 것이며, 지하철은 도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순서는 지하세계가 만들어지는 시기와의 일치한다.

먼저 지하도부터 살펴보자.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하도가 탄생된 지역이 바로 중구이다. 경성휘보 253호(1942년 11월)의 기사는 1년여의 공사 끝에 남대문 지하도가 준공되었음을 공사과정은 물론 남대문 광장 평면도와 함께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그림55) 기념비적이고 놀라운 일이다. 한반도에 최초의 지하도가 탄생한 것이다.



(그림 55) 남대문 광장 평면도,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지하도이다.

남대문 지하도의 건설은 교통량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과 전차 통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한편, 안전하게 남대문전차 정거장에 접근을 시키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지하도에는 최첨단의 환기시설과 조명시설도 갖추어졌다. 이 지하도는 현재도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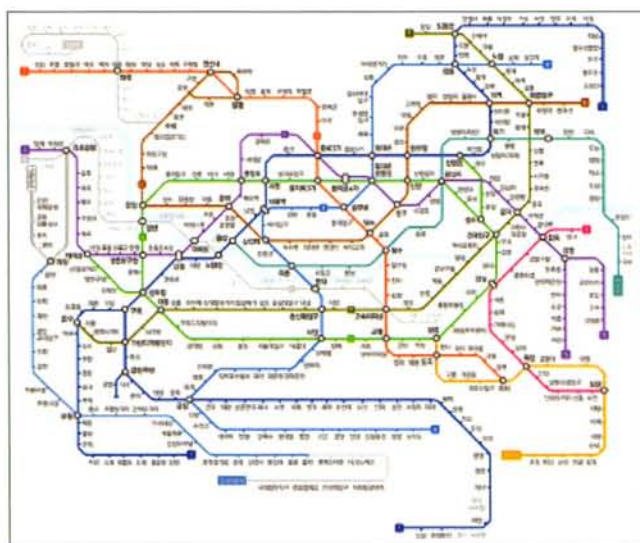
이후 중구의 주요 간선도로 교차 지점에는 의례 지하도가 만들어졌다. 서울역 앞의 지하도가 그러하고 한국은행 앞 지하도, 을지로 입구의 지하도, 시청 앞의 지하도 등등이 비교적 초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쇼핑몰의 개념을 갖는 지하상가도 탄생되었다. 단순한 보행의 통로인 지하도를 연장시켜 일종의 지하거리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공동 지하상가, 남대문 지하상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조선호텔과 플라자 호텔, 프레지던트 호텔 등이 주변에 있어 처음부터 외국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고급 상가로서 명성을 날렸고 후자는 일명 도깨비 시장이라고 하여 수입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가로서 세인들에게 각인을 시켰다. 이 보다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을지로 지하와 명동 앞 남대문로 지하에는 을지로 지하상가와 회현 지하상가가 각각 조성되어 지하철은 물론 주변지역을 연결시키고 있다.(그림56)



(그림 56) 예전의 LP 레코드판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즐비한 회현 지하상가의 모습

물론 당시 지하도의 건설이나 지하상가의 조성은 보행자보다 차량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근자에는 사람 위주의 도시공간을 만든다고 하면서 지하도나 지하상가가 있는 곳에도 보행자 전용 건널목을 지상에 다시 복원하여 지하상가의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중구에서 지하세계의 가장 큰 구심점은 뭐니뭐니 해도 지하철이다. 현재 서울에는 1974년 개통된 1호선으로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9호선까지 건설되었고 중구에는 1호선의 일부를 비롯해서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이 각기 지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구에 가장 많이 걸쳐 있는 노선이 바로 2호선이다.(그림57)



(그림57) 2009년 3월 현재 서울지하철 노선도, 1, 2, 3, 4, 5, 6호선이 중구를 지나간다.

지하철은 대부분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지하도나 지하상가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지하 공간은 지상의 가로변과 마찬가지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각기 원하는 대로 다양한 문화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또 다른 문화공간으로 변신중이다. 특히 환승역이나 교차로에 위치한 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중구에 위치한 지하철 역 가운데는 단연 을지로 입구역이 돋보인다. 이곳에는 노숙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시 좌판을 벌린 노점상은 물론 직업을 잃은 실업자

들, 할 일 없는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들어 시대의 고민을 우리 앞에 펼쳐 놓는다. 그리고 가끔 낯선 이국적인 음악이라도 흘러나오면 모두가 흥에 겨워 삶의 지난한 무게를 잠시 잊고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도 바로 지하공간에서 볼 수 있는 색다른 풍경이다.(그림58)



(그림58) 을지로 입구 역 지하광장에서 연주에 몰두하고 있는 남미에서 온 외국인



제 2부 지나간 흔적 :

1920-30년대 중구 도시건축의 원형



1920-30년대

중구 도시건축의 원형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36년간 건설된 건축의 상황은 오늘날 그다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특히 1920년대, 1930년대는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하여 모던한 문화생활이 전개되었던 시기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공간은 본정통(本町通, 지금의 충무로)이 있던 현재의 서울특별시 중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정통이 있던 당시의 도시 공간에 관한 모습은 대부분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여기서는 조선 건축회가 설립된 1922년부터 1945년까지 24년에 걸쳐 조선건축회가 발행한 월간지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 253권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계획 또는 건설된 건축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 지역 도시건축의 모습을 살펴보았다.(그림1)

조선건축회는 조선 건축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 전문가 단체로써 학술 기관인 동시에 건축의 수준 향상과 보급을 계몽 하는 조직이었다. 따라서 회원은 관공서, 민간회사, 건설회사, 설계 사무소와 연구자는 물론 현장의 기술자까지 폭넓게 구성되었고, 회원은 설립 초기에 약 250명 정도였다. 이 단체의 구체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는 “조선의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답변”을 하기 위한 건축물의 계획과 건설상황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회원들의 기획,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 여러 가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하고 귀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그림1) 조선건축회에서 간행한 월간잡지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의 표지

서울특별시 중구에 지어진 건축물의 리스트는 잡지에 나와 있는 항목 가운데 건축물의 명칭, 건설 연대, 당시의 건설된 위치, 설계자, 시공자, 구조, 계층, 건물 종류에 관한 데이터만을 추출해 일람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건설 시기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것은 '1923년 03월' 처럼 연월을 기술하였으나 건설 시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건축은 '(1923년)' 과 같이 괄호로 표시하여 잡지의 발행년도를 나타냈다.

또한 중구에 지어진 건축물과 직접 관련된 건설업자, 중구에 있던 건설 도급업자 및 각종 건축 공사내지 재료, 자재 업자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선청부연감(朝鮮請負年鑑)』(조선경제일보사, 1935년)과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동아경제시보사편, 1940년)을 자료로 사용했다.

현재의 서울특별시 중구에 포함되는 지역을 일제강점기 당시의 지명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남대문통(南大門通), 태평통(太平通), 정동정(貞洞町), 화천정(和泉町), 의주통(義州通), 죽점정(竹添町) 1정목, 봉래정(蓬萊町), 남미창정(南米倉町), 북미창정(北米倉町), 무교정(武橋町), 장곡천정(長谷川町), 옥정(旭町), 황금정(黃金町), 다옥정(茶屋町), 명치정(明治町), 삼각정(三角町), 남산정(南山町), 본정(本町), 수표정(水標町), 수정(壽町), 영락정(永樂町), 일지출정(日之出町), 입정정(笠井町), 약초정(若草町), 앵정정(櫻井町), 왜성대정(倭城台町), 대화정(大和町), 임정(林町), 화원정(花園町), 주교정(舟橋町), 초음정(初音町), 방산정(芳山町), 병목정(竝木町), 광희정(光熙町), 동사헌정(東四軒町), 서사헌정(西四軒町) 등이다.

월간지 『조선과 건축』을 자료로 한 서울특별시 중구의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계획, 건설된 건축물의 리스트, 건물 종류, 건설 연대, 건설 위치, 설계자, 시공자, 구조, 층수 등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면 현재의 서울특별시 중구가 당시 얼마나 근대 도시생활의 중심적인 존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25년 전후로 경성부청사, 조선 신궁, 총독부, 경성역 등의 주요 도시 건축물이 건설된 이후부터 1920년대 후반 학교, 병원 등의 공공시설이 증가해 감과 동시에 은행, 보험 회사, 사무소 빌딩 등 민간의 규모가 큰 건축물이 잇달아 등장한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 미즈코시(三越), 미나카이(三井)라고 하는 대형 백화점에서부터 나니와관(浪速館) 메이지자(明治座) 코가네자(黄金座), 와카쿠사(若草) 극장, 경성부민관 등의 극장, 영화관이 차례차례로 출현하였으며 1930년대 중반에는 시민들이 도시 생활을 만끽하기 위한 오락, 쇼핑시설이 본정을 중심으로 건설되었고, 근대 도시의 변화가 형성, 발전하였다.

그 가운데 중심지였던 곳은 물론 본정통과, 남대문거리, 태평통이다. 이 선형의 긴 도로 구조에 역 앞의 광장, 남대문 로터리, 조선은행 로터리, 부청사 앞 광장이 넓게 배치되어 그 양쪽 및 주위에 근대적인 기능을 가진 철근 콘크리트 조나 벽돌조의 건축물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인공적인 도시 공간과 대비된 남산의 존재도 간과할 수 없다. 울창하고 숲이 우거진 남산의 자연 속에는 점점이 목조의 종교 건축을 배치하였고 그 기슭에는 일본풍의 고급 요정이나 여관이 자리 잡았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신당리나 장충단 지역에 건축물이 많아진다. 그것은 포화 상태가 된 성벽 안쪽의 공간을 넘어 광희문 밖 동쪽에 새로운 주택지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하나의 건물로부터 시작해 본정통, 남대문거리, 태평통, 황금정 거리, 그리고 남산 지역, 명치정 지역, 장충단 지역 등을 점, 선, 면으로 확대하여 중구 일대를 조감해 보면 그 특색을 잘 살펴 볼 수 있으며 당시 모던한 근대 도시의 공간 구조나 변천까지 드러나고 있어 대단히 흥미롭다.



건축물의 위치

『조선과 건축』에서 소개된 건물 가운데 번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건물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중구에 위치하는 건물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제강점기의 중구 구역을 보면 옛 경성역에서 북쪽의 경복궁으로 향하는 도로와 동서 방향의 본정 및 황금정, 또 이러한 가로들이 교차하는 로터리나 광장 주변에 건물이 조밀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평통에 위치한 경성부청사를 시작으로 하여 공공 건축물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대문 주위나 남대문 거리, 조선은행 앞의 로터리 주변, 장곡천정, 황금정 거리에는 은행이나 신문사 사옥 및 회사가 다수 지어졌다. 본정에는 미츠코시(三越)나 미나카이(三井)라고 하는 백화점들과 카네보(鐘紡) 서비스 스테이션, 모리나가(森永) 캔디 스토어라고 하는 유행의 최첨단을 이끌던 상점이 있다. 남산 및 그 주변에는 조선신궁을 필두로 경성신사, 노기(乃木) 신사, 동본원사(東本願寺), 박문사(博文寺) 등의 종교 건축이 다수 모여 있다. 반면, 남산 기슭에는 큰 요정들이 많이 위치했다. 극장 및 영화관은 키라쿠칸(喜樂館), 아사히자(朝日座), 메이지자(明治座), 코가네자(黃金座), 와카쿠사(若草) 극장 등 대부분 본정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존재한다. 주택은 광희문 성벽 부근의 신당리, 사헌정 등 새롭게 개발된 주택지에 집중된다.



건축물의 수량과 연대

『조선과 건축』에 나와 있는 건물 가운데 한반도 전체에 계획 및 건설된 건물은 모두 2342건에 달하고 경성에 있는 것은 690건이다. 그리고 경성의 690건 중에서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것이 251건이다. 그 숫자는 경성 전체의 약 1/3로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는 건축 전문지가 다룬 당시 건축계의 화제작이 중구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추출된 251건의 건물 정보를 건축 분야별로 보면 공공 건축 20건, 상업 사무소 건축 75건, 운수·창고업 건축 4건, 공장 건축 1건, 병원·사회 복지 시설 건축 7건, 음식·오락시설 건축 13건, 호텔·여관·숙소 건축 4건, 유기장(遊技場)·극장·경기장 건축 29건, 공공시설(탑·다리 등) 7건, 종교 건축 17건, 교육·학술·문화 건축 25건, 주택 45건, 그 밖에 4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수가 많은 것은 역시 상업 사무소 건축이고, 그 다음이 주택, 유기장(遊技場)·극장·경기장이 뒤를 잇는다. 비율로 보면 상업 사무소 건축이 당시 경성 내에 지어진 건축물의 2/3를 차지한다. 종교 건축도 사무소 건축 못지않게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특기할만 한 것은 유기장·극장·경기장도 경성 내에 절반 정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수량과 비율이 적은 것은 공장, 운수·창고업, 호텔·여관·숙소의 건축이다.

건물의 계획·건설 연대를 보면 1924년부터 1941년까지의 건수가 가장 많다. 그 중에서도 1937년이 가장 건수가 많다. 상업 사무소 시설은 다른 해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음식점, 오락, 극장, 학교, 주택은 다른 해에 비해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다. 1932년을 제외하면 1927년부터 1937년까지는 계속해서 많은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1942년 이후는 전쟁의 영향으로, 1건 밖에 볼 수 없다.



건축물의 구조와 층수

구조를 알 수 있는 것은 143건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철근 콘크리트조(RC)가 50건, 철골조가 1건, 벽돌조가 35건, 목조가 17건, 혼합구조가 40건이다. 층수가 판명된 것은 122건으로 단층집 6건 가운데 5건이 주택이다. 2층 건물은 44건으로 벽돌조와 목조, 혼합구조가 많다. 3층 건물도 44건에 이른다. 초등학교의 3층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RC)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3층 건물은 벽돌조가 많다. 4층 건물은 20건, 5층 건물은 7건, 8층 건물은 1건이며 4층 건물에서는 철근 콘크리트조(RC)가 대부분이다. 중구에 존재하는 건축물 가운데 6층 이상의 건물은 황금정에 건설된 8층의 조선빌딩으로 가장 높다. 이 건물이 바로 반도호텔이다.



설계자와 시공자

설계자가 밝혀진 것은 총 108건이다. 설계자를 보면 관청 시설부, 건축설계사무소, 각 회사의 영선부, 크고 작은 건설회사와 개인건축가 등 실로 다양하다. 공공 건축의 설계는 거의 총독부, 경성부, 경기도의 시설부가 맡았다. 규모가 큰 민간건축은 시미즈구미(清水組), 오오쿠라토목(大倉土木), 오오바야시구미(大林組), 도쿄건물(東京建物)이라고 하는 대형 건설회사가 설계, 시공을 맡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 또 타다공무점(多田工務店)도 주택을 중심으로 설계, 시공의 일을 많이 맡았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명치좌, 황금좌, 마루비루회관 등을 설계한 타마다건축사무소(玉田建築事務所)가 눈에 띈다. 지금도 널리 알려진 사무소로는 덕수궁 미술관을 설계했던 나카무라요시헤이건축 사무소(中村與資平建築事務所), 미즈코시를 설계한 미즈코시 설계 사무소, 메이지 제과 판매점을 설계한 대만 총독부 설계자 모리야마마츠노스케사무소(森山松之介事務所), 도쿄 화재보험 주식회사 경성 지점과 쿠사노씨 주택을 설계한 와타나베히토시·오오쿠마 건축사무소(渡邊仁大隈建築事務所), 카네보 경성 서비스 스테이션과 미츠이 물산 주식회사 경성 지점을 설계한 요코가와 공무점, 그리고 신당정의 윤씨주택을 설계한 박길룡건축사무소 등이 있다. 개인으로서는 조선일보사를 설계한 박동진, 조선신궁·박문사를 설계한 이토츠타(伊東忠太), 경성 기독교 회당을 설계한 루카스, 성공회 성당을 설계한 S·지크손처럼 잘 알려진 이름이 있다. 이와 더불어 1935년 11월에 발행된 『조선청부연감』에 의하면 당시 경성에는 설계도급자가 15명 있다. 이 가운데 중구에 있던 설계 감독 시공도급자는 10명이다. 각각의 상호 및 대표자, 영업종목, 주소는 다음과 같다.

(표1)설계감독시공 도급자 목록

상호	대표자	영업종목	주소
京城工務所	細江爲太郎	設計監督	初音町 209
川澤建築事務所	川澤道正	設計監督	本町 2-48
	中島猛矣	設計監督	黄金町 3-103
	關谷長之助	設計監督	東四軒町 48
	加藤幹雄	設計監督	竹添町 3-29
玉田建築事務所	玉田橘治	設計監督	明治町 2-13
	竹内茂市	設計監督	明治町 2-30
	石田征四郎	設計施工	黄金町 4-285
岩瀬工務所	岩瀬虎松	設計施工	竹添町 2-69
藤澤工務店	藤澤英雄	設計施工	並木町 178

설계 감독이 7명, 설계 시공이 3명이다. 상호를 내걸고 있는 것이 5개, 대표자 명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 또한 5개로 각각 반반씩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극장 건축을 많이 다룬 명치정 2정목의 타마다 건축사무소이다.

시공자가 밝혀진 것은 총 112건이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은 타다공무점으로 21건이며, 그 중 절반이 주택이다. 시공뿐만 아니고 설계와 시공 모두에서 폭넓게 활약하고 있다. 그 외에는 오오쿠라조, 시미즈구미, 하자마구미, 오오바야시구미, 동경건물, 동아공업 등 전후의 일본을 대표하는 큰 건축회사의 이름이 보이는 것 역시 큰 특징이다. 특히 시미즈구미는 대형 건축물에서부터 주택에 이르기까지 설계, 시공을 많이 하고 있다. 다만 가장 일찍 조선에 진출했던 카시마조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다. 1935년 11월에 발행된 『조선청부 연감』(조선경제일보사)을 이용해 리스트에 나오는 건설회사의 경력을 조사해 보면 업자는 총 42건이며, 이 중 1935년의 『조선청부연감』에 나오는 회사는 20건이다. 각각의 회사의 약력을 살펴보면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 매우 흥미롭다.

1. 주식회사 오오바야시구미

오오바야시구미는 오오바야시 요시고로씨가 1893년 창설한 것이 전신으로, 1936년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공사 경력에 의하면 조선에서의 일은 1912년 철도원의 공사가 최초이다. 1941년의 경성 지점장은 카와이 테이이치로우. 지배인 등 중에 조선 도시계획에 관계한 나카무라 토라지조의 이름도 볼 수 있다.

자본금 : 500만원

영업종목 : 토목 건축 청부, 직공 인부의 공급, 건축재료 그 외 물품 판매 및 상
행위의 대리. 토목 건축 및 토지 건물에 관련하는 사업의 투자 또는 경영.

본점 : 大阪市東 京橋3丁目 7 5区

경성 출장소 : 경성부 남대문동 2정목 1, 그 밖에 해외는 대련, 신경, 심양

2. 합자회사 시미즈구미

시미즈구미는 1868년 이전의 조업이며, 1915년에 회사를 개조하여 합자회사로
했다. 초기의 서양식 건축인 츠키지 호텔관이나 제일 은행 본점을 다루는 등 시
대의 대표적인 공사를 다루었다. 공사 경력에 의하면 조선에도 1908년에 조선
은행, 1909년에 용산 총독관저, 1913년 조선 호텔, 1916년 총독부 등 대표적인
건축물의 계약이 차례차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금 : 3백만엔

영업종목 : 토목 건축 청부 동부대 사업

본점 : 東京市京橋區南鞘町14

경성 지점 : 경성부 황금정 1정목 101, 그 외 해외는 대련, 타이베이

3. 주식회사 하자마구미

하자마구미는 1890년 하자마타케마씨의 조업에 의해, 이 후 1904년에 조선
및 중국에 그 사업을 확장하는 것과 동시에, 경성에 영업소를 개설했다. 1917년
합자회사 조직으로 변경해, 1931년에는 주식회사로 고쳐 오사카, 시모노세키,
경성의 각 영업소에 지점을 두어 각종 대표적인 공사의 도급에 종사했다. 최초
의 조선에서의 공사는 1905년의 경부철도교량공사이다. 당초는 철도, 하천, 전
기등의 기간 토목공사가 중심이었지만, 그 후 학교나 주택 등의 건축공사들도
취급하게 된다.

자본금 : 2백만엔

영업종목 : 토목 건축 그 외 공사의 청부 및 수탁, 토목 건축용 재료 및 기계 기
기 그 외의 물품 공급 판매 및 운반 직공 인부의 공급,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매
매, 전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

본점 : 東京市赤坂區青山南町1丁目1番地

지점 : 경성부 한강동 11번지, 그 밖에 오사카, 시모노세키

4. 오오쿠라토목 주식회사

大倉토목 주식회사는 오오쿠라키하치로(大倉喜八郎)가 1887년 일본 토목 회사로 창설, 1883년 오오쿠라토목조라고 개칭하여, 그 후도 오오쿠라구미(大倉組), 오오쿠라토목조, 일본 토목 주식회사로, 1924년 오오쿠라토목 주식회사라고 개칭했다. 공사 경력에 의하면 1914년의 함경북도 철도 공사가 최초이다.

자본금 : 2백만엔

영업종목 : 토목 건축공사 청부 수탁, 제재료 판매 및 운송 사업

본점 : 東京市京橋區銀座2丁目2-9

경성 출장소 : 경성부 대화정1-44

5. 니시모토구미

西本組는 니시모토켄지로(西本健次郎)씨가, 1888년 조부 삼대의 토목 건축 청부업을 계승해, 개인경영을 해 왔지만, 1934년에 합자회사로 변경했다.

조선으로의 최초의 일은 1905년의 총독부경의선용산공사가 인정된다.

건축에서는 1927년의 조선질소의 사택 및 숙소가 빠른 시기이다.

자본금 : 1백만엔

영업종목 : 토목 건축공사 청부, 설계 감독, 노무 공급, 위탁 공사 경영, 제반사업 투자, 동부대 업무

본점 : 和歌山市小野町3丁目30

경성 지점 : 경성부 약초정 106번지

6. 미키합자회사(코데라구미)

三木합자회사는 전신이 코데라구미(小寺組)이다. 코데라타다유키(小寺忠行)씨의 창설에 의해 출발해, 1929년 합자회사의 조직으로 변경하는 것과 동시에 상호도 코데라구미로부터 미키합자회사로 개칭했다. 그리고 조선내에 4개의 출장소를 마련했다. 조선신궁축조부지토공사, 경성부청사, 경성부민관등 저명한 건축을 다수 다루고 있다.

자본금 : 50만엔

본점 : 경성부죽점정 2정목 101번지

출장소 : 청진, 나진, 부산, 경북예천

7. 경성 토목 합자회사

경성 토목 합자회사는 1929년 설립과 동시에 건설한 경영을 계속해 새롭게 진출한 회사로서는 단연 빼어나게 사업을 전개하였다.

자본금 : 50만엔

영업종목 : 토목 건축, 측량 설계, 노력 공급, 석재 공급 청부, 지정 관청은 조선 내각 관청 및 만주철도(지방부, 철도부)

본점 : 경성부 도림동 144

지점 출장소 : 신의주, 춘천, 이리, 나진, 청진, 그 외 중국

8. 합자회사 나가토구미

나가토구미(長門組)는 고토오에이조오(五島營藏)가 1900년에 개인 조직으로 창업하여, 그 후 1915년 합자회사 조직으로 변경했다. 철도, 수리, 질소, 관공청의 토목과 건축의 일들을 폭넓게 넓혀 갔다.

자본금 : 50만엔

영업종목 : 토목 건축 청부업, 동부대 업무

본점 : 경성부 한강통 16번지 11

출장소 : 진남포, 나진, 신경, 대련

9. 합자회사 타다공무점

타다(多田)공무점은 1915년 타다준자부로(多田順三郎)씨가 창설한 이후 1929년에 합자회사 조직으로 변경하였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1920년의 한일 은행 본점, 1927년의 경성 신사, 1928년의 미나카이백화점, 1929년에는 미츠코시백화점, 1930년의 명치좌, 미쿠니아파트, 1932년의 경성남자고등초등학교, 그 밖에 미츠이물산 지점장 사택과 다른 민간 사택과 주택 및 관공청의 관사를 조선에서 다수 다루고 있다.

자본금 : 30만엔

영업종목 : 토목 건축 청부, 설계 감독 감정, 토지 건물 경영 매매 감정, 토목 건축재료 매매, 동부대 업무

본점 : 경성부 태평통 1정목 40번지

지점 : 신경

10. 동아공업주식회사(전신은 하나조노공무소)

동아공업주식회사는 1928년 창립했다. 사장인 하나조노사키치(花園佐吉)씨는 1920년 건축 설계 청부 하나조노공무소를 설립했지만 그 업무 모두도 1932년에 동아공업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다. 1922년의 조선은행삼판통합숙소외, 경성일보외 은행, 관공청, 개인 주택등 폭넓게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본금 : 30만엔

영업종목 : 토목 건축 청부, 석면 시멘트 그 외를 원료로 하는 공사용 재료의 제조

본점 : 경성부 경정 11

11. 합자회사 오우미구미

오우미구미는 오우미즈네키치(近江常吉)가 1890년에 고향 토야마현에서 개인경영으로 창설했다. 1905년 조선으로 건너가 조선 및 만주의 청부에 종사해, 1923년 이후는 조선내의 청부를 전문적으로 했다. 1932년 합자회사로 변경했다.

자본금 : 30만엔

영업종목 : 토목 건축 청부, 동부대 업무

본점 : 경성부 원정1정목 1

출장소 : 평양부, 원산부, 대전, 개성부, 신경, 심양

12. 합자회사 사토구미

사토구미는 1906년 사토구마타로(佐藤熊太郎)씨의 창업으로, 1929년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자본금 : 10만엔

영업종목 : 토목 건축 청부, 동부대 업무

본점 : 경성부 육정 2정목 51

13. 합자회사 이마오카조

이마오카조는 이마오카쿠마노스케(今岡熊之介)씨가 1914년에 개인 조직으로서 조업을 개시해, 경기도, 이왕직, 경성부, 총독부, 체신국 등의 제관청부터 시작하여 각 군, 마을, 은행, 회사, 공공단체등의 청부에 종사해, 1931년에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 함과 동시에 종래의 업무 모두를 계승했다.

자본금 ; 2만 2천엔

영업종목 : 토목 건축 청부, 동부대 업무

본점 : 경성부 임정 34

14. 이쿠타구미

이쿠타구미의 이쿠타마츠타로오(生田松太郎氏)씨는 1910년 이래, 개인경영 조직으로 창업해, 주로 건축공사 청부에 종사해, 총독부, 경기도 등의 지정 청부인이었다. 또 동시에 건축재료상을 같이했다.

본점 : 경성부 약초정 54

15. 카와라다 공무소

카와라다 공무소의 주인인 카와라다로쿠로우(瓦田六郎)씨는 후쿠오카현의 출신으로, 1929년 조선으로 건너와, 경성 에나미구미에 들어갔고 2년 후에 그만두고, 개인경영 조직의 카와라다 공무소를 창업했다. 이왕직의 일과 개인 주택이 많다.

본점 : 경성부 초음정 3

16. 야마다구미(야마다토쿠지)

야마다토쿠지(山田徳治)씨는 쿠마모토현 출신으로 1901년 조업하였고, 1911년 조선으로 건너와서 주로 조선의 각 관청, 회사 은행등의 건축공사를 하청받는다.

본점 : 경성부 약초정 140번지

17. 히메노구미

히메노구미 히메노사네타로(姫野實太郎)씨는 오이타현 출신으로 1918년에 개인경영 조직의 건축 청부를 창업했다. 주택이나 셋집의 신축 공사가 많다.

본점 : 황금정 3정목 344번지

18. 후지사와 공작소

후지사와공무점 후지사와히데오(藤澤秀雄)씨는 오이타현 출신으로 1924년에 오이타 공업 고교를 졸업 하고 경성부 영선계에 근무해, 1929년 나와 1932년에 독립하여 개인 공무점을 창업했다. 일은 학교, 극장, 의원등의 소규모의 증축 개축이 많다.

본점 : 경성부 병목정 178번지

19. 미야모토구미(미야모토타스케)

미야모토구미 미야모토타스케(宮本太助)씨는 카가와현 출신으로, 1912년 조선에 건너와 토목 건축 청부업에 종사하다가 1917년에 독립하여 미야모토구미를 창설했다. 총독부, 경기도, 회사, 개인과 폭넓게 관련되고 있다. 마루이치오복점, 상업은행출장소, 본정3정목집회소등 본정의 일도 많다.

본점 : 경성부 임정 190-1

20. 나카지마구미

나카지마구미 나카지마나오키치(中島直吉)씨는 시즈오카현 출신으로, 1906년 시키구미에 입사 후 곧바로 조선으로 건너와서, 지배인으로서 청부에 종사하였고, 그 뒤 1925년에 독립해 개인경영의 조직을 창업해, 철도국, 경기도등의 지정 업자로서 관련이 많은 일을 다룬다.

본점 : 경성부 영락정 1정목 5번지

출장소 ; 평양부 팔천대정 14번지

함북 혜산선 백암역전

21. 키시구미

키시구미 키시토키치(岸藤吉)씨는 시마네현의 출신으로 1912년에 조선에 건너와, 하마무라구미, 코스기구미, 카후쿠구미(荷福組)의 대리인으로서 총독부, 조선군 그 외 제관청의 공사에 종사해, 1921년에 독립했다.

본점 : 경성부 황금정 7정목 8

22. 사사키구미(사사키야스노스케)

사사키야스노스케(佐佐木安之助)씨는 오이타현 출신으로 1917년 이래 개인경영으로 토목 건축 청부를 실시하고 있다. 청계천의 공사나 학교 공사를 많이 다루고 있다.

본점 : 경성부 황금정 4정목 193

다음으로 조선청부연감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회사를 1940년 발행의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동아경제시보사)을 자료로서 이하의 7개의 회사가 나와 있다. 그 중의 4개의 회사는 경성이 아닌 지방 업자이며, 부산이 2개사, 평양이 1개사, 함흥이 1개사이다.

23. 동경건물주식회사

동사는 조합 조직으로 경영해 온 사업을 1897년에 주식회사로 한다. 그 후 야스다가 이것을 계승해, 천진에 지점을 마련했다. 1910년에 경성에 출장소를 마련해 부동산사업을 개시했다. 그 후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취급했다. 전쟁 전 중국에서도 활발히 활약한 회사로서 잘 알려져 있다.

자본 : (1437만 5천엔)

영업종목 : 부동산 및 유가증권 담보 대출, 부동산의 매매 임대 및 그 중개, 부동산에 관한 평가 감정 및 조사, 토목 건축 및 그 청부 설계 및 감독, 부동산의 관리 처분 그 외 대리 업무, 각종 기업에 대한 투자, 전등의 공급 전기 공작물 및 토목 건축재료의 제조 판매, 그러한 사업에 부수 하는 업무

본점 : 東京市日本橋區吳服橋 3丁目 7 - 3

지점 : 경성부 황금정 2정목 55, 그 외 천진, 요코하마 출장소는 한코우(漢口), 청도

24. 에나미구미

주인은 에나미테츠지(江波鐵次), 설립은 1927년이다.

자본금 : (2만 5천엔)

영업종목 : 토목 건축의 청부 및 설계 감리 사업, 토지 건물의 경리 사업, 이상으로 부대하는 사업

본점 : 경성부 병목정 75

25. 후카보리공무점(深堀工務店)

1923년 설립

자본금 : (2만원)

영업종목 : 토목 건축 청부, 공사 재료 판매

본점 : 경성부 황금정 4정목 22

26. 나카가와구미(中川組)

1930년 설립.

자본금 : (10만원)

영업종목 : 철도 도로 수리 관개 전기 항만 그 외 일반의 토목 건축공사의 작업 및 노무의 청부, 경영.측량 설계, 토목 건축에 필요로 하는 재료의 운반 공급, 또 거기에 부수 하는 업무.

본점 : 함흥부 서양리 92

27. 합자회사 테라오구미(寺尾組)

1928년 설립.

자본금 : (3만원)

영업종목 : 토목 건축 청부업 및 거기에 관련하는 부대 업무

본점 : 평양부 천정 4

28. 다나카구미(田中組)

1935년 설립

자본금 : (10만원)

영업종목 : 토목 건축 청부업

본점 : 부산부 초량정 82

29. 모리타구미(森田組)

1938년 설립

자본금 : (5만원)

영업종목 : 토목 건축공사의 청부, 설계 및 감독, 노동력의 공급 및 물품의 납입, 그것들에 부대하는 업무

본점 : 부산부 좌천정 1007

1935년의 『조선청부연감』에 나오는 경성의 건축 청부업자는 전부 102개 회사이다. 이 안에는 자본금의 백만원을 넘는 것으로부터 개인 사업주까지 다양하다. 이 102개 회사의 건축 업자 중 약 과반수인 50여개의 회사가 중구에 있었으며 한강통까지 포함하면 건설회사의 대부분이 이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업자의 규모는 1935년의 자본금을 조사해 보면 50개 업자 중 19개 회사가 자본금을 가진 회사이며, 나머지의 31개의 회사가 개인경영이다. 자본금이 큰 것은 오오바야시구미(大林組) 5백만엔, 시미즈구미(清水組) 3백만엔, 오오쿠라토목(大倉土木) 2백만엔, 제니타카구미(錢高組) · 니시마츠구미(西松組) 150만엔의 순서가 된다. 이 5개 회사는 모두 일본에 본사를 두었으며, 전쟁 이후, 일본을 대표하는 종합 건설업자가 되었다. 최초로 조선에 진출한 회사는 한강통에 위치하는 카지마토목(鹿島土木)이었지만, 이러한 5개 회사와 카지마와 같이 건축은 물론, 토목 사업도 폭넓게 청부를 맡고 있었다. 이 5개의 회사에 이어 아가와구미(阿川組)와 니시모토구미(西本組) 2개의 회사가 각각 백만엔, 타니구치구미(谷口組) 75만엔, 시키공업(志岐工業) · 코에이구미(高營組) · 나카무라구미(中村組) · 미키구미(三木組) · 미야케구미(三宅組) 이 5개 회사가 각각 50만엔, 타다공무점(多田工務店) 30만엔, 고토오공업(後藤工業) 22만엔, 이시다구

미(石田組) 20만엔, 사토오구미(佐藤組) 10만엔, 이마오카구미(今岡組) 2만2천엔, 모로토공무소(諸戸工務所) 1만엔 그리고, 당시의 경성에 저명한 업자의 이름이 뒤를 잇고 있다. 니시모토구미(西本組)는 와카야마에 본사가 있는 3대째 이어지는 오래된 곳이다. 아가와구미(阿川組)의 아가와시게오(阿川重郎)는 동경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1901년에 창업을 하였다. 지사가 성진, 나진 외에 중국에도 있었다. 시기공업(志岐工業)의 시기신타로(志岐信太郎)는 대련,新京(新京)에도 출장소를 가지는 조선 청부업계의 연장자이다. 미키합자회사(三木合資會社)의 전신은 경성 부청사 등 주요한 건축을 많이 다룬 코데라구미(小寺組)이다. 1900년 전후 창업을 개시한 업자가 10개 정도 있다. 또 1930년대에 창업한 업자는 카와라다공무소(瓦田工務所), 나가노구미(長野組), 후지사와공무점(藤澤工務店), 무라카미구미(村上菊組) 등의 몇 개 회사 밖에 없고, 이 지역에는 역사가 있는 업자가 많다. 개인업자는 황금정, 병목정, 초음정 등 도시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위치한다. 대표자들의 출신지는 큐슈, 산인산요오(山陰山陽)와 오사카보다 남부지방이 압도적으로 많고 도쿄 등 동부지역의 출신자는 적다. 일본인 이외의 업자로는 정동의 복음건축창(福音建築廠) 하나 뿐이다.

(표2) 일제강점기 중구에 위치한 건축청부업자 목록

번호	상호	주소	업종	대표자	자본금	창업연대
1	合資會社清水組	黃金町1-101	종합건설업	清水釘吉	300만엔	1804
2	株式會社三宅組	東西軒町 35	토목건축청부, 설계감독, 공사재료매매 및 운반업, 부동산의 취득이용	三宅孫太郎	50만엔	1894
3	藤田組	黃金町 5-8	지정 청부업자	藤田幸二郎	—	1900
4	合名會社阿川組	旭町 1-181	건축토목사업청부, 건축재료제조판매, 측량설계감독, 부대공사	阿川重郎	100만엔	1901
5	合資會社高榮組	櫻井町1-170	토목건축토지개척, 수리계감독공사청부, 농업경영, 토공용 건축자재매매 및 부대사업	高榮正雄	50만엔	1902 (1925년 경성 이전)
6	合資會社西本組	若草町 106	토목건축청부, 설계감독, 노동력공급 및 부대공사일반	西本健次郎	100만엔	1904
7	織田工務所	本町 4-20	건축청부	織田常藏	—	1905
8	合資會社佐藤組	旭町 2-51	토목건축청부, 부대업무	佐藤熊田郎	10만엔	1905
9	日の丸組	明治町 2-15	토목건축청부, 석재채취매매	吉永文吉	—	1906
10	金子文吉	本町 2-34	토목건축청부	金子文吉	—	1906
11	竹田組	黃金町 6-17	관청의 지정 청부인	竹田政吉	—	1908 (1916년 경성 이전)
12	古谷組	若草町 106	전매국 경성부의 지정 청부인	古谷小谷之助	—	1909
13	生田組	若草町 54	건축공사청부	生田松次郎	—	1910
14	岡部商會	光熙町 1-84	하청	岡部總太郎	—	1910
15	合資會社谷口組	南太平通 5-74	토목건축공사, 설계 및 감독 등의 청부	谷口小次郎	75만엔	1910
16	山田組	若草町 140	토목건축청부, 석재채취판매	山田德治	—	1911
17	和田健造	櫻井町 2-135	관청의 지정청부인	和田健造	—	1913
18	村上(久)組	北米倉町 93	토목건축청부	村上久一	—	1914

19	合資會社今岡組	林町 34	토목건축청부, 부대업무일체	今岡雄之介	2.2만엔	1914
20	大倉土木株式會社	大和町 1-44	종합건설업	京城出張所	200만엔	(1914)
21	合資會社石田組	舟橋町 318	토목건축청부, 부대업무일체	石田定次郎	20만엔	1915
22	合資會社多田工務店	太平通 1-40	토목건축청부, 설계감독감정, 토지건물경영매매감정, 토목건축재료매매 및 부대업무	多田順三郎	30만엔	1915
23	矢部組	花園町 10	토목건축청부	矢部興太郎	-	1916
24	宮本組	林町 190-1	토목건축청부	宮本太助	-	1917
25	佐佐木組	黄金町 4-193	개인토목건축청부	佐佐木安之助	-	1917
26	姫野組	黄金町 3-344	개인토목건축청부	姫野寶太郎	-	1918
27	合資會社中村組	竹添町 3-185	토목건축청부, 설계감독, 노동력공급 및 부대공사	中村繁作	50만엔	1921
28	岸組	黄金町 7-8	모든 관청 민간공사 청부	岸登吉		1921
29	井形組	櫻井町 1-127	토목건축청부 및 부대업무일체	井形九八	-	1922
30	中島組	永樂町 1-5	철도국지정 청부인	中島直吉	-	1925
31	市東組	義州通 1-32	개인토목건축청부	市東邦三	-	1925
32	合資會社西松組	南大門通 2-10	종합건설업	西松光治郎	150만엔	1925
33	合資會社諸戸工務所	林町 251	토목건축청부 및 부대업무	諸戸繁藏	1만엔	1925
34	後藤工業合資會社	永樂町 2-7	철도국지정 청부인	後藤辰雄	22만엔	1928
35	三木合資會社	竹添町 2-101	토목건축청부, 설계감독 및 부대업무	中村留作	50만엔	1929
36	村上(菊)組	竝木町 182	건축공사청부	村上菊一郎	-	1931
37	瓦田工務所	初音町 3	건축청부	瓦田六朗	-	1931
38	株式會社大林組	南大門通 2-1	종합건설업	京城出張所	500만엔	(1931)
39	長野組	西四軒町 2	개인토목건축청부	長野政章	-	1932
40	藤澤工務店	竝木町 178	개인토목건축청부	藤澤秀雄	-	1932

41	志岐工業株式會社	日之出町 13	토목건축공사청부, 설계감독, 사재료판매, 노동력 공급 부대업무	志岐信太郎	50만엔	1932
42	株式會社錢高組	竹添町 2-65	종합건설업	錢高作太郎	150만엔	1934
43	磯田三津二	林町	경성부청부업자	磯田三津二	—	—
44	内海組	初音町 200	경성부청부업자	内海悅治	—	—
45	岡本三郎	本町 3-13	경성부청부업자	岡本三郎	—	—
46	山田政次郎	黄金町 3-264	경성부청부업자	山田政次郎	—	—
47	山本新作	旭町 1-10	경성부청부업자	山本新作	—	—
48	小岩鐵爾	大和町 1-56	경성부청부업자	小岩鐵爾	—	—
49	荒谷庄太郎	北米倉町 142	경성부청부업자	荒谷庄太郎	—	—
50	三浦喜久彦	新堂里 340	경성부청부업자	三浦喜久彦	—	—
51	福音建築廠	貞洞 26	경성부청부업자	—	—	—

1935년의 『조선청부 연감』을 근거로 당시의 건축 각종 공사 및 재료 자재 업자표를 살펴보면 경성의 업자는 453명인데 이 중에는 자본금의 백만원을 넘는 것으로부터 개인 사업주까지 다양하다. 이 453명의 건축 각종 공사 및 재료 자재 업자 중 60%정도가 지금의 중구에 가게가 있었다. 여기에 고시정, 강기정, 원정 등의 한강통을 포함하면 그 대부분이 이 두 개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경영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물론 대부분 일본인이지만, 조선인 업자가 17명, 다른 외국인 업자도 2명이나 있다. 가장 많은 것이 기계 공구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35명이다. 그 다음에 다다미 재료, 다다미 청부, 및 재목 제재가 모두 18명, 전기 및 전기공사가 16명, 유리가 15명, 석유 소매도 15명, 표구 청부, 미장이 청부, 건축 철물이 모두 14명, 페인트 및 도장의 13명 창호의 12명 등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기계류는 역시 남대문 거리와 태평통의 대로변에 많다. 또 본정에는 다다미집, 표구가게라고 하는 생활과 밀접한 직종이 많다.



(그림2) 일제강점기 황금정이라고 불리던 을지로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건축자재상이 밀집되어 있다. 사진은 을지로 2가 가로변 상가의 모습이다.



(그림3) 을지로 2가부터 5가를 거닐 다 보면 조명기구, 철물, 타일, 주방기기, 위생도기 건축과 관련 자재는 거의 대부분 만날 수 있다.

건축 철물상은 경성의 15건 중 14건이 중구에 있고, 반수 이상이 본정에 있었다. 창호가계는 행정정, 황금정에 많다. 또 황금정에는 재목상도 많았다. 그 밖에 봉래정에는 철강상이 5개나 모여 있던 것이 눈에 띈다. 반대로 중구에 적은 건축업자는 역시, 벽돌 제조나 돌, 자갈 업자이다. 다다미나 재목의 장사는 보이지 않지만, 창호, 표구, 철물, 위생설비 등 1930년대와 현재의 중구 지역 내의 건축재료나 각종 공사 업자가 장소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주 흥미롭다.

(표3)중구에 위치한 건축 관련 각종 공사 및 재료, 자재 업자표

공사종목	상호	영업소	영업종목	대표자
방수공사	穴原商店出張所	明治町 2-107	시멘트 방수	奥津鐵也
	石田建築材料店	黄金町 2-148	시멘트 방수	上田清
시멘트 가공	片山工業部	義州通 1-149	시멘트 가공	片山群三
	合資會社河手工業所	黄金町 5-32	시멘트 공사	大野捨藏
	七島工業社	新町 17	독일 블록	田中敬吉
아스팔트 및 포장	穴原商店出張所	明治町 2-107	판매, 시공	奥津鐵也
	辰巳商事會社	南大門通 2-1	판매	永岡惠
	日本石油會社販賣所	本町 1-53	판매, 시공	中村楠太郎
	日本ビチュウマルス	南大門通 齊藤빌딩	판매, 시공	白石明治
	三菱商事	南大門通 2-5	판매	大久保繁雄
난방, 위생, 수도 공사	旭商會	永樂町 2-34	청부판매	渡邊岩吉
	旭暖房商會	太平通 2-21	청부판매	田飼軍治
	合資會社芳賀工務所	黄金町 2-35	청부판매	芳賀豊吉
	東口商會	黄金町 2-21	청부판매	東口近
	杉山製作所	竹添町	청부판매	杉山久
	佐藤徳二郎	本町 3-46	청부	佐藤徳二郎
	大倉商事株式會社	大和町 1-44	청부판매	久保信次郎
	川上式暖房	櫻井町 1-140	페치가	木田豊
	榮電社出張所	黄金町 2-134	청부	加藤洗治
電機 및 電氣 공사	株式會社弘電社出張所	黄金町 2-1195	청부	松本貞吉
	越田電氣商會	本町 1-48	청부판매	越田彌三郎
	島田商會出張所	大和町 1-56	청부판매	島田常雄
	中村電氣商會	大和町 2-10	청부	中村劉太
	野邑工業所	黄金町 3-139	청부판매	野邑藤吉
	原井商會	黄金町 3-241	청부판매	原井穠休
	古河電氣工業所	南大門通 5-1	판매	井上侮夫
	三村電氣商會	旭町 1-21	청부판매	三村清治
	山口電氣工務所	明治町 1-47	청부판매	山口茂
	森電氣商會	黄金町 1-21	청부판매	森安一
	加藤商會	黄金町 2-200	청부판매	山田鈴太郎
	山田電氣商店	和泉町 20	청부판매	山田織一
	三和電氣土木工事會社	太平通 2-207	청부	田中源藏
	川北電氣商事會社出張所	太平通 2-207	판매	佐野義雄
	黒野電氣工務所	北米倉町 93	청부	黒野正太郎
左官請負	志和柳丙衛	南米倉町 174	-	志和柳丙衛
	廣谷 穰	南米倉町 277	-	廣谷穰
	大下菊次	西小門町 59	-	大下菊次
	夏目育治	黄金町 4-149	-	夏目育治

	富田増太	旭町 2-10	-	富田増太
	山下左官請負部	初音町 17	-	山下隆市
	高田太一郎	若草町 98	건축재료	高田太一郎
	中岡一	櫻井町 1-15	-	中岡一
	關勝太郎	黃金町	-	關勝太郎
	神吉瞭太郎	旭町 1-92	-	神吉瞭太郎
	楢屋徳市	太平通 1029	건축청부	楢屋徳市
	大坂甚三郎	太平通 2	-	大坂甚三郎
	片山群三	義州通 1-14	건축청부 시멘트 가공	片山群三
	市山三次	舟橋町 168	-	市山三次
페인트 및 도장청부	井上 페인트部	新堂里 236	청부	井上謙三郎
	井村秀太郎	若草町 52	청부	井村秀太郎
	石井興一	本町 2-45	청부	石井興一
	岩見常一	本町 2-35	板硝子	岩見常一
	堀田商會	南大門通 2-28	오리엔탈 페인트	堀田又三郎
	沖永京城支店	黃金町 4-261	알콜	沖永晟
	漢城 페인트 商會	太平通 2-58	청부	金基徳
	國行商店	明治町 2-12	청부도로	國行互輔
	三洋 페인트 社	蓬萊町 1-156	청부	韓相龍
	武内嶺治	若草町 43	청부	武内嶺治
	東亞 페인트 製造會社	南大門通 5-1	도로안료	井上敏夫
	日本 페인트	黃金町 2-113	일본 페인트	和田壽夫
	松尾商會	永樂町 2-60	청부도로	松尾幸助
	立花鐵工所	光熙町 1-145	-	立花龜太郎
철공소	合資會社上田鐵工所	黃金町 5-268	-	上田源松
	堀田鐵工所	光熙町 1-187	-	増井次郎吉
	北村鐵工所	黃金町 2-18	-	北村市治
	池田金網店	黃金町 2-42	청부판매	池田 八 死
金網 가공	合資會社銅直網店	蓬萊町 4-11	청부판매	銅直幸男
	合資會社銅直網店販賣部	南大門通 2-125	청부판매	銅直幸男
	洪明浩金網商店	蓬萊町 1-134	판매	洪明浩
	青木由松	黃金町 4-158	-	青木由松
建具 (건축자재)	梅崎清吉	黃金町 1-23	-	梅崎清吉
	尾島作次郎	櫻井町 2-151	指物	尾島作次郎
	太田桂	櫻井町 2-65	-	太田桂
	小島商店	本町 4-133	簞笥	小島秀次郎
	齋藤喜代次	黃金町 2-199	-	齋藤喜代次
	下林貞一	黃金町 4-28	-	下林貞一

	陶山兼太郎	本町 4-6	—	陶山兼太郎
	田口建具工場	櫻井町 2-229	—	田口佐久馬
	田口建具店	櫻井町 2-135	—	田口鶴男
	柳原磯一	若草町 60	—	松本浅一
	柳原磯一	壽町 38	—	柳原磯一
鉚力鋳工 (철물)	荒谷庄太郎	北米倉町 142	鐵業	荒谷庄太郎
	岩井康平	本町 73	鉚力鋳工	岩井康平
	神吉信夫	旭町 1-195	鉚力鋳工	神吉信夫
	木村吾平	明治町 2-25	鉚力鋳工	木村吾平
	佐竹小太郎	明治町 2-42	鉚力鋳工	佐竹小太郎
疊(다다미) 材料및 請負	樹村疊店	旭町 1-195	청부	樹村?
	加藤佐太郎	明治町 2-5	청부	加藤佐太郎
	金崎仁三郎	黄金町 3-282	청부, 疊表	金崎仁三郎
	倉橋支店	明治町 2-42	청부, 疊表	出來靜一
	倉田篤太郎	太平通 2-54	청부, 疊表	倉田篤太郎
	隈元喜藏	南米倉町 166	청부	隈元喜藏
	黒木廣吉	義州通 1-49	청부	黒木廣吉
	國家疊店	黄金町 3-29	청부, 疊表	國家來松
	田中疊店	太平通 2-280	청부	田中淺次郎
	鷹取虎次郎	本町 2-78	청부	鷹取虎次郎
	二宮商店	旭町 3-13	청부	二宮勇
	沼茂平	黄金町 4-187	청부	沼茂平
	平田疊店	若草町 80	청부	平田源平
	平野疊商店	壽町 34	청부	平野兼松
	藤山疊店	黄金町 3-120	청부	藤山増吉
	福原京城支店	黄金町 2-130	疊表	福原司吉
	松本疊店	本町 4-31	청부	松本喜一郎
	横井疊商店	南大門通 2-125	청부	横井誠一
	綱島久藏	本町 2-55	—	綱島久藏
	荒木朴堂	永樂町 2-24	—	荒木朴堂
表具 청부	石川源太郎	本町 3-2	—	石川源太郎
	奥村竹仙堂	大和町 1-41	—	奥村九一
	金本萬太郎	並木町 151	—	金本萬太郎
	金光定夫	明治町 1-54	—	金光定夫
	木元京古堂	本町 2-43	—	木元?
	佐藤卓二	明治町 1-54	—	佐藤卓二
	巢瀬末吉	黄金町 3-132	—	巢瀬末吉
	横井蘆舟堂	本町 3-86	—	横井卯之助
	谷口表具店	本町 4-36	—	谷口義起
	高瀬光之進	本町 1-50	—	高瀬光之進
	松月堂	大和町 1-10	—	堺常吉
	水原彩光堂	明治町 2-82	—	水原吉太郎

텐트 청부	朝日 텐트 商會	花園町 13	—	吉本市太郎
	泉商會	竹添町 1-79	실내장식	宋義錫
	京一 텐트 商會	南大門通 5-68	雨具袋具	張興鉉
	奈須 텐트 商會	花園町 107	—	奈須久米彦
	中西 텐트 商會	南大門通 5-59	—	中西四郎
硝子 (유리)	아사히硝子店	明治町 1-77	—	山内彌助
	岩見商店	本町 2-35	—	岩見常右
	岩政 글래스 店	黃金町 3-259	—	岩政惠三
	星硝子店	太平通 2-17	—	越智清強力
	丸三硝子店	太平通 2-111	洋燈	加藤東次郎
	龜田成男	櫻井町 1-87	—	龜田成男
	金子硝子店	黃金町 4-261	—	申明均
	北風利雄	櫻井町 1-66	—	北風利雄
	青龍橋商會	黃金町 4-156	—	姜大必
	福本正人商店	義州通 1-29	—	福本正人
	松永硝子店	櫻井町 1-135	—	松永進
	三田政商店	本町 2-19	小賣	三田昌夫
	八尾硝子店	本町 15	—	八尾德藏
	矢田甲三郎	本町 5-5	—	矢田甲三郎
	山一商店	花園町 16	小賣	室外一
각종전문공사	橘商店	旭町 1-8	瓦葺方	橘勇吉
	阿倍昌治	南米倉町 185	煉瓦工	阿倍昌治
	安藤金十郎	新堂里 217	鋳工	安藤金十郎
재료 공급 센타	三井物産會社京城支店	黃金町 1-63	小野田, 大分, 太平, 東洋	小川彌太郎
	三菱商社京城支店	南大門通 2-5	豐國, 七尾産業	大久保繁雄
	淺野 센타 京城出張所	太平通 2-73	淺野, 日本, 土佐, 日東, 日星	佐藤薫
	宇部 센타 京城出張所	南大門通 2-10 千代田 빌딩	宇部	諸方茂夫
	戸澤商店	長谷川町 91	建築材料	戸澤清三郎
	唐木商會	新堂里 199	材木	唐木勝
	株式會社毛利商店	南大門通 5-16	火藥, 金物, 機械	毛利辰次郎
	福田又支店	南大門通 3-91	銅鐵雜鋼	林菊次郎
	이후키 商會	黃金町 3-65	—	岡和田芳郎
	三菱商事會社	南大門通 2-5	窯業 센타	下川英二
	丸仲商會	南山町 2-45	—	下路又三郎
	池田商會	黃金町 1	타일, 위생도기	池田叡賢
	紀伊國商店	永樂町 2-73	—	紀伊國陶器一

목재 및 제재업	安東挽材株式會社	黃金町 4-187	小賣	武藤守一
	生駒材木店	太平通 2-325	小賣	生駒春介
	入江製材所	水標町 54	製材, 小賣	入江倉吉
	王喜材木店	黃金町 3-5	小賣	信濃憲一
	加藤木材店	新堂里 199	小賣	加藤惣吉
	北方木材店	黃金町 4-255	小賣, 竹材	北方捨吉
	合資會社小森商店	旭町 1-28	小賣	小森勝太郎
	新興木材店	黃金町 2-26	小賣	金基弘
	三榮商會	黃金町 2-148	小賣	篠崎文三郎
	鹽津材木所	西大門町 1-91	小賣	鹽津春吉
	中村洋行	黃金町 5-249	小賣	中村須奈雄
	中島材木店	黃金町 5-95	小賣	中島兼次郎
	合資會社中野商店	水標町 54	小賣	中野多助
	原田商店	黃金町 3-71	小賣	原田正登
煉瓦工場	平井材木店	黃金町 3-234	小賣	平井勳
	平安木材株式會社	黃金町 6-21	小賣	玉置勝一
	本明木材店	林町 274	製材, 指物	上木清助
	松永洋行	黃金町 7-5	小賣	森西京一
	合資會社京城煉瓦	南大門通 1 日生빌딩	製造販賣	鈴木文助
石材, 砂, 砂利	太田政介	義州通 2-171	販賣	太田政介
	株式會社朝鮮美術品製作所	太平通 1	기계제작, 청부	前田昇
	土井重太治郎	大和町 1-41	채석, 판매	土井重太治郎
鐵鋼商	市來商店	蓬萊町 1-120	雜鋼	市來永之助
	岩田商會	蓬萊町 1-108	공구, 철관	岩田留楠
	合資會社德本商店	蓬萊町 1-9	-	古賀福太郎
	三鋼商店	蓬萊町 1-118	-	朴弼充
	合資會社丸三商店	蓬萊町 1-162	철선 센타	宮川榮次郎
	株式會社毛利商店	南大門通 5-16	기계, 金物 센타, 화약	毛利辰次郎
鐵砲火藥商	朝鮮火藥銃砲株式會社	南大門通 5-28	토목용 약품	岩谷二郎
	朝鮮 마이도 株式會社	南大門通 2-10	油自動車部分品	都野正一
	瀧川本店	明治町 1-60	自動車	瀧川一江
礦油元賣	七福商會	黃金町 1-60	三菱石油	竹崎保雄
	京城石油協同販賣組合	黃金町 1-170	스탠다드 석유	高井兵三郎
	京城英油商事	南大門通 3-88	라이진쿠산석유	高木德彌
	辰巳鑽油會社	南大門通 2-1	小倉石油	永岡惠



본정의 중심 중구의 변화

모던경성의 변화가라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본정(本町, 지금의 충무로)이고 다음이 조선인들의 중심이라 볼 수 있는 종로가 있다. 그 외에도 옥정(旭町, 지금의 회현동)이나 장곡천정(長谷川町, 지금의 소공동), 용산의 삼각지일대, 영등포, 서대문에서 아현동에 이르는 길에도 본정이나 종로에 비교할 수는 없어도 나름 변화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본정은 일본인들이 이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정착한 곳으로 그 주택지들을 배경으로 상점가로서 발전하기 시작해 1910년 이전부터 확고하게 최고 상점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1945년까지 큰 변화 없이 경성 최고의 상점가로서 영화를 누렸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쳐진 본정의 모습은 대략 세 번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본정 상점가의 모습은 일본인들 스스로 배력(Barrack)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엉성하게 세워진 일본식 판자촌이 겹겹이 쌓이며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 본정에 집을 짓거나 상점을 열었던 일본인들의 자질 문제가 있다. 당시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의 상당수는 일본에서 사업상 실패하거나 생활기반이 없어 막연한 동경을 안고 사람들이었다. 즉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냥 그들이 살던 대로 조선에 건너와 건물을 올린 것이다.



(그림 4) 1910년경의 명치정 엽서



(그림 5) 1910년경의 본정 1정목 엽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건물을 세울 때 행정력의 공백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정부는 진고개라 불리는 이 진흥탕 길을 일본인들에게 제공한 뒤 별 관심이 없었고 일본인들은 자치 수준으로 공사관이나 이사청등은 민간 일본인들의 생활까지 책임질 힘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1897년과 1901년 두 차례에 걸쳐 도로 개수를 했지만 난립하는 건물들 속에서 최소한의 정비라고 할 수준이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 같은 것은 없는 상황이었다. 합방 이후 1912년 시구개정사업을 진행할 당시 10칸 도로로 본정통의 폭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일본인들의 상점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그들의 이권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총독부도 강제적으로 시행할 힘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후 본정은 도로포장이나 조명시설 등의 향상만 진행되었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1920년대에는 본격적인 상가의 출현으로 본정 1, 2정목의 외관은 조금 양상이 바뀌었다. 또한 일반 상가들도 사업의 번창으로 자금이 손에 들어오자 같은 목조건물이라도 배력식이 아닌 번듯한 목조건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벽돌로 지어진 상가들도 띄엄띄엄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림 6)의 혼이치(本一) 빌딩은 1920년대에 세워진 상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정입구에서 들어가 멀지 않은 1정목 18번지에 있던 것으로 여러 상가들이 힘을 모아 건물을 세운 것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복합상가의 효시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6)의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면 1920년대 중반의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정목 18-3번지에 있던 쿠로카와(黒川)정육점이 보이고 바로 옆에 무라사키서점이 보이는데 1929년 이 자리에는 킨쵸도서점(金城堂書店)이 들어서서 해방될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즉 이 사진은 1929년 이전의 사진이 된다.



(그림 6) 본정 1정목의 혼이치 빌딩

정병욱씨가 쓴 <잊지 못할 운동주의 날들>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그 무렵 우리 일과는 대충 다음과 같았어. 아침 식사 전에는 누상동 뒷산인 인왕산 중턱까지 산책을 했어. 세수는 골짜기 아무데서나 하고, 방으로 돌아와 청소를 하고 조반을 마친 다음에는 학교로 나갔지. 하학후에는 소공동 한국은행 앞까지 전차를 타고 나가 충무로 일대의 책방들을 순례했어. 지성당(至誠堂), 일한서방(日韓書房(일한서방), 마루젠(丸善), 군소도(群書堂)과 같은 신간서점과 구서점들을 돌고나서 후유노야도(冬の宿)나 남풍장(南風莊)이란 음악다방에 들러 차를 마시며 새로 산 책들을 펴보곤 했지. 가끔은 극장에 들러 영화를 보기도 하고, 다시 명동에서 도보로 을지로를 거쳐 청계천을 건너 관훈동 헌책방을 순례하고 돌아오면 이미 어둑해져 거리에 전기불이 환하게 밝혀졌지.

일한서방, 지성당, 마루젠은 모두 본정2정목에 있던 서점이다. 후유노야도와 남풍장은 명치정2정목에 있던 커피숍으로 정명옥과 운동주가 걷던 길이 본정1,2정목, 명치정 2정목으로 지금의 명동과 일치한다. 커피숍의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그림13)을 보면 왼편에 1정목 18-6번지에 있던 이와야 양품점이 있고 바로 옆에 간판의 형태상 잘 보이지 않지만 18-7번지 미요시노본점(三好野本店)이 보인다. 지금으로 치면 양식당이다. 본정 5정목 65번지에 지점이 있었다.

1930년대 본정에서 가장 유행했던 것은 카페 커피숍 양식당이었다. 변변한 테마파크나 놀거리가 부족했던 경성에서 영화관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이다. 양식당은 조선폰텔이나 경성역식당처럼 본격적인 식당도 있었고 세이뉴사처럼 밀크숍이나 빵집의 형태를 보인 것도 있었다. 역시 가장 많았던 것은 간단한 런치를 즐기는 가벼운 양식당이 많았는데 미요시노도 그런 양식당의 하나였고 모치나 아마구리(밤)도 팔던 당시로서는 울트라모던이라기 보다는 일본색 채가 조금 섞인 조금 구식의 식당이었다. 세월의 변화를 감지 못한 이 식당은 1930년대 중반 사라지고 만다.

본정과 명치정의 서점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일본서점의 경성진출과 헌책방의 분전이다. 마루젠과 오사카야고(大阪屋號書店)가 대표적인 일본서점의 경성지점이었다. 우리나라의 근대문학을 보면 이 두 곳은 줄기차게 출현한다. 즉 우리나라 문인들의 지식창고 역할을 했다. 나머지 서점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유통망이 없었고 이 두 서점의 도매를 통해 해외서적들을 받았으니 지식인들 입장에서선 누구보다 빠르게 좋은 책을 손에 넣는 방법은 이 두 서점에

서 먼저 입수하는 방법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태준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출현 시킨 단편소설 장마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구보도 이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비는 한결같이 구질구질 내린다. 유성기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누구든지 기어이 한 사람 만나보고만 싶다. 대판옥(大阪屋)이나 일한서방(日韓書房)쯤 가면 어쩌면 월파나 일석을 만날지도 모른다.....대판옥 서점으로 들어섰다. 책을 보기 전에 사람부터 둘러보았으나 아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다. 신간서도 변변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 장마때에 무슨 먼지나 앉았을라고 점원이 총채를 가지고 와 두드리기 시작한다. 쫓기어나와 일한서방으로 가니 거기는 아는 얼굴은 하나도 없는 듯 하였는데 그 아는 얼굴이 아니었던 속에서 한 사람이 번지르르한 레인코트를 털면서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림 7) 마루젠의 내부 모습



(그림 8) 지성당

이태준은 이 소설 속에서 장곡천정(長谷川町, 지금의 소공동)에 있던 낙랑이란 커피숍에서 주인 이순석을 찾다 없자 구보나 이상이 올까 기다려보다 굳이 오늘은 누구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는 곳이 바로 본정의 서점이다. 그곳에 가면 분명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지만 학교 시절 동창을 만나 양식집에서 가벼운 런치를 대접받는다.

본정은 상점들의 주인은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었지만 이용하는 객체 입장에서선 조선인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변화가였다. 돈 있는 조선인은 본정의 상점이나 백화점으로 룸펜들은 본정의 서점이나 본정 명치정의 커피숍으로 달

렸던 것이다.

본정 1정목에는 금성당서점, 오사카야고, 분코도 등의 서점이 있었고 2정목엔 마루젠, 일한서방, 지성당, 군쇼도서점, 가네코(金子書店), 세이분도(誠文堂書店), 문명당서점(文明堂書店), 벤코도서점(勉強堂書店)등이 있었다. 3정목, 4정목까지 서점들의 행렬은 이어지고 명치정에도 몇몇 서점이 있었는데 금강당서점(金剛堂書店)이 대표적이다.



(그림9) 오사카야고 서점



(그림10) 일한 서방

이 중에서 분코도, 군쇼도, 가네코, 지성당, 문명당, 벤코도서점등은 모두 고서점, 즉 헌책방이었다. 일본서점들의 경성지점이 도매까지 두고 본정에 자리 잡은 상황 속에서 많은 서점들은 헌책을 통해 승부를 거는 것 이외에는 없었던 것이다. 일한서방과 오사카야고는 본정에 매장뿐 아니라 명치정 2정목에 도매를 두고 있었다. 본정은 식민지조선의 거리를 걸었던 많은 문화인들의 젖줄이기도 했던 서점의 거리였다.

1930년대 들어 본정은 크게 변화한다.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세련된 상점건축으로 무장하기 시작한다. 조선에 없던 상품들로 본정이 어필해 왔다면 이제 세련된 건물까지 디저트로 나오게 된 격이었다.

1929년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인 미즈코시 경성지점이 들어서자 본정은 긴장하기 시작한다. 본정 1정목 32번지에 위치하던 미즈코시 오복점이 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업하다 결국 본정입구의 선은광장(鮮銀廣場)앞으로 자리를 옮겨 육중한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새로 세워營業을 시작하자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잡지들은 이 시기부터 백화점소식 등을 자주 실어 미츠코시, 미나카이, 조지아, 화신, 히라다백화점 등의 소식을 주기적으로 보도한다. 하지만 백화점계의 본격적인 대두와 더불어 당시 잡지들에는 본정통의 이에 대한 대항에 관한 좌담회나 대책회의 등의 기사들도 올라오기 시작한다.

1931년 “조선급만주” 281호는 경성본정번영지상좌담회라는 기사를 담고 있다. 오사카야고서점 점주를 비롯하여 본정의 대표적 점주 7인과 본정에 있던 야스다은행 지점장 대리와 조선상업은행영업과장 등이 참가했다. 이 기사의 시작은 이렇다.

조선의 수도 -----경성의 중추지대에 4대 데파트의 출현, 즉 미츠코시, 조지아, 미나카이, 히라다.....미츠코시 본관의 근세부흥식 백아의 스마트한 대건축과 조지아 최고 6층 신관, 미나카이에도 5층의 양관이 각자의 특색을 발휘하고, 데파트싸움에 전력을 다해, 근대인의 시각과 청각과 미각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고객의 흡수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던라이프를 맛보려는 도회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근세의 전당에 매혹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본정통은 경성의 긴자다. 유서깊은 경성의 문화의 중심이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은 경성시가의 중심은 본정에서 남대문통으로 변해가는 운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시점에서는 일본인의 중심시가는 변함없이 본정이다.....본정통의 상점이 불경기와 데파트의 문제로 최근 성적이 생각만큼 올라가고 있지 않고 왠지 쓸쓸해지는 느낌이 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오로지 본정통의 사람들의 문제로서 역시 시대의 추세로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방임해 둔다면 경성의 큰 사회문제로서 경성인을 고민시키는 데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사는 본정통의 경기만회책으로서 본정통의 주요한 사람들의 의견을 타진해 보기로 했다.

이 날 좌담회의 의견은 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A. 공동구매를 통해 싸게 상품들을 구입
- B. 몇개의 상점씩 단합해 공동으로 철근콘크리트의 공동건물을 세울 것
- C. 상점의 벽을 뚫고 모든 상점을 연결해 백화점처럼 연속적인 쇼핑이 가능하게 할 것
- D. 본정 2정목에 새롭게 베이비골프장이 생기는 것처럼 오락거리들을 개발할 것
- E. 전등, 장식 등 면모를 일신할 것
- F. 상점이 중간에 빈집이나 주택들이 섞여 있는 것은 상점가답지 못하니 이전할 것

그러나 본정가의 대책을 담은 기사나 글은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데 결국 실현 되는 것은 A, B, E 정도였고 특히 B는 본정통의 거리를 일신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토지의 주인과 상점의 주인들이 다른 경우는 갈등 속에 좌절되었다.

(그림 12)는 미츠코시 오복점이 최초로 진출했을 때의 기념엽서로 1910년경의 엽서다. (그림 11)은 1916년 나카무라요시헤이(中村與資平)가 설계한 1차 신축 이후의 사진이다. 흥미로운 것은 미츠코시도 본정 상가의 변화처럼 2층 목조건물로 시작해서 1910년대 벽돌조 3층 건물로 바뀌었다가 1929년 웅장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그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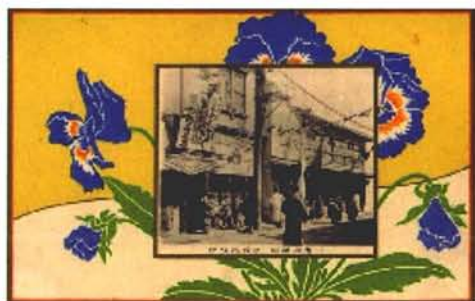


그림12) 미츠코시 오복점 경성출장소 엽서



(그림11) 1920년대 미츠코시 백화점



(그림13) 1930년대 미츠코시 백화점 엽서

새로 지어진 상점건축의 대표적인 건물은 본정 1정목 입구의 시노사키문구의 빌딩이었다.(그림14) 미츠코시 백화점의 바로 건너편으로 본정 입구가 시작되는 위치였으니 매우 상징적이었다. 미츠코시 바로 앞에 세워진 이 건물을 보고

미즈코시에 대항하는 본정상점가의 힘을 보여줬다고 본정가의 상점주들은 생각했고 미즈코시는 오히려 주변 환경이 좋아졌다고 반기는 상황이 되고 이로써 1930년대 모던경성을 상징하는 선은광장의 모습이 그 전모를 서서히 드러내었다. 물론 미즈코시앞의 분수와 옆의 조선저축은행(지금의 제일은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선은 광장의 모습은 완성된다.



(그림14) 본정 입구의 시노사키 빌딩과 증축전의 시노사키 문구



(그림15) 1940년경의 선은광장

가장 성공적인 공동빌딩 건축은 (그림16)의 공동상업빌딩이다. 본정 2정목 92번지에 키타무라모자점(キタムラ帽子店), 다카키야(高木屋) 오복점, 무사시야상점(武藏屋商店) 구두상점이 공동으로 신축한 모서리창을 가진 매우 모던한

건물이었다.(그림16) 기타무라 모자점은 이 건물신축을 위해 20년 넘게 위치했던 2정목 85번지를 버리고 이곳으로 이사했다.(그림17)



(그림16) 공동 빌딩의기타무라 모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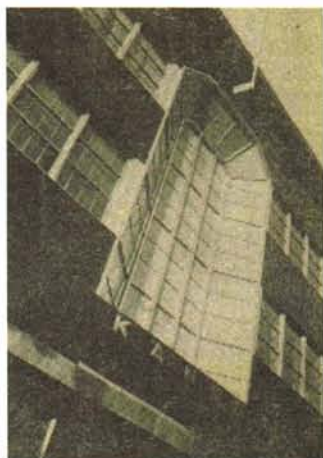
(그림17) 본정 2정목 85번지의 기타무라 모자점

위와 같은 공동건축은 아니었지만 1930년에 수많은 재력 있는 본정가의 상점들이 모던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변신을 했다. 결국 1930년대 모던 경성의 혼마치는 남대문동의 은행건물이나 관공건물처럼 거대하지는 않지만 매우 세련되고 모던한 그리고 개성 있는 건물들로 채워지면서 해방 때까지 그 위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갔다.

은행건물이나 관공건물들이 1930년대 이전의 경성의 모습들을 결정짓거나 주도했지만 1930년대 본정에 수많은 민간의 세련된 상점건축들이 들어서면서 제국의 위력을 뽐내려는 의도가 아닌 상점의 보다 나은 사업을 위한 민간의 의도를 담은 모습들이 본정을 지배하면서 식민지 경성의 다층적 구조는 복잡한 양상을 더해나간다.

본정을 일신하는 모던건물들이 1934-5년경에는 그 피크를 이룬다. 가네보 서비스스테이션은 동아시아 전체에 비슷한 디자인으로 속속 지점을 내는데 1935년 본정 구 미즈코시에 자리를 잡고 출현한다.(그림18) 이후 경성 패션을 독점하며 기생 학생 할 것 없이 가네보 신드롬을 창출해 간다. 그리고 오오사와 상회는 1934년 건축되었는데 가네보와 같이 일본에서 직접 진출한 케이스가 아닌

경성 자생적인 상점으로 아시아 여러 곳에 진출하고 있었다. 1915년 이래 본정 1정목 86번지를 지키다가 신축한 것이다.(그림19) 일종의 백화점으로 주로 카메라 시계를 취급하고 있었고 특히 카메라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림18) 가네보 서비스스테이션



(그림19) 오오사와 상회

메이지 제과는 1930년에 건축된 것으로 본정의 기타무라 모자점이 있던 공동빌딩(그림20)과 함께 모던 건물 중 효시격이라 할 수 있다.(그림21) 가네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컨셉의 디자인으로 일본 및 동아시아에 지점을 세우고 있었다. 메이지 제과의 건물에선 메이지 제과의 과자나 초코렛만을 판매했던 것이 아니고 커피숍을 겸하고 있어서 경성 커피숍계에 큰 영향을 미쳐 이후 꼭다점(喫茶店)의 대표격으로 해방 때까지 군림한다.



(그림20) 기타무라 모자점이 들어선 공동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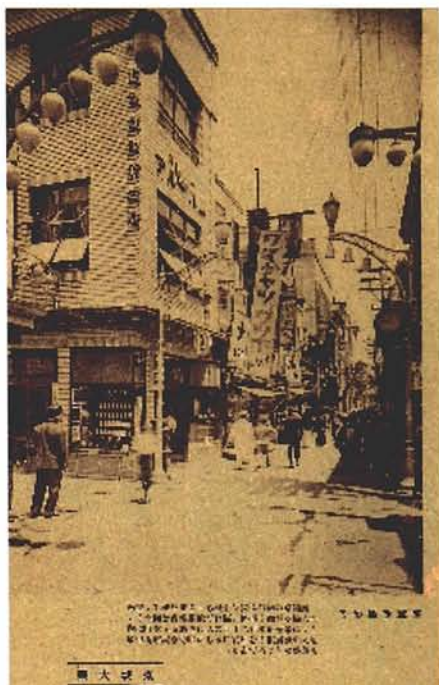
(그림21) 메이지 제과 경성지점

1930년대의 본정 상점가는 1세대가 아닌 2세대 3세대의 거리였다. 본정의 장사는 1900년대 초부터 몇 번의 불경기도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1930년대엔 상점의 역사가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상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즉 조선에 건너온 1세대가 아닌 경성에서 태어난 일본인 2세대가 본정을 주름잡는 시대가 된 것이다. 3세대로 진행된 상점도 있을 정도였다. 말하자면 신교육을 받은 신세대라고 할까. 경성에 대한 감각도 타국의 눈이 아닌 고향으로서 느끼는 세대가 본정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본정의 거리가 일신하게 된 것도 시대의 조류도 있었지만 이런 2세대의 의식도 크게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종로의 거리도 일본유학을 다녀온 신세대에 의해 크게 변화한다.



(그림 22) 본정 2정목 입구 엽서

(그림 23)의 건물이 1910년 이전부터 사진엽서판매로 발전을 거듭해 온 히노데 상행(商行)이다. 본정에 지어진 가장 일반적인 모던 감각의 건물이라 볼 수 있다. 본정의 상점들은 원래 크기가 별로 크지 않고 1910년대부터 이미 더 이상 자리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였기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서 크게 할 방도는 없었고 기존의 대지를 이용해 아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림 23) 1910년경의 히노데 상향

위의 엽서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 목조건축이 주류였던 시대엔 2층이 주류였던 반면 철근 콘크리트 모던시대는 3층이 주류였다. 하지만 당시 경성은 3-4층은 고층이었고 본정은 거리의 폭이 매우 좁았던 만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상점가로서의 긴장감은 상당하였다. 1930년대의 혼마치는 철근 콘크리트의 거리였다. 아기자기한 상점건축으로 긴장감이 충만한 모던 거리였다.

그리고 모던의 중심 중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킥다점으로 이는 커피숍이다. 지금은 카페와 커피숍의 개념이 크게 차이가 없지만 1920-30년대의 경성에선 그 의미는 전혀 달랐다. 쉽게 얘기해서 카페는 여급이 옆에 앉아서 애기도 하고 술도 따라주고 약간의 예로 서비스도 있는 장소였고 커피숍은 커피한 잔 시켜놓고 축음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담소하고 잡지를 뒤적거려 보는 그런 장소였다.

카페는 이미 1920년대 전성기를 맞이하고 1930년대에는 그 성격이 점점 예로 강화 일색이었다. 1920년대의 카페는 낮에 들러 런치도 먹고 부담 없이 갈 수 있었던 곳인데 반하여 1930년 오사카식의 카페 미인좌(美人座)가 경성에 진출

한 이래 1930년대의 카페는 여급들조차 일본에서 수입하는 등 에로경성의 일익을 담당하는 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당시 기생이나 게이샤들이 요정을 관두고 여급전향 발표가 속속 진행될 만큼 요정의 모던시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규모도 20년대에 1만원이면 차릴 수 있던 카페들이 지나친 경쟁의 결과 10만원 정도의 규모로 짓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는 상향일로였다.



(그림 24) 다이나 킥다점



(그림 25) 명치정 1정목의 마루비루 회관

당시의 관련 서적에서 카페목록조사를 해 본 결과 위치와 이름을 알 수 있는 카페가 259개소에 달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카페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림 25)는 명치정에 있었던 마루비루 카페로 대표적인 카페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인계의 잡지에 의하면 이곳은 조선인 아베크족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카페였다고 한다. 마루비루 회관은 오사카식의 카페로 1930년대 경성일보에는 매해 일본에서 새로 오는 여급들의 부산 도착기사 경성역 도착기사 등을 사진과 더불어 실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가 발견된다.

카페는 본정을 중심으로 해서 명치정, 옥정, 앵정정, 황금정, 남산정에 걸쳐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카페들이 난립했고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철정, 공평정, 인사정, 청진정, 낙원정에 걸쳐 조선인들이 경영하는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외에도 장충단, 한강통, 영등포, 서대문지역에도 적지 않은 카페들이 존재했다. 카페는 조선인이나 일본인 가릴 것 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경성의 밤을 빨갛고 파란 네온의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림 26) 일륜(日輪)



(그림 27) 낙원장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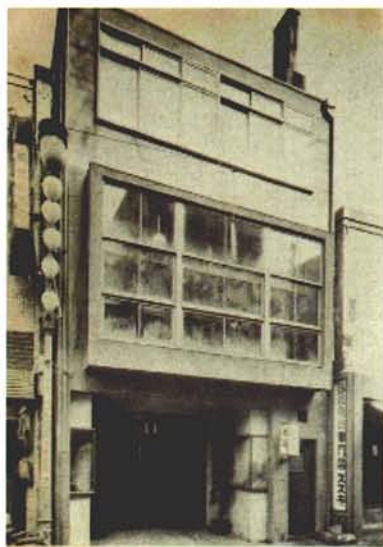
(그림 28) SALON SEIZA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은 당시 카페들의 성냥의 디자인이다. 싸롱 세이자(SALON SEIZA)는 본정 3정목에 있던 카페고 일륜(日輪, NICHIRIN)은 본정 5정목에 있던 오사카식 카페의 경성지점이었다. 낙원장은 1936년 관철정에 개업한 낙원회관의 지점이다. 세이자의 디자인에선 당시 유행하던 비-루 즉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환락의 이상경이란 문구를 집어넣은 낙원장에선 당시 카페의 규모가, 니치린에선 경성의 밤을 물들였던 네온사인의 모습이 일혀진다.

이에 반해 깍다점, 커피숍의 경우는 그 출발도 늦고 발전도 빠르지 않았다. 193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의 커피숍의 기원에 대해선 아직 불명확한 점이 많다. 최근 조사해 본 결과 자료에서 뽑아 낼 수 있었던 것은 1920년대 초반의 깍다점이 있었으나 그 이전에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시의 잡지 조선공론에서 1921년 다리야깍다점(ダリヤ喫茶店)과 소구자오키나(小構子おきな)를 커피숍의 기원으로 잡고 있었다. 이 기사는 1930년대 중반 과거의 커피숍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고 1921년 시점에서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쓰여진 기사라 정확한지 알 수 없지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9)는 1940년 본정 1정목에 세워진 모란이라는 깍다점이다. 전쟁기라 목조로 세워지긴 했지만 전면을 상당부분 유리창문으로 할애했던 매우 모던한 입면을 가지고 있다.

1921년의 두 커피숍은 모두 본정 2정목이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커피숍의 기원은 본정 2정목인 것은 분명하다. 당시의 여러 기사에서 그것은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 중반부터는 미즈코시 백화점에도 킥다점을 설치하고 명치정에도 나가타테이킥다점(永田亭喫茶店)이 생긴다. 활발하진 않았지만 1920년대 후반까지 20여점의 커피숍이 생긴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관훈동에 카카듀, 인사동에 백합원이라는 커피숍이 종로 인근에도 생기지만 조선인 지역에선 매우 부진하였다. 1930년 본정 2정목에 메이지 제과 경성매점(明治製菓京城賣店)이 오픈하면서 본정통에 킥다점 영업 전선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림29) 본정 1정목의 모란 킥다점 (그림30) 1936년의 MILK PLANT 세이뉴사

이 치열한 3파전 이후 명치정과 종로에 수많은 커피숍이 생기며 1930년대 중반부터 킥다점 열풍이 불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인이 이 바람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일본인 상가 지역이던 본정과 명치정엔 조선인의 상점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있던 상점들도 주로 과일이나 야채류의 식료품 매장이었다.

명치정이 이후 킥다점의 집합처가 된 이유는 본정에는 자리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고 카페에 비해 커피장사만으로는 수익성이 좋지 못해 비싼 본정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점도 있었다. 또한 명치정은 주식시장이 존재하던 곳이며 남

대문통의 은행가에도 가까웠기 때문에 그만큼 낮시간의 커피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본정 2정목의 대규모 커피숍을 제외하곤 깍다점은 매우 작은 규모로 승부하는 장사가 되었다. 카페는 비싼 팁 때문에 더 이상 식사나 가벼운 커피는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룸펜이나 회사원들에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커피숍이 싹트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커피숍은 특히 조선인 예술가나 문인들에게 크게 사랑받았으며 그들 중 몇몇은 직접 경영에 뛰어들기도 했다.

커피숍은 카페와 달리 철저히 보행객이 많은 변화가에 중점적으로 분포되었다. 본정, 명치정, 종로, 남대문통, 장곡천정 등이다. 종로의 경우도 카페와는 달리 인근 공평정, 관철정, 인사정 등에 몇몇 생기긴 했지만 철저히 종로 대로중심으로 생겨났다.

(그림 31)은 종로 2정목 14번지에 있던 멕시코다. 차 끓이는 주전자를 건물 정면에 배치한 재미있는 디자인의 깍다점이지만 인근 우미관 패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 조선 문인들이나 일본인들에겐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림 31) 깍다점 멕시코 건물의 정면

커피숍은 당시의 문헌을 조사해 본 결과 96개의 이름과 위치가 파악되었다. 위에서 말했듯이 조선인이 명치정 본정에서 많은 커피숍을 경영하는 점이 눈에 띈다. 몇몇을 살펴보면 본정 2정목 35번지의 모나리자, 주인이 자주 바뀌었던 듯 1936년과 1939년 사이에 강석연, 김유근등 3인의 주인 이름이 조사되었다. 명치정 1정목 51번지의 미마츠(美松), 음악평론가 김관씨가 경영하던 명치정 1정목 59번지의 에리자, 이보배씨의 같은 59번지 제일다방(第一茶房), 조선인은 아니지만 월북화가 길진섭의 연인 오다무라가 경영하던 명치정 2정목의 텐엔(田園) 등이다. 그 외에도 명치정 2정목에 하나조노 다방(花園茶房), 이즈미 다방(泉茶房), 전원다방(田園茶房), 휘가로, 성림다방(聖林茶房), 트로이카 등은 모두 조선인들이 경영했다. 본정과 명치정에서 조선인이 중심이 된 업종은 거의 없는데 유독 커피숍의 경우 예외였다.



(그림 33) 아로마(본정 2) 성냥



(그림 32) 혼조야(본정 1) 성냥

(그림 34)는 1939년 플라타누가 후루사토로 이름을 바꾼 후의 성냥이다. 1938년부터 외국어 상점명에 대한 제제가 발효되어 대부분의 카페와 커피숍은 일본식이나 조선식으로 이름을 바꾼다. 낙랑파라와 플라타누가 비교적 이른 1933년경 일본인 상권의 좌측 경계선이라 볼 수 있는 장곡천정에서 영업을 개시한다. 낙랑파라는 공예가 이순석씨가 경영하다 1930년대 후반 배우 김연실씨에게 넘어간다. 낙랑파라는 이상이나 구보 박태원, 이태준이 자주 가던 꺾다점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곳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던지 일본인 잡지에도 이곳 얘기는 자주 나온다.



(그림34) 장곡천정(長谷川町, 지금의 소공동) 성냥

결국 조선인 일본인 모두에게 사랑받으면서 승승장구한다. 플라타누는 유치진 씨가 경영하던 곳으로 1939년 일본인에게 넘길 때까지 계속된다. 이 두 곳 모두 예술인들이 경영해서인지 월북화가 길진섭 소품전이 1936년 낙랑에서 열렸고 1934년 신진작가 목판화전이 플라타누에서 개최된다. 두 곳 모두 예술인들이 경영하며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일본인들에게도 어필에 성공해 사업에 성공한 점이 종로의 커피숍들이 건달패들이 출입하며 분위기가 흐려졌던 것에 반해 다수 감각 있는 조선의 예술인들에게 명치정에 진출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당위성을 부여했던 것 같다.

1930년대에 백화점이 상권을 자지우지하며 조선인들의 본정출입이 늘어났으며 정치적인 분위기가 희석된 당시의 분위기가 지속되어 식민지땅이라는 것과 다소 거리감 있는 문화적 회색공간이 넓게 확대되어 본정이나 명치정에 대해 거부감이 상당히 희미해졌던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백화점과 본정이라는 쇼핑 공간, 은행과 증권이라는 비즈니스 공간이 겹쳐지는 위치였던 명치정에 명치좌라는 영화관까지 생겨나며 당시 엔터테인먼트의 거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하고 중국영사관 자리에 테마파크가 생길 것이라는 소문까지 확대되었다. 이 곳 명치정에 커피숍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며 커피숍은 명치정이라는 의식이 조선인 일본인 할 것 없이 공유되었다. 이 무렵 조선최고의 모더니스트 이상도 종로부근에서 여러 커피숍과 카페의 영업에 실패한 뒤 명치정에 무기(麥)라는 커피숍의 경영을 시도한 바 있다. 본정은 커피숍

과 카페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되고 뿌리를 내린 곳이었으며 조선인 최초로 한 업종에서 일본인 상권지역에 조직적으로 뿌리를 내린 최초의 사례였으며 이후 70년대까지 명동이 커피숍이 강세를 보인 점을 생각하면 그 역사성이 대단히 흥미롭다.

카페, 커피숍, 백화점이 주도하던 30년대 모던경성에서 유곽의 거리 신마치는 어떻게 되었을까? 월북작가 이태준의 단편소설 “아무 일도 없소”를 보자.

그러나 가만히 좌우를 산밧으로 올라가며, 보통 상점집과는 다른 일본식 2층집, 3층집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그 때에 K는 옳구나, 저기가 정말 유곽인가보다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본 즉 과연 집집마다 문 안에 으스스하게 들어설 곳을 만들어 놓고 마치 활동사진관 문 앞에 배우들의 브로마이드를 걸어놓 듯 창기들의 인형 같은 사진을 진열해 놓았다.

K는 아까 지나온 조선집 거리처럼 그렇게 난잡스럽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모자는 숙여 쓴 채 너댓집이나 문간에 들어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진 구경을 하였다.

주인공은 잡지사의 기자다. 편집회의에서 과거에 에로 기사를 냈을 때 잡지가 1천부는 더 팔렸다면 봄이기도 하고 에로 기사에 집중하자는 결론에 이른다. 신춘 에로백경집이라는 가제로 결정하고 주인공 K는 신마치에 가는 것이 처음이라 잔뜩 긴장하고 선술집에 들러 술을 먹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기발한 에로를 붙들겠다는 다짐을 하고 조선인 유곽지대인 나미키마치를 지나 일본인 유곽지대인 신마치 고개로 올라간다.

위 소설에서 주인공이 올라가는 고갯길이 신마치 대통이다.(그림35) 유곽치고는 굉장히 넓은 길이었고 이 언덕은 중간지점까지는 카페나 술집, 아파트, 일용품점, 약국 등이 모여 있었고 조선인들의 소위 갈보집들도 언덕 아래에 혼재해 있었다. 위로 올라가면 일본인 유곽들이 있었고 서쪽의 신마치서통에는 일본인 유곽이 담에 담을 이어 붙어 있었다.



(그림 35) 1936년 신마치 대통

(그림 36)과 (그림 37)을 보면 일본식 목조2층이나 3층 유곽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카페와 유사한 양식건물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신마치에도 모던 바람은 여지없이 불고 있었다. 위의 소설을 보면 유곽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곳은 아무 제약 없이 들어가서 창기들의 사진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들어가는 현대식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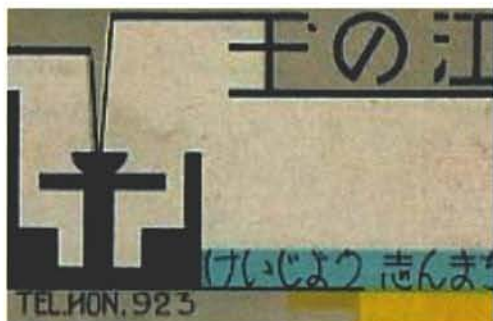


(그림 36) 1936년 대화정에서 본 신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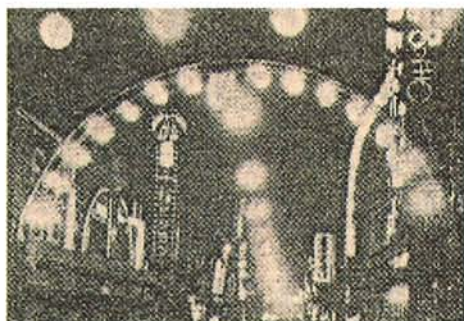


(그림 37) 1936년 신마치 서통

또한 1층은 카페처럼 꾸며놓고 커피만 마시고 가도 되는 그런 풍조도 30년엔 있었다. 창기들도 기모노만 입은 것이 아니고 모던 숏커트 머리에 양장을 입은 창기들도 많았다. 그 반면 언덕 밑의 조선갈보집이 모여 있던 나미키마치에서는 음습한 골목에서 손님을 잡아끌거나 소리치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아예 커피 영업이 잘 되었는지 유곽에서 카페로 전업한 타마노에(玉の江)같은 경우도 있었다. 이름도 타마노에로(玉乃江樓)에서 모던한 타이포그래피의 타마노에로 이름을 바꿨다.



(그림38) 타마노에 성냥



(그림39) 본정 5정목 야경

193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많은 게이샤들과 창기들이 카페걸로 변신했지만 38년 이후 모든 물자가 통제된 이후 카페나 커피숍은 부진을 면치 못했고 1945년까지 신마치는 다시 호황 아닌 호황을 맞았다고 한다. 일본과 달리 조선은 전쟁의 직접 영향권과는 거리감이 있었는지 네온사인 등에 통제는 있었지만 꺼지는 일은 없이 1945년까지 영업을 계속해 일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신마치는 본정통을 죽 걸어다가다가 5정목 끝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고갯길이 시작되었다. 본정 5정목은 새벽3-4시까지 불야성을 이뤘다. 각종 카페 음식점이 가득 차 신마치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모든 건물들에 네온이 가득해 본정 1,2정목과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여주었다. 본정 1, 2정목이 낮의 본정이라면 5정목은 밤의 본정이라 할 수 있겠다. 본정 1, 2정목, 명치정이 모던 경성을 상징하는 곳이었다면 신마치, 본정 5정목은 에로 경성의 상징이었다.

이 지역의 이단아였던 (그림 40)의 나카무라 저택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세이뉴샤 바로 옆 본정2정목 11번지에 있었다. 본정 변화가중의 최고중심지에

두 채의 집이 남아 있었다. 나카무라 이와오(中村巖) 저택(그림40)과 고쵸(古城) 별택이었다. 나카무라는 한술 더해 1933년 당대 최고의 건축회사 시미즈구미(清水組)에게 맡겨 시대에 맞게 국제주의 양식의 모던주택을 짓고 영주의 뜻을 분명히 한다. 1934년 경성일보에 40년전의 경성을 회고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보아 1890년대부터 이 자리에서 살았던 것 같다.

고조카이케이(古城海溪)도 의학계의 원로의사로 상당히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켰던 것 같다. 그는 바로 옆 2정목 18번지였다. 당시에도 관광객들의 수기를 보면 이 집들에 대해 꼭 이야기를 남겼다. 상점가를 구경하다 갑자기 철격자가 끼어진 돌문을 만나고 안을 들여다보면 주택이 있으니 모두들 의아해 하고 궁금해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경성 본정 번영책 지상좌담회 내용을 보면 카메야상점의 대표의 다음과 같은 말이 언급되고 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앙도시의 변화가의 장소에 큰 빈집이 있거나 주택의 담이 있거나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그리고 정회에서도 자주 협의됩니다만 나카무라씨와 고조씨의 저택 앞에 벽돌담은 거리의 중요한 장소니까 그곳을 보통의 상가로 꾸미도록 교섭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도 본정의 번영책과 관계하는 점이 있어요. 도쿄의 긴자의 한가운데에 벽돌담의 저택을 짓겠다 하면 당연 문제가 되겠지요. 경성도 옛날엔 이래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이래선 안 됩니다.



(그림40) 나카무라 이와오의 저택 정면과 내부 응접실

본정 3, 4, 5정목에는 주택들이 꽤 많이 있었지만 대로변에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본정의 최고 번화가인 2정목 입구에 작지도 않은 대저택 두 채가 있었으니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본정 1정목보다 2정목 입구쪽이 더 중심이 되었던 이유도 1정목 시작 시점부터 오른쪽에 100m 이상 중앙우체국의 담이 계속되어 반대편만 상가가 구성되었던 점이 작용했다. 상인들은 중앙우체국의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관은 본정에 항상 소홀했다. 어디까지나 장사꾼들이란 의식이 있었던 듯 항상 본정상인들을 외면했다. 본정상인들은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스스로를 지킬 이외에는 방도가 없었다. 결국 두 이단아가 본정을 떠난 것은 해방이 되고 나서였다.

일본말에 부라부라라는 말이 있는데 어슬렁어슬렁 쫓는 말이 되는 것 같다. 긴자를 할 일도 없으면서 어슬렁어슬렁 걷던 모던인들을 일컬어 긴부라라고 했고 경성에서는 본정을 걷던 이들을 혼부라당이라고 칭했다. 혼마치는 일본인의 거리이고 종로는 조선인의 거리라고 단정하면 쉬우나 세상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쉽게 나뉘는 것은 아니다. 1940년에 나왔던 “모던조선”이라는 잡지를 보면 경성 변화가 탐방기라는 기사가 있다.

기자와 같은 테이블에 모던한 조선학생이 카레라이스를 먹고 있어 넌지시 거리의 풍경에 대해 물어 보았다. 그러자 그 학생은 웃으면서 <본정을 걸으면서 조선의 젊은 아베크족이 많은 걸 못 느끼셨나요.> 라고 한다. <종로쪽에서 걸으면 조선인이 많아서 남의 눈에 띄기 쉬우니까 조선인 아베크족들은 본정으로 옵니다. 종로는 조선인들끼리 아무 생각 없이 다니기 때문에 여자를 데리고 걸으면 이런 놈 봐라 건방지네 하고 싸움을 걸어 오지요. 그래서 아베크족들은 모두 본정으로 와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 정말 아베크족의 러브퍼레이드다.

1936년 조선일보에는 물건사실 때 ‘본정쪽으로 가십니까, 종로쪽으로 가십니까’라는 설문조사와 같은 기사가 있다. 그 설문조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두 조선인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15명의 대답이 나와 있고 12명은 본정을 선택했고 3명만이 종로를 선택했다. 본정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 싸고 물건이 많고 친절하고 물건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점이었고 종로를 선택한 이유는 한사람만 조선 사람의 의무란 대답을 했고 나머지는 이유를 대지 않았다. 반면 종로를 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명이 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친절하

지 않고 가격에 에누리(妥協)가 있어 믿을 수가 없고 종로의 물건의 근본이 어차피 본정이라는 식이다. 외관적으로 1930년대의 종로는 본정에 많이 근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종로상인들의 의식수준은 충분히 자본주의적인 수준에 근접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림41) 본정 1정목을 풍경을 보여주는 엽서

본정은 단순히 일본인의 상가가 모여 있던 지역이 아니라 1930년대 모던 경성 모든 이들의 거리였다. 식민지 땅에 굴절된 모습이긴 하지만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갈망에, 한 순간의 쾌락이나 안식을 위해, 그들의 꿈속의 희망을 찾아 빈 주머니에도 화려한 본정을 찾았다. 희망과 절망 속에 모던을 찾아 이상(李箱)도 이곳을 헤메이고, 화구를 사러 화가 길진섭도 이곳에 들러 그의 일본인 애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며, 일한서방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극작가 함세덕도 그곳에서 책을 보며 새로운 연극을, 그가 꿈꾸던 공산주의 세상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리고 운동주도 친구들과 책방에 들러 새로 산 책을 들고 명치정의 깍다점에서 미래를 얘기했을 것이다.



(그림42) 1930년대의 본정 입구 엽서

본정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공간적 한계는 있었지만 세계 공통의 문화를 선진적으로 수입하는 장소였고 자본주의를 체험하는 공간이었고 그것은 해방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림 43) 본정 1정목과 선은 광장

1940년 모리나가가 본정 1정목 입구 꽃상점들이 모여 있던 자리에 모리나가캔디스토어 본정지점을 낸다. 이것이 본정의 거리의 모습을 바꾼 주요한 변화 중 최후의 것이었다. 종로 2정목 8번지에도 같은 시기에 모리나가 캔디스토어를 오픈한다. 모리나가가는 조선에 진출한 서비스업 중 거의 최후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눈치가 없었던 것인지, 정세를 낙관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름도 캔디스토어라는 영어명을 버젓이 사용하고서 말이다. 모리나가가 대기업이라 본정서(本町署)에서도 별 말이 없었는지 1938년말부터 영어명이 점차 사라지고 있던 본정에서 영어명 상점이 생긴 것은 특이한 일이었다. 먼저 명치정에 있던 깍다점을 보면 오리온이 이치지쿠다방으로, 휘가로가 후유노야도(冬の宿)로, 노아노아가 방가로(放街路)라는 묘한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카페를 봐도 릴리(百合)가 유리로, 다이아몬드가 금강회관으로 바뀌었다. 조금은 저항감을 나타내는 정도가 화이트런치(WHITE LUNCH)를 화이트(WHITE) 회관으로 바꾸는 정도였고 이런 저항도 오래 가진 못했다.



(그림 44) 모리나가 캔디스토어

1938년에서 1941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상점명이 바뀐 것은 비단 커피숍이나 카페뿐이 아니었다. 1930년대의 경성은 영어천국으로 세탁소의 이름은 클리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화물배달이나 용달은 메신저로 이름을 붙였다. 이런 모든 이름들이 일본식으로 바뀌고 만다. 종로의 조선식 이름들도 마찬가지로 1940년 들어 전쟁이 악화일로를 달리자 통제에 들어가 영어만큼 강력하게 시행하진 않았지만 상당수 이름이 바뀌고 만다.

단적인 예를 들어봤지만 1940년 이후 모든 물자가 배급체제에 들어가고 네온도 통제에 들어가며 영업가능시간도 대폭적으로 줄인다. 자본주의적인 본정의 색채가 한순간에 제국주의의 어두운 전체주의 속에서 어둡게 색을 바래간다. 꺼지는 일은 없었지만 모던 경성은 이미 1938년으로 종말을 고하고 만다.



대표적인 건축물의 개요

*경성역(지금의 구서울역)

경성의 입구역할을 했던 경성역은 철도국 공무부 건축계가 설계하고 시미즈구미(清水組)가 시공하였는데 1922년에 공사를 착수하였다. 중간에 1년간 관동 대지진으로 공사가 연기되었다가 1925년 9월 준공되었다. 건물의 평수가 8백평, 건축총공사비가 약 150만원, 지상 2층, 지하 1층의 르네상스 양식의 역사이다. 그 외 플랫폼의 공사가 약 1000평이었다. 플랫폼의 공사는 열차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서 공사하였기 때문에 몹시 위험하고 어려운 공사였지만, 1년간의 지연 뒤에 도쿄역 다음으로 동양 제2의 역으로서 탄생했다. 경성역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들이 있다. 지하층은 역 및 식당, 사무실, 일본과 서양 요리실 및 창고이다. 1층은 중앙에 홀이 있고, 오른쪽으로 3등 대합실, 그 구석에 승객 출구 및 수화물보관소가 있고, 왼쪽에는 1, 2등 및 부인용의 대합실까지 준비해 있다. 좌측의 계단에는 귀빈실이 배치되어 있다. 가운데 2층에는 유료 화장실이 있다. 2층은 우측을 열차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좌측에 크고 작은 2개의 식당 및 이발소로 사용하고 있다. 식당은 200명 정도의 연회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근대 설비를 갖춘 역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하루라도 빨리 다시 사용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조선 신궁

일본인은 어디를 가든지 신사와 유곽을 만드는데, 신사의 대표격이 조선 신궁이다. 1912년부터 총독부 신축의 준비와 함께 조사를 시작한 후 4년에 걸쳐서 연구를 실시했다. 먼저 조선을 대표하는 신사의 위치는 어디가 좋은 것인지, 한반도의 중심이 좋은 것인지, 혹은 정치의 중심지가 좋은 것인지, 또 그 양식은 신메이즈쿠리(神明造), 카스가즈쿠리(春日造), 타이샤즈쿠리(大社造) 등 어느 형식이 좋은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 일본의 대표적인 신사를 순회하고 그 부지의 주변 환경부터 재료까지 섬세하게 그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고, 신전의 규모와 양식, 배치 및 신사 내의 설비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후 설계에 들어갔다.

1928년 도쿄대학의 이토츠타(伊東忠太)에게 위촉해 축조 계획 방침에 대한 의견을 요

구했다. 그 해 이토츠타가 방한하여 부지 선정의 실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경성의 7개의 후보지에서 남산의 한양 공원으로 결정했다. 남산을 등지고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으나 서북서쪽으로 향해있는 산 중턱의 부지는 넓고 높고 건조하고 게다가 서울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경복궁내에 있는 총독부와 남대문통에 있는 경성부청사를 내려다 볼 수 있어 시내로부터도 참배하기 쉽다고 하는 이유로 약 8200평의 장방형의 부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 주위의 산지 약 9만 4천평을 신사의 경내지로 했던 것이다. 이 때 산 뒤에 있던 국사당(國師堂)은 인왕산으로 이전되었다. 건축의 양식은 나가레즈쿠리(流れ造)양식(신사건축 양식의 하나. 맞배지붕이고, 입구가 정면에 있으며, 지붕의 앞면을 뒷면보다 길게 뻗어내리게 한 방식)이나 카스가즈쿠리양식(신사 본전의 건축 양식의 하나. 맞배집의 합각머리 쪽에 출입구를 내고, 그 위에 차양을 달아낸 구조)이 후보에 올랐지만,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일본 고유의 간결한 양식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세신궁과 같은 신메이즈쿠리로 했다. 지붕은 원래 새로 인 지붕(萱葺き)이지만, 여기에서는 내후성을 고려해 동판지붕으로 했다. 본전의 크기는 17평, 배전(신사에서 배례를 위하여 세운 건물)은 40평으로 했다. 사용된 재료로는 본전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노송나무를 사용했고, 그 외의 건물에는 대만에서 생산되는 노송나무를 사용하였으며, 사무소로 쓰이는 건물의 재료는 조선의 산에 있는 나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석재는 주로 동대문밖에 있는 채석장에서 얻은 화강암을 이용했다. 조선신궁은 1925년 10월에 완성되었다.

일본에서 예부터 전해온 전통적인 신메이즈쿠리 양식을 적용하면서, 조선 신궁은 조선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양식에 한국적인 양식을 가미하면 어떤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설계자였던 이토츠타는 그러면 미국에 세운다면 미국식을 가미해, 인도에 세운다면 인도 취미를 넣은 양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는 건축가로서는 재미있는 시도지만 그렇게 하면 과연 제신을 봉납할 수 있는지, 또 인간의 주택이나 사무소를 초월한 신사는 신령의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구불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인도 양식을 가미한 츠키치본원사(築地本願寺)의 설계를 했던 그의 건축관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발언이다.

지은 지 20년 후에 식민지시기가 끝났을 때에, 불과 17평의 본전을 위해서 약 10만평의 부지를 확보했던 이 상징적인 건축물은 일본의 손에 의해서 소실되었다. 그 철거지에는 안중근 기념관과 식물원, 도서관등이 건설되었지만, 현재는 그 식물원도 없어졌다. 낡은 사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면, 다른 유물은 전혀 눈에 띄지 않지만, 배후의 남산의 능선은 현재도 당시의 형상 그대로이며, 이러한 능선을 비교하면서 여기에 조선 신궁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국사당, 조선 신궁, 안중근 기념관과 거기에 지어진 건물만봐도, 시대의 변천과 함께

남산은 드라마틱하게 그 의미를 구현해 온 것이다.

*경성부청사

경성부청사는 덕수궁앞 광장에 있는 남쪽과, 서쪽의 태평통, 동쪽의 무교정에 접하고, 평면은 가로 포장길을 따라 산의글자형태를 하고 있다. 정면 및 좌우의 큰길에는 4 층, 정면 중앙부 옥탑은 6 층, 후방 회의실은 3층 건물로 그 총면적은 2천 5백평이다. 건물의 프로그램을 보면 1층은 접수, 호적계, 세무과, 수도과, 그리고 공중 식당 및 설비 기계실이 있고, 2층은 회계과, 학무과, 문서과, 응접실이, 3층은 부장실, 회의실, 토목과, 위생과가, 4층은 정청, 귀빈실, 도시계획계, 위원회실, 식당겸 도서 열람실, 옥탑이 있는 5층은 청사진실, 6층은 응접 전망실이다. 구조를 살펴 보면 부지의 지반이 나뉘기 때문에 주요 기초 부분은 깊이가 4.5 m에서 5 m의 길이의 콘크리트말뚝을 총 450개나 박아 넣었다. 또 그 외의 부분도 직경 15cm, 길이 4, 5 m의 가공되지 않은 소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여, 그 위에 콘크리트 지형을 만들었다. 주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주량구조로 하고 기둥의 사이는 벽돌을 쌓았다. 높은 옥탑과 회의실은 철골 콘크리트 구조이다.

일부 복도마루에는 총독부에서 사용하고 남은 대리석을 섞어서 이용하였다. 수도, 수세식 변소, 정화조, 조명 전기, 엘리베이터 등의 설비도 근대식으로 갖추었다. 특히 설비 중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기 시계와 전화 자동교환기이다. 독일제의 전기 시계로 주시계가 1개, 보조시계가 62개, 버저를 7개 배치하고, 동시에 같은 시각을 알리도록 했다. 또 구내에 있는 102개의 전화기는 전화국과의 연락을 버튼식으로 하여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은 내화 구조이지만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그 경계에 방화 셔터를 마련하여 방화에 대비하였다. 난방은 원칙상 각 실내에 가동식의 방열기를 설치한 증기 난방으로 했다. 관동 대지진의 교훈을 살려 내진내화의 실질적인 건물을 만들고자 하였다.

설계자는 총독부 건축과이다. 설계 지도를 건축과장인 이와이쵸사부로(岩井長三郎)를, 직접적인 설계 주임은 건축기사인 사사케이이치(笹慶一)로, 경성부청사계획 및 설계일로 해외에까지 다녀왔다. 또 그 밑에서 현장의 설계 담당을 한 것이 건축기사 이와츠키 요시유키(岩槻善之)였다.

이와이는 이 부청사가 생긴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에서부터 위치에 이르기까지 경성 시빅센터(Civic Center)로서의 역할을 마음껏 완수하게 될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였다. 직접적인 담당 책임자인 사사는 부청사의 개요와 그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직접적인 설계 책임자인 사사가 처음 계획안에 착수한 것이 1922년 11월이다. 그 당시에 직원 총수가 360명이었고 후에 인원수를 40% 가량 늘 것을 전망하여, 일인당 바닥면적을 원칙상 1평 5호로 규모를 결정했다. 부지는 2~3번 바뀌었다가 현재의 위치로 결

정했지만 지반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사사는 이 부청사의 특징에 대해 크게 4가지를 언급했다. 이 건축의 첫째의 특징은 회의장이다. 전체적으로 비스듬한 경사가 있는 마루로 되어 있고 테이블도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 가능식으로 바꾸었고 방청석과의 사이도 큰 단차를 없앴다. 재래의 회의장과 방청석의 단절을 없애고, 일체감이 있는 민주적인 형식을 도입했다. 두 번째 특징은 외벽에 이용한 「리싱바르기」 着色모르타르 바르기. 시멘트에 색깔 있는 모래를 섞은 것을 발라, 마르기전에 솔로 문지르고 표면을 까칠까칠하게 만드는 일마무리이다. 산지는 독일 남부의 추운지역에서 내한성이 뛰어난 재료로서 사사가 외국으로 직접가서 그 제조 공장에까지 견학하러 갔다. 한편 경성에서도 한 겨울에 실험을 해서 결정했다. 이는 일본에서도 외벽에 사용했던 적이 없었고, 이번이 첫 시도였다. 가격이 비교적 염가인데도, 외관이 부드럽게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세 번째 특징은 견학했던 오사카시청사를 본 후, 1층에 관청 건축으로써는 처음으로 공중식당을 마련해 시민에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네 번째 특징은 총독부 청사에서도 할 수 없었던 전화 자동 교환설비의 설치로, 이것도 조선에서는 최초의 시도였다.

사사실에서 현장을 지휘한 이와츠키기사도 신부청사의 특징을 아래의 7가지로 말했다. 이 항목들을 보면 근대 건축의 합리성과 기능성이 주제가 되고 있다.

- ① 배치는 사무 능률이 오르고 대중들에게 편리하도록 했다.
- ② 방의 구분을 가능한 한 제한하여 향후 과부서, 직원의 증감에 따라 자유롭게 방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③ 외부와의 출입을 편리하게 했다. 또 어느 층도 막다른 곳을 없게 했다.
- ④ 공중 식당과 회의장은 다른 부분과 독립하고, 사용상 편리하게 했다.
- ⑤ 소화전, 방화 구획과 방화상의 배려를 했다.
- ⑥ 신재료로서 외부에 리싱바르기를 시도했다.
- ⑦ 설비로는 전기시계, 자동 교환식 전화를 설치했다.

그 밖에 이와츠키기사의 신부청사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신부청사의 외장을 설계할 즈음에 옛날 건물들과 같은 권력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큰 홀을 가지는 궁전식도 아니고, 또 너무 기능적으로 하여 영리적인 사무소 건축이어도 안 된다. 친밀감을 가질 수 있으면서 침착한 위엄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데모크라틱한」 건축을 얼마나 표현해 낼지가 가장 고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나 내부도 쓸데없는 장식은 피하고, 가능한 한 말끔히 완성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장식에 유의했다. 외부 재료는 건물의 허리의 부분을 흰색 화강암으로 하고 흰색 리싱바르기를 하여 가능한 한 요철을 줄여 부드

럽게 표현되도록 했다. 총독부의 탑은 구형의 돔이었기 때문에, 부청사는 의식적으로 네 모진 피라미드형에 설계하여 거기에서 안쪽의 전망을 즐기고 옥상에서도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관은 장식을 붙이지 않고, 거의 모두 희고, 창만 희미한 청색미를 갖게 하였고, 「조선사람들의 하얀 옷의 넉넉한 차림을 보는듯한 기분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해 디자인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오래되어 거무스름해졌지만, 외관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동시기에 완성된 총독부와는 정반대의 컨셉을 지향하였던 건축물임을 볼 수 있다. 시민에게 친근한 흰색의 모던한 시빅센터의 등장이었다. 오늘 이 기념해야 할 건물을 보존하면서 서울 시청사를 건설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만, 이 낡은 건물을 어떻게 재생하면서 새로운 서울 시청사가 생기는 것일지 주목하는 바이다.

이 공사의 도급자는 코데라타다유키(小寺忠行)이다. 덧붙여 코데라가 준공하면서 고용한 직공 총인원수는 67926명, 그 중의 일본인은 불과 4%의 비율에 지나지 않았다. 공사비는 약 73만원이다. 기초공사의 착수는 1924년 7월이다. 1925년 여름에는 대홍수가 있어서 공사를 1개월 지연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후 새벽 5시부터 밤 10 시경까지 공사를 행하여 지연으로 미뤄졌던 공기를 채울 수 있었다. 본 공사일은 1924년 11월에 시작하여, 준공은 2년 후인 1926년 10월이었다.

건물의 앞에는 태평정, 황금정, 장곡천정, 서소문정, 무교정이 만나는 경성 부청앞 광장이 탄생한다. 장래 부민집합의 장소로서 평가되어 그 중앙에 기념탑 혹은 분수를 계획하였고 그 주위에 화단이나 수목을 배치하여 경성의 하나의 명소로 계획되었다. 현재의 서울 광장을 보면 그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본정종합빌딩

이 건물은 아이자와(相澤啓治)건축설계감독공무소의 설계, 시공은 사토오구마타로오(佐藤熊太郎)가 맡아, 1926년에 완성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9명 점주, 1명 미정의 10개의 상점용 공동 빌딩이다. 건평은 134평, 총건평이 531평, 1 상점 당 평균 13평, 연건평 53평의 작은 가게이다. 부지는 본정 1정목 입구에 있는 중앙 우체국의 동측 변화가이다. 경성 중앙 우체국의 토지일부를 사들여 짓게되었다. 본정종합빌딩은 계획 당초에 각 상점을 따로 따로 건설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떡 가게는 일본식으로, 오복점은 토장풍(土藏風)으로, 과자가게는 2층까지 사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등의 의견이 가지각색이었지만, 설계자 측에서의 제안으로 공동으로 1개의 빌딩을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드문 사례이다. 가장 큰 이유는 경성에서 지가가 비싼데다 건축비를 가능한 한 낮게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또 그것은 각 상점의 틈새도 벽 한 겹으로 끝나게 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실제 건축비는 30% 줄여 완성할 수 있었다.

지상 층에는 점포를 두고 그 위에 주거를, 지하에는 창고를 넣었다. 가게에 따라서는 2층까지 가게로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가게의 종류에 따라서 계단의 위치나 폭이 달라서, 그것이 각 상점의 개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되었다. 외관은 단순한 콘크리트로 마무리하였고, 각 상점은 쇼윈도와 간판에 의해서 특징을 내는 것으로 했다. 이 때 종래의 가로로 길게 뻗은 커다란 페인트 칠의 간판은 공동 빌딩에는 어울리지 않았고, 멋을부린 금색의 문자가 적힌 입간판이 대신하였다. 이 공동 빌딩의 진열창이나 간판을 시작으로 하여 본정 거리의 모던한 점포 장식이 퍼져 나가게 된 것 같다. 이 외 작은 1층 점포 면적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2층으로 변소를 둔 것도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꽤 호평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1930년대 10채의 상점을 본정 입구에서 보면, 「일본악기제조회사경성출장소(日本樂器製造會社京城出張所)」 「키쿠히데하모노점(菊秀刃物店)」 「이와야양품점(伊ワヤ洋品店)」 「미요시노(三好野)」 「마쓰야오복점」 「타카키가방점」 「아마구리타로오경성지점(甘栗太郎京城支店)」 「혼이치과실상점(本一果實商店)」 「킨조도서점(金城堂書店)」 「쿠로카와정육점(黒川精肉店)」 등의 여러 가지 종류의 상점이 있었다.

*영화관: 약초극장 · 황금좌 · 명치좌

와카쿠사극장은 가와사와건축사무소(川澤建築事務所)가 설계를, 시공은 이쿠타마츠타로오(生田松太郎)로 불과 6개월의 공사 기간동안 지어 1925년말에 완성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 연면적 658평의 근대적인 외관을 가진다.

명치좌는 타마다건축 사무소(玉田建築事務所)에서 설계를 맡고 미키(三木)합자회사가 시공하여 1936년에 준공하였다. 철강 철근 콘크리트조로 된 이 건물은 지하층, 지상 4층, 총평수 743평, 수용인원은 1178명이다. 외관은 고전 양식이다.

황금좌는 역시 타마다건축 사무소(玉田建築事務所)에서 설계를 맡았고, 나가토구미(長門組)가 명치좌보다 1개월 후에 준공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은 일부 지하층과 지상 3층건물이며 총평수는 601평, 수용인원은 1128명이다. 동양식을 가미한 르네상스 양식이다. 이렇게 중구의 3개의 영화관 외에도, 종로에 모던한 단성사가 태어나 1935년부터 영화관 붐이 일어났고, 많은 영화 팬이 도쿄와 영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되어 도시 생활을 즐겼다.

*미츠코시 경성 지점

미츠코시는 현재의 신세계 백화점이다. 당시도 조선반도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이었다. 본점 입구에 있는 조선은행 앞의 로터리 광장에 접한 옛부청사 철거지에 위치한다. 지상 6층, 지하 1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네오·르네상스 양식이다. 부지면적은 730여평이고, 총건평은 2252평, 옥상 정원만으로도 230평이나 된다. 설계는 미츠코시 건축사무소, 건축 도급업자는 타다공무점(多田工務店)이다. 공사는 1929년 3월에 착공하여, 1930년 10월에 준공했다.

설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장소는 경성에서 가장 상업에 적절한 장소이며, 그 외관에도 필요충분한 배려가 검토되었던 것이다. 일본에도 몇번이나 견학하러 나갔다. 그 결과, 자유로운 밝은 느낌의 건축물이면서 한편으로 안정된 친밀감이 있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양식은 네오·르네상스 양식으로하고 기능도 철저히 손님위주로 했다. 의장은 내외부의 색채의 조화에 고려하여, 조각이나 장식은 우아하고 부드럽게 보이는 것으로 했다. 또 정면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배치할지, 현관과 쇼윈도를 어디로 계획할까 등을 위해서 몇일이나 광장에 서서 계획했다. 또 눈이 내린 후에는 사람들의 구두의 뒤를 관찰하고, 왕래의 흐름과 양을 분석했다. 관동 대지진 후에 계획되었기 문에 특히 내진내화에 주의를 기울여 기초공사나 방화 구획을 했다. 공사가 시작되면 상세도, 현존도(原寸圖), 모형을 만들어 시간을 들이고 작업을 진행시켰다. 또 시공에 임할때 복잡한 석공일이나 주물 공사가 다수 있었지만, 가능한 한 조선에 있는 공장에서 조선인, 중국인의 손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공사가 끝난 후에는 기술이 발전하여 장인들이 나왔고, 어려운 공사도 국외에 발주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공사 책임자는 술회 하고 있다.

각층의 배치에 대해 설명하면 1층에는 중앙 객실, 일반 판매장, 내외 쇼윈도, 조선물산 진열소, 쇼핑상담소, 투어리스트뷰로, 화장실, 사무실(통신 판매, 출납계, 서무계, 외부판매계, 숙직실 등), 2층 가운데에는 점원용 식당 등의 사무용 공간과 그 외 2층에는 일반 판매장, 휴식소, 미용실, 탈의실 및 사무실(전화 교환실)이 있다. 3층에는 일반 판매장, 부인 사교실, 가봉실, 마무리실, 응접실, 베란다, 및 사무소(지점장실, 매입처 등)가, 4층에는 일반 판매장, 미츠코시 홀, 동무대, 분장실 겸 제 2 홀, 대식당, 휴식소, 및 조리실 등이, 5층은 옥상 정원, 전람회장으로서의 미츠코시 갤러리, 사진실 및 대합소, 다실, 온실 및 원예 용구 판매장, 이나리신사가 있고, 6층에는 전망대가 있다. 지하층은 판매장, 판매상품 보관품 장소와 이발실, 구두닦이소, 지하층 식당, 사무측으로는 조리실, 금고, 창고, 설비실 등이다. 엘리베이터는 정원 20명의 손님용이 2대, 점원용 1대가 설치되었다. 판매장은 물론, 구두닦이부터, 미용, 홀, 사진관, 갤러리, 옥상의 정원, 전망대 등 현재의 백화점에서도 갖출 수 없는 다양하고 모던한 서비스 기능이 지하층에서 옥상까지 전관 가득 배치되어 있던 것을 보면 놀랍다.



제 3부 부록



1920-1945년 중구

주요 건축물 목록

번호	페이지	건물명	주소	연도	설계자	시공자	구조	上/下
1	01	京城府廳舍	大平通1-31	1926.10	總督府建築課	小寺組	RC造	4/0
2		京城無線電信局	本町1丁目	(1925)				
3		京城地方法院	貞洞	1928			煉瓦造	3/0
4		總督府商工將勳館	南大門通4丁目	1929	總督府建築課	間組	RC造	4/1
5	48	京城三裁判所	西小門町37	1928.08		多田工務店	RC造	
6		京城鐵道郵便局		1930.11		今岡組	煉瓦造	3/0
7		京城中央電話局北面電話中繼所		(1933)				
8	35	京城中央電話局	本町 1-52-20	1935.06	總督府遞信局		RC造	4/1
9		朝鮮建築會資料部陳列場		(1936)				
10	02	京城消防署	太平通 1-1	(1937)	京畿道會計課	山田德治	混構造 (RC+鐵造)	4/1
11	60	京城遞信分掌局	新堂町293	1940年 6月	總督府遞信局營繕課	多田工務店	混構造 (煉瓦+木造)	2
12	06	日本生命빌딩	南大門通2-1	(1923)				3
13	05	朝鮮實業銀行本店	南大門通2-111-1	1923.05				3
14	21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黃金町2-199	1922.12				4
15		韓一銀行	南大門通 1	(1924)				3/1
16	41	本町빌딩	本町2-3	1925.06	相澤工務所	相澤工務所	混構造(RC+煉瓦+木)	3/1
17	53	朝鮮公論社	長谷川町111	1926.05	中村誠殖産銀行技師	江波組	RC造	3
18	36	京城本町總合빌딩	本町1-18	(1926)				3/1
19		南大門빌딩	南大門通5丁目	1926.12			煉瓦造	3/1
20		三井物産株式會社京城支店別館	黃金町1-63	1926.11		清水組	煉瓦造	2
21	75	西本組京城支店	若草町106	1927.04	池田建築事務所	西本組	煉瓦造	2
22	71	京城銀行集會所	北米倉町93	1929.06	中村誠殖産銀行技師	長門組	煉瓦造	2/1
23	14	日華生命빌딩	南大門通5-25	1928.06	和田順建築事務所	清水組	混構造 (煉瓦+RC造)	3/1
24	40	三越	本町1-52	1930.10	三越建築事務所	多田工務店	混構造 (煉瓦+RC造)	4/1

25		京城自動車商會	長谷川町	1928.11	小澤建築事務所	小寺組	RC造	3
26		京城電氣會社	南大門通2丁目	(1929)	清水組(小笹德藏)	清水組	RC造	5/1
27	74	中央호텔 및 自動車會社	古市町43	1928.09	平下工務所	直營	煉瓦造	3
28		朝鮮土地改良株式會社	大平通1丁目	1929.08		多田工務店	RC造	3/1
29	58	朝鮮土地經營株式會社	長谷川町112	1929.07	相澤工務店	多田工務店	煉瓦造	3
30	15	八千代生命保險會社(朝鮮支部)	南大門通5-1	(1929)	江波組	江波組	RC造	5/1
31	42	明治製菓賣店	本町2-92	1930.09	森山松之助建築事務所	多田工務店	混構造(鐵骨+RC造)	3
32	77	金融組合協會事務所	竹添町1-75	1930.09			煉瓦造	3/1
33		東一銀行南大門支店	南大門通1-1	(1931)				
34	22	吉野仲賣店事務所	黃金町2丁目	1932.06	多田工務店	多田工務店	煉瓦造	2
35	08	朝鮮殖産銀行別館	南大門通2-140	1932.12	朝鮮殖産銀行庶務課		RC造	5/1
36	12	東京火災保險株式會社京城支店	南大門通3-106	1933.02	渡邊仁建築事務所	清水組	RC造	5/1
37	09	千代田生命保險相互會社京城支店	南大門通2-10	1933.06	大倉土木	大倉土木	RC造	4/1
38	04	朝鮮新聞社	太平通2-123	1933.12	吉田享二設計事務所	東京建物	RC造	2
39	31	株式會社京城德力	明治町1丁目95	1933.12	藤澤工務店	藤澤工務店	RC造	3
40	34	大澤商會京城支店	本町1-39	(1935)				
41	23	東亞證券株式會社	黃金町2-195	1934.12	玉田建築事務所		混構造(煉瓦+RC造)	
42	37	旭빌딩	本町1-53	(1935)				
43	03	朝鮮日報社	太平通1-61	1935.06	朴東鎭	福音建築廠(王公溫)	混構造(煉瓦+RC造)	
44	07	安田銀行京城支店	南大門通2-103	1935.10		大倉土木	RC造	2
45		朝鮮貯蓄銀行本店	本町1-52	1935.11	平林金吾		混構造(鐵骨+RC造)	5/1
46		鐘紡京城서비스스테이션	本町1-32	1935.11	橫河工務店	大倉土木	RC造	
47	17	朝鮮빌딩	黃金町1-180	1938.04	高橋建築事務所	間組 小寺組	RC造	8/1
48		鐘淵紡績株式會社京城工場事務所	新設町61	(1937)				
49	16	三井物産株式會社京城支店	黃金町1-63	1938.10	橫河工務店	多田工務店	RC造	4/1
50		共同商業빌딩(北村商店)	本町2-92	(1937)	中島工務店	中島工務店	RC造	
51	63	東拓俱樂部	新堂町340		東拓建築係	近江組	混構造(煉瓦+RC+木)	2
52	10	朝鮮信託株式會社	南大門通2-130	1937.09			混構造(鐵+煉瓦+RC)	4/1
53	56	富士빌딩	長谷川町20	1937.10	多田工務店設計部	多田工務店	RC造	5/1
54	69	昭和빌딩	旭町2-6	(1938)				3
55	57	近澤빌딩	長谷川町76	1937.09	玉田建築事務所	吉田幸次郎	RC造	5
56		京城土木建築業協會	長谷川町111	1938.12		多田工務店	混構造(煉瓦+RC造)	3
57		毎日新報社	太平通1-3	(1939)				
58		睦羅紗店事務所	南大門通2-8	1938.11	多田工務店	多田工務店		
59		丁子屋	南大門通2-20	1939.09	大林組設計部	大林組	RC造	

60		大阪毎日新聞社, 東京日日新聞社京城支店	南大門通2丁目	1940.05				
61	20	東洋拓殖株式會社京城支店別館	黃金町2-195	(1940)	東拓建築係	清水組	混構造(煉瓦+木)	3/1
62	11	朝鮮銀行地金係室	南大門通3-110	1940.09	朝鮮銀行營繕係	清水組	混構造(煉瓦+RC)	2/1
63	33	森永 캔디 스토어	本町入り口	(1941)				
64	68	恩給金庫京城支店	旭町1-194	1940.11	總督府官房會計課營繕係	岸組	煉瓦造	2/1
65	19	東京建物빌딩	黃金町2-128	1940.09	東京建物	東京建物	煉瓦造	3
66	18	加藤文商店	黃金町2-129	1940.05	東京建物	東京建物 小寺組	混構造(煉瓦+木)	3
67		東京建物會館	太平通2-102	1941.12	東京建物	東京建物	煉瓦造	3/1
68	73	京城驛	古市町	1925.09	總督府鐵道局工務課建築係	清水組	混構造(煉瓦+RC)	2/1
69	72	京城工藤婦人病院	北米倉町94	(1926)	村上菊一郎	清水組		2/1
70	44	日本赤十字社朝鮮本部廳舍	南山町3-32	1933.09	總督府技師笹慶一		混構造(煉瓦+RC+木)	3/1
71	25	京城府府民病院	黃金町6-18	1933.12	京城府營繕課	東亞工業	混構造(煉瓦+RC造)	2/1
72	78	新町貸座敷組合付屬病院	新町17	1936.11	山本安弘	田邊茂作		
73	76	京城軍事後援聯盟授産所	若草町107	1941.05	京城府營繕課	瓦田工務店	木造	2/1
74		朝鮮ホテル大食堂	長谷川町	(1927)				
75	13	카페 · 이폴로	南大門5-62	1930.10		中村金七	煉瓦造	2
76	24	카페 · 릴리(百合園)	黃金町2-127	(1931)			混構造(煉瓦+木+RC)	3/1
77	79	南山莊(살롱 · 아리랑)	獎忠壇	(1931)				
78	32	丸비루會館	明治町2-48	1932.09	玉田建築事務所	深堀工務店	RC造	3/1
79	70	幾羅具(料亭)	旭町2-72	1934.10	多田工務店	多田工務店	木造	2
80	66	南山莊新館	西四軒町192	(1937)	山本安弘	田邊茂作		
81	65	新清月	西四軒町184	1937.11	田邊茂作	田邊茂作		
82		花まん本館	西四軒町南山莊隣	(1939)				
83		喜久井茶寮	旭町2-69	1938.12	清水組設計部		混構造(木+RC+煉瓦)	2/1
84	38	牡丹	本町1丁目	1941.01	小林武夫	宮田工務店	木造	3/1
85	67	不知火旅館	旭町1-10	1937.07	清水組設計部	清水組	RC造	4/1
86	30	浪速館映會館	明治町1-65	(1933)				
87	28	京城府營수영장	黃金町7-2	1934.03	京城府土木課	間組	RC造	
88		京城府府民館	太平通1-60	1935.12			RC造	3/1
89	81	明治座	明治町1-54	1936.10	玉田建築事務所	三木合資	混構造(鐵骨+RC)	4/1
90	82	黃金座	黃金町4-310	1936.11	玉田建築事務所		混構造(鐵骨+RC)	3/1
91	83	若草映畫劇場	若草町41	1935.12	小澤建築事務所		混構造(鐵骨+RC)	
92		朝鮮遞信事業會館	大平通1-60	1937.06		三木合資	RC造	4/1
93		府民會場	黃金町	1937.12	京城府營繕課	東亞工業		
94	29	京城運動場選手控所	黃金町7丁目	1941.05	京城府營繕課		煉瓦造	2

95		春畝博文寺의 碑	西四軒町	1933.10	伊東忠太			
96		皇太子御降誕生塔	京城府廳前	(1934)				
97		滋澤青淵先生頌德碑	獎忠壇公園	1933.12	小川敬吉(淺川伯敦)			
98		朝鮮銀行前로타리廣場	南大門通3	(1939)				
99	45	朝鮮神宮	南山	1925	總督府內務局建築課・伊東忠太	總督府內務局建築課		
100	80	京城神社	倭城台町	(1927-32)		多田工務店		
101	49	聖公會聖堂	貞洞	(1927)	エス・ジクソン			
102	64	春畦山博文寺	西四軒町	1931.10	伊東忠太	大倉土木	木造	
103	46	朝鮮神宮社務所増築	南山	1933.10	總督府官房會計課		木造	
104	47	乃木神社	南山	1934.09			木造	
105	59	京城基督教青年會館	長谷川町112	1934.11	笹慶一	東亞工業	RC造	5/1
106		朝鮮神宮奉贊殿	南山	(1935)				
107	43	東本願寺京城別院客殿庫裡	南山町3-34	1938.01	多田工務店設計部	生田組	混構造(木+RC)	
108		總督府立京城圖書館	南大門通	(1924)			煉瓦造	2/1
109	39	京城女子實業學校	本町1丁目	1928.12		佐藤組	RC造	3
110		京城放送局	貞洞	1926.12	中村誠	檜崎組	煉瓦造	2/1
111	54	京城府圖書館本館	長谷川町115	(1927)		小寺組	RC造	3/1
112	55	京城齒科醫學校	長谷川町	1928.05			RC造	4/1
113	26	京城師範學校	黃金町6丁目	1923.05			煉瓦造	2
114	50	京城公立第一高等女學校	貞洞1	1922.03			木造	2
115	27	京城師範學校付屬小學校	黃金町6丁目	(1928)			煉瓦造	2
116		京城醫學專門學校	蓮建町128	(1928)			木造	平屋建
117		京城測候所	松月町1	1932.10	京畿道營繕課	佐佐木安之助	混構造(煉瓦+RC)	2
118	61	昭和工科學校	新堂町251	1934.08	昭和工科學校	森田組	混構造(煉瓦+RC)	2
119		公立日之出小學校	日之出町	1936.08	京城府營繕課	東工業	RC造	3/1
120	62	京城公立櫻ヶ丘小學校	新堂町331	1937.08	京城府營繕課	京城土木	RC造	3
121		京城府貞洞公立普通學校	蓬萊町4	1937.05	京城府營繕課	三木合資	RC造	3
122	51	德壽宮美術館	貞洞1	1937.11	中村與資平建築事務所		RC造	
123	52	京城公立德壽國民學校	貞洞1	1941.08	京城府營繕課	生間組	混構造(煉瓦+木)	2



1800-2009년 중구

건축 및 도시사 연표

연도	주요사건	중구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사건		비고
		건축	도시	
1862		와룡묘 창건		
1866	병인양요			
1871	신미양요			
1876	강화도조약			
1883		미국 공사관 한옥 구입		현 하비브하우스
1884	갑신정변			
1887		배재학당 교사 준공		
1890		러시아공사관 준공		
1891		영국공사관 준공		현 영국대사관 관저
1892		악현성당 준공		
1894	청일전쟁		한성부의 5부를 5 서로 고침	
1895	을미사변 한성부를 한성군으로 개칭			
1896	아관파천 한성군을 한성부로 개칭			
1897	대한제국 선포	프랑스 공사관 준공 정동교회 준공 원구단 준공 회동서관 준공	왜성대 공원 조성	
1898		명동성당 준공 남산 대선사 신궁 건립		
1899		명동성당 주교관 준공		현 전주교서울대교 구청
1900	경인철도 개통	황궁우 준공 경운궁 담장공사완료 정관현 준공(추정) 중명전 준공(추정) 서소문역 준공(추정) 남소영에 장충단 건립	어영청의 분영 남소 영 설치	
1902		중화전 신축 손탁호텔 준공 원구단 내 석고단 준공		
1904	러일전쟁 발발	경운궁 화재로 소실 세브란스 병원 준공		중화전 등 다수 현 서울역 맞은편
1905	을사조약	경운궁 전각 중건		석어당 등 다수
1906	통감부설치 탁지부 건축소 설치	중화전, 조원문 중건 대안문을 대한문으로 개칭		

1907	경성박람회(왜성대)	경운궁을 덕수궁으로 개칭		
1908		동양척식회사설립		
1909		광통관 준공		현 우리은행 종로지점
1910	한일병합조인공포, 총독부설치 한성부를 경기도 경성부로 개칭	석조전 준공	한양공원 준공	
1911			경성부 도성내를 5부 36방, 도성외를 8면으로 함	
1912		조선은행 본점 준공		현 한국은행사 박물관
1914			한성부 방, 계, 동 제도를 폐지, 186개 정, 정목, 동으로 고쳐 경성부 직할로 됨	
1915		이화학당 심슨홀 준공		현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1916		배재학당 동관 준공		현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1918	토지조사사업 완료			
1919	3.1운동			
1922		이화학당 프라이어홀 준공 경성주식현물취인소 준공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준공		정동 1-8
1923	조선물산장려회 창립	배재학당 서관 준공 식산은행 개건 공사 준공 조선실업은행 본점 준공 경성사범학교 준공		을지로 6가 106
1924		관폐신사 조선신궁 경성일보사 준공		
1925	한강 대홍수(을축년수해)	경성역사 준공 국사당 철거, 일부 이전 본정 빌딩 준공 경성대운동장 준공 조선신궁 준공 경성기독교교회당 준공	장충단 공원 조성	현 서울 역사 현 동대문운동장 남산공원
1926		구세군사관학교 준공 서울성공회성당 준공 정동교회 증축 경성방송국 준공 경성부청사 준공 경성운동장 준공 조선공론사 준공 남대문빌딩 준공 三井물산주식회사 경성지점별관 준공 조선인쇄주식회 준공 組合교회 준공 정동 성공회 준공		현구세군중앙학교 현 서울시청 현 동대문 운동장

1927		명동성당 주교관 별관 준공 경성부 창고 준공 M씨주택 준공 吉田直氏주택 준공		현명동성당주교숙소 장충단 입구 서측 장충동 1가 56-12
1928		日華 생명빌딩 준공 경성여자실업학교 준공 경성치과의학교 준공		봉래동 1가 을지로 6가 18-1 남대문로 3가 110
1929	광주학생운동	경성재판소 준공 경성전기주식회사 사옥 준공 경성은행집회소 준공 조선토지개발주식회 준공		현 서울시립미술관 현 한국전력주식회 사 사옥 태평로 1가
1930		三越백화점 준공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서울관구 성당 1, 2 준공 경성철도 우편국 준공 명치제과매점 준공 三越경성지점 少年寮 준공 江島氏주택 준공 渡邊晋氏주택 준공		현 신세계백화점 충무로 2가 63-1 순화동 3-26 장충동 2가 190-2 장충동 2가 193-94
1931		경성 본정 3정목 집회소 준공 春畝山博文寺 준공	장충동 1가[西四軒町] 및 신당동 주택지 개발	조선도시경역주식 회사 주도 장충동 2가 202
1932		丸 비루회관 준공 吉野仲賣店 사무소 준공 古市町 공동빌딩 준공 조선식산은행 별관 준공		을지로 2가 199 을지로 1가 140-1
1933		동경화재주식회사 경성지점 준공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준공 경성부 부민병원 준공 동경화재보험주식회사 경성지점 준공 千代田생명보험상호주식회사 경성지점 준공 주식회사 경성 德力 준공 澁澤靑淵先生송덕비 준공 조선신궁 사무소 증축 준공		현 한국은행 별관 현 대한적십자사 남대문로 3가 110 명동 1가 59 명동 1가 59-1 장충동 2가 197 남산공원
1934		千大田 빌딩 준공 幾羅具 요정 준공 경성 本町 호텔 착공 동아증권주식회사 준공 경성부영 물 공사 준공 乃木신사 준공 경성기독교 청년회관 준공 昭和공과학교		태평로 1가 회현동 2가 충무로 2가 을지로 2가 195 을지로 7가 남산정 소공동 112-13 신당동 251
1935		배재학당 대강당 준공 조선저축은행 본점준공 경성부민관 준공 경성중앙전화국 준공 조선일보사 준공 주식회사 安田은 행경성지점 준공 조선저축은행 본점 준공 鐘紡경성서비스스테이션준공 若草영화극장 준공		현 제일은행지점 현 서울시의회 현 스카라 극장 충무로 1가 태평로 1가 61-12 소공동 103 충무로 1가 52 충무로 1가 23-10 초동 4
1936		明治座 준공 新町貸座敷組合부속병원준공 경성세무감독국청사 준공 黃金座 준공 공립日之出소학교 준공		현재 리모델링 중 을지로 4가 316 충무로 3가 60-1

1937		不知火 여관 준공 조선신탁주식회사 준공 富士빌딩 준공 近澤빌딩 준공 조선체신사업회관 준공 경성공립櫻丘소학교 덕수궁미술관 준공		회현동 2가 소공동 7 소공동 87-1 소공동 76 태평로 1가 61-28 신당동 331 덕수궁내
1938	국가총동원령	덕수궁 이왕직미술관준공 三井物産주식회사 경성지점 喜久井茶寮 준공 조선빌딩 준공 경성토목건축업협회 준공 睦羅紗店사무소 준공 조선신탁주식회사사장대준공 윤씨주택 준공		현 덕수궁 미술관 현 서울시장 별관 회현동 2가 을지로 1가 1 소공동 111-5 명동 1가 59 정동 17-11 신당동
1939		丁字屋 백화점 준공		현 롯데 영플라자
1940	조선대박람회 개최	경성체신분장국 준공 대판매일신문사, 동경일일신문사 경성 지점 준공 조선은행 地金係室 준공 恩給金庫경성지점 준공 동경건물빌딩 준공 加藤文商店 준공		신당동 330-2 남대문로 2가 남대문로 3가 110 회현동 1가 194-15 을지로 2가 128 을지로 2가 129
1941		牧丹 준공 동경건물회관 준공 경성운동장선수 控所 준공 덕수공립초등학교 준공		충무로 1가 태평로 2가 70-5 정동 1-9
1943			경기도 경성부 중구 설치	
1945	광복			
1946	경성부를 서울특별자유시로 개칭		행정구역은 8구제 를 실시하고 동은 267개	
1948	공창 제도 폐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부 수립			유엔 대한민국 합법 정부승인
1949		부민관을 국립극장으로 개칭		
1950	한국전쟁 발발 서울 수복			9.26 수복
1951	서울 재수복			3.14 수복
1953	휴전협정			
1954	통행금지시간 단축	중앙우체국 업무재개		
1955		동화백화점 개점		현 신세계
1957		코리아하우스 개관	양동 300세대 전소	현 한국의 집
1958		서울 야구장 개장	동대문 시장 대화재	
1959			충무로 입구 대화재 평화시장 대화재	
1960		남산드라마센터 착공		
1961	5.16 군사 쿠데타 발발		청계천 복개공사 완 료	
1962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남산 케이블카 등장	

1967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세운상가 개관 태평로 지하도 개통 3.1 고가도로 완성	
1968			전차 운행 중지	
1969			남산 1, 2호 터널 준공	
1970	새마을 운동 시작			
1971		대연각 호텔 화재		
1972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0월 유신 단행			
1974			지하철 1호선 개통	
1977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8			남산 3호 터널 개통	
1979	최규하 대통령 취임			
1981	전두환 대통령 취임			
1982	서울 무역박람회 개최			
1984			지하철 2호선 개통	
1985			지하철 3, 4호선 개 통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개최			
1988	서울 올림픽 게임 개최			
1991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1993	김영삼 대통령 취임			
1994	서울 정도 600주년 행사 개최	타임캡슐 매장		남산한옥마을
1955			버스전용 차선제 실 시 지하철 5호선 개통	
1997	IMF 외환 위기 발생			
1998	김대중 대통령 취임		남산 한옥마을 개관	
2000	서울 시티투어 버스 개통		지하철 6호선 개통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2003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5			청계천 복원 공사 완료	
2008	이명박 대통령 취임	송례문 전소		



주요 건축물 개요 및 신·구 자료

01. 京城府庁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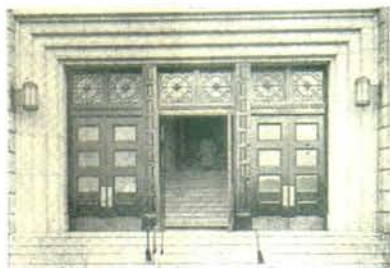
주소	大平通1丁目31	종류	공공건축	층수(구조)	지상 4층(RC造)
준공	1926년 10월 01일	설계자	総督府建築課	시공자	小寺組

일제강점기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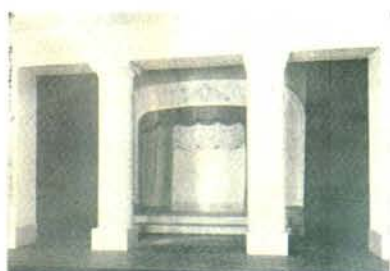




국회입법당 건물



국회입법당 건물



국회입법당 건물



국회입법당 건물



국회입법당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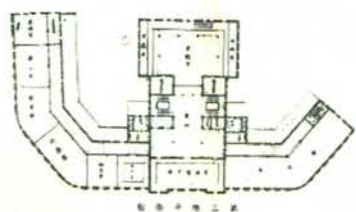
국회입법당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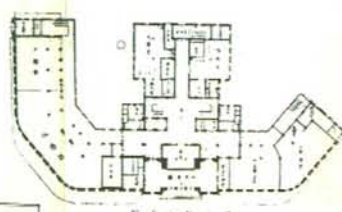
국회입법당 건물



국회입법당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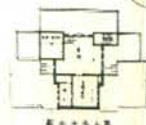
京城領事館二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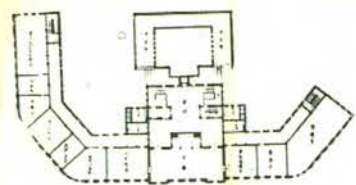
京城領事館二階



京城領事館二階



京城領事館二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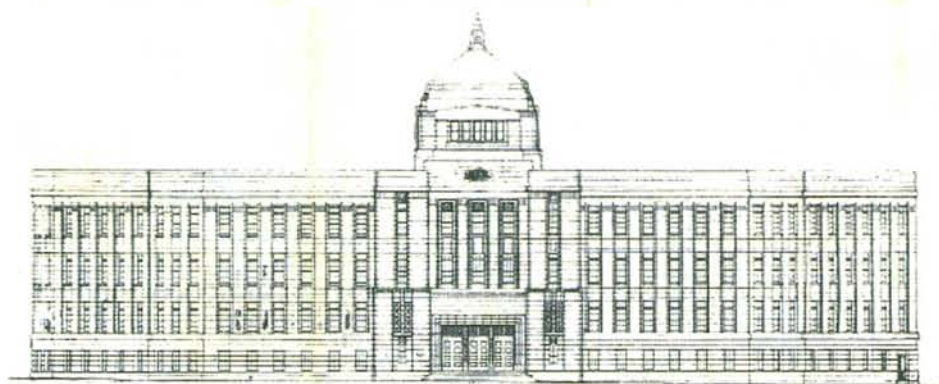


京城領事館二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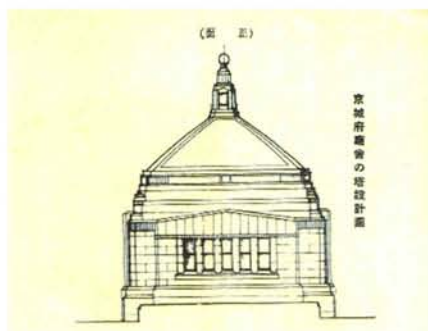


京城領事館二階

(圖正) 圖計設舍廳府城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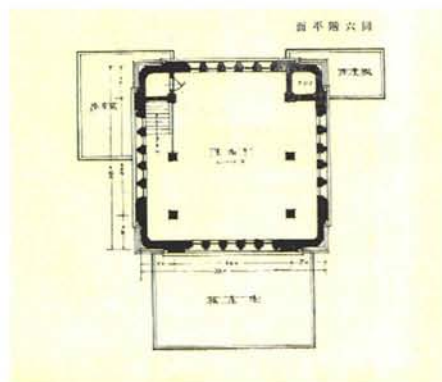


(圖正) 圖計設舍廳府城京



(圖正)

京城府廳舍の塔設計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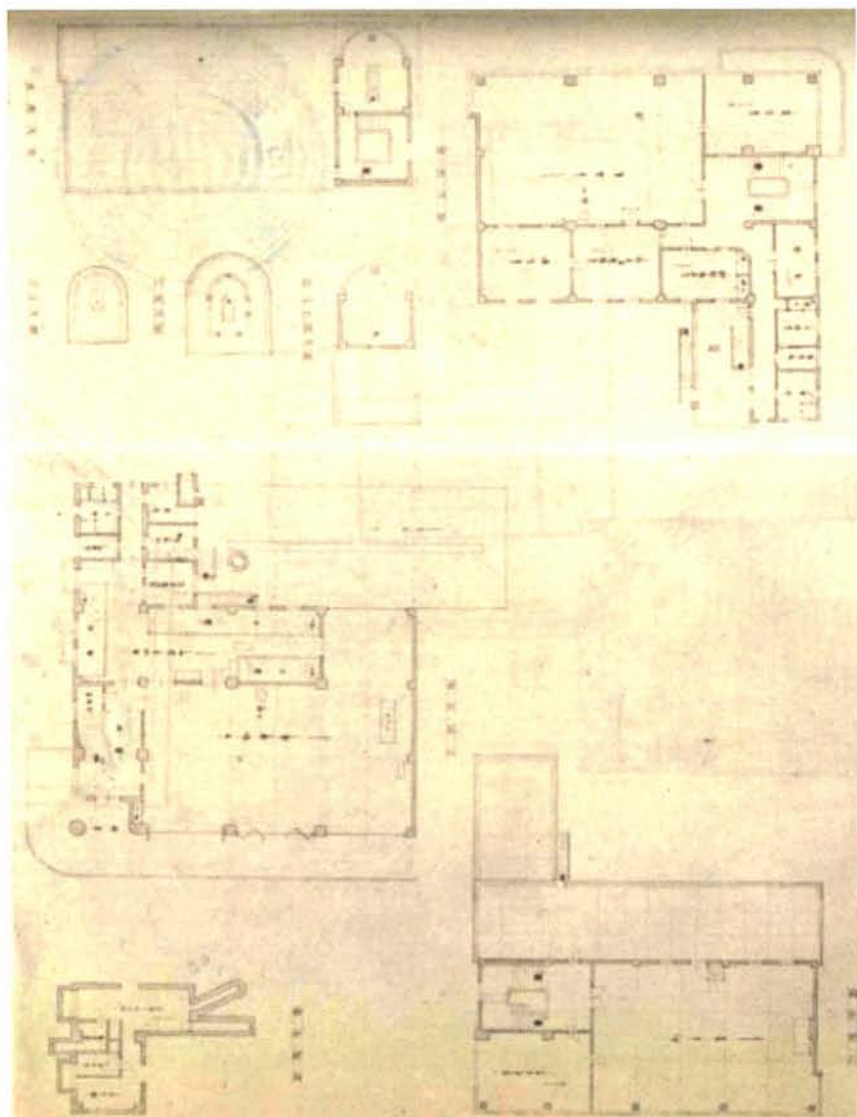


面平階六第

02. 京城消防署

주소	大平通1丁目1	종류	공공건축	층수(구조)	지상4/지하1층(混構造)
준공	1937년	설계자	京畿道會計課	시공자	山田徳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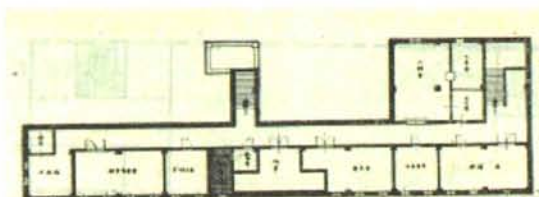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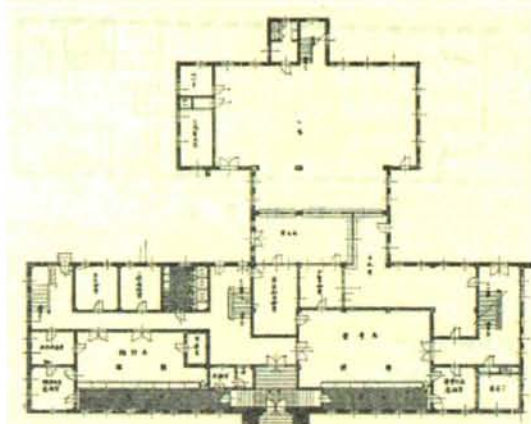
03. 朝鮮日報社

주소	太平通 1 丁目 61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 (混構造)
준공	1935년 6월	설계자	朴東鎭	시공자	福音建築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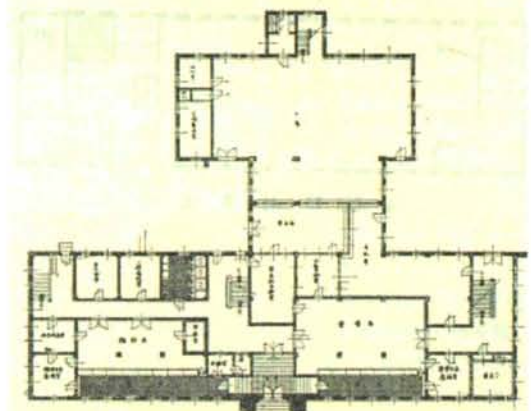




朝鮮日報社地階平面圖



同上一階平面圖



同上一階平面圖



同上三階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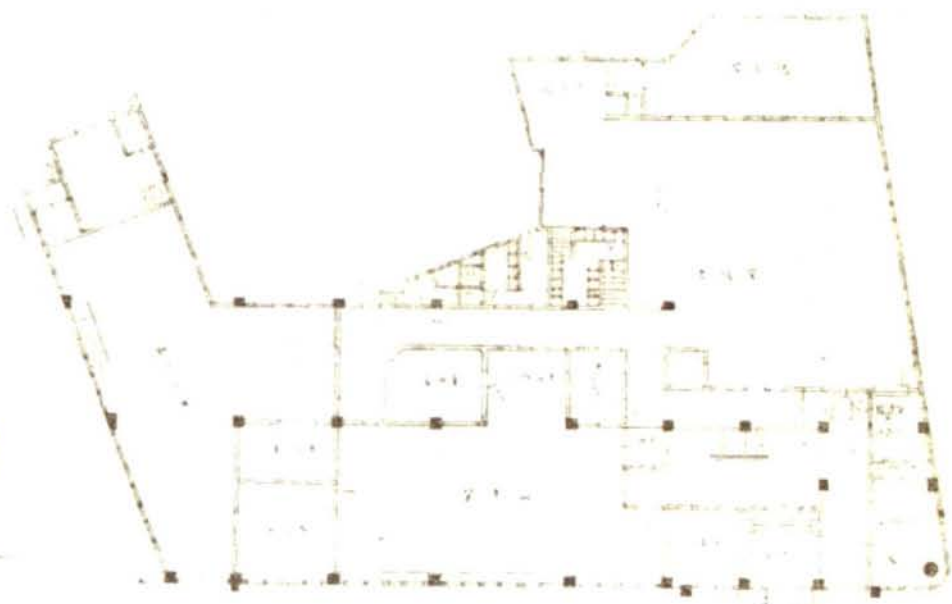


同上四階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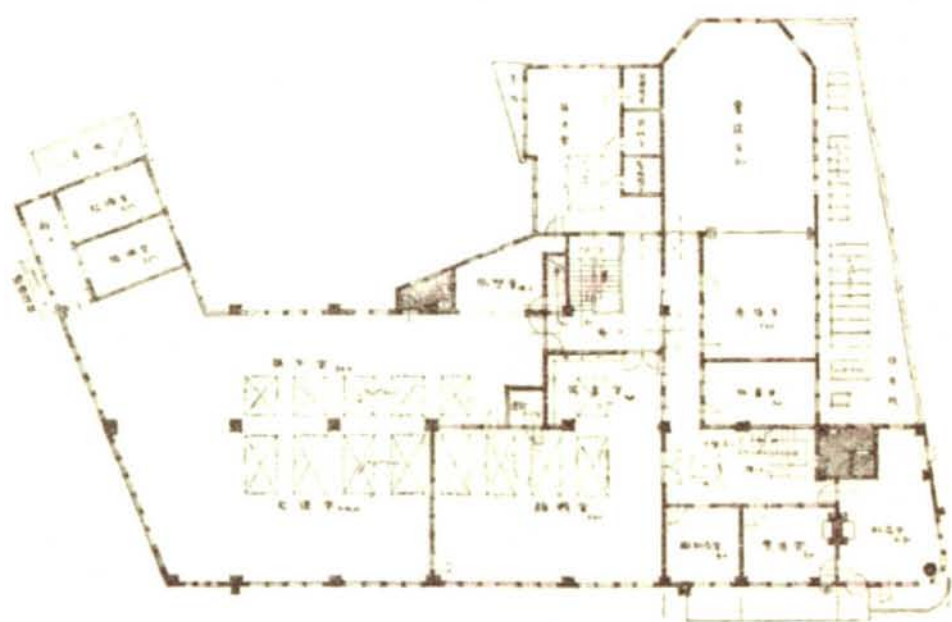
04. 朝鮮新聞社

주소	太平通2丁目123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2층(RC造)
준공	1933년 12월	설계자	吉田幸二設計事務所	시공자	東京建物





壹階平面圖



貳階平面圖

05. 朝鮮實業銀行本店

주소	南大門通2丁目111-1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3층(-)
준공	1923년 5월	설계자	-	시공자	-



06. 日本生命빌딩

주소	南大門通2丁目1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3층(-)
준공	1923년	설계자	-	시공자	-



07. 安田銀行京城支店

주소	南大門通2丁目103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2층(RC造)
준공	1935년 10월	설계자	-	시공자	太倉土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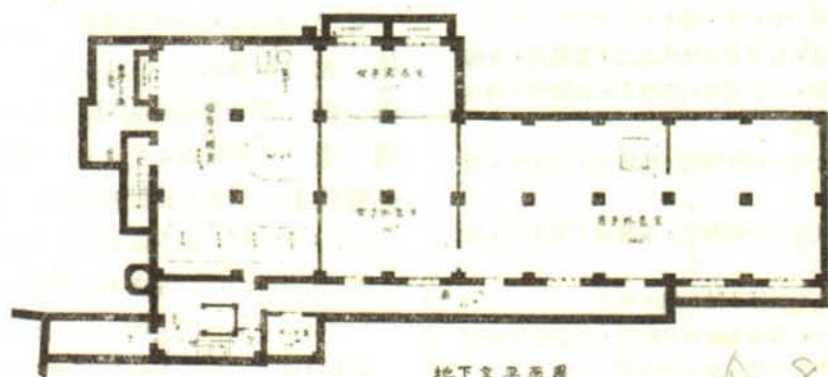


08. 朝鮮殖産銀行別館

주소	南大門通2丁目140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5/지하1층(RC造)
준공	1932년 12월	설계자	朝鮮殖産銀行庶務課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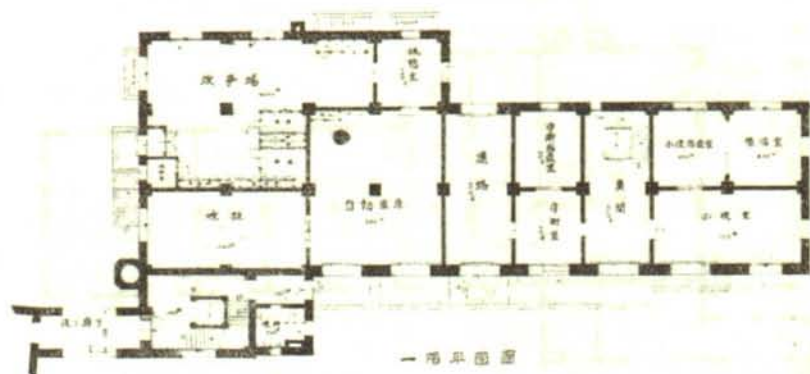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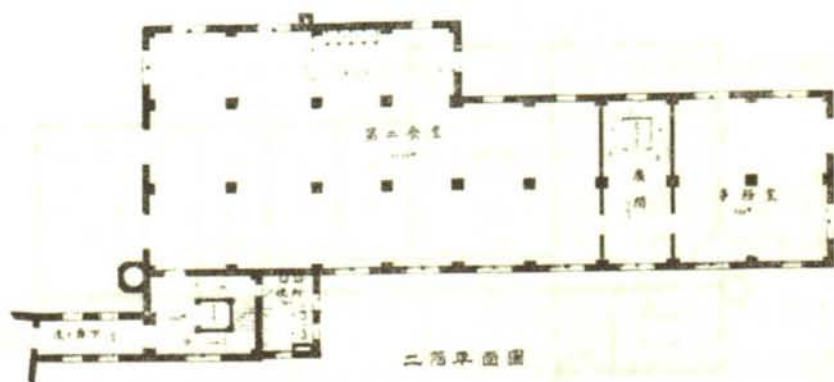


地下室平面图

2.81



一层平面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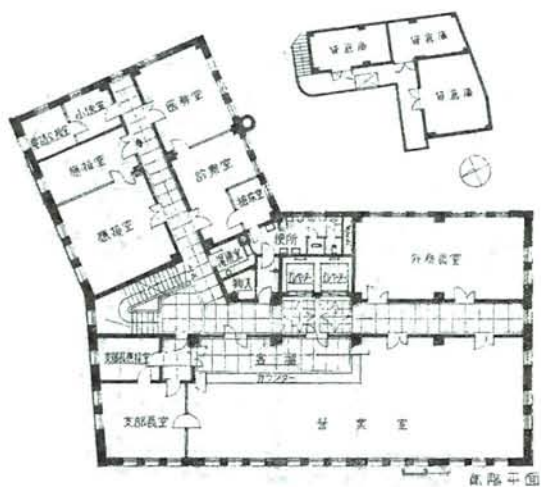


二层平面图

09. 千代田生命保險相互會社京城支店

주소	南大門通 2 丁目 10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4/지하 1층(RC造)
준공	1933년 6월	설계자	太倉土木	시공자	太倉土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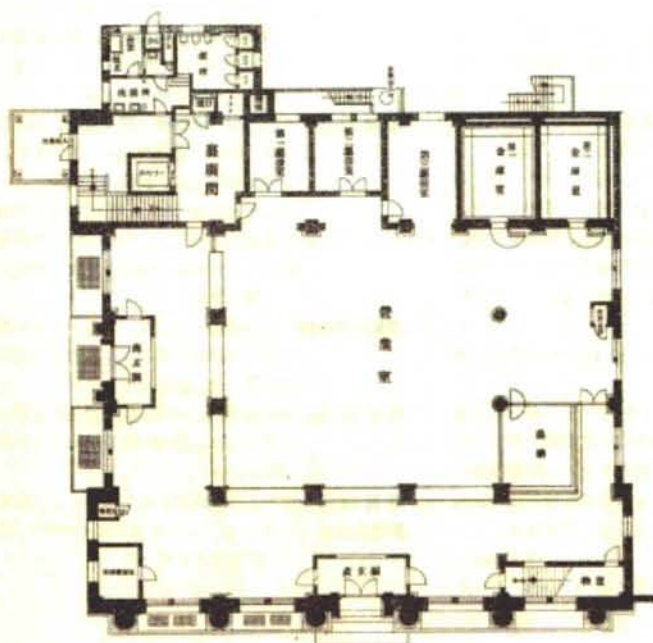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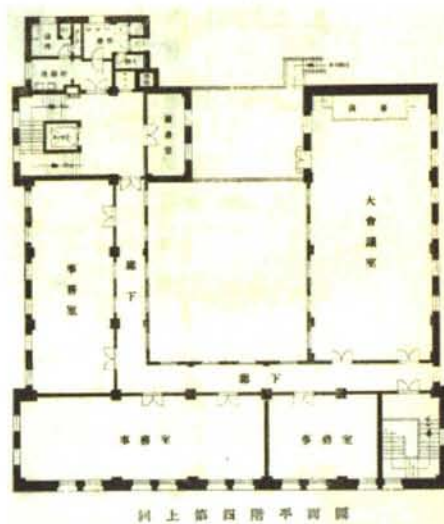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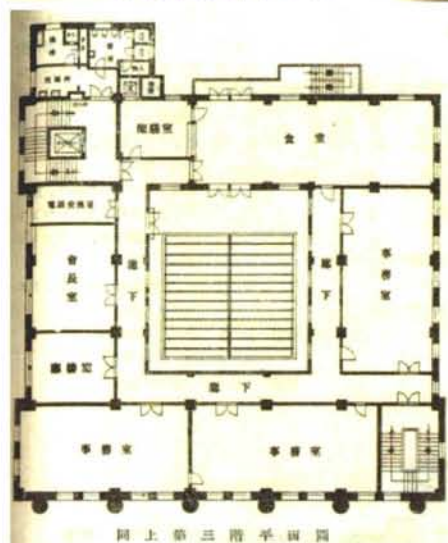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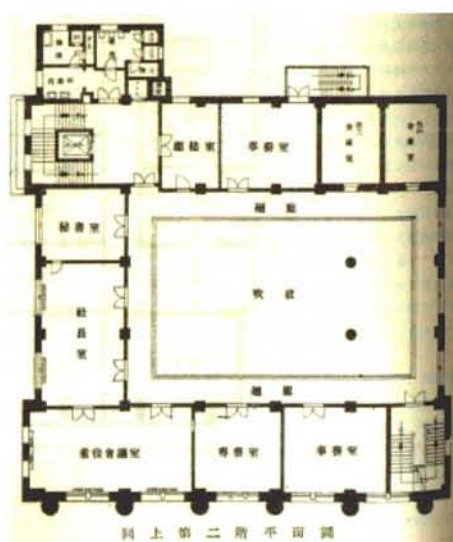
10. 朝鮮信託株式會社

주소	南大門通 2丁目130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4/지하1층(混構造)
준공	1937년 9월	설계자	-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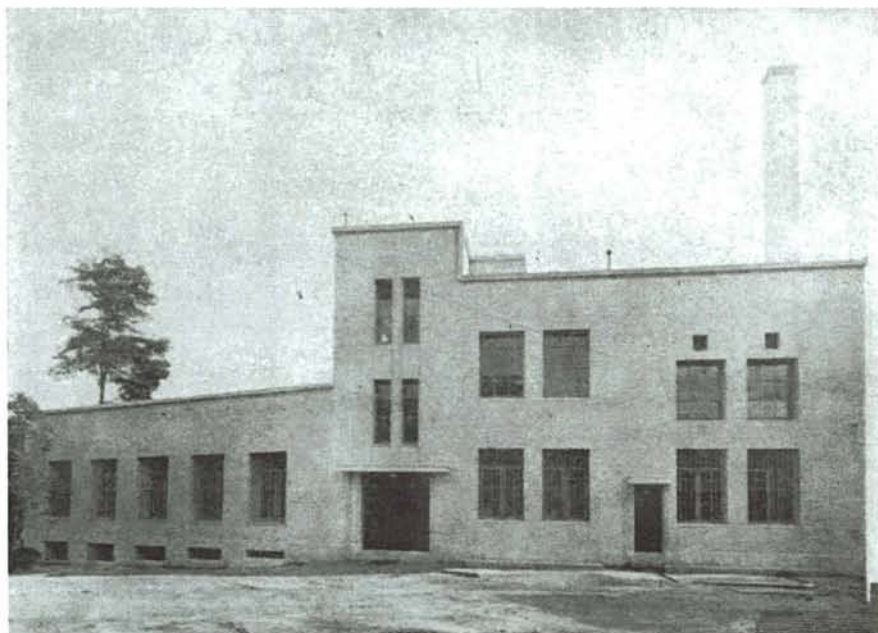


朝鮮信託株式會社第一層平面圖



11. 朝鮮銀行地金係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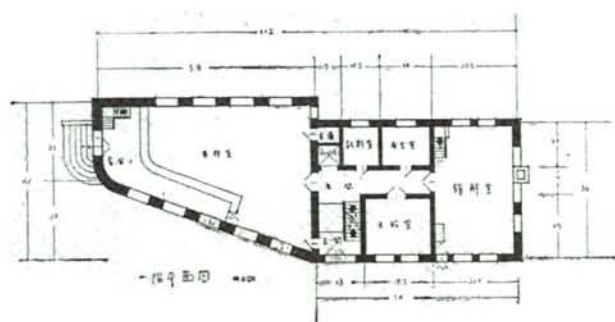
주소	南大門通3丁目110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2/지하1층(混構造)
준공	1940년 9월	설계자	朝鮮銀行營繕係	시공자	清水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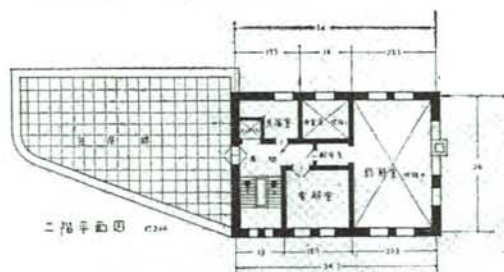
12. 東京火災保險株式會社京城支店

주소	南大門通3丁目106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5/지하1층(RC造)
준공	1933년 2월	설계자	渡邊仁建築事務所	시공자	清水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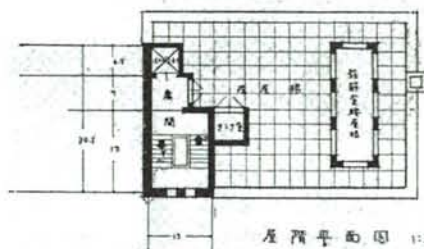




同上 一階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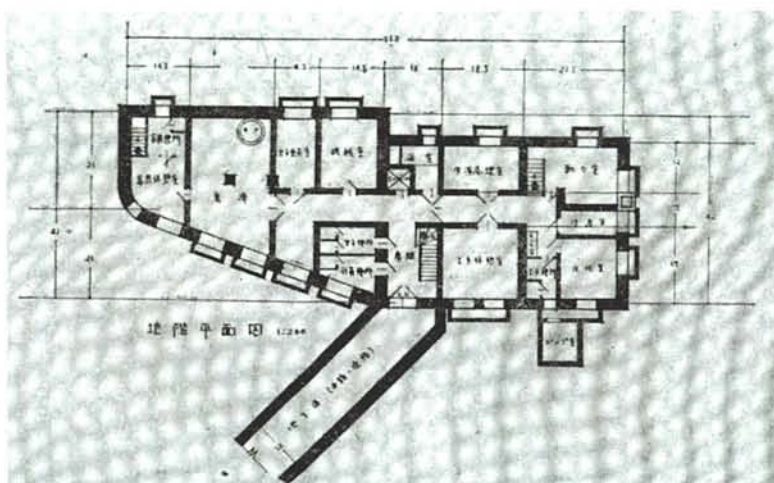


二階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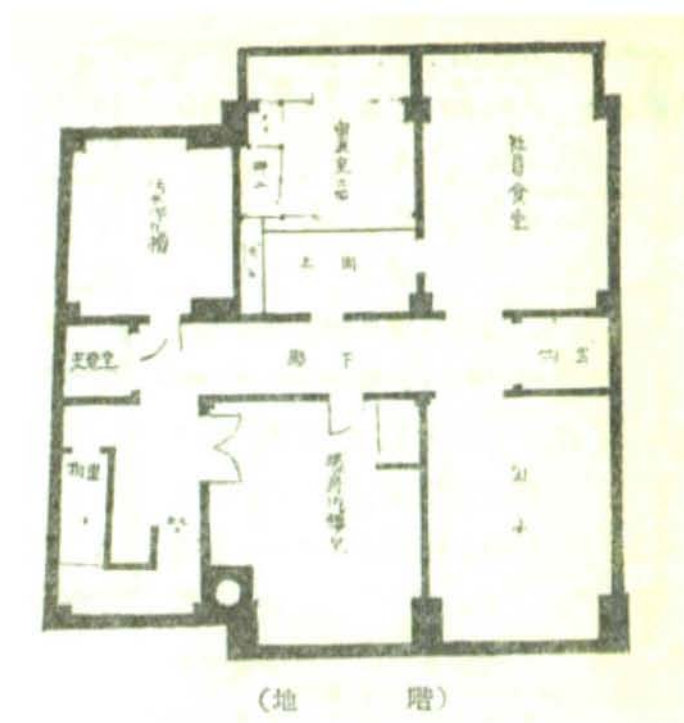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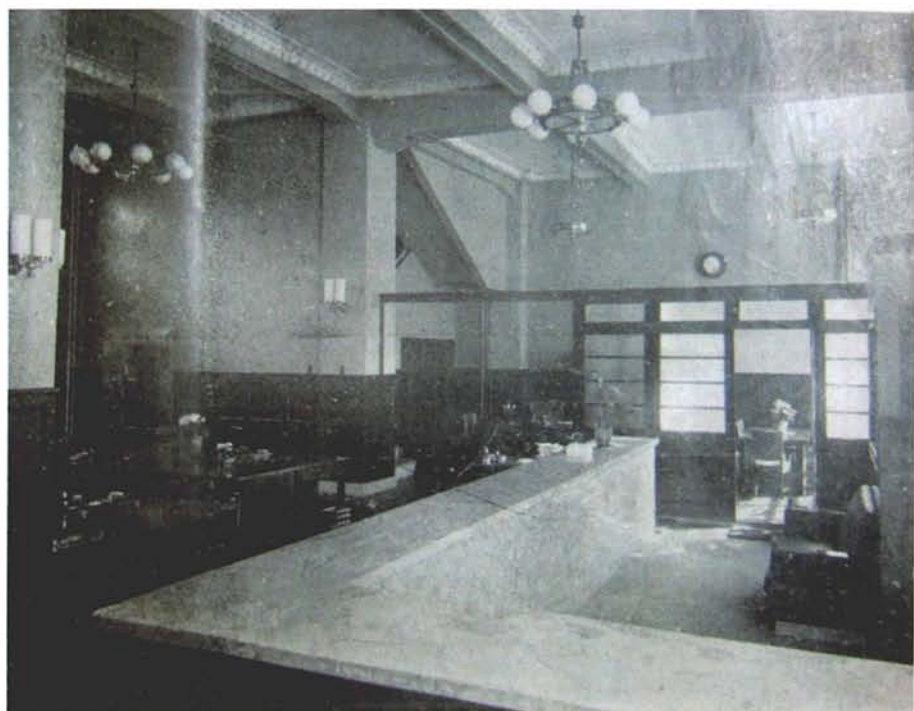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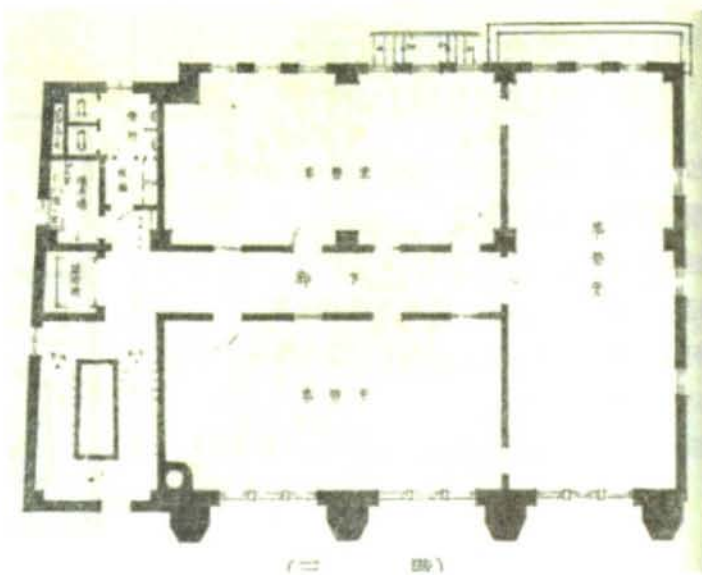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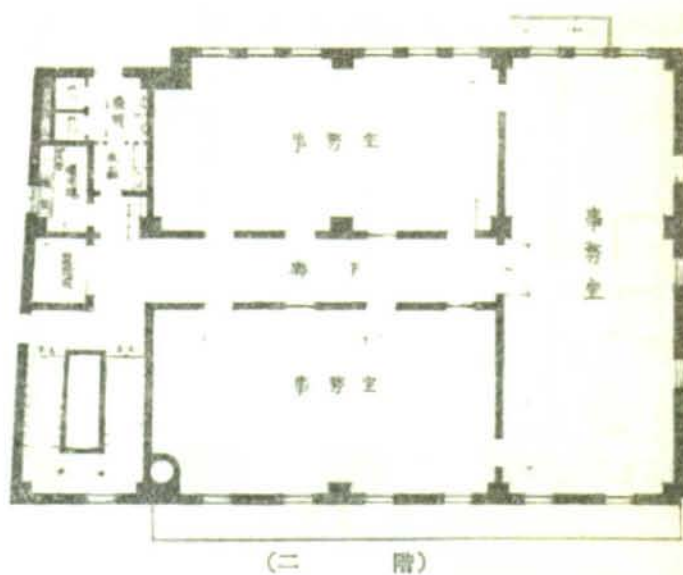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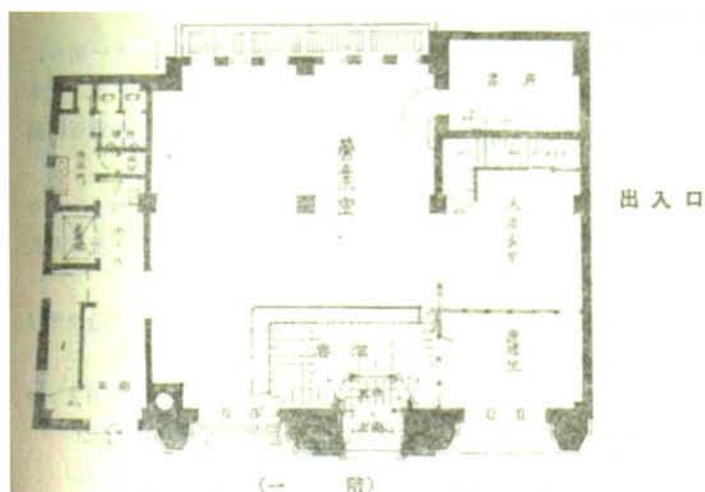
屋頂平面圖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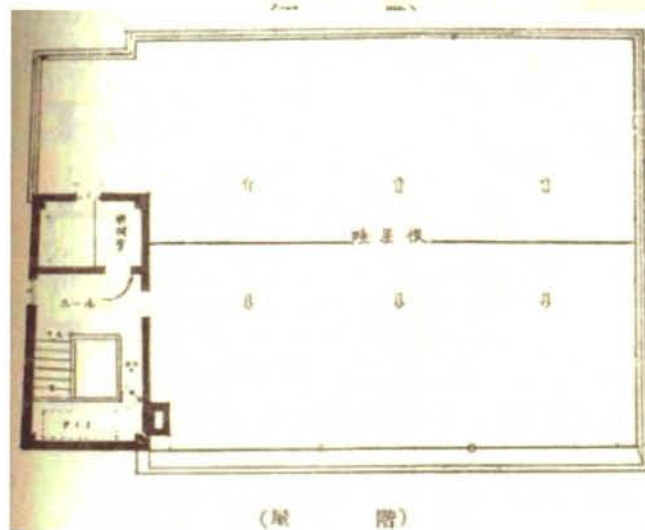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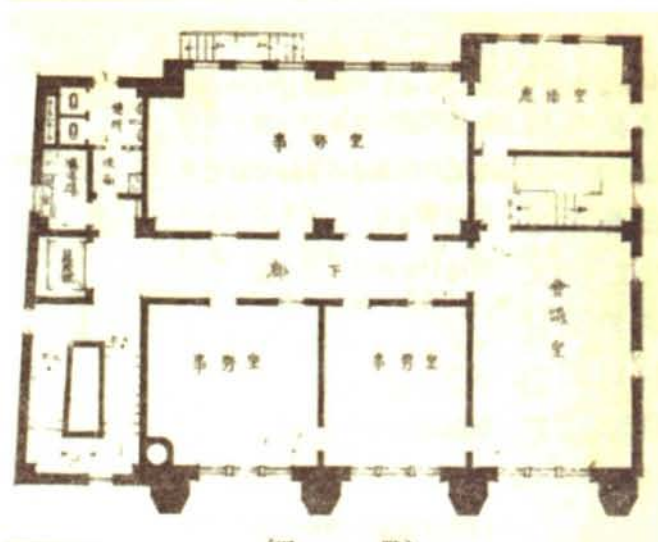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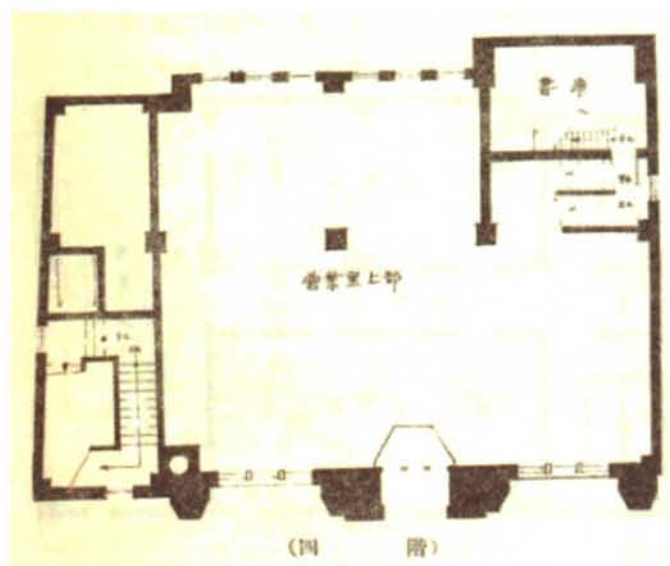
同上 屋頂平面圖



三階平面圖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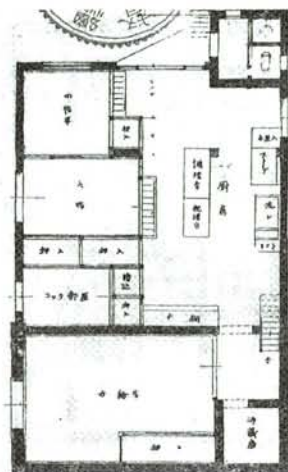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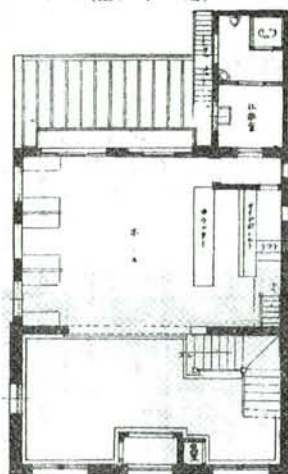
13. 카페 · 아폴로

주소	南大門5丁目6.2	종류	식당 · 오락시설	층수(구조)	지상 2층(煉瓦造)
준공	1930년 10월	설계자	-	시공자	中村金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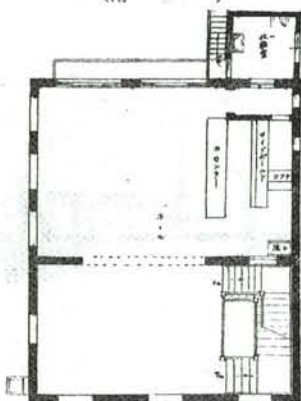




(室 下 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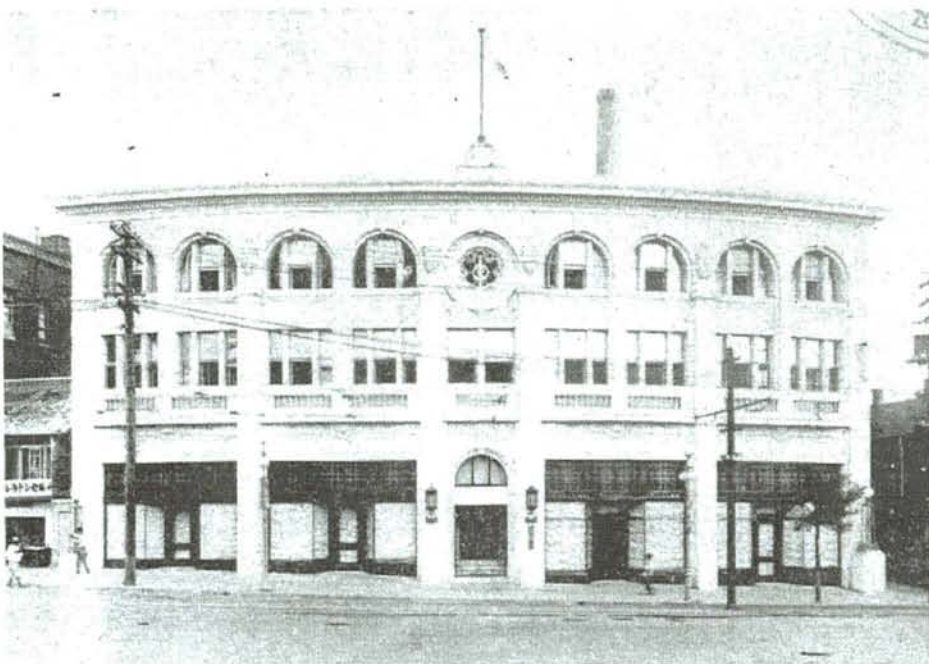
(階 一)



(階 二)

14. 日華生命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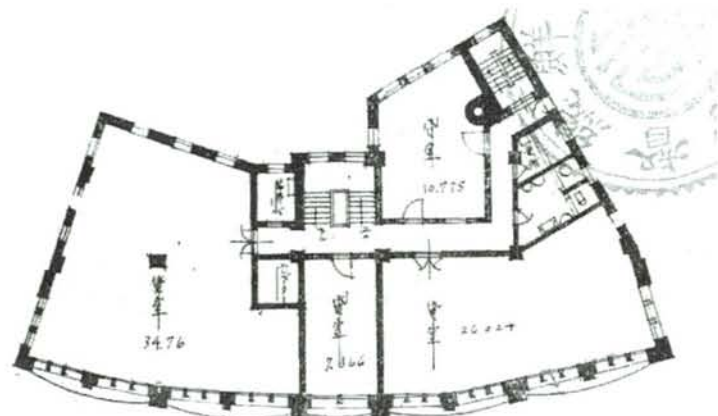
주소	南大門通 5 丁目 25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3/지하1층(混構造)
준공	1928년 6월	설계자	和田順建築事務所	시공자	清水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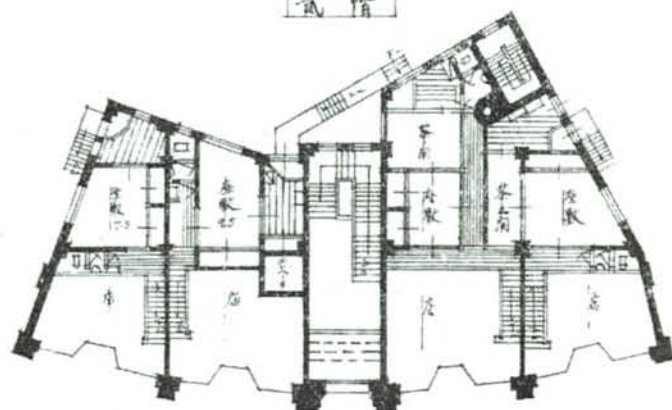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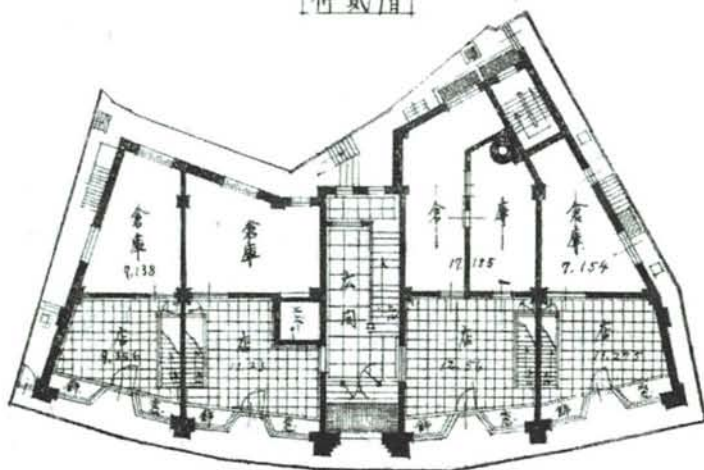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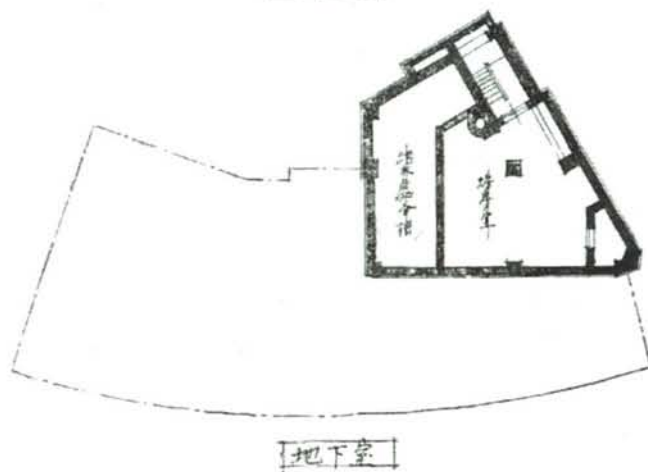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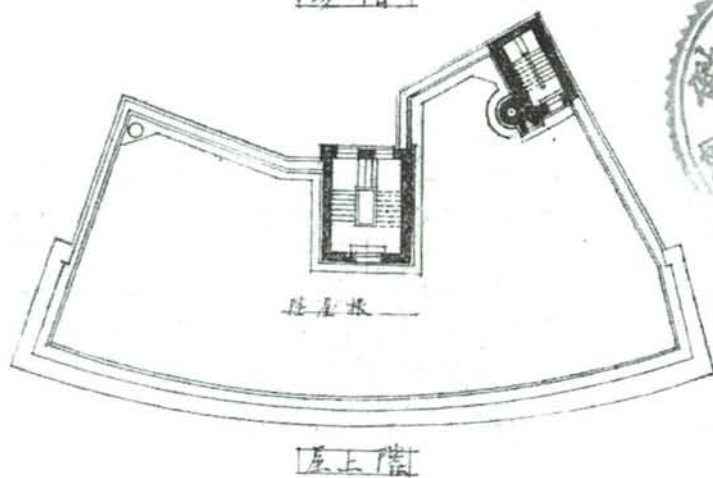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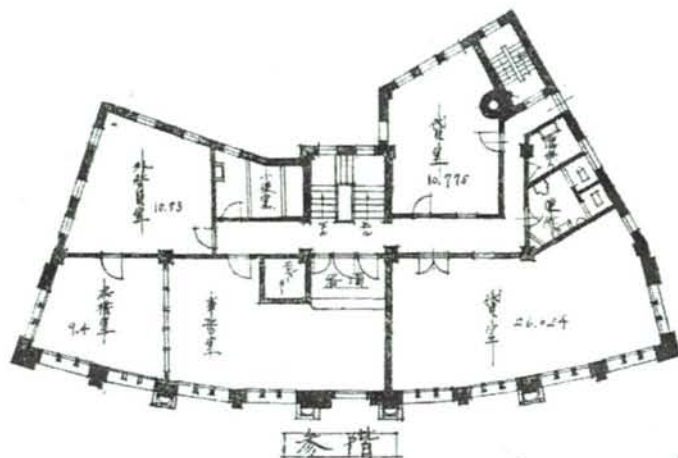
二階



仲二階



壹階



15. 八千代生命保險會社 朝鮮支部

주소	南大門通5丁目1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5/지하1층(RC造)
준공	1929년	설계자	江波組	시공자	江波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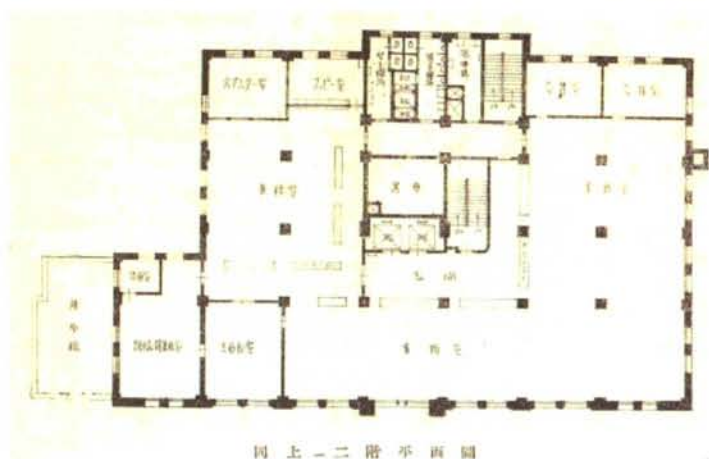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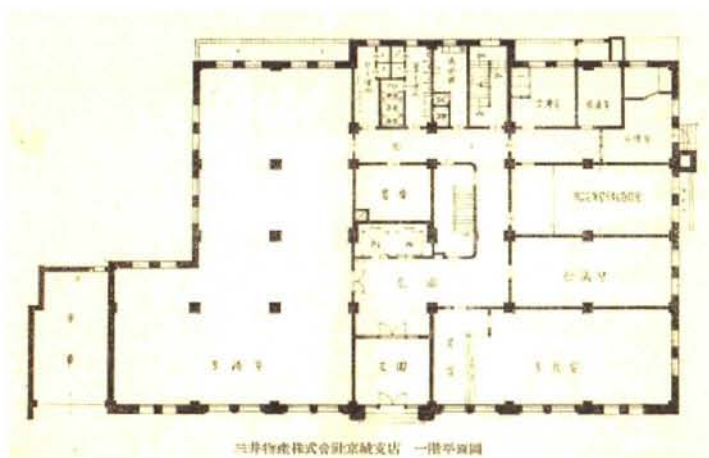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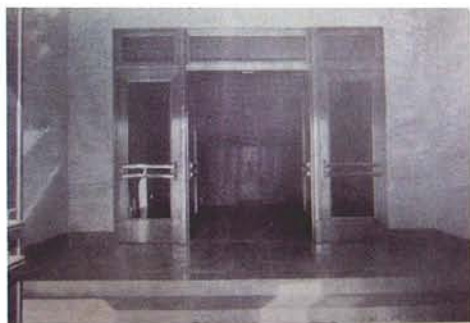
八千代生命保險會社朝鮮支部
(側面外觀)



16. 三井物産株式會社京城支店

주소	黃金町 1 丁目 6 3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4/지하1층(RC造)
준공	1938년 10월	설계자	橫河工務店	시공자	多田工務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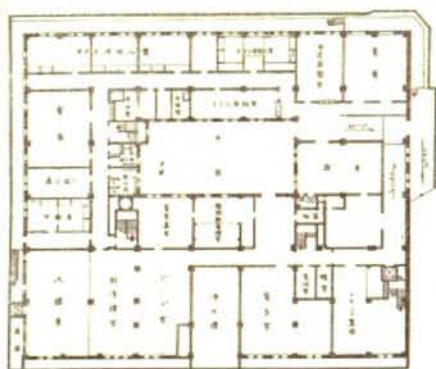


17. 朝鮮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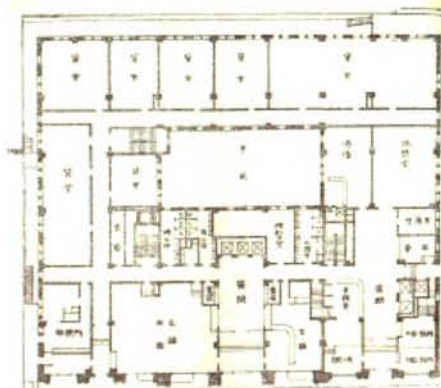
주소	黃金町1丁目180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8/지하1층(RC造)
준공	1938년 4월	설계자	高橋建築事務所	시공자	間組小寺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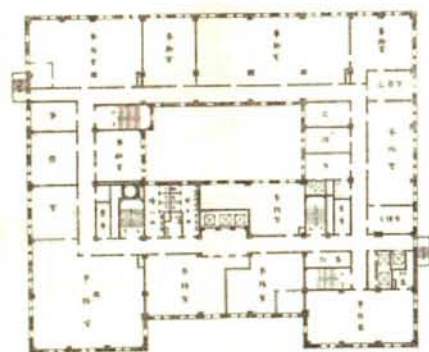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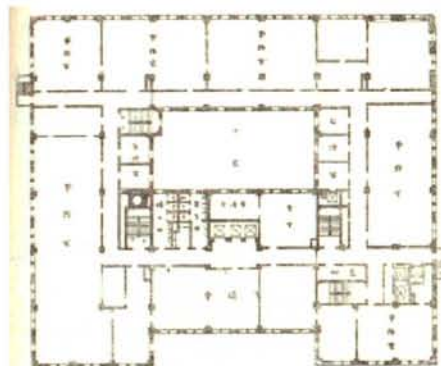
제1관공서 1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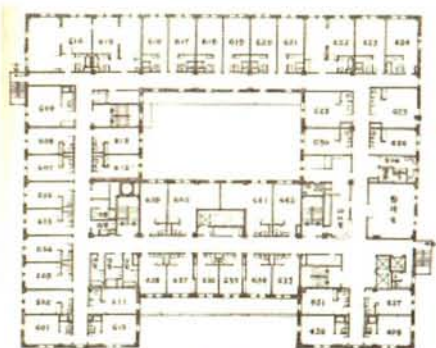
제1관공서 1층도



제2관공서 2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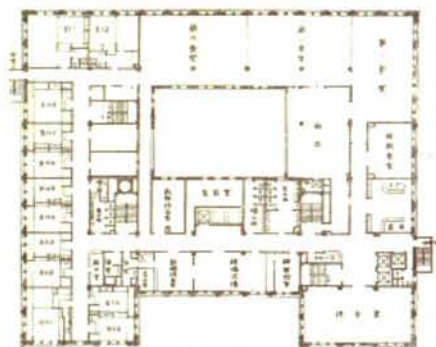
제2관공서 2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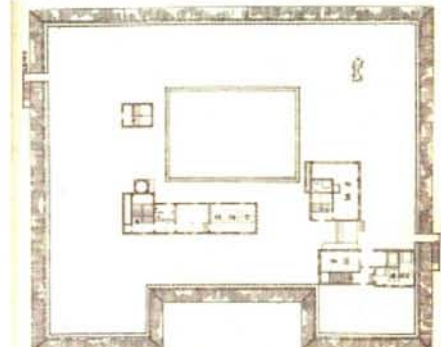
제6관공서 6층도



제7관공서 7층도



제8관공서 8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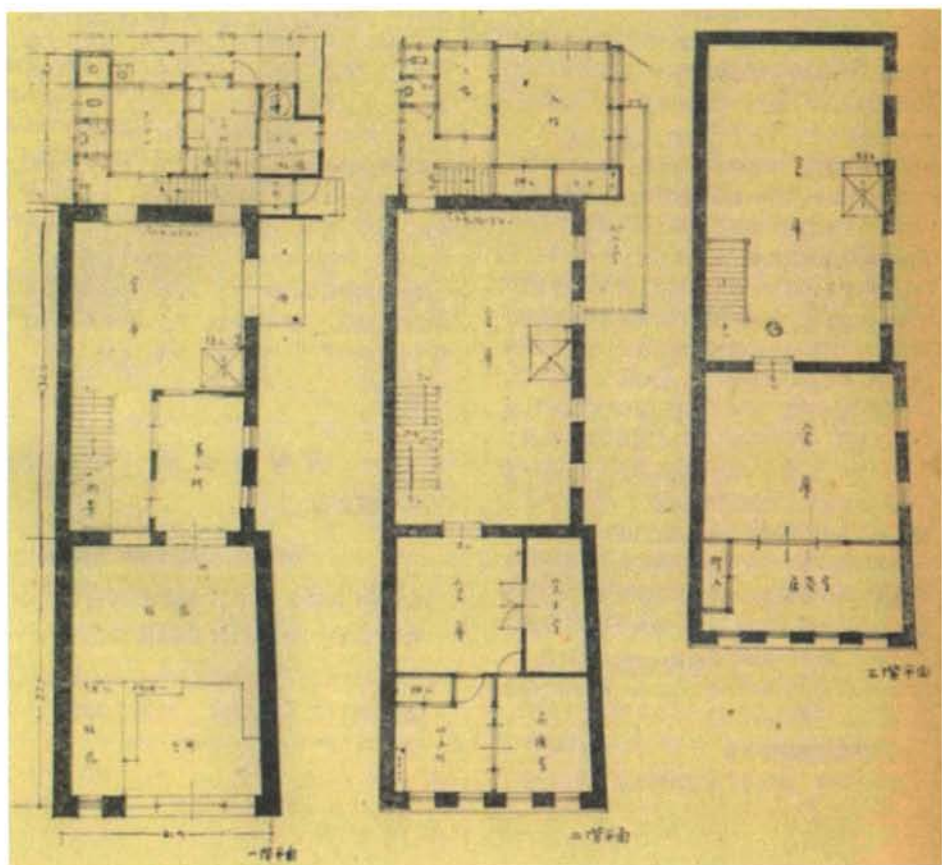


제9관공서 9층도

18. 加藤文商店

주소	黄金町2丁目129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3층(混構造)
준공	1940년 5월	설계자	東京建物	시공자	東京建物小寺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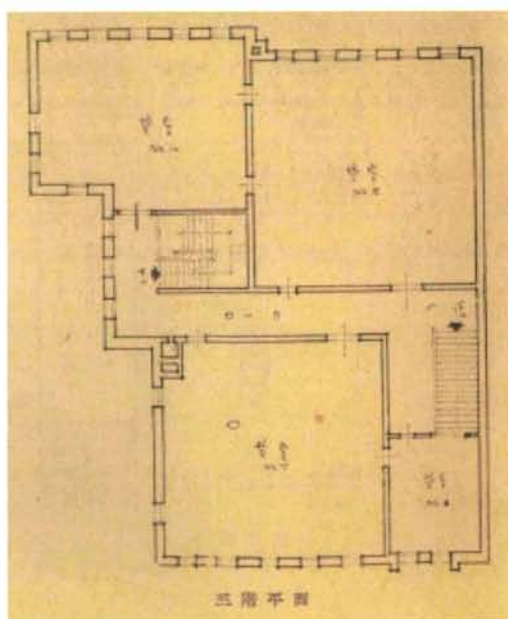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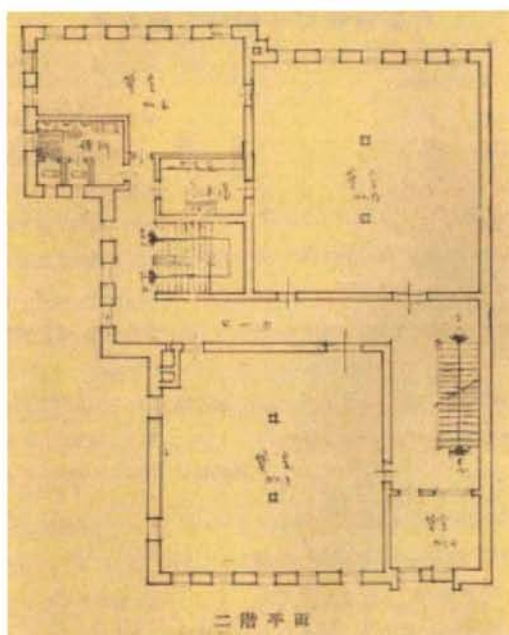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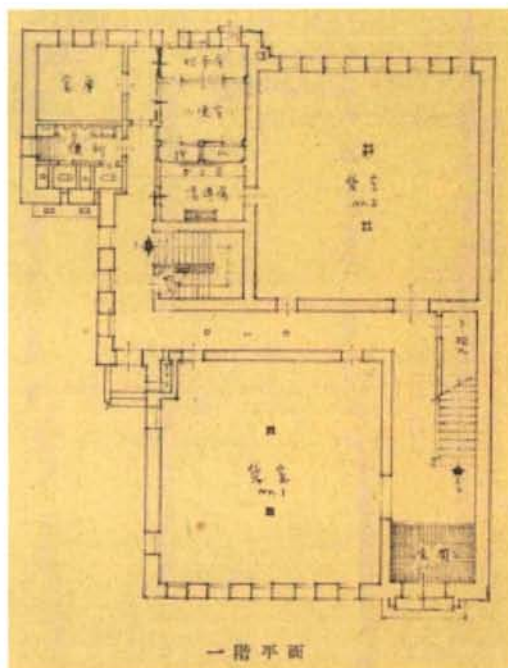




19. 東京建物빌딩

주소	黃金町2丁目128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3층(煉瓦造)
준공	1940년 9월	설계자	東京建物	시공자	東京建物





20. 東洋拓殖株式會社京城支店別館

주소	黃金町2丁目195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3/지하1층(混構造)
준공	1940년	설계자	東拓建築係	시공자	清水組



21.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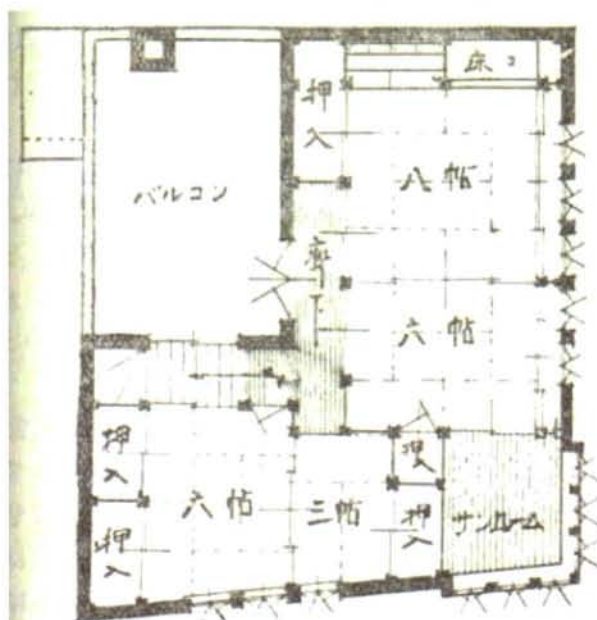
주소	黃金町2丁目199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4층(-)
준공	1922년 12월	설계자	-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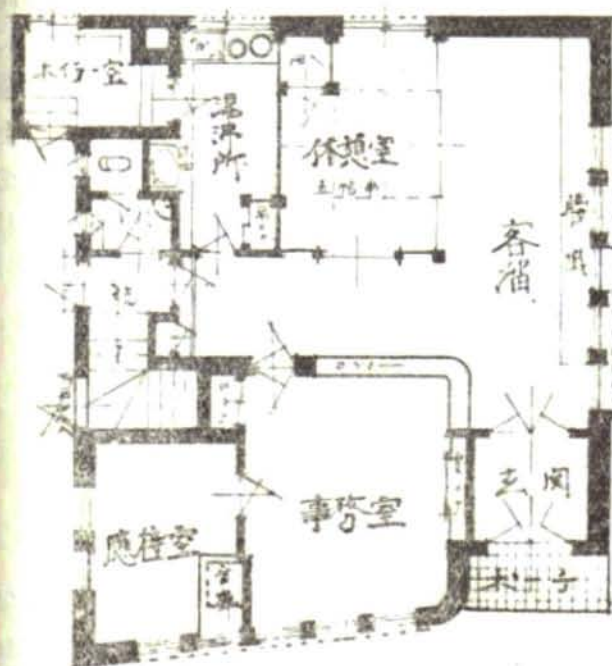
22. 吉野仲賣店事務所

주소	黃金町 2 丁目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2층(煉瓦造)
준공	1932년 6월	설계자	多田工務店	시공자	多田工務店





貳階平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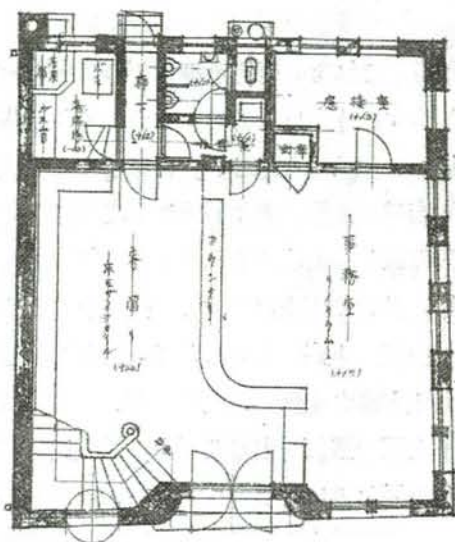


壹階平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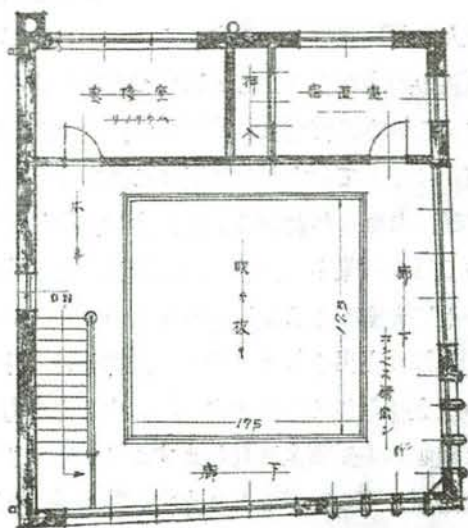
23. 東亞證券株式會社

주소	黃金町 2 丁目 195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 (混構造)
준공	1934년 12월	설계자	玉田建築事務所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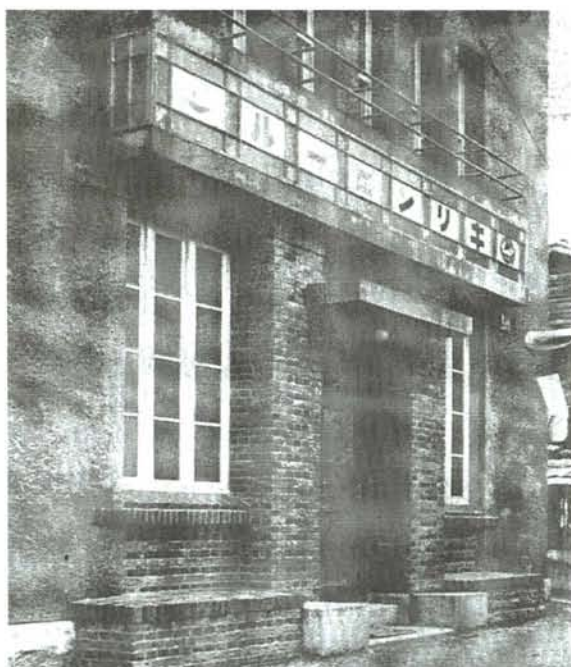
一階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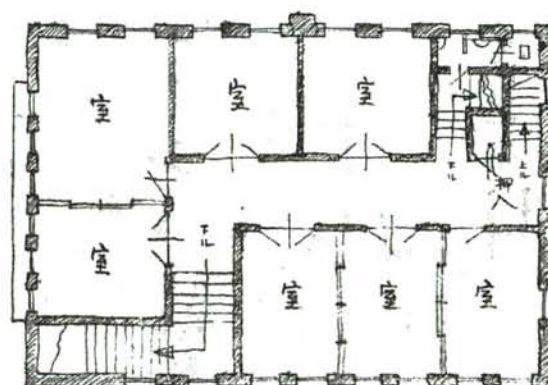


二階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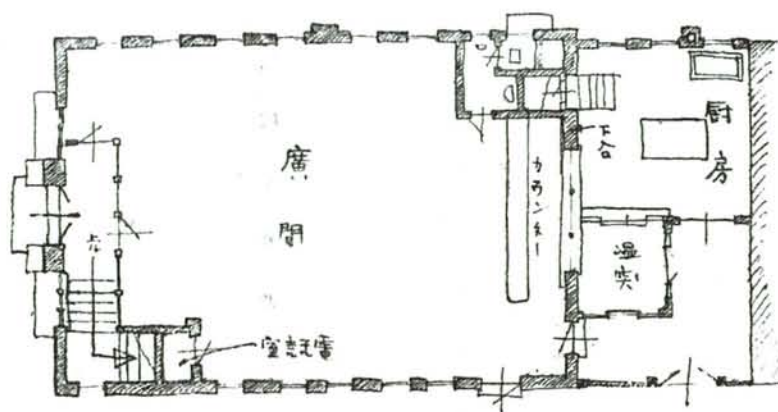
24. 카페 · 릴리 (百合園)

주소	黃金町 2丁目 1 2.7	종류	식당 · 오락시설	층수(구조)	지상3/지하1층(混構造)
준공	1931년	설계자	-	시공자	-





階上平面圖



階下平面圖

25. 京城府 府民病院

주소	黃金町 6 丁目 1 8	종류	병원 · 사회복지 건축	층수(구조)	지상2/지하1층(混構造)
준공	1933년 12월	설계자	京城府營繕課	시공사	東亞工業



이제강점기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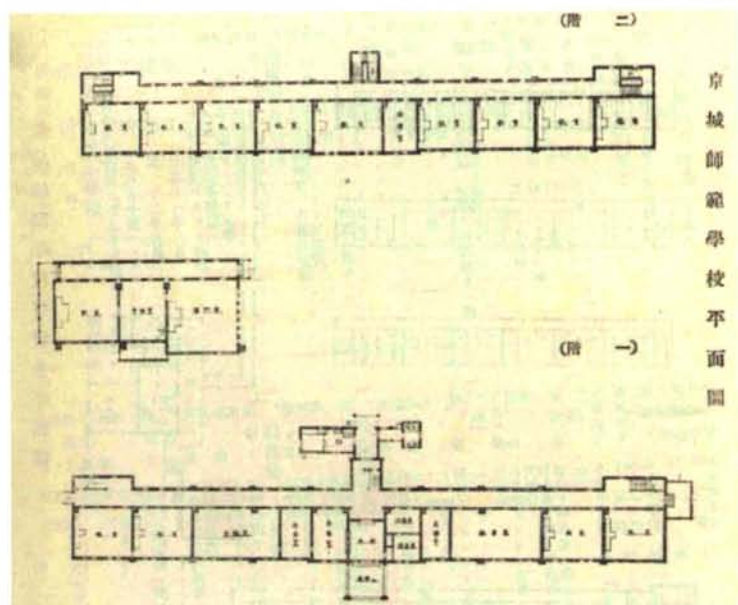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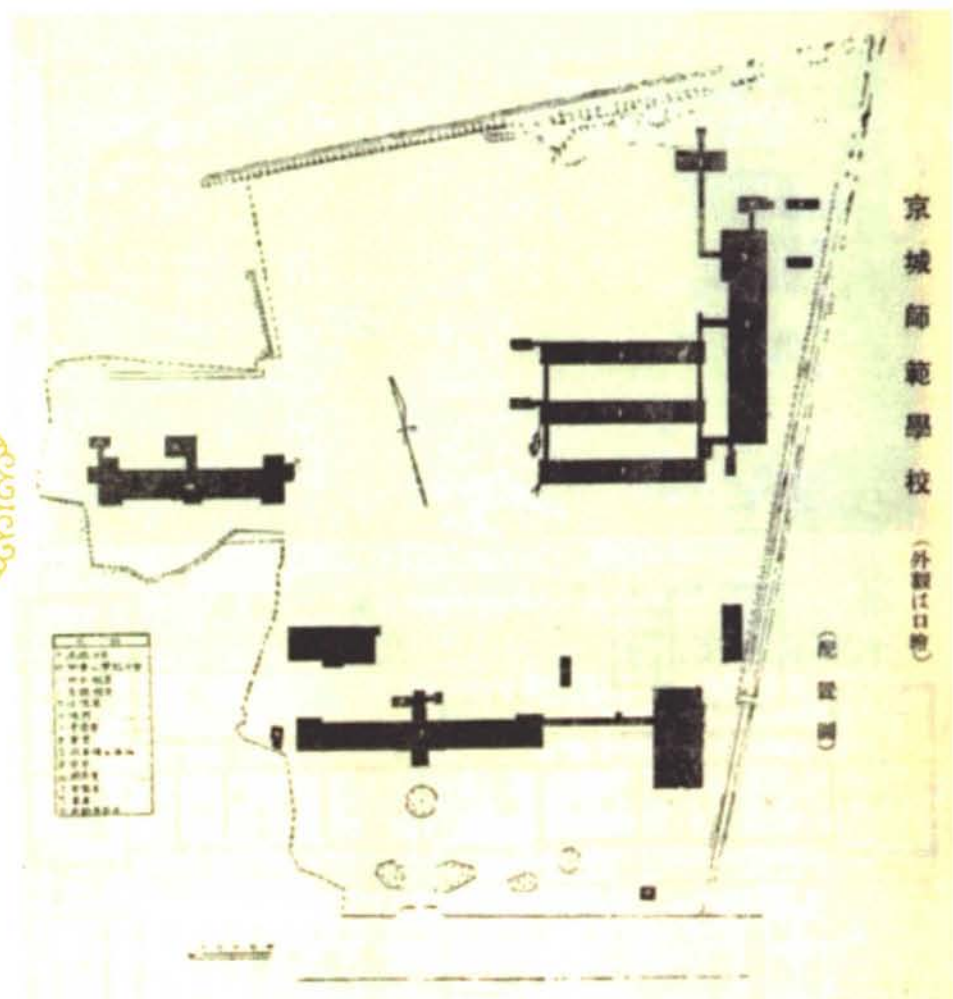
平 面 (一 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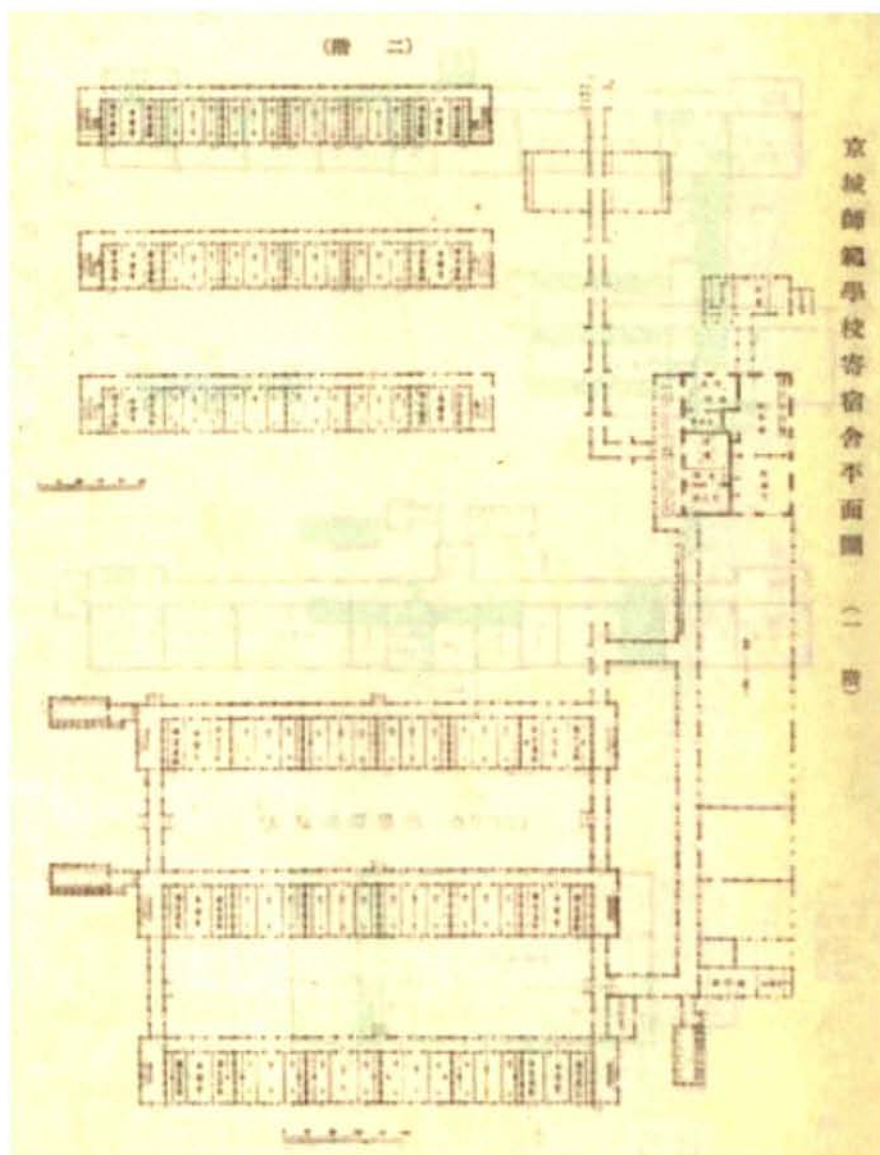
平 面 (二 階)

26. 京城師範學校

주소	黃金町 6 丁目	종류	교육 · 학술 · 문화시설	층수(구조)	지상 2층(煉瓦造)
준공	1923년 5월	설계자	-	시공자	-







27. 京城師範學校附屬小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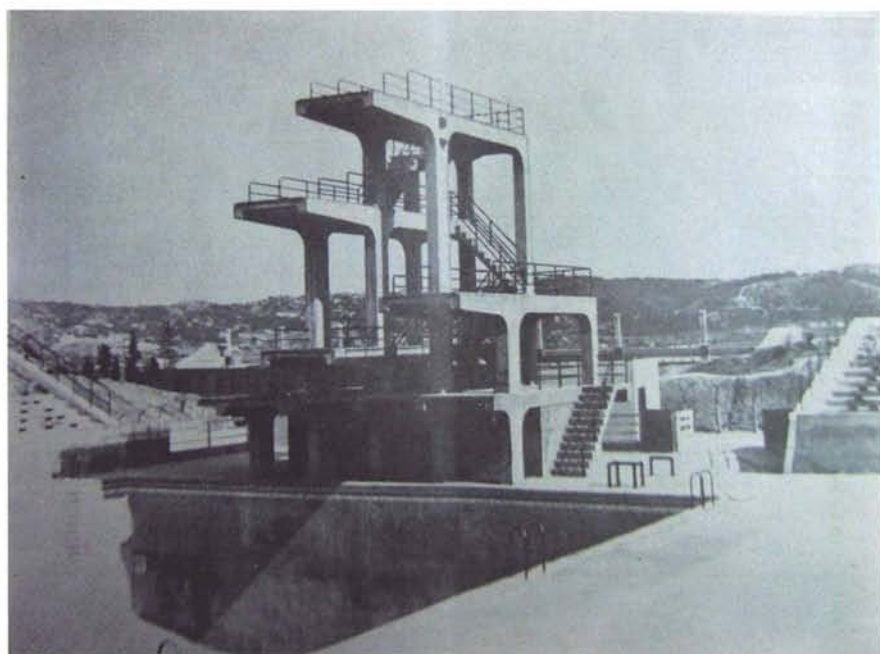
주소	黃金町6丁目	종류	교육·학술·문화시설공공건축	층수(구조)	지상 2층(煉瓦造)
준공	1928년	설계자	-	시공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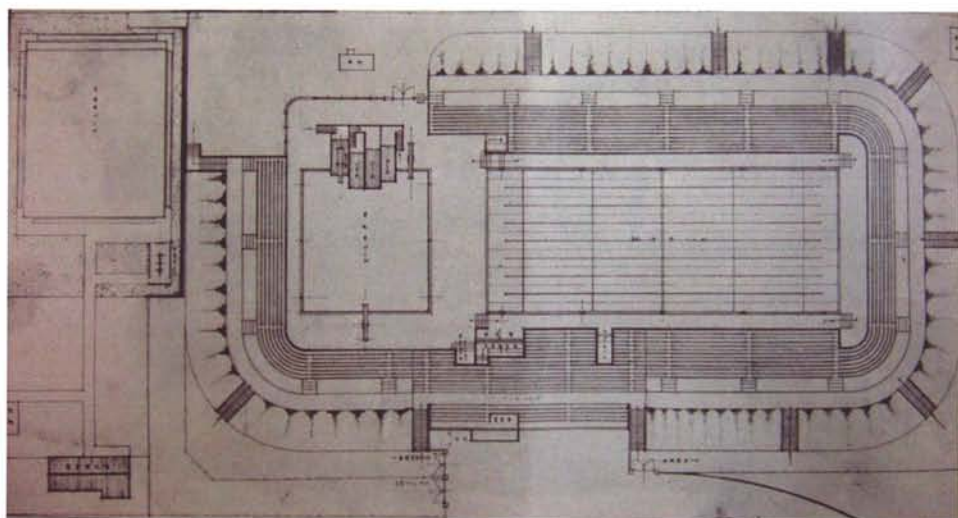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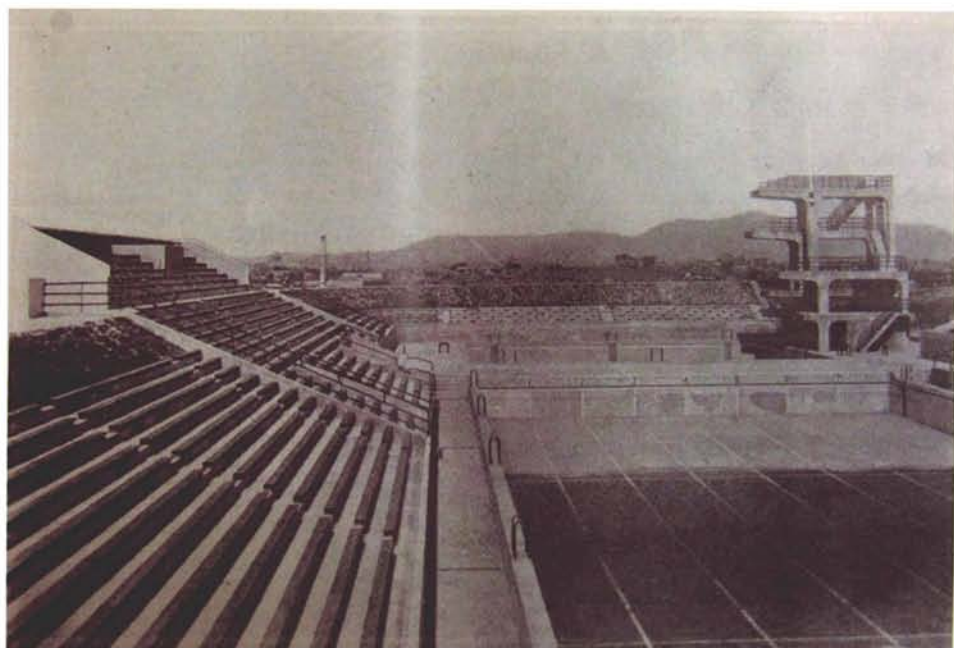
京城師範學校附屬小學校



28. 京城府營수영장

주소	黃金町 7 丁目 2	종류	유회장·극장·경기장 시설	층수(구조)	- (RC造)
준공	1934년 3월	설계자	京城府土木課	시공자	間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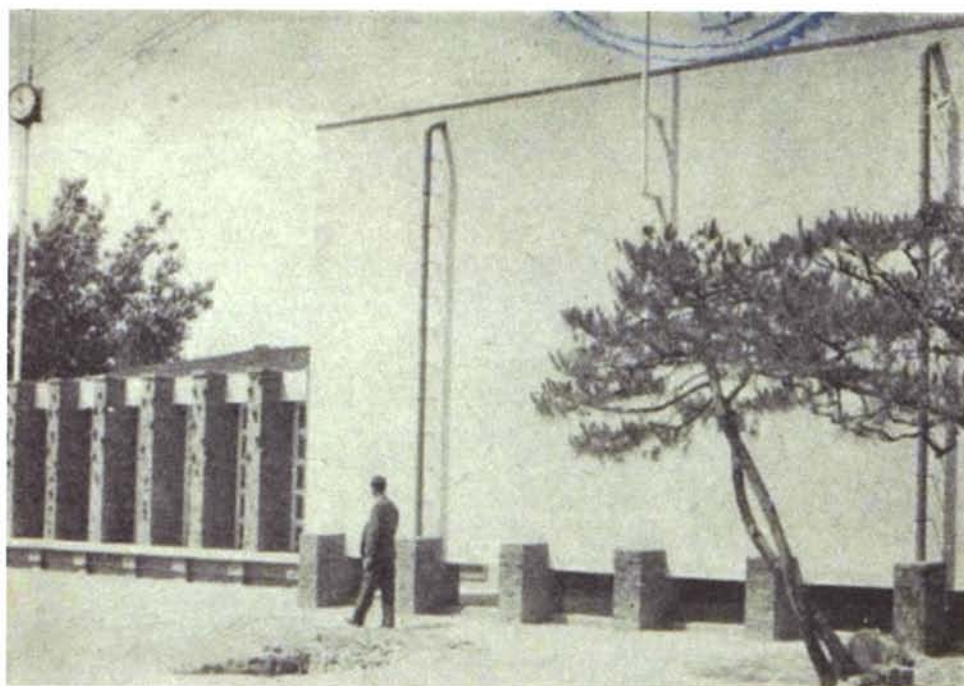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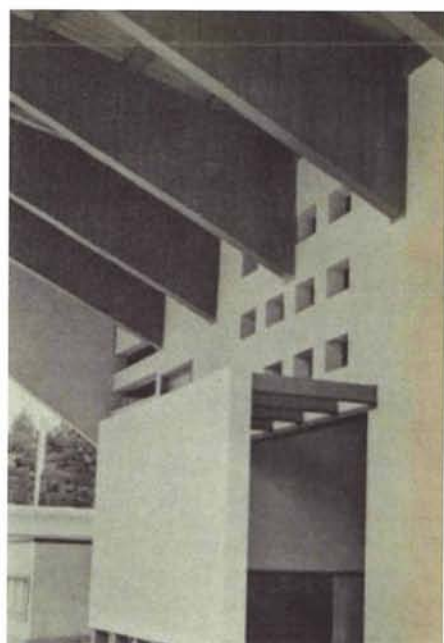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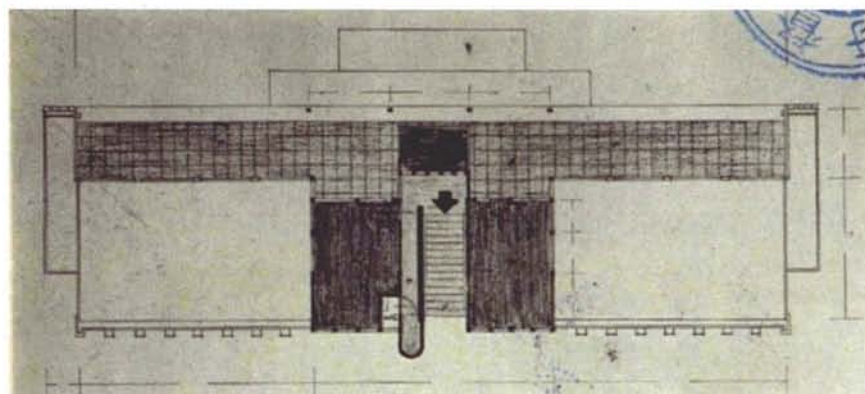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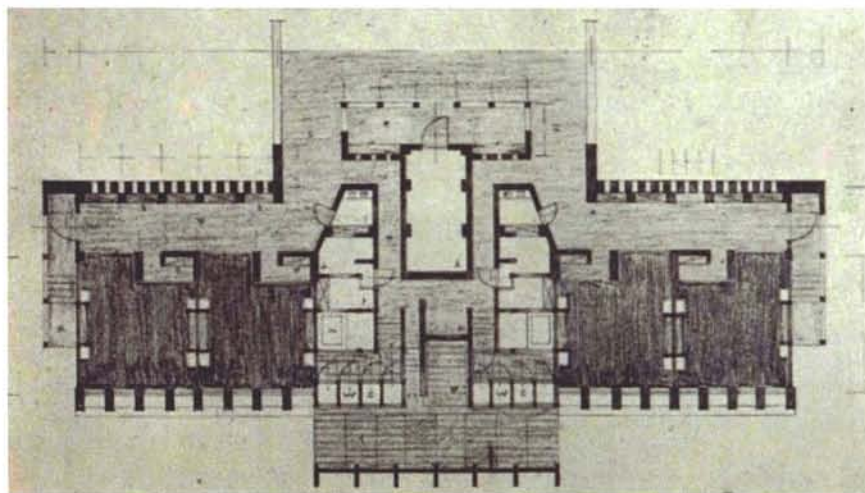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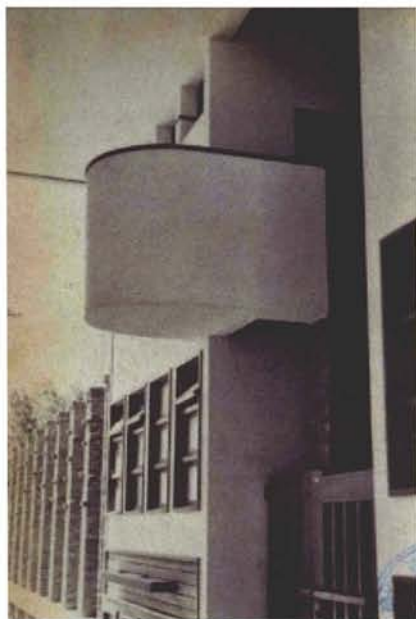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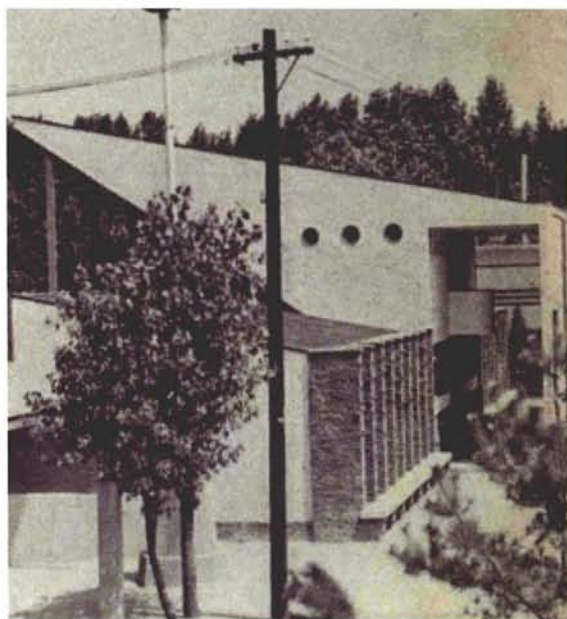


29. 京城運動場選手控所

주소	黃金町7丁目	종류	무희장·극장·경기장 시설	층수(구조)	지상 2층(煉瓦造)
준공	1941년 5월	설계자	京城府營繕課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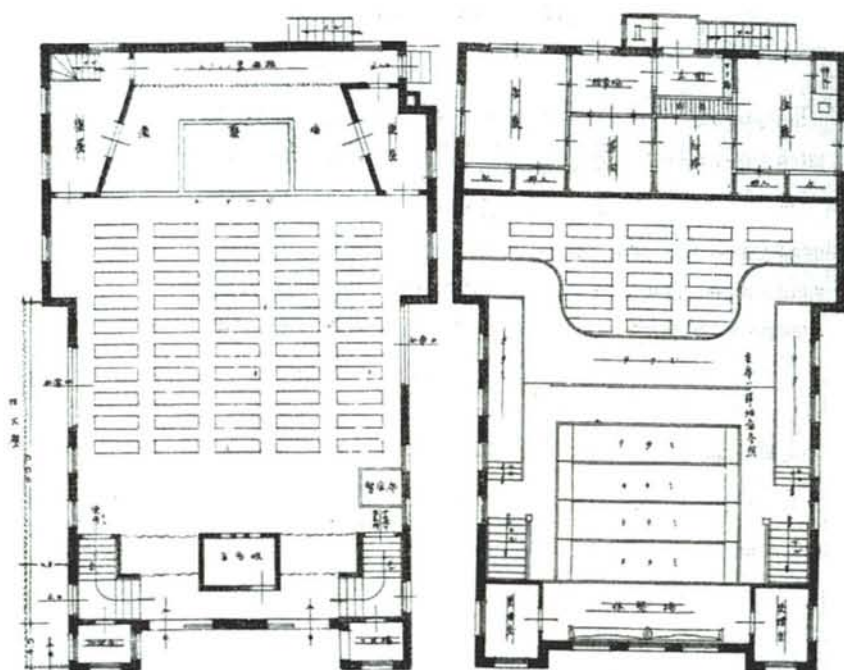




30. 浪速館映畫館

주소	明治町 1 丁目 6 5	종류	유흥장·극장·경기장 시설	층수(구조)	- (-)
준공	1933년	설계자	-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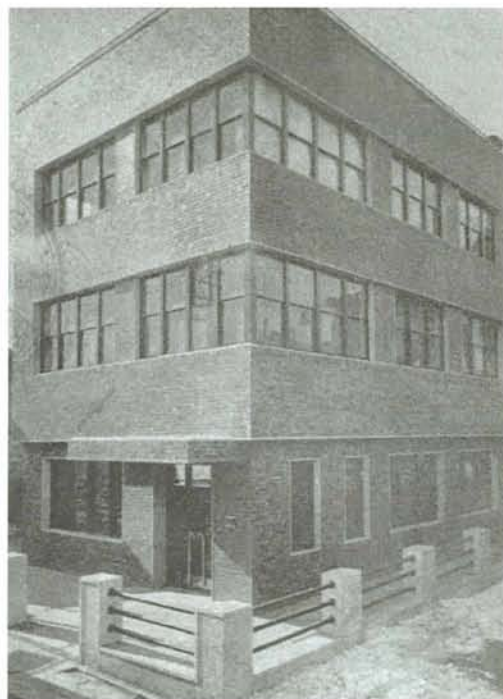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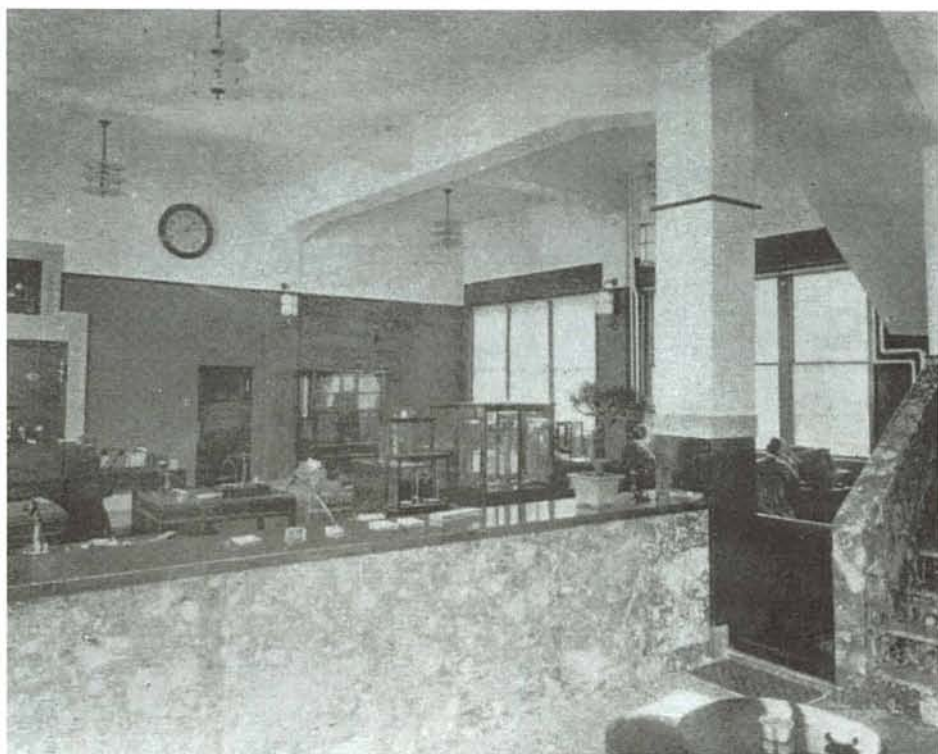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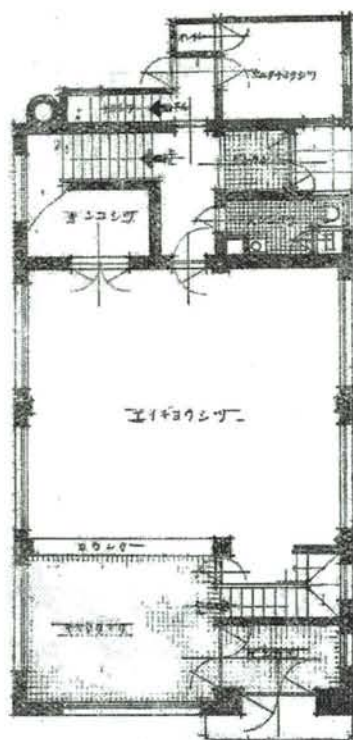
(工事概要は原稿の都合により次號に掲載す)

31. 株式會社京城德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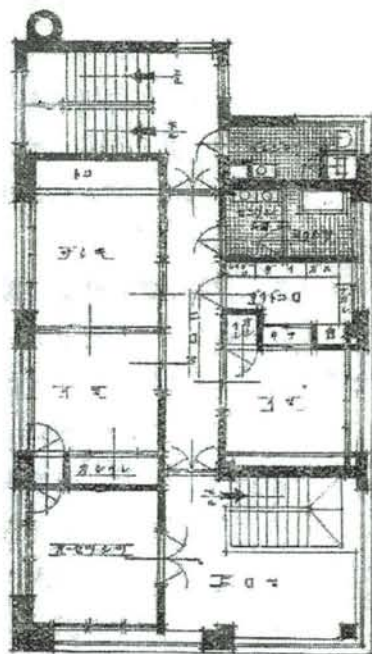
주소	明治町 1 丁目95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3층(RC造)
준공	1933년 12월	설계자	藤澤工務店	시공자	藤澤工務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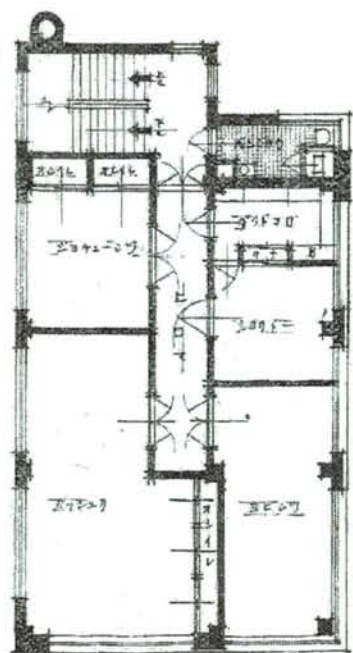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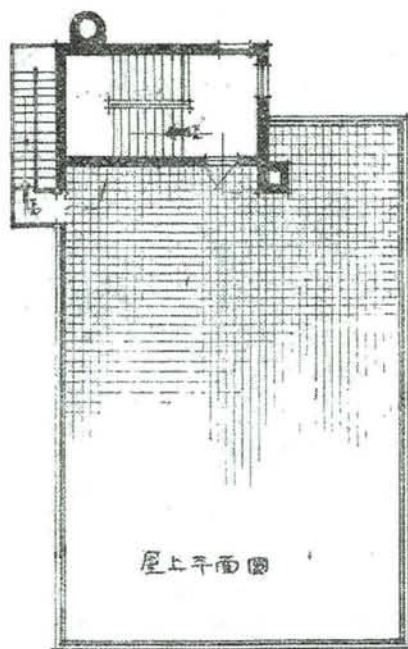
(一階平面圖)



(二階平面圖)



(三階平面圖)



屋上平面圖

32. 마루비루會館

주소	明治町2丁目4-8	종류	식당·오락시설	층수(구조)	지상3/지하1층(RC造)
준공	1932년 9월	설계자	玉田建築事務所	시공자	深堀工務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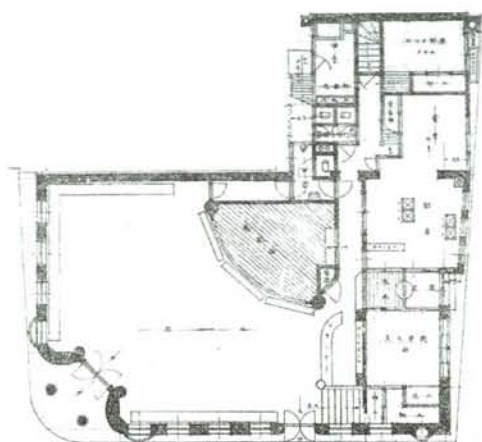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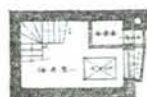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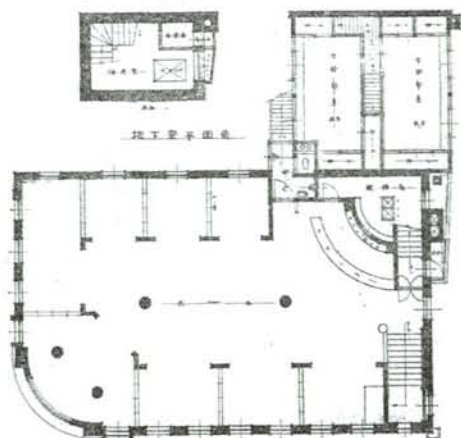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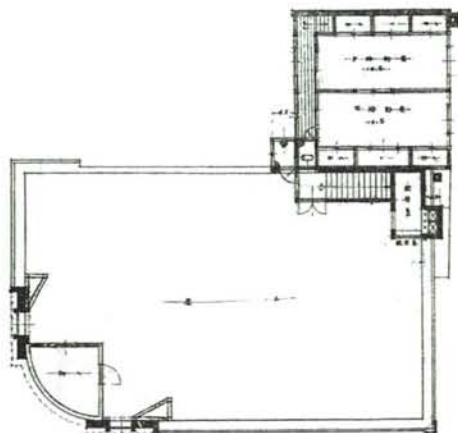
第一層平面圖



地下室平面圖



第二層平面圖



第三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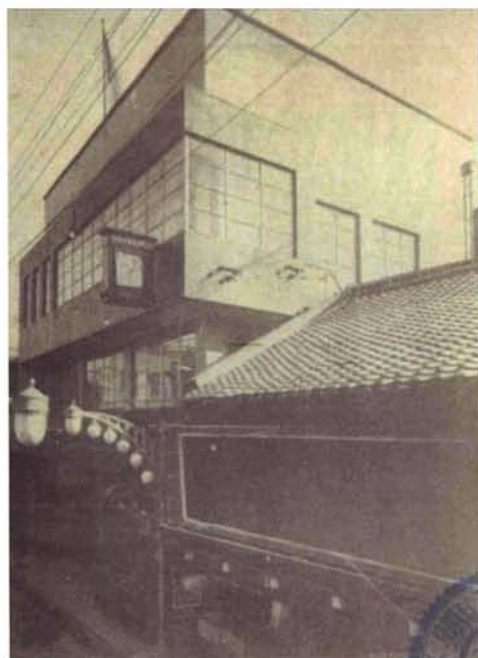
33. 森永캔디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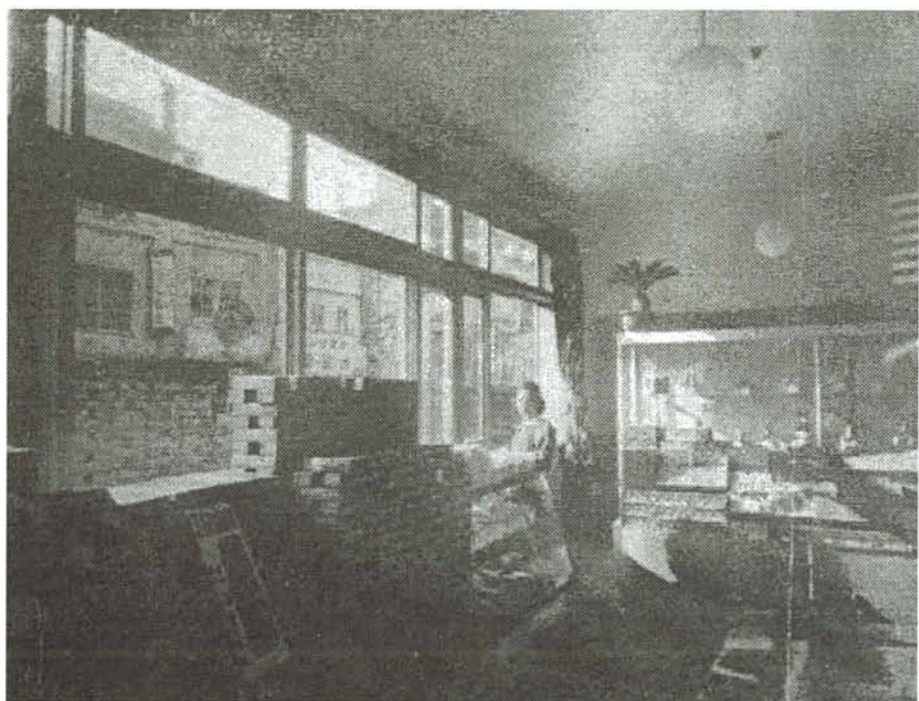
주소	本町1丁目18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 (-)
준공	1941년	설계자	-	시공자	-



34. 大澤商會京城支店

주소	本町1丁目39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 (-)
준공	1935년	설계자	-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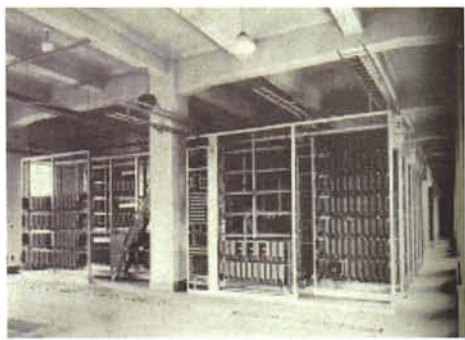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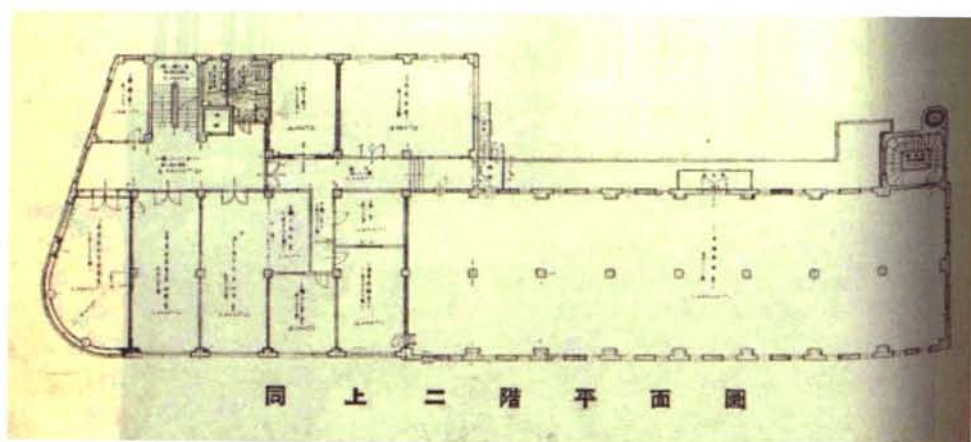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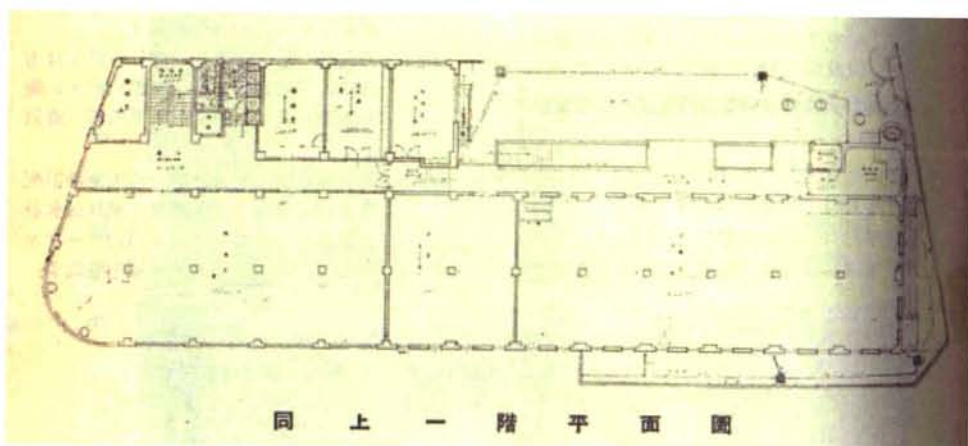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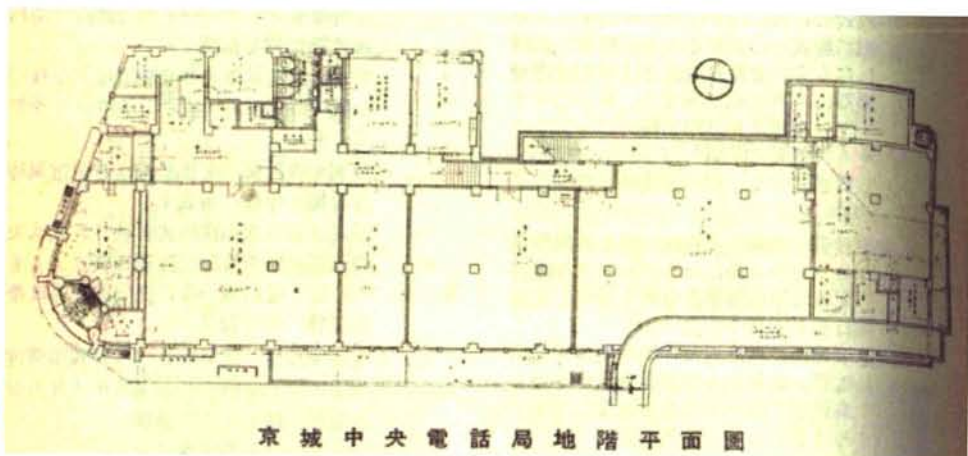
35. 京城中央電話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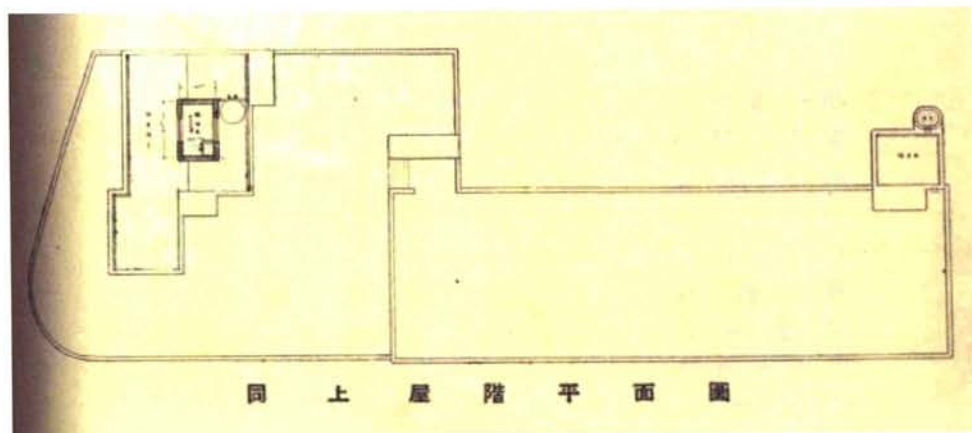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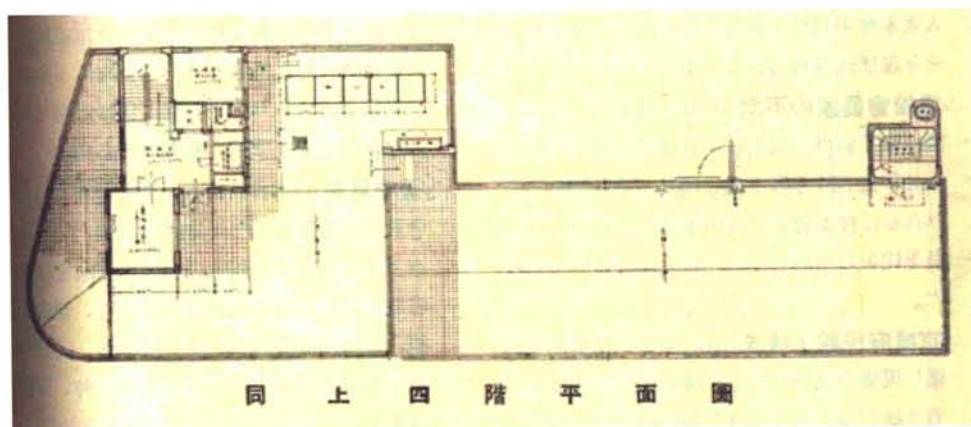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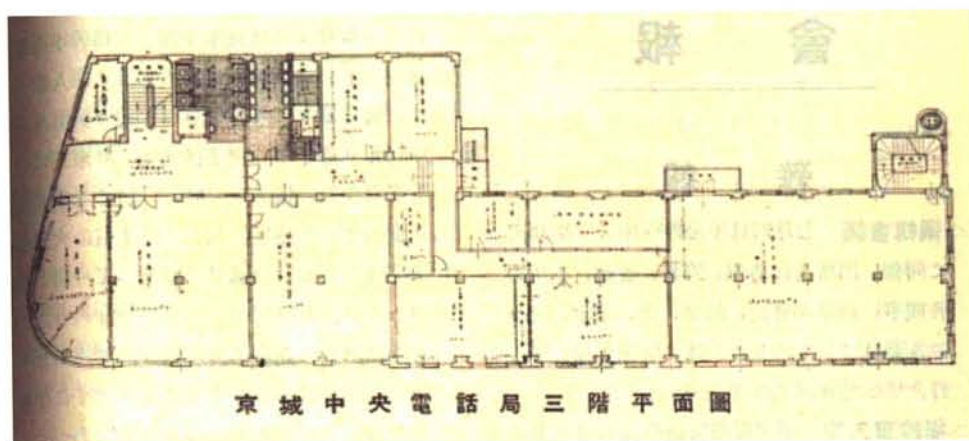
주소	本町 1 丁目 52-20	종류	공공건축	층수(구조)	지상4층/지하1층(RC造)
준공	1935년 6월	설계자	總督府遞信局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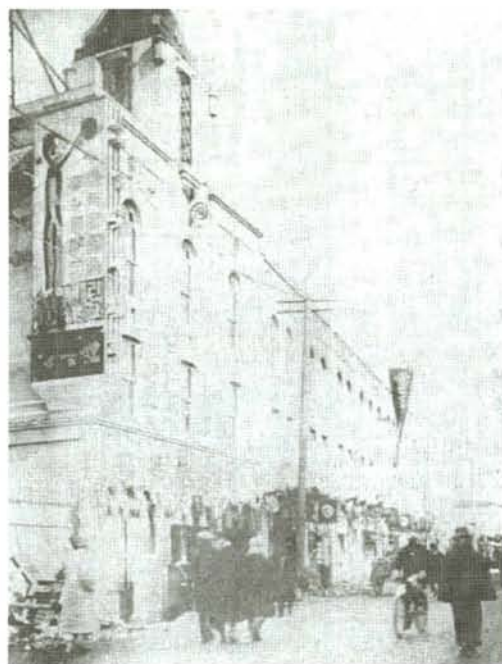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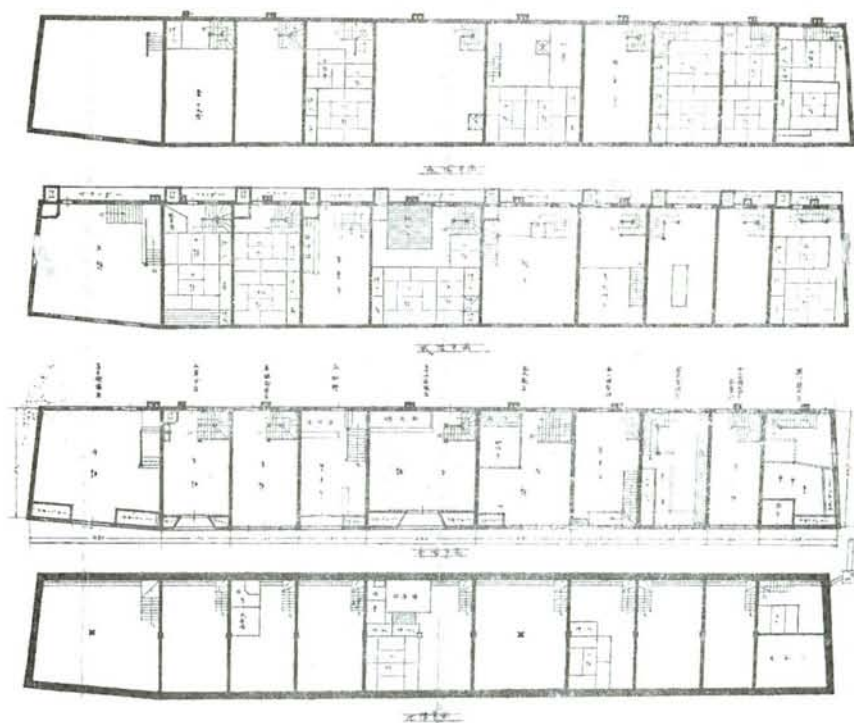




36. 京城本町總合빌딩

주소	本町1丁目18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3/지하1층(-)
준공	1926년	설계자	相澤工務所	시공자	佐藤組





37.旭빌딩

주소	本町1丁目53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 (-)
준공	1935년	설계자	-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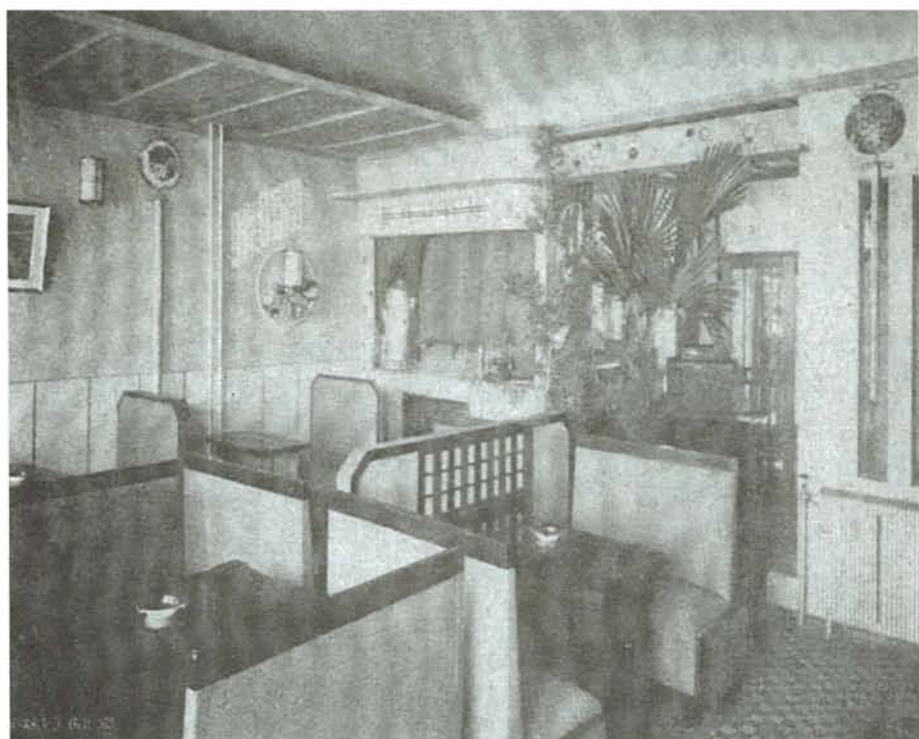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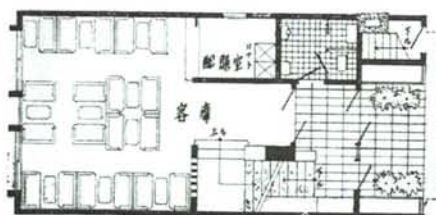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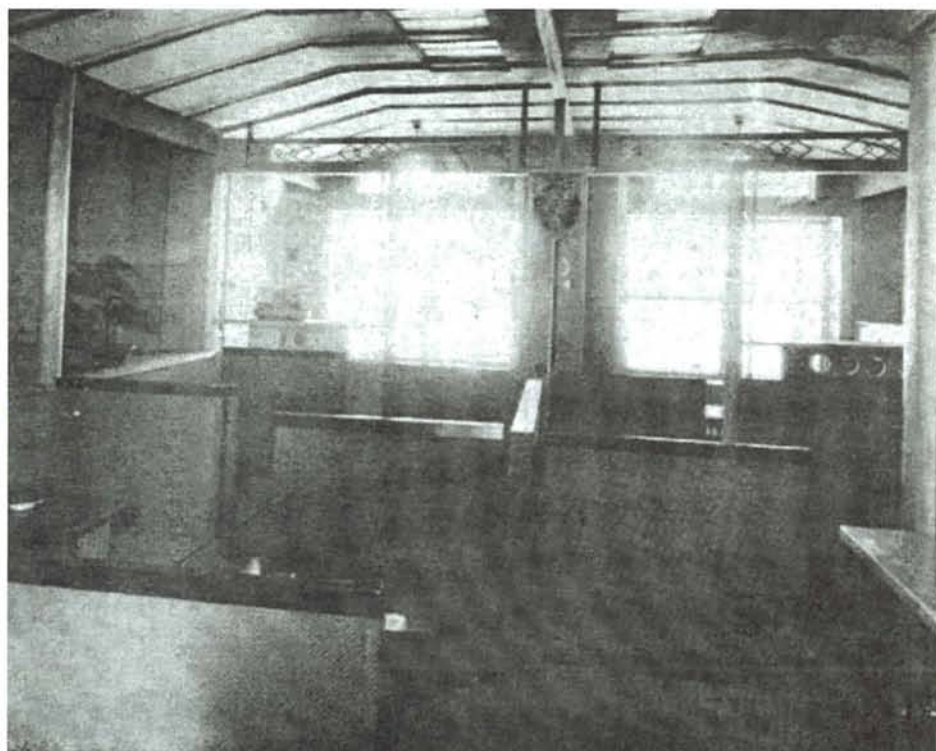


38. 牡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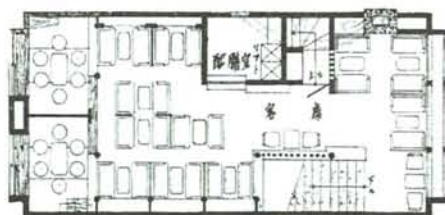
주소	本町1丁目21	종류	식당·오락시설	층수(구조)	지상3/지하1층(木造)
준공	1941년 1월	설계자	小林武夫	시공사	宮田工務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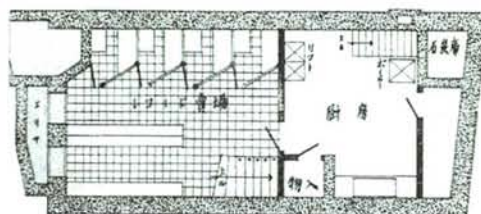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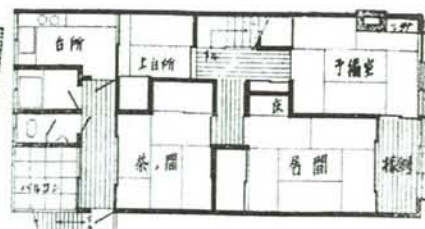
一階平面圖



二階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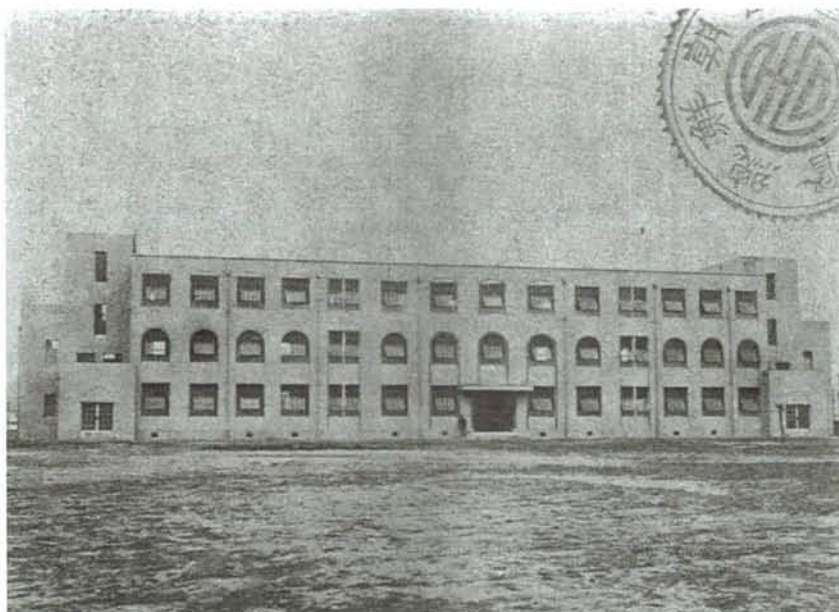
三階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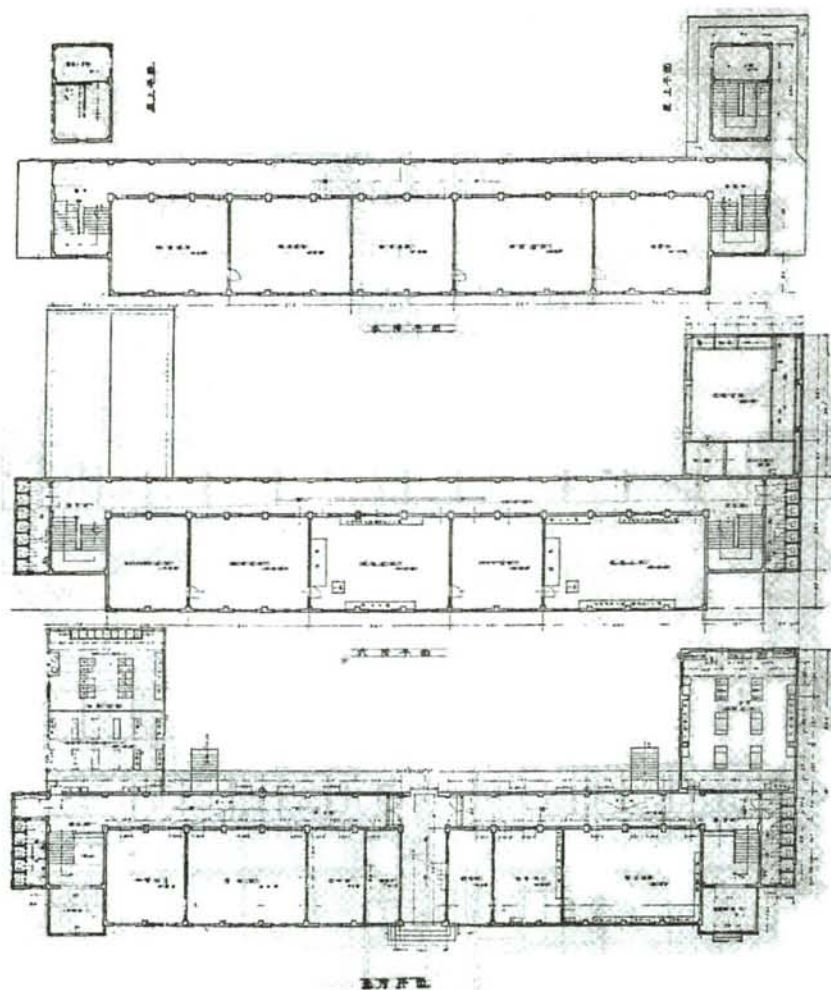


四階平面圖

39. 京城女子實業學校

주소	黃金町6丁目18	종류	교육·학술·문화시설	층수(구조)	지상 3층(RC造)
준공	1928년 12월	설계자	-	시공자	佐藤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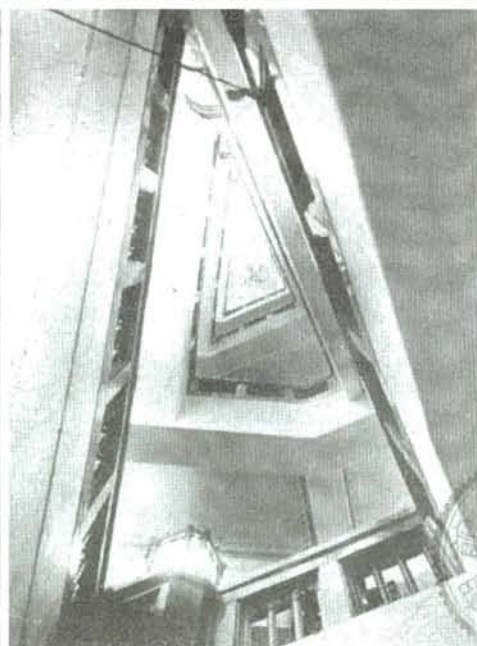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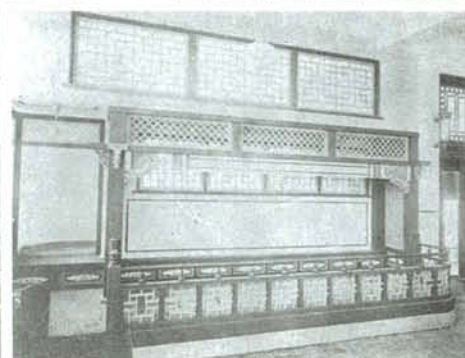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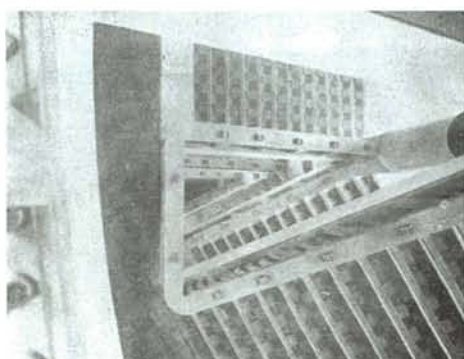
京城女子實業女學校平面圖

40. 三越

주소	本町1丁目5-2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4/지하1층(混構造)
준공	1930년 10월	설계자	三越建築事務所	시공자	多田工務店









京城三越新築設計圖

一 地階平面圖



京城三越新築設計圖

二 二階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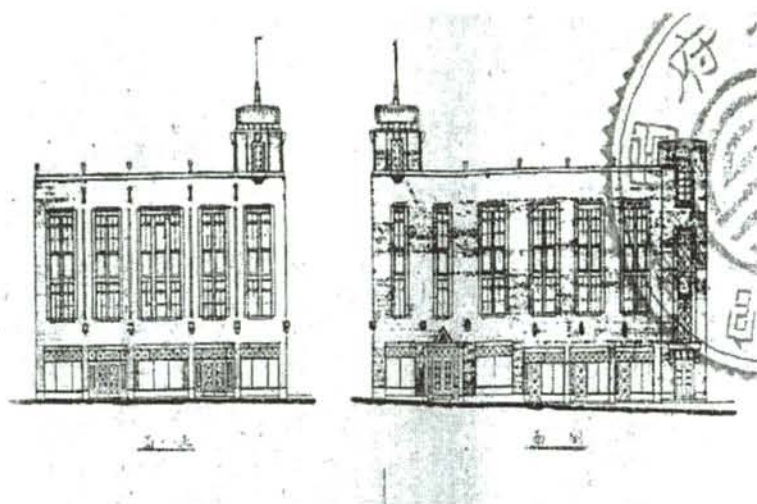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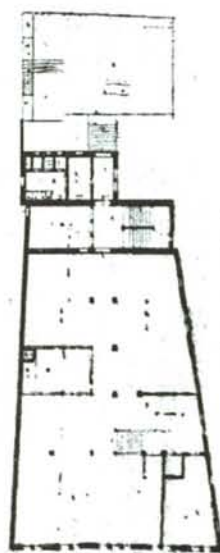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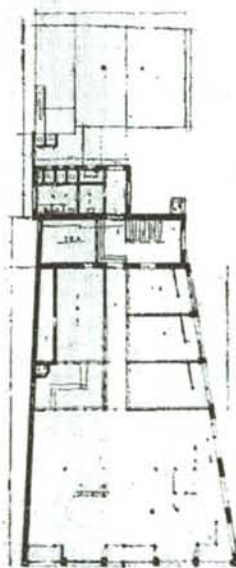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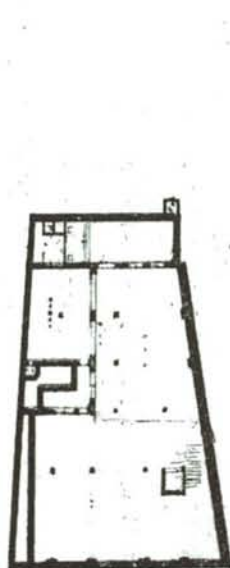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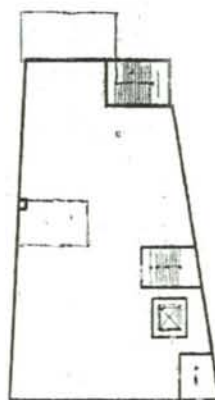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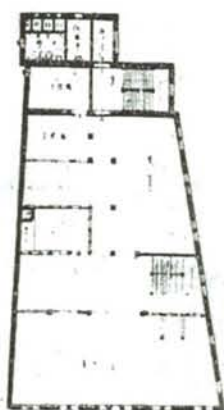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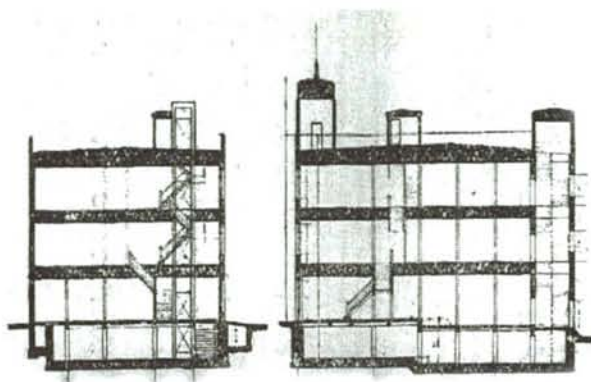
京城三越新築設計圖

三 三階平面圖

41. 本町빌딩

주소	本町2丁目3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3/지하1층(混構造)
준공	1925년 6월	설계자	-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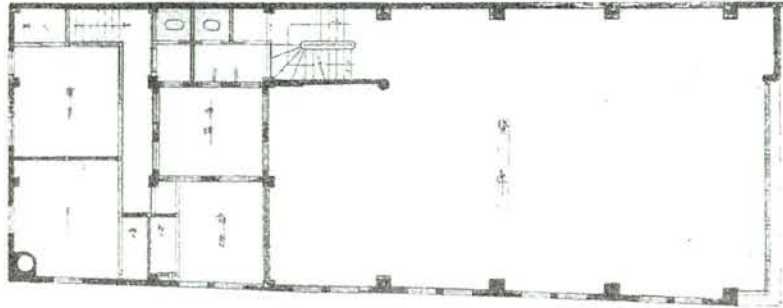


42. 明治製菓賣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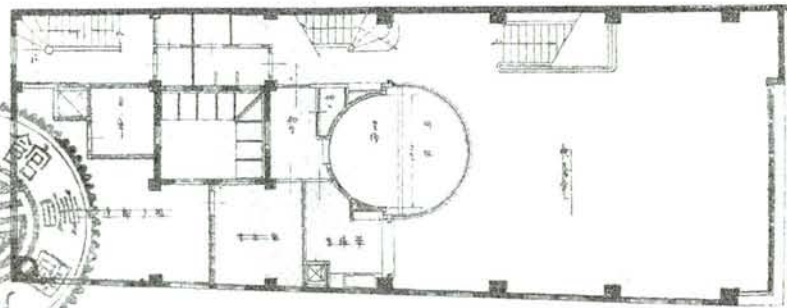
주소	本町2丁目9-2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3층混構造(鐵骨+RC造)
준공	1930년 9월	설계자	森山松之助建築事務所	시공자	多田工務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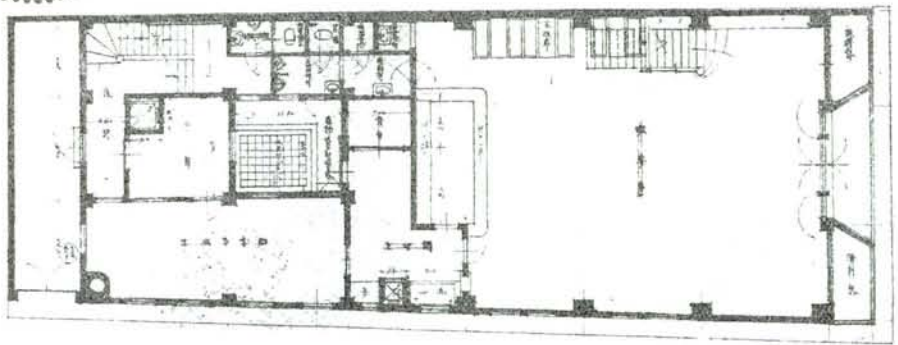
(階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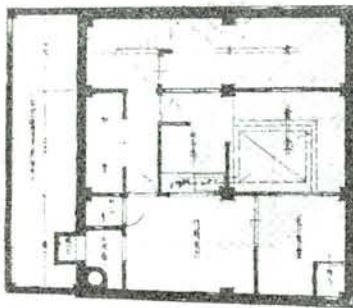
(階 二)



(階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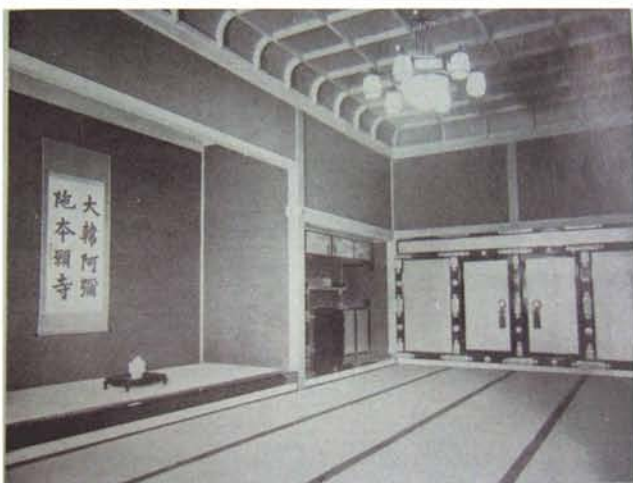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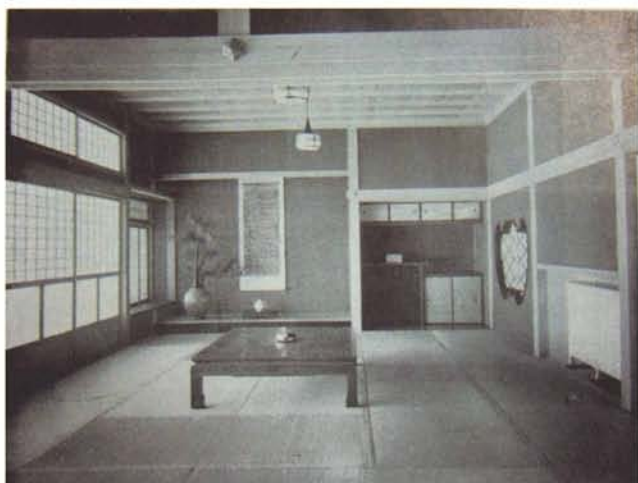
(地 階)



43. 東本願寺京城別院客殿庫裡

주소	南山町3丁目3.4	종류	종교건축	층수(구조)	- (混構造)
준공	1938년 1월	설계자	多田工務店設計部	시공자	生田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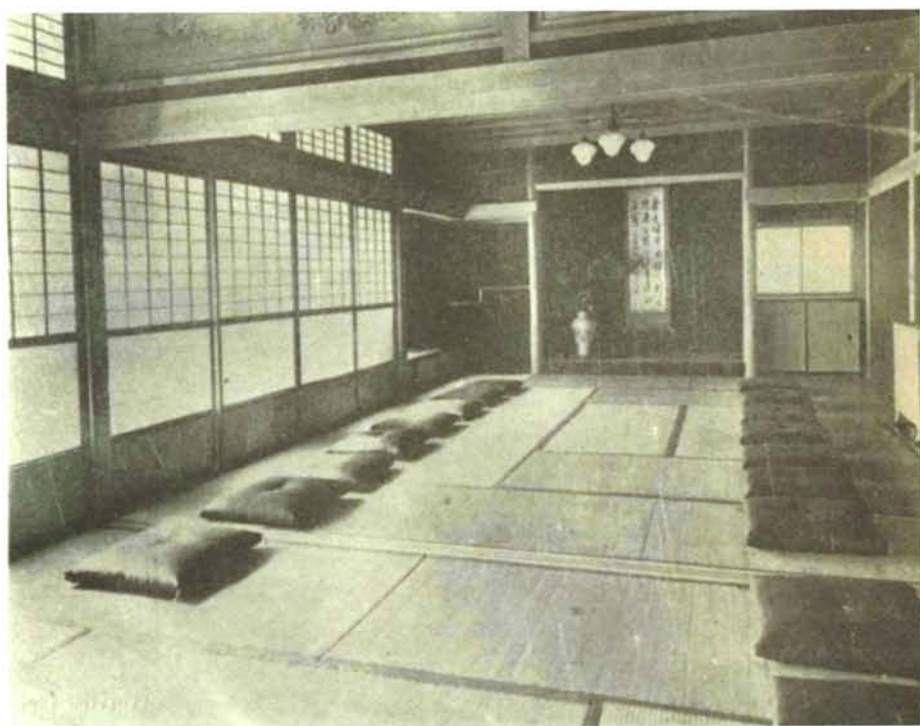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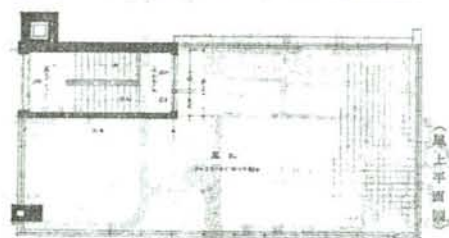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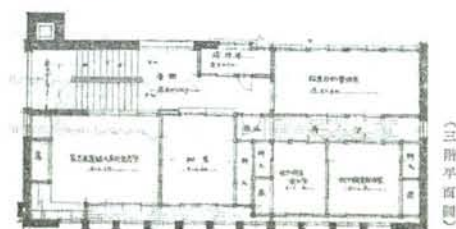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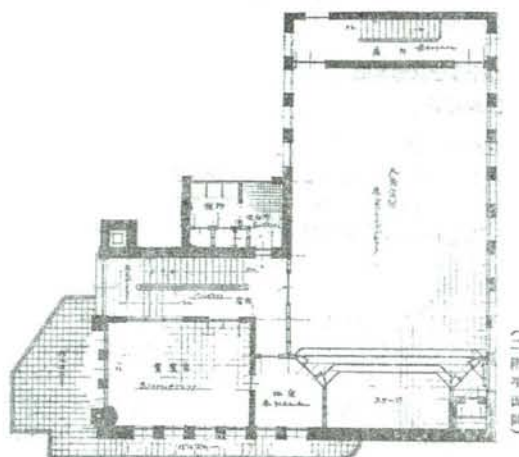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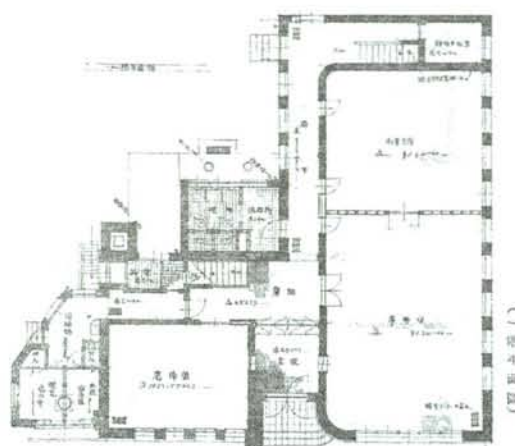


44. 日本赤十字社朝鮮本部廳舍

주소	南山町 3丁目32	종류	병원·사회복지 건축	층수(구조)	지상3/지하1층(混構造)
준공	1933년 9월	설계자	總督府技師笹慶一	시공자	-







45. 朝鮮神宮

주소	南山	종류	종교건축	층수(구조)	- (-)
준공	1925년	설계자	總督府內務局建築課·伊東忠太	시공자	總督府內務局建築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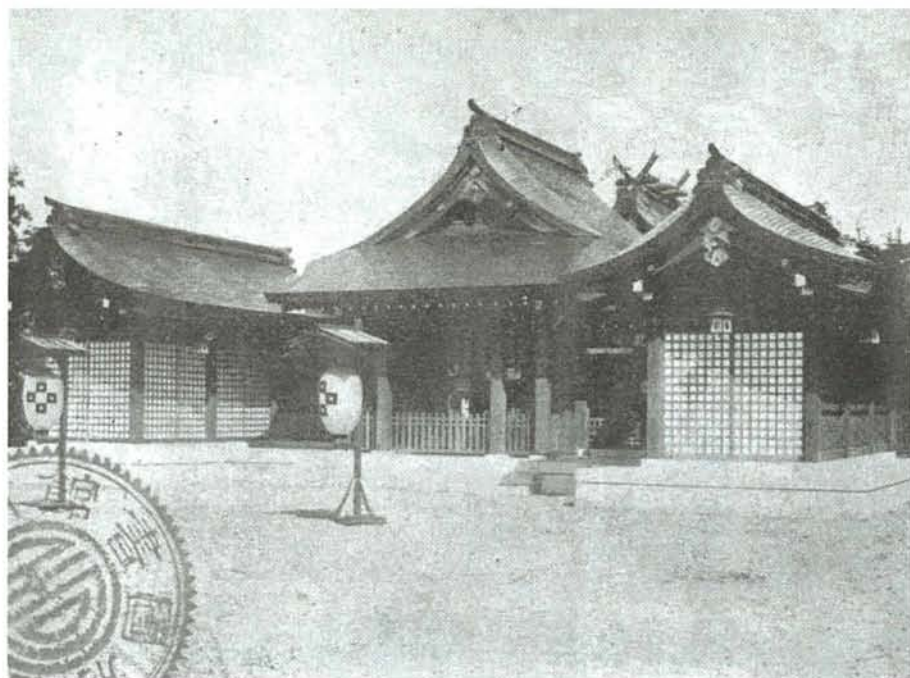
46. 朝鮮神宮社務所

주소	南山	종류	종교건축	층수(구조)	- (木造)
준공	1933년 10월	설계자	總督府官房營計課	시공자	-



47. 乃木神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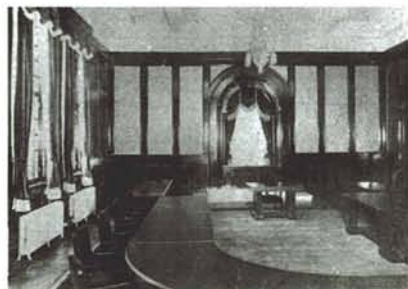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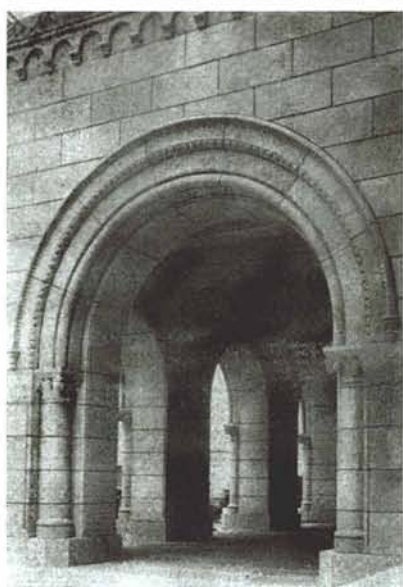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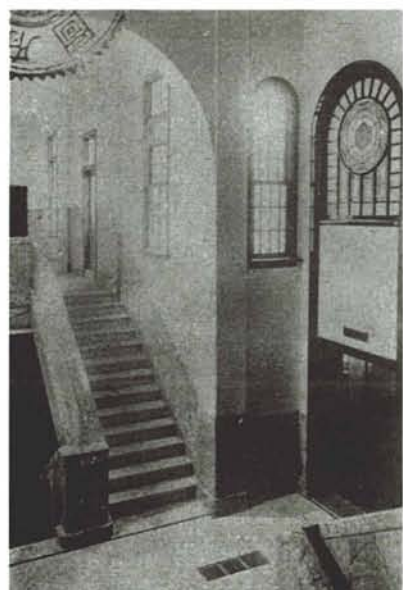
주소	南山	종류	종교건축	층수(구조)	- (木造)
준공	1934년 9월	설계자	-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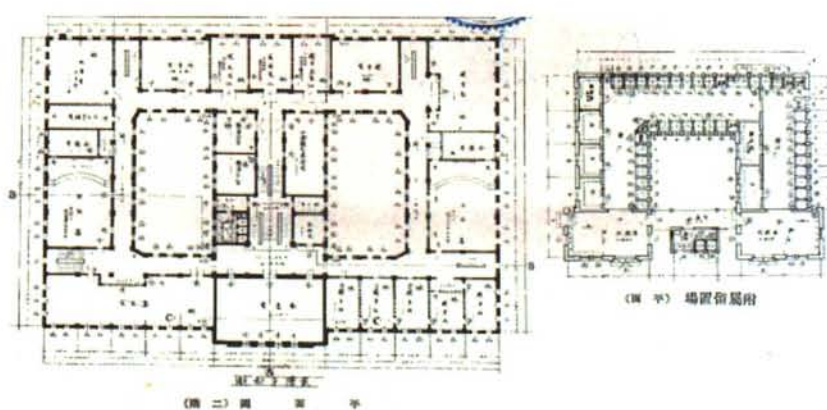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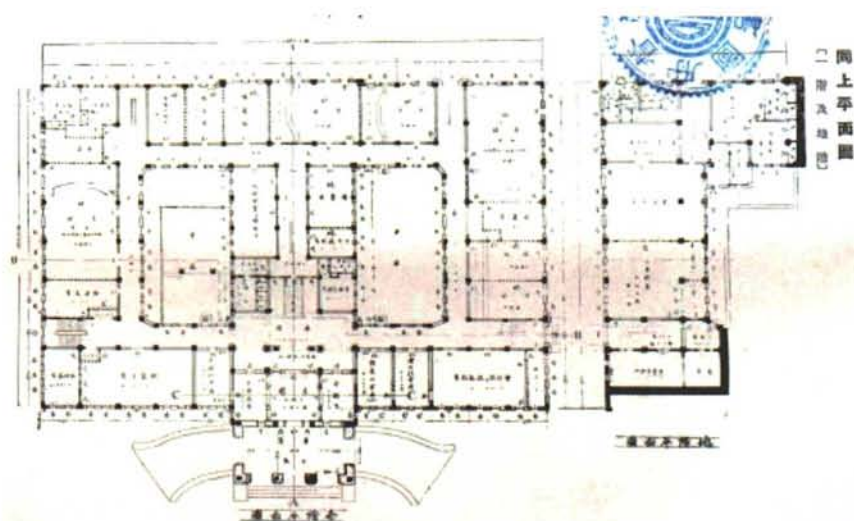


48. 京城三裁判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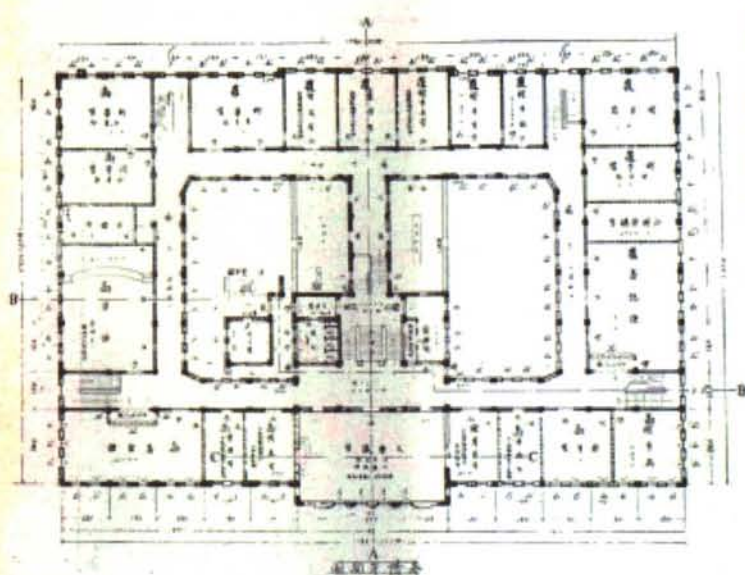
주소	西小門町37	종류	공공건축	층수(구조)	지상 3층(煉瓦造)
준공	1928년	설계자	-	시공자	多田工務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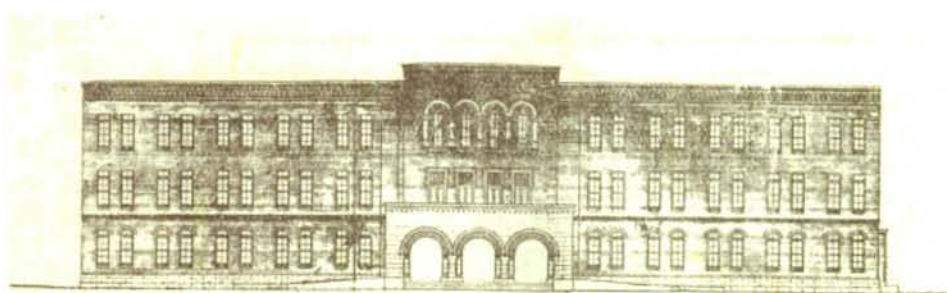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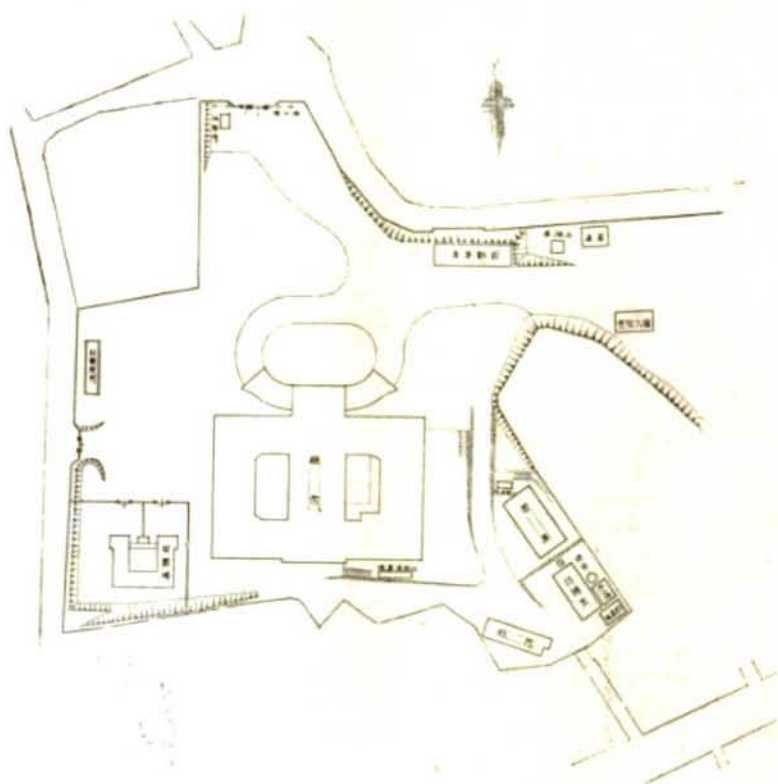
(圖二) 同上平面圖



京城三裁判所 (平面圖、三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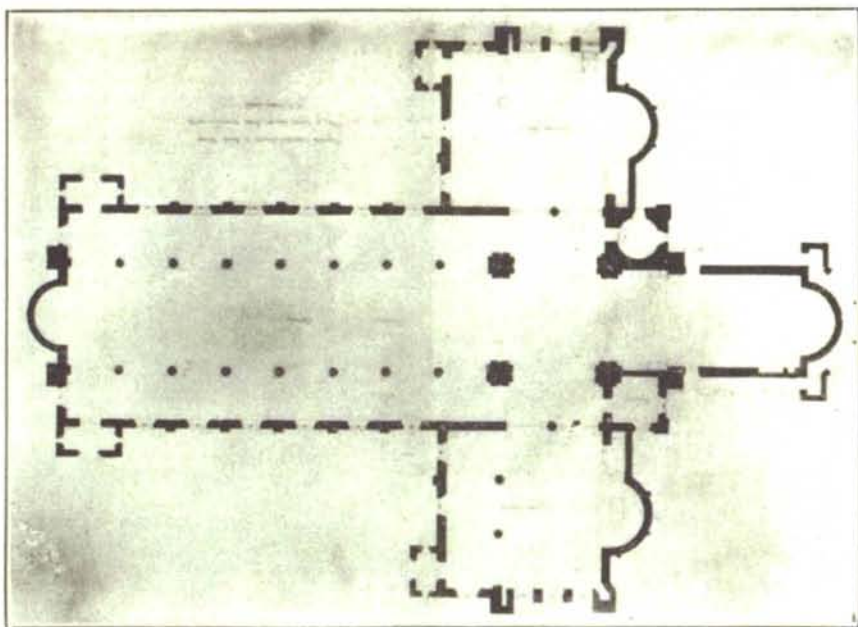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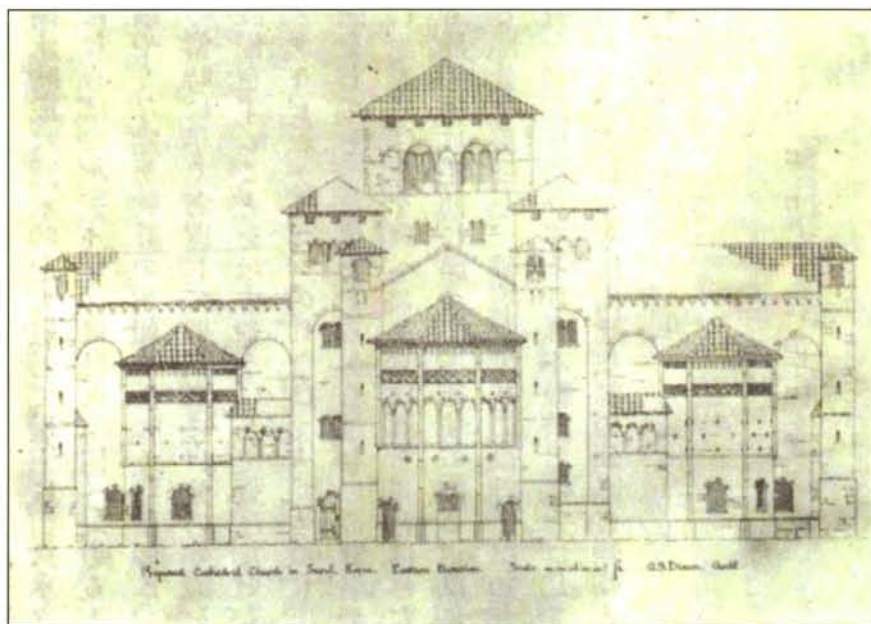
(面正) 上 同



49. 聖公會聖堂

주소	貞洞	종류	종교건축	층수(구조)	- (-)
준공	1927년	설계자	एस·지크손	시공자	-





50. 京城公立第一高等女學校

주소	貞洞 1	종류	교육·학술·문화시설	층수(구조)	지상 2층(木造)
준공	1922년 3월	설계자	-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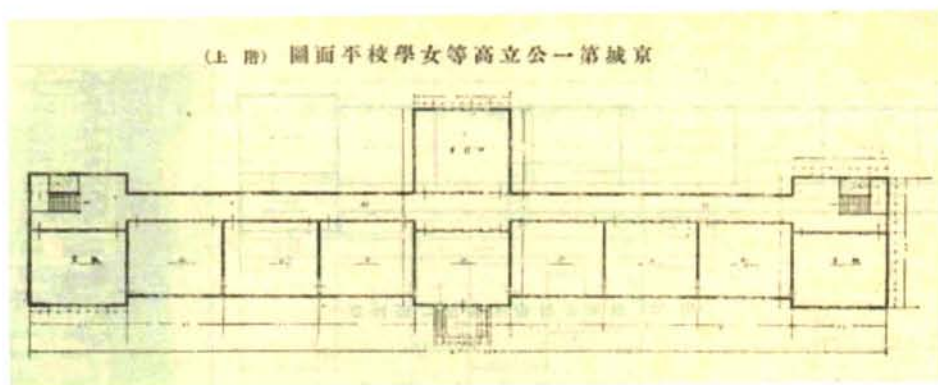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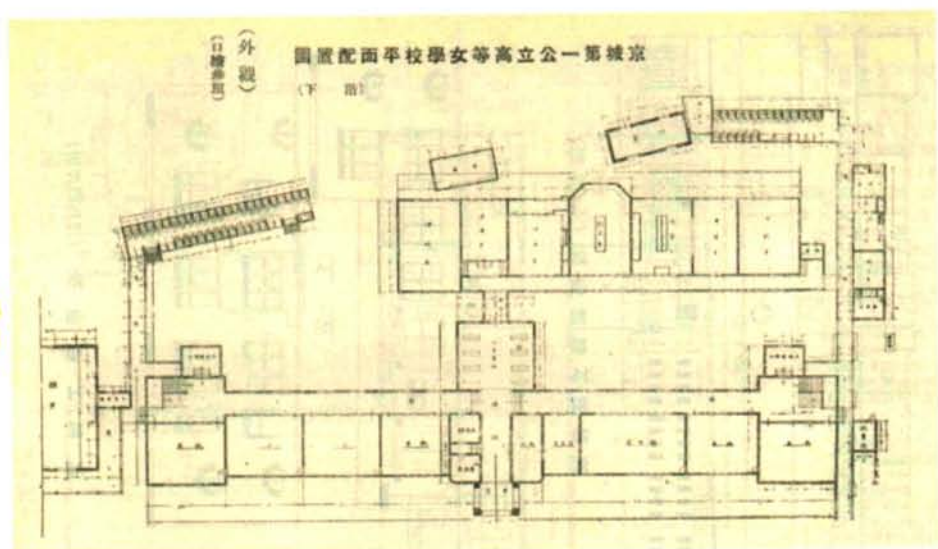
校學女等高一第立公城京



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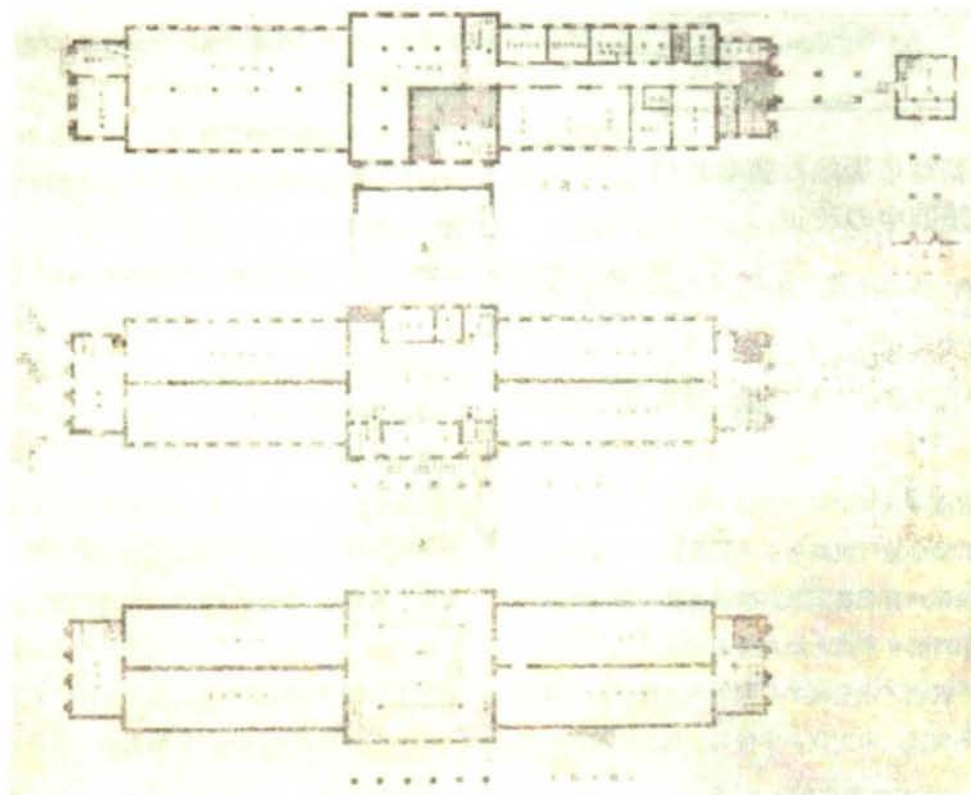
현재



51. 德壽宮美術館

주소	貞洞 1	종류	교육·학술·문화시설	층수(구조)	- (RC造)
준공	1937년 11월	설계자	中村與資平建築事務	시공자	-





美術館一階・二階・三階平面圖

52. 京城德壽公立國民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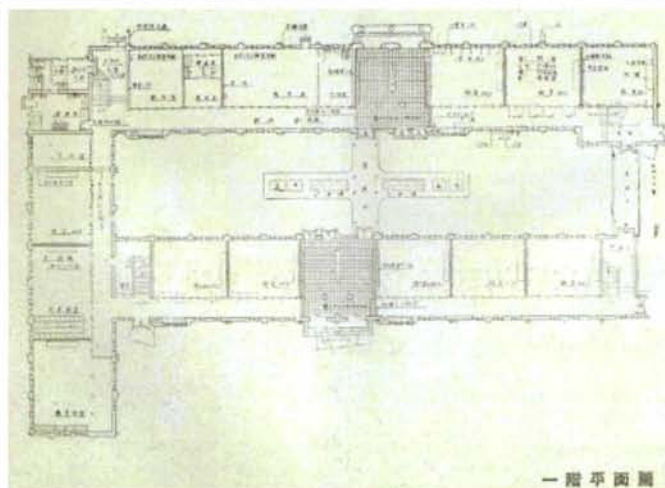
주소	貞洞 1	종류	교육·학술·문화시설	층수(구조)	지상 2층(混構造)
준공	1941년 8월	설계자	京城府營繕課	시공자	生間組

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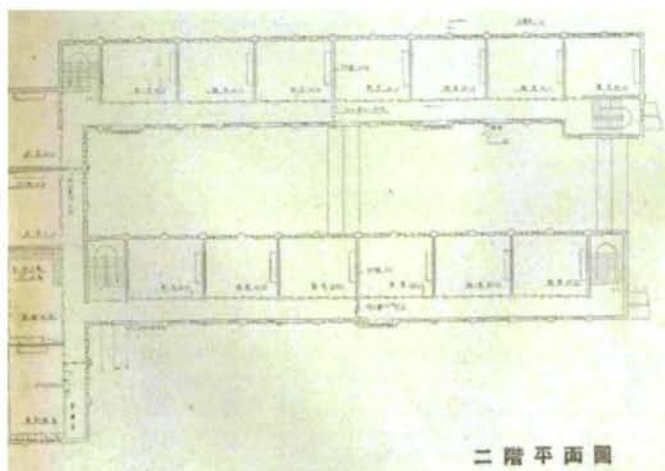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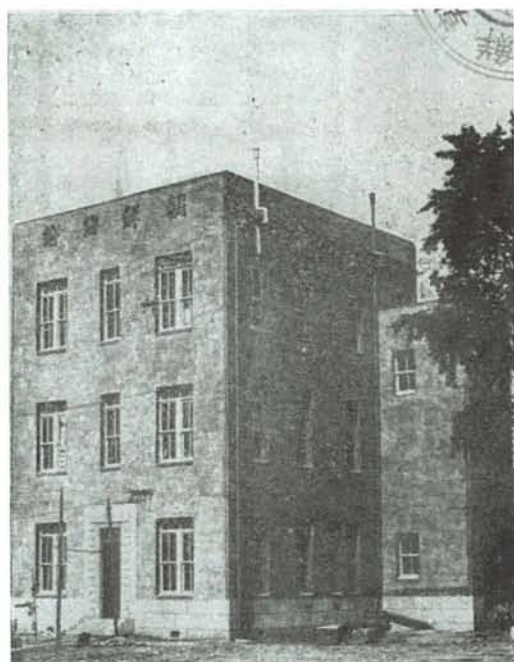
一階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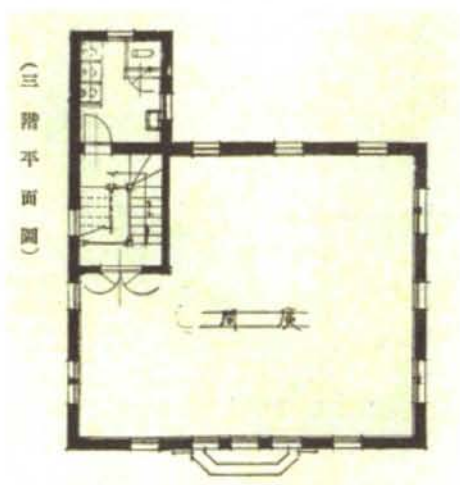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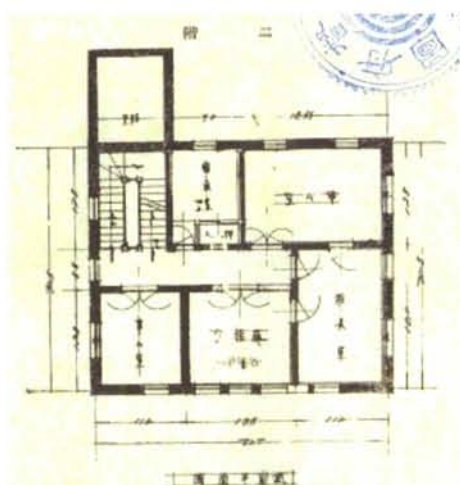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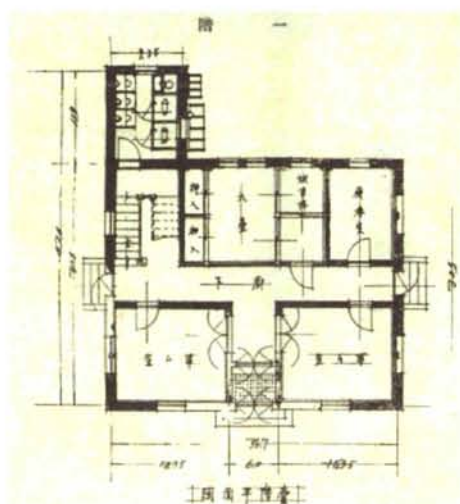


二階平面圖

53. 朝鮮公論社

주소	長谷川町111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3층(RC造)
준공	1926년 5월	설계자	中村誠殖産銀行技師	시공자	江波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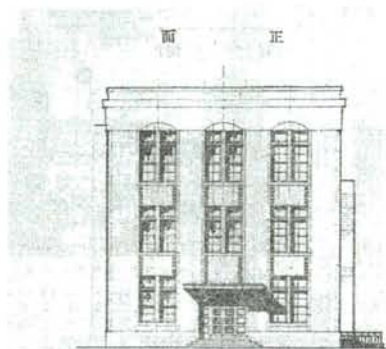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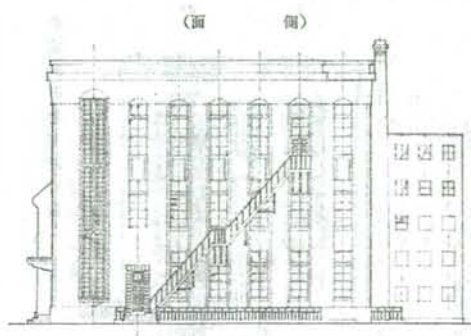
54. 京城府圖書館本館

주소	長谷川町115	종류	교육·학술·문화시설	층수(구조)	지상3/지하1층(RC造)
준공	1927년	설계자	-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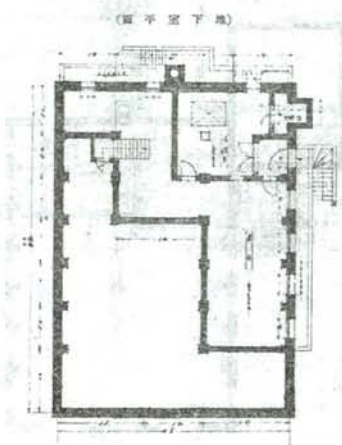




京城府圖書館設計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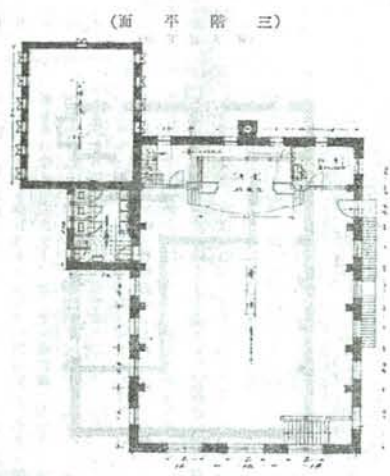
京城府圖書館設計圖



(圖平室下地)



京城府圖書館設計圖
(圖平階二)



(圖平階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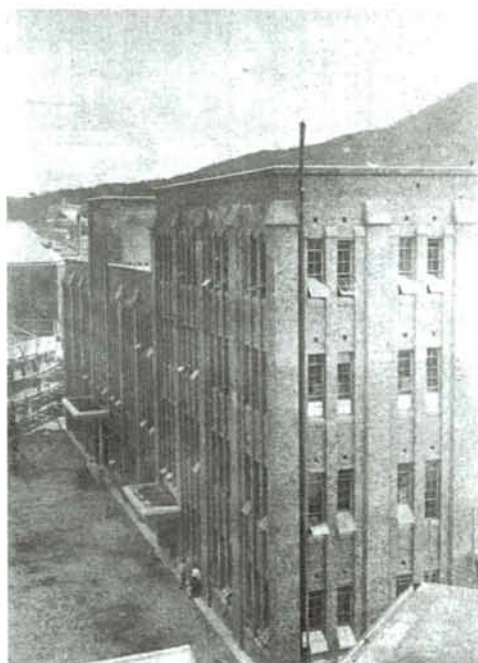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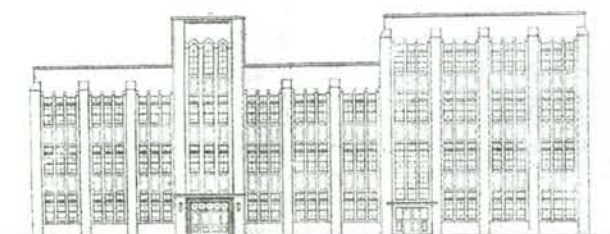
(圖平階一)

京城府圖書館設計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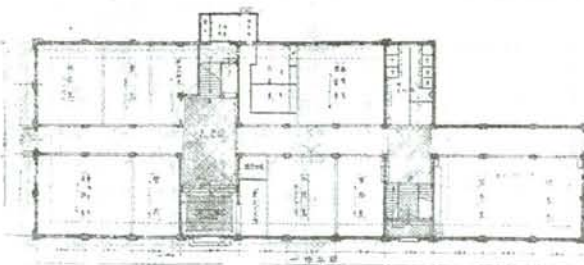
55. 京城齒科醫學校

주소	長谷川町	종류	교육·학술·문화시설	층수(구조)	지상4지하1층(RC造)
준공	1928년 5월	설계자	-	시공자	小寺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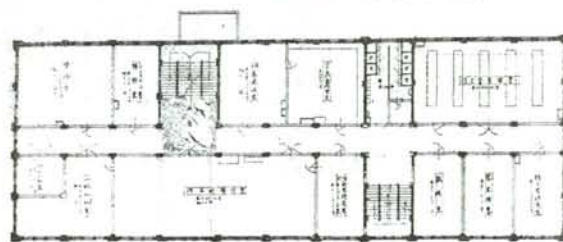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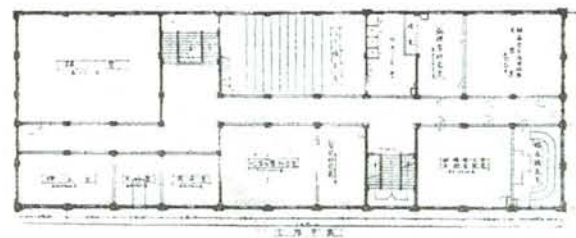
(圖正) 圖計設校學科齒城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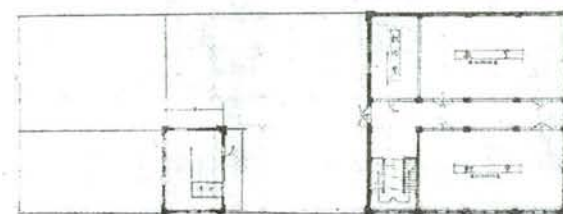
(階一圖平) 圖計設前同



(階二圖平) 上 同



(階三圖平) 前 同



(階四圖平) 上 同

56. 富士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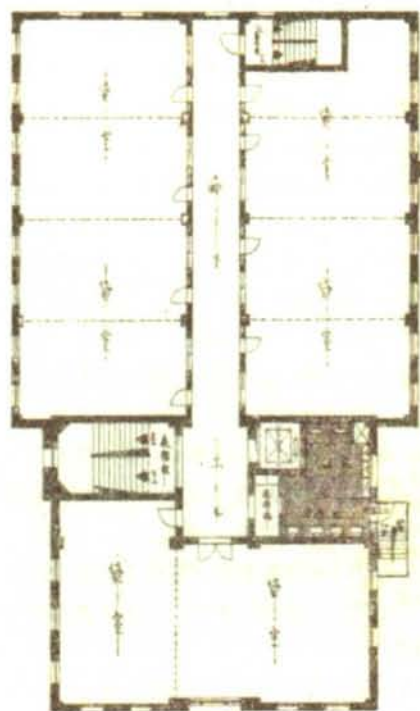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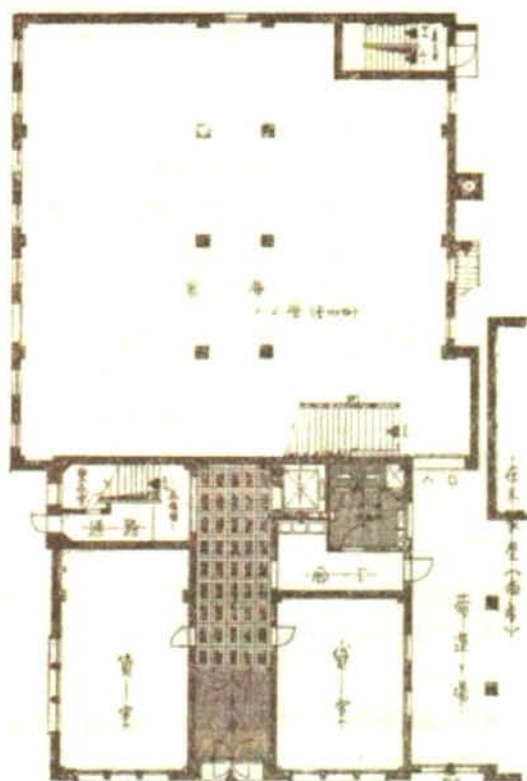
주소	長谷川町 2 0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5/지하1층(RC造)
준공	1937년 10월	설계자	多田工務店設計部	시공자	多田工務店

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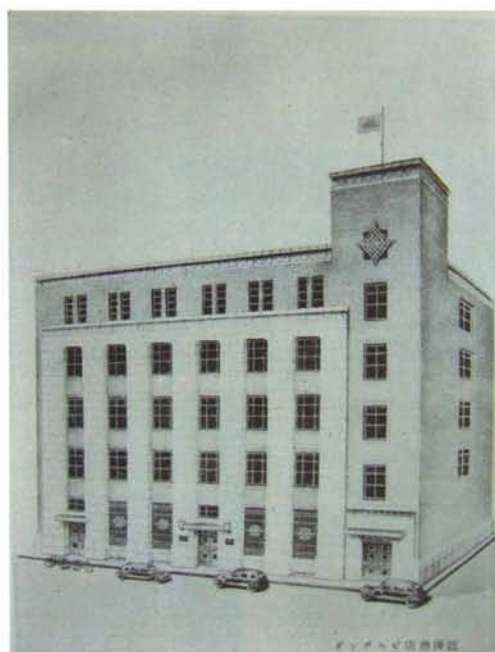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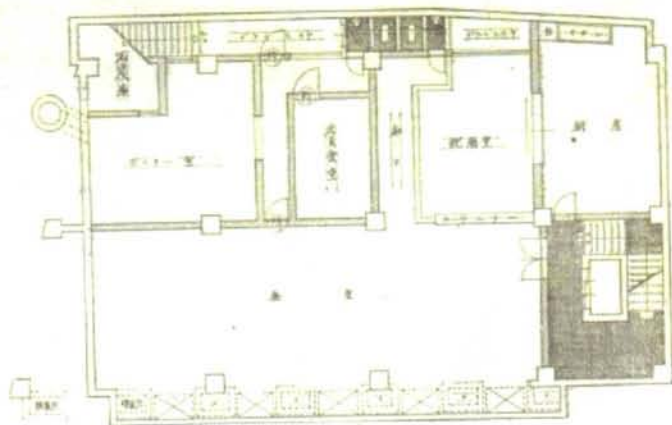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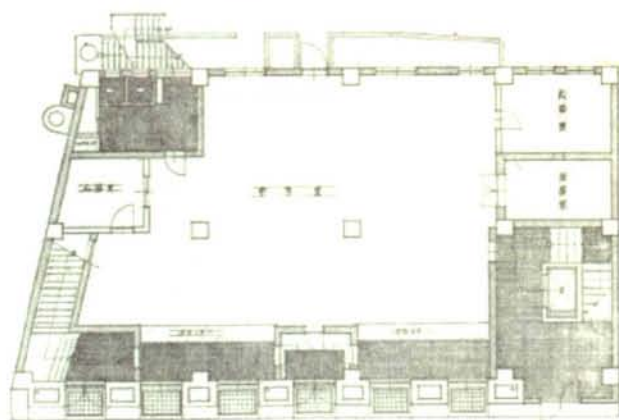
57. 近澤빌딩

주소	長谷川町 7-6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 (RC造)
준공	1937년 9월	설계자	玉田建築事務所	시공자	吉田幸次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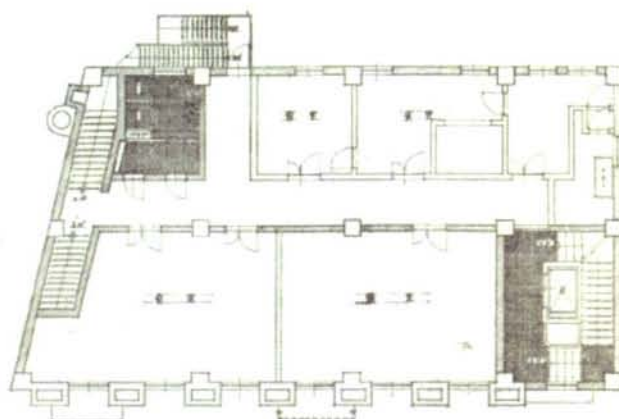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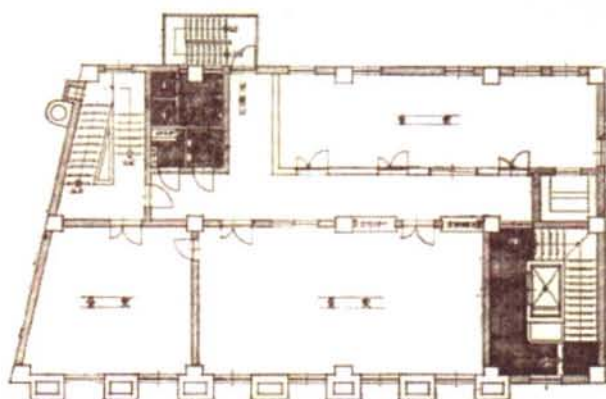
第一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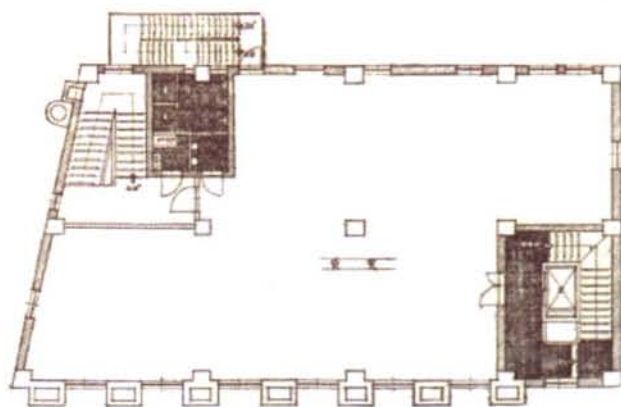
第二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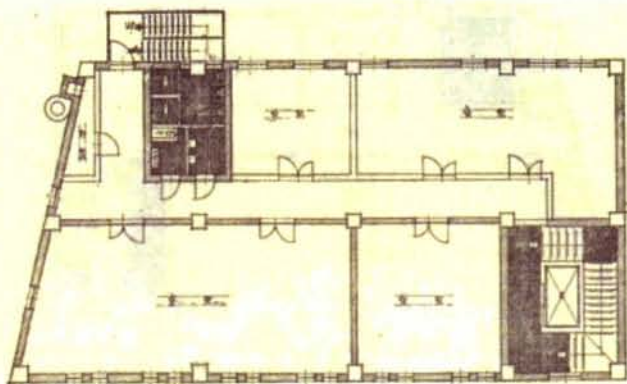
第三層平面圖



二階平面圖



四階平面圖



三階平面圖

58. 朝鮮土地經營株式會社

주소	長谷川町 1 1 2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3층(煉瓦造)
준공	1929년 7월	설계자	相澤工務店	시공자	多田工務店



59. 京城基督教青年會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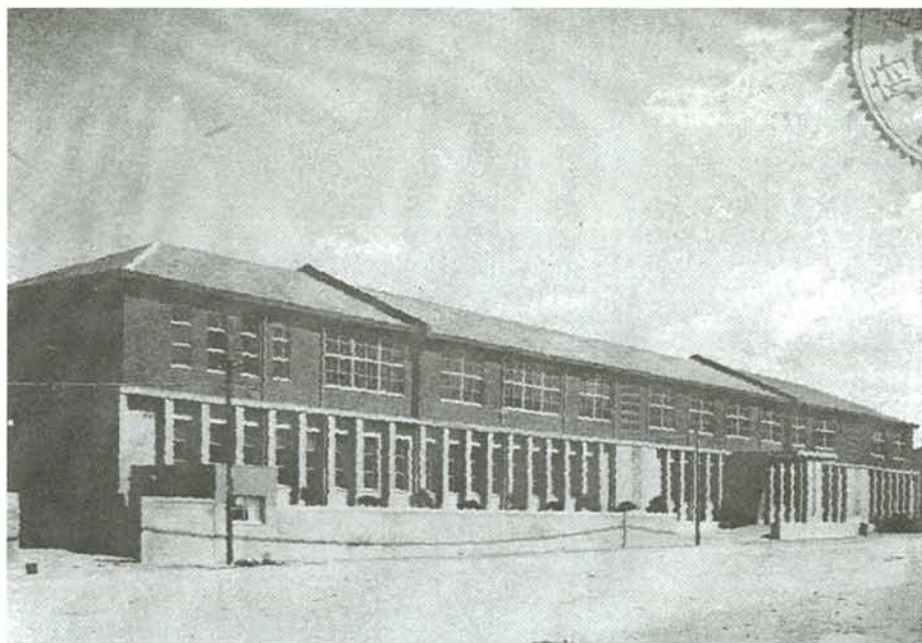
주소	長谷川町 1 1 2	종류	종교건축	층수(구조)	지상5/지하1층(RC造)
준공	1934년 11월	설계자	笹慶一	시공사	東亞工業





60. 京城遞信分掌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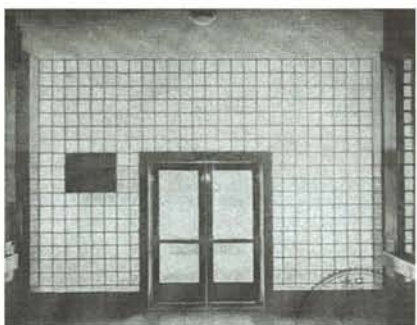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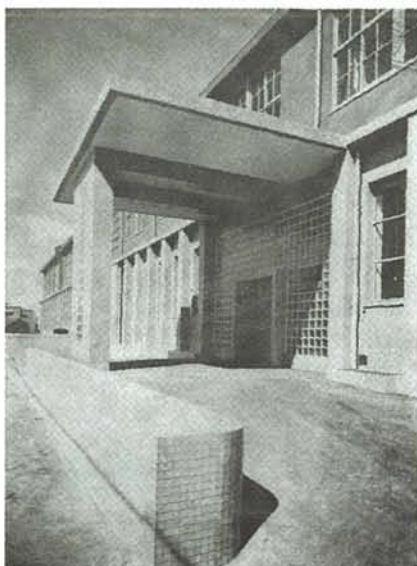
주소	新堂町293	종류	공공건축	층수(구조)	지상 2층(混構造)
준공	1940년 06월	설계자	總督府遞信局營繕課	시공자	多田工務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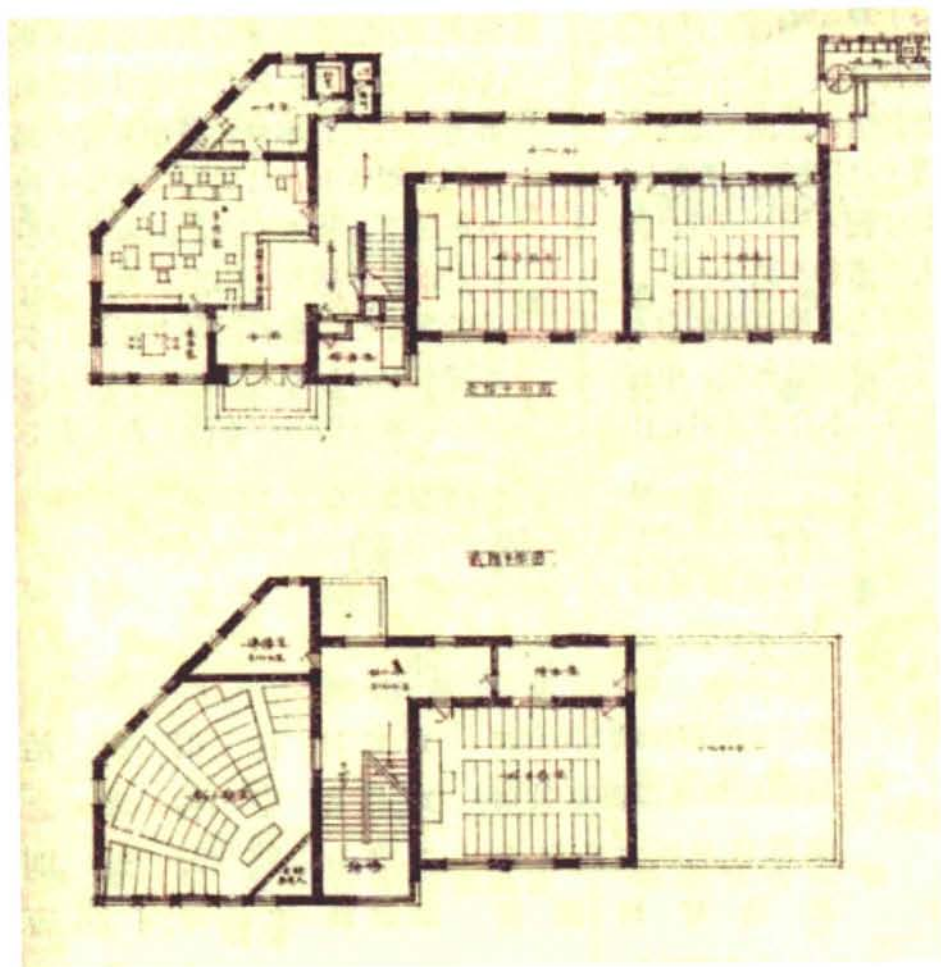


61. 昭和工科學校

주소	新堂町 2 5 1	종류	교육·학술·문화시설	층수(구조)	지상 2층(混構造)
준공	1934년 8월	설계자	昭和工科學校	시공자	森田組







62. 京城公立櫻ヶ丘小學校

주소	新堂町 3 3-1	종류	교육·학술·문화시설	층수(구조)	지상 3층(RC造)
준공	1937년 8월	설계자	京城府營繕課	시공사	京城土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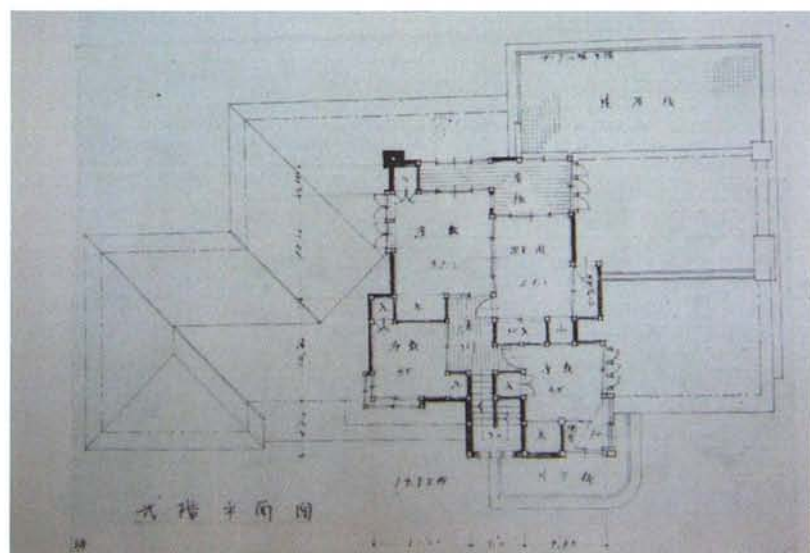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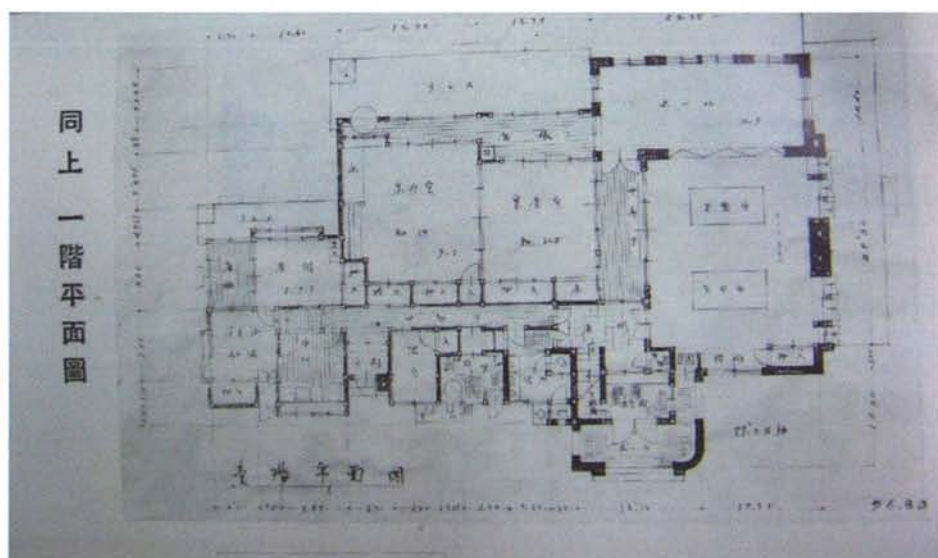
63. 東拓俱樂部

주소	新堂町 3 4 0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2층(混構造)
준공	-	설계자	-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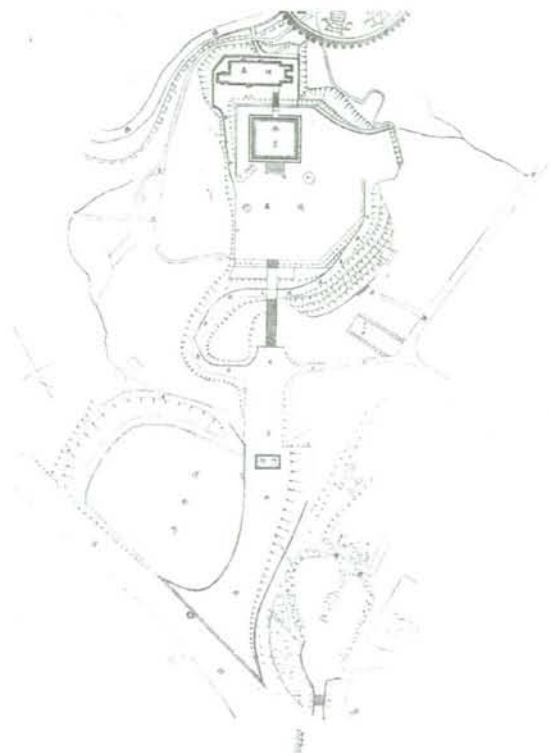
同上 一階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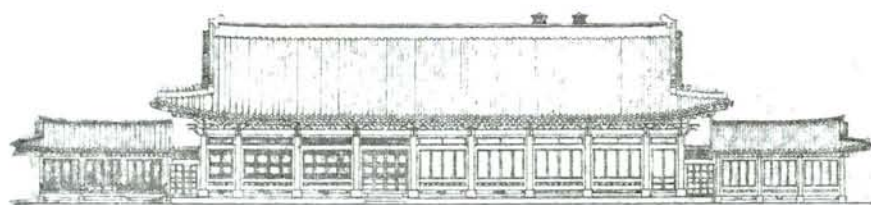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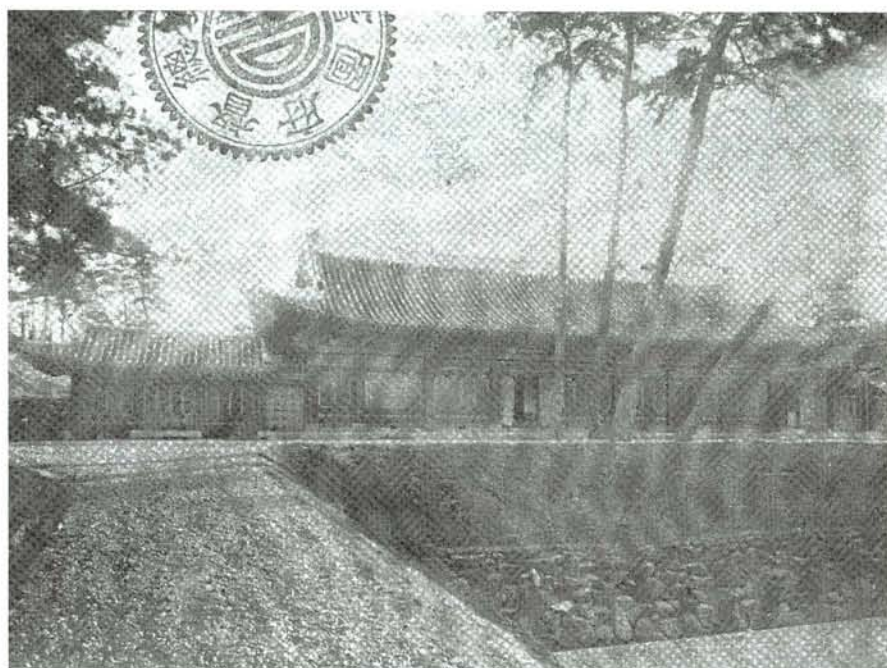


64. 春畦山博文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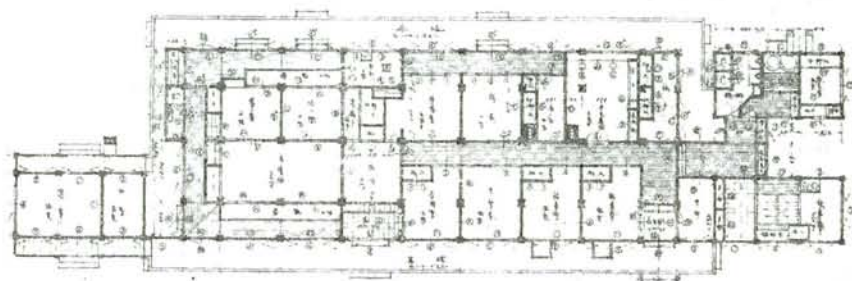
주소	西四軒町	종류	종교건축	총수(구조)	- (木造)
준공	1931년 10월	설계자	伊東忠太	시공자	大倉土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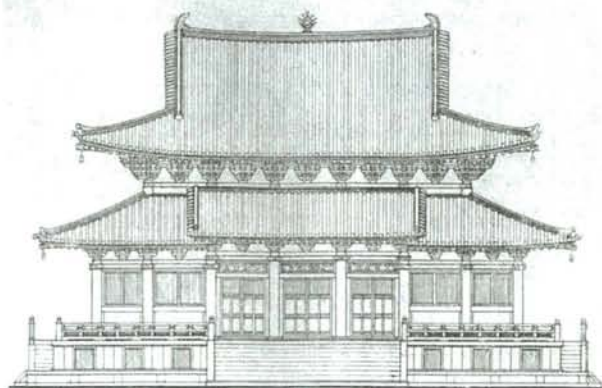
(庫裡正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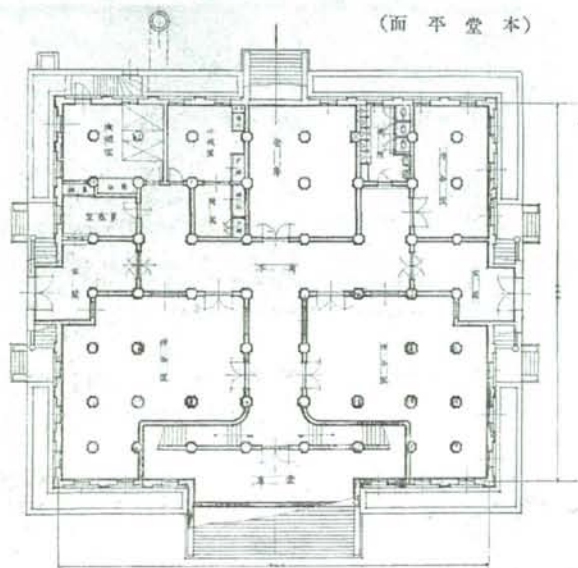
(庫裡平面)



(面正堂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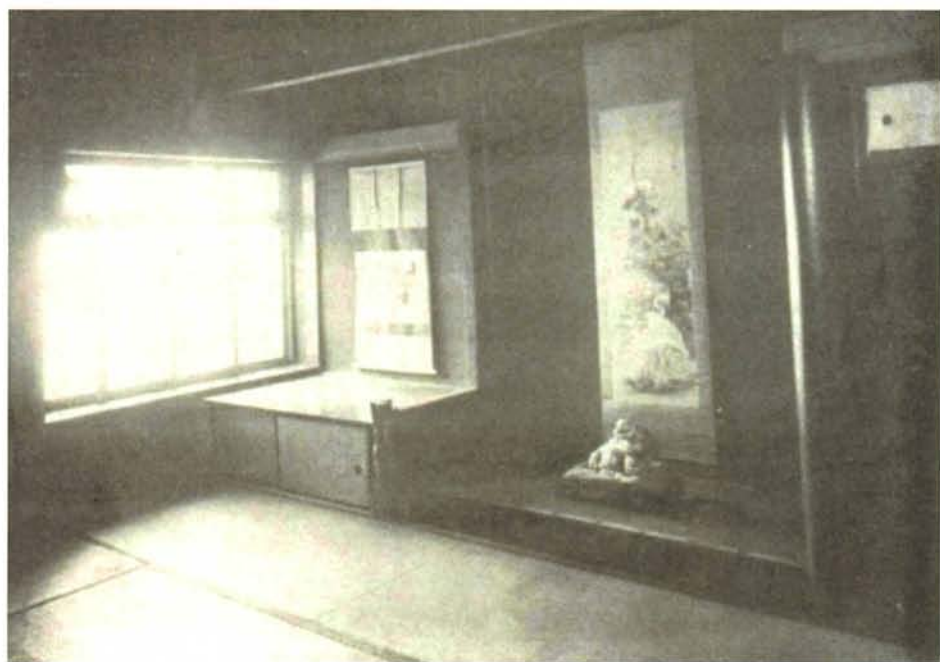
(面平堂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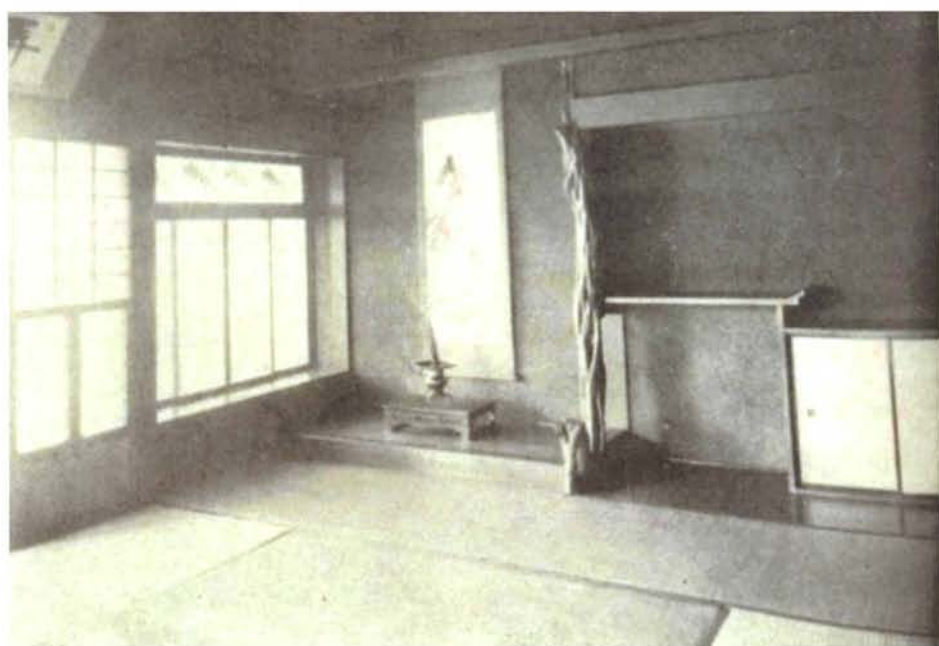


65. 新淸月

주소	西四軒町 1 8 4	종류	식당・오락시설	층수(구조)	- (-)
준공	1937년 11월	설계자	田邊茂作	시공자	田邊茂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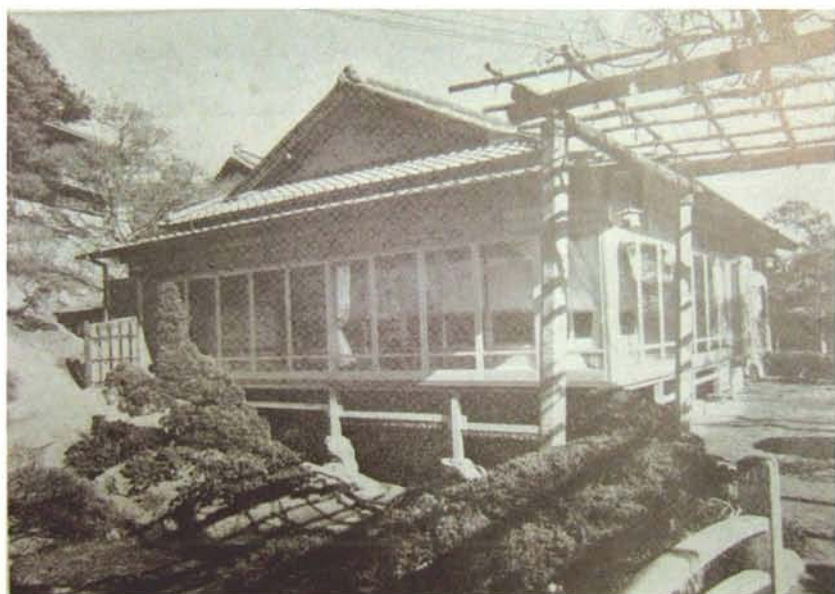






66. 南山莊新館

주소	西四軒町 192	종류	식당·오락시설	총수(구조)	- (-)
준공	1937년	설계자	山本安弘	시공자	田邊茂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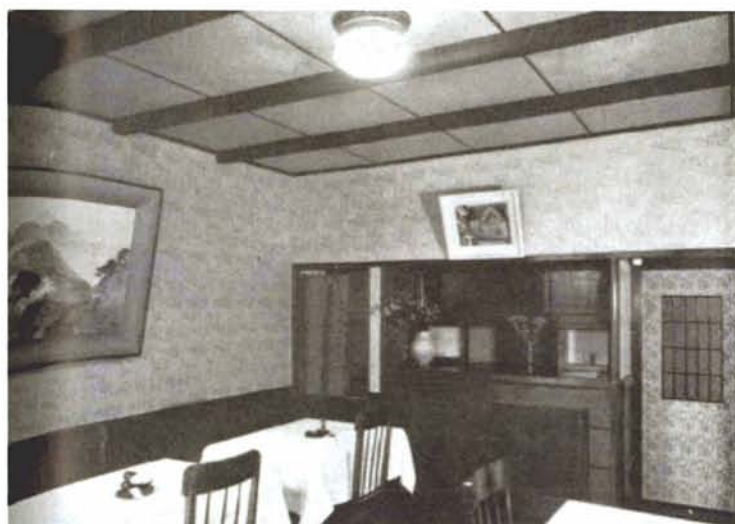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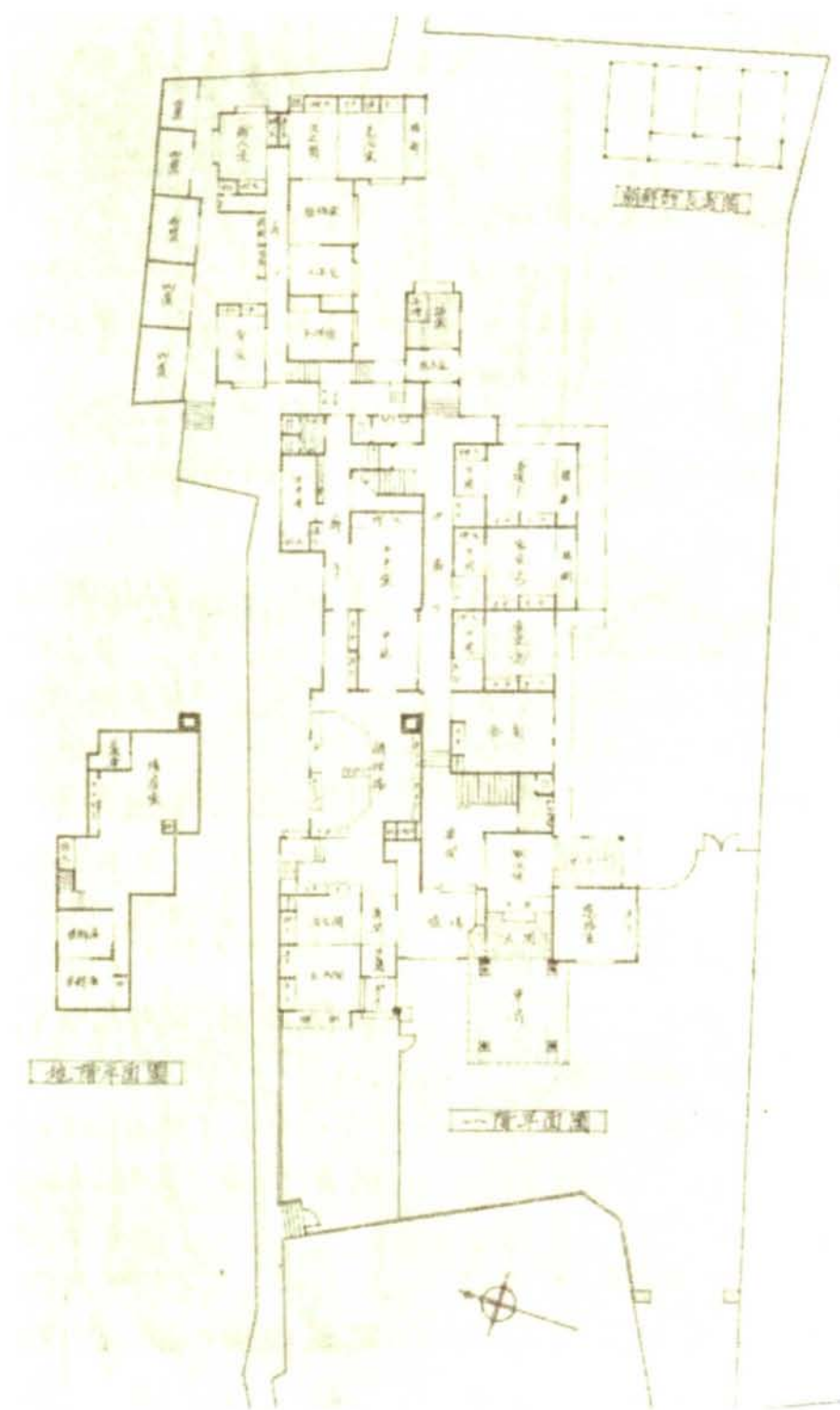


67. 不知火旅館

주소	旭町1丁目10	종류	숙박시설	층수(구조)	지상4/지하1층(RC造)
준공	1937년 7월	설계자	清水組設計部	시공자	清水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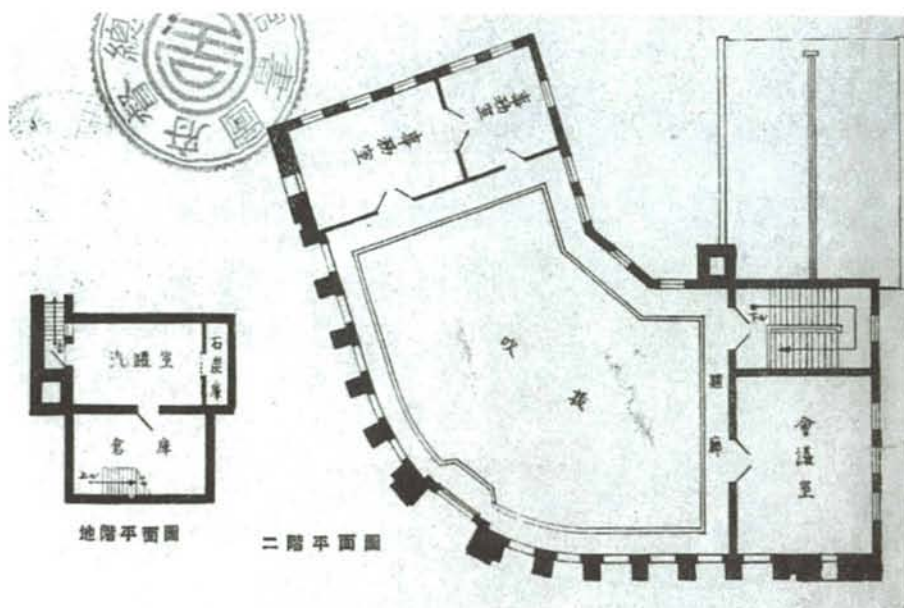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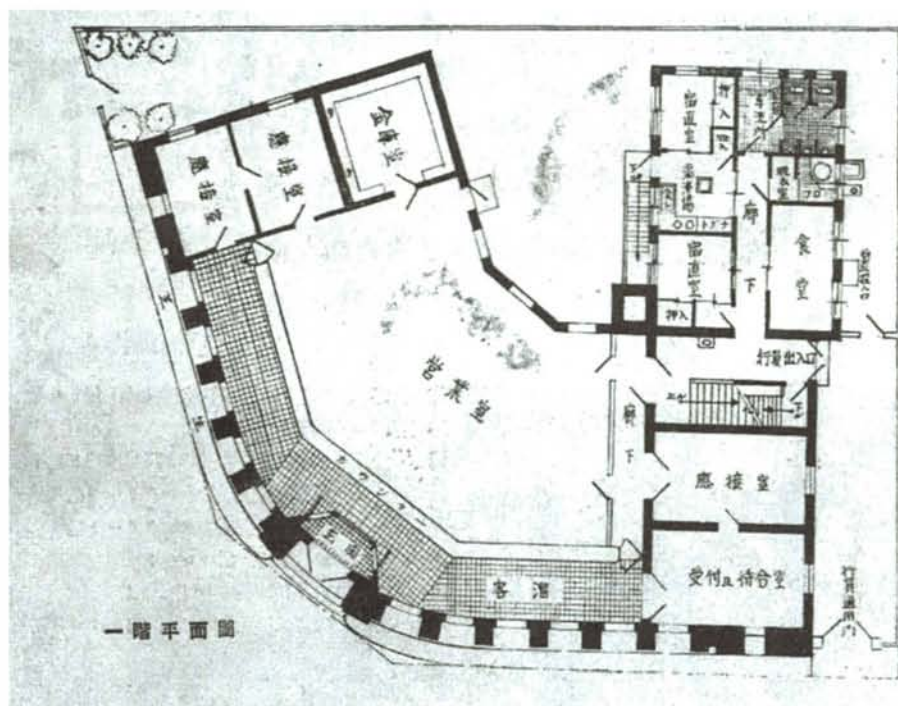
不知火旅館一階平面圖

68. 恩給金庫京城支店

주소	旭町1丁目194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2/지하1층(煉瓦造)
준공	1940년 11월	설계자	總督府官房會計課營繕係	시공자	岸組







69. 昭和빌딩

주소	旭町2丁目6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3층(-)
준공	1938년	설계자	-	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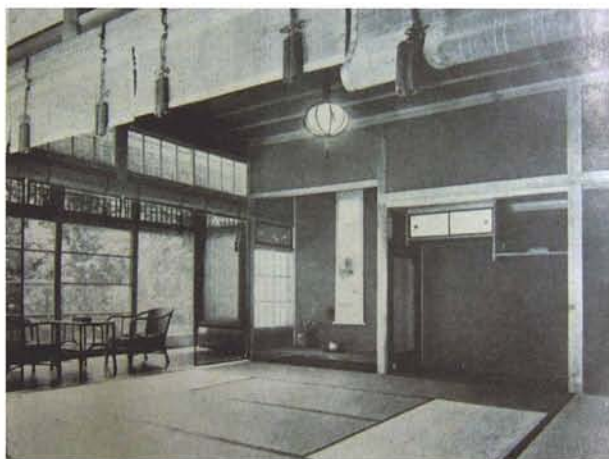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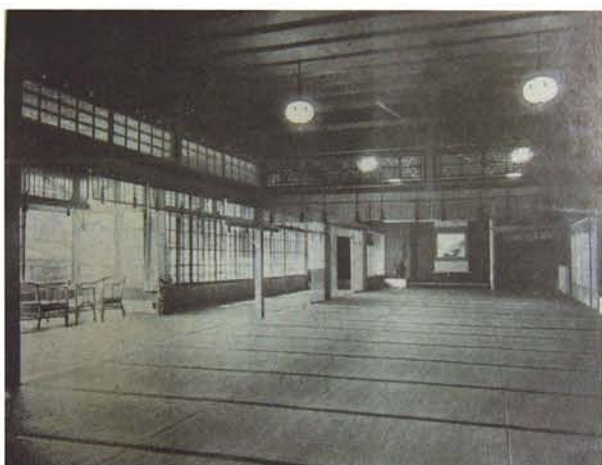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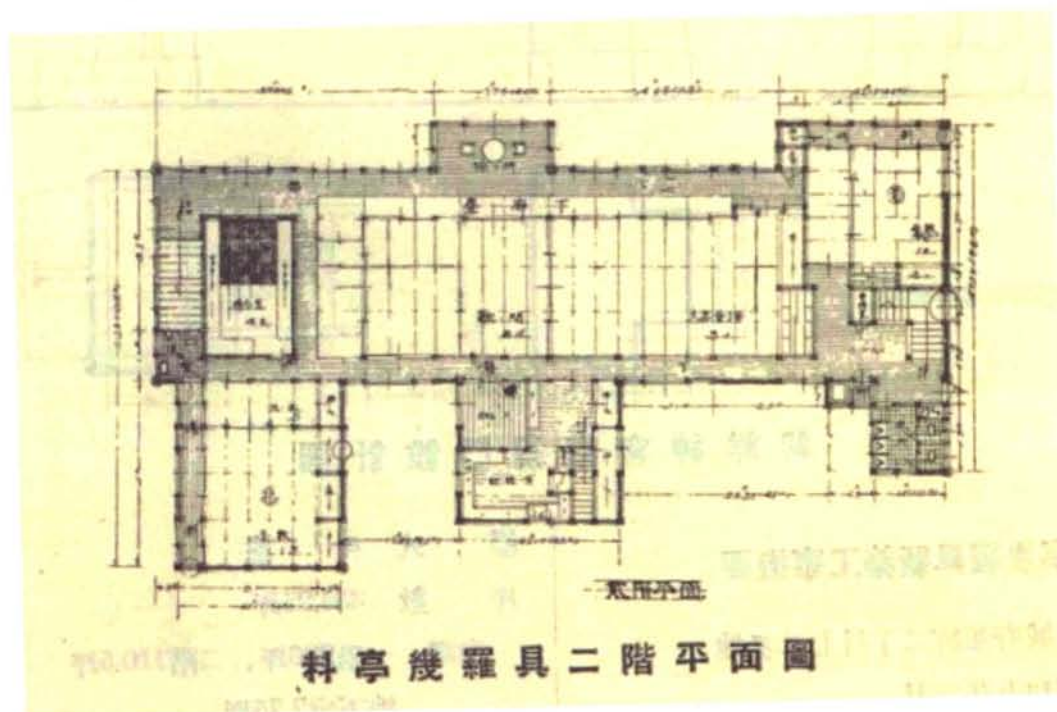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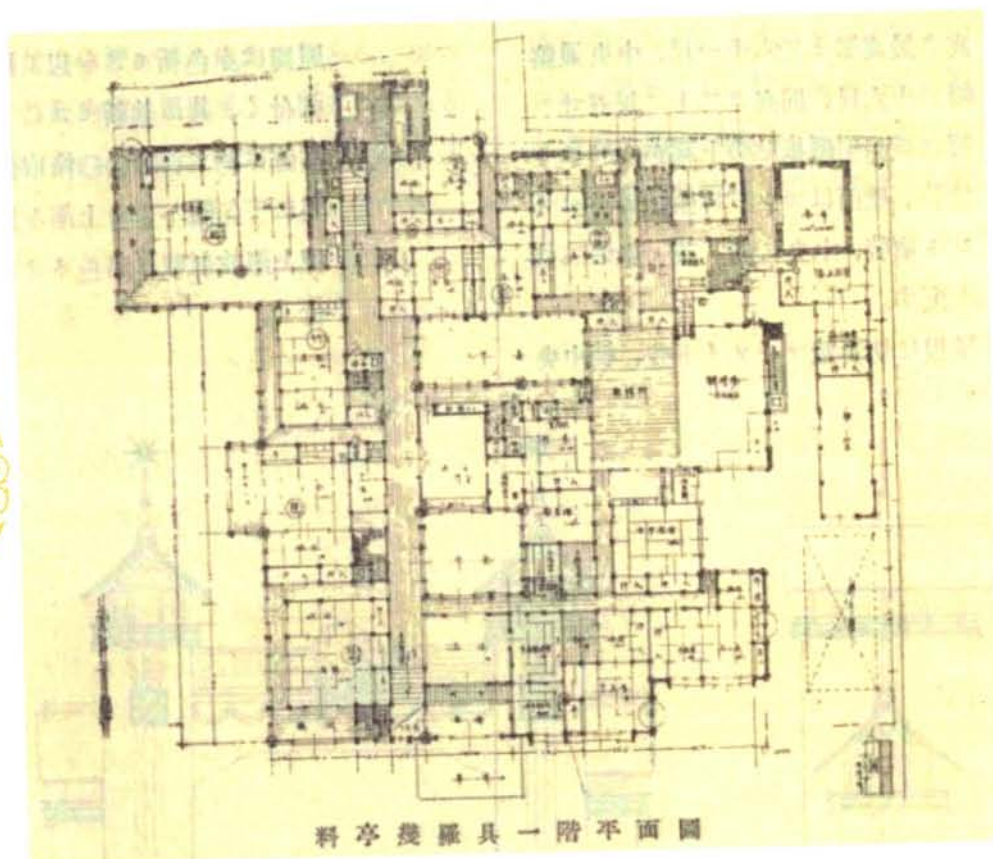


70. 幾羅具 (料亭)

주소	旭町 2 丁目 7 2	종류	식당・오락시설	층수(구조)	지상 2층(木造)
준공	1934년 10월	설계자	多田工務店	시공자	多田工務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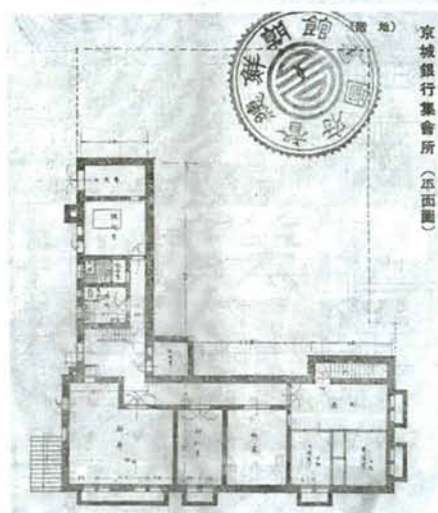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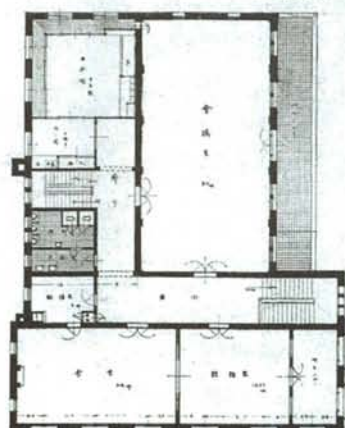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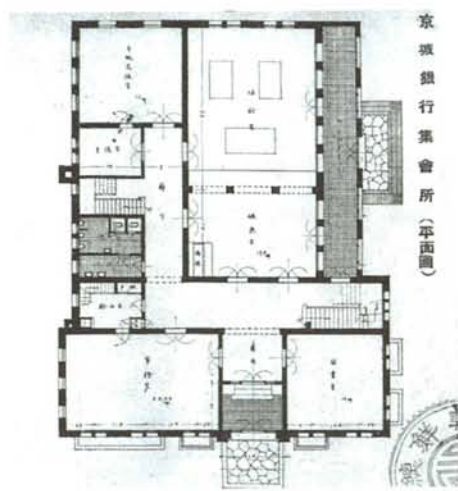


71. 京城銀行集會所

주소	北米倉町 9 3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2/지하1층(煉瓦造)
준공	1929년 6월	설계자	中村誠殖産銀行技師	시공자	長門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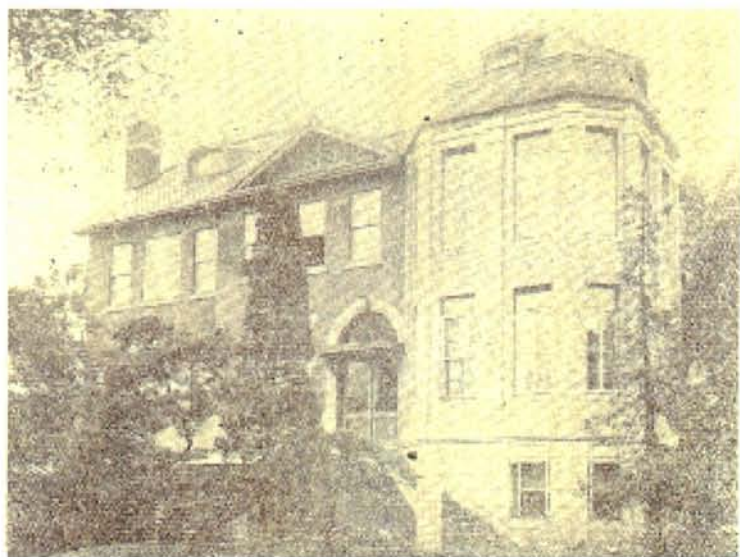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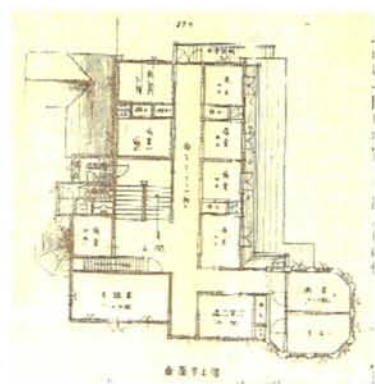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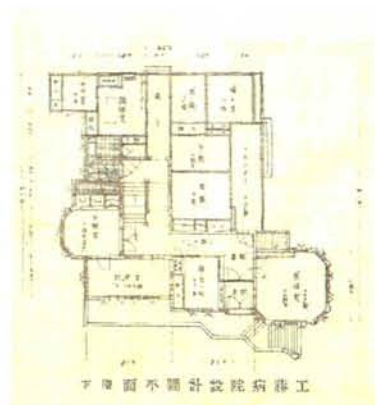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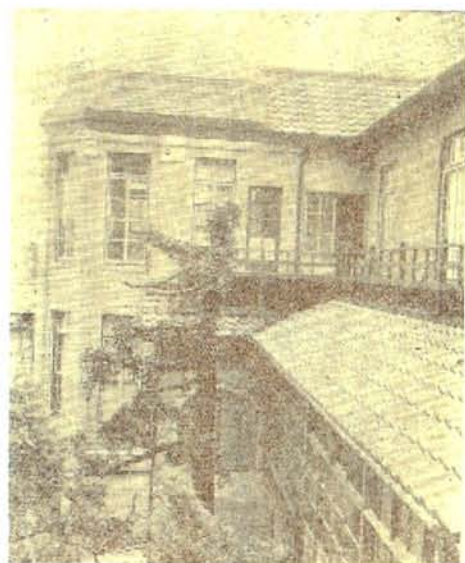




72. 京城工藤婦人病院

주소	北米倉町 9 4	종류	병원 · 사회복지 건축	층수(구조)	지상2/지하1층(混構造)
준공	1926년	설계자	總督府鐵道局工務課建築係	시공자	清水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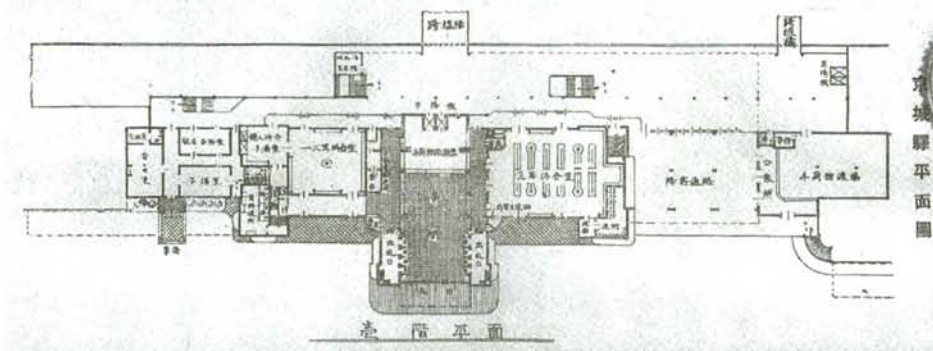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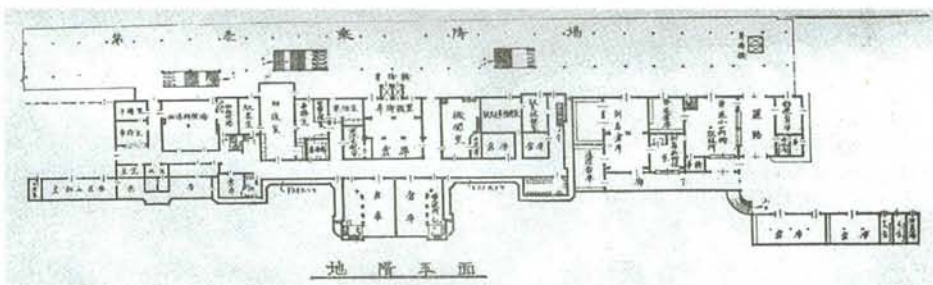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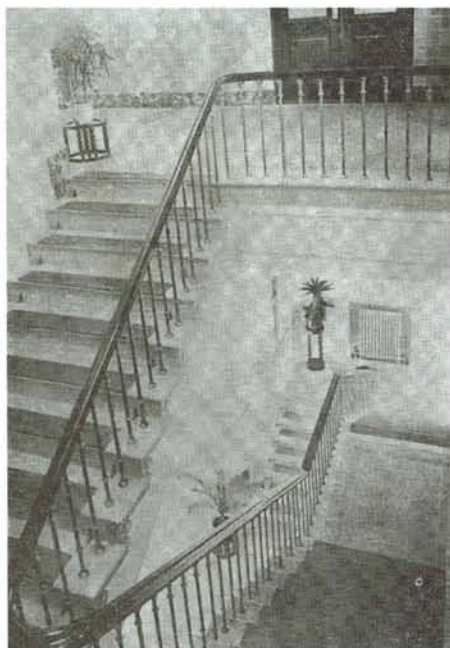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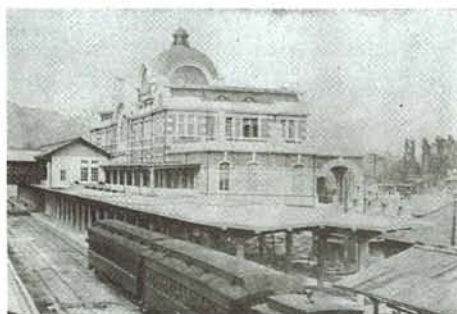




73. 京城驛

주소	古市町	종류	운송 및 창고 건축	층수(구조)	지상2/지하1층(混構造)
준공	1925년 9월	설계자	總督府鐵道局工務課建築係	시공자	清水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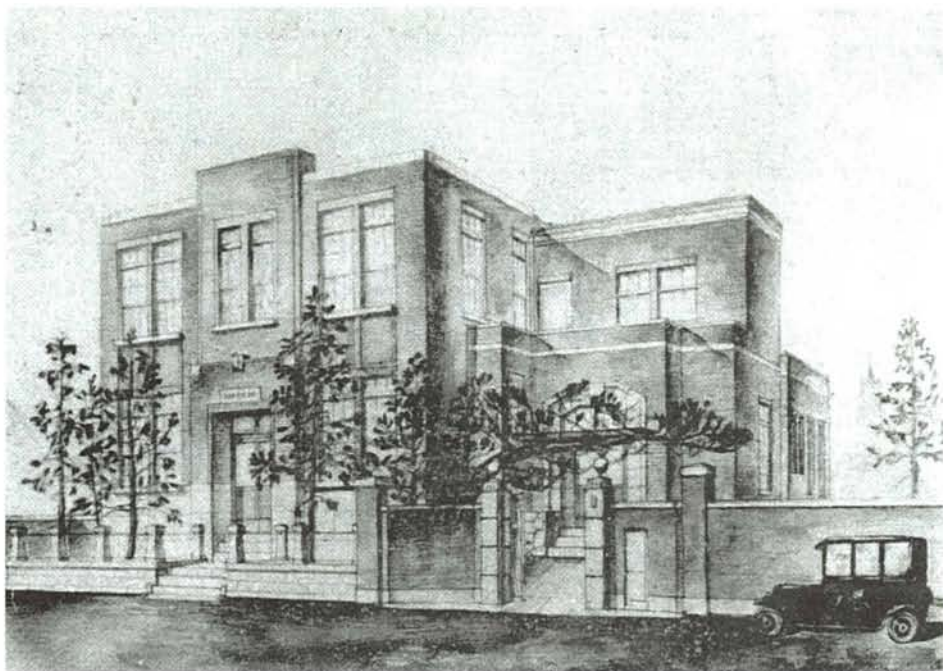
74. 中央호텔 및 自動車會社

주소	古市町 4 3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3층(煉瓦造)
준공	1928년 9월	설계자	平下工務所	시공자	直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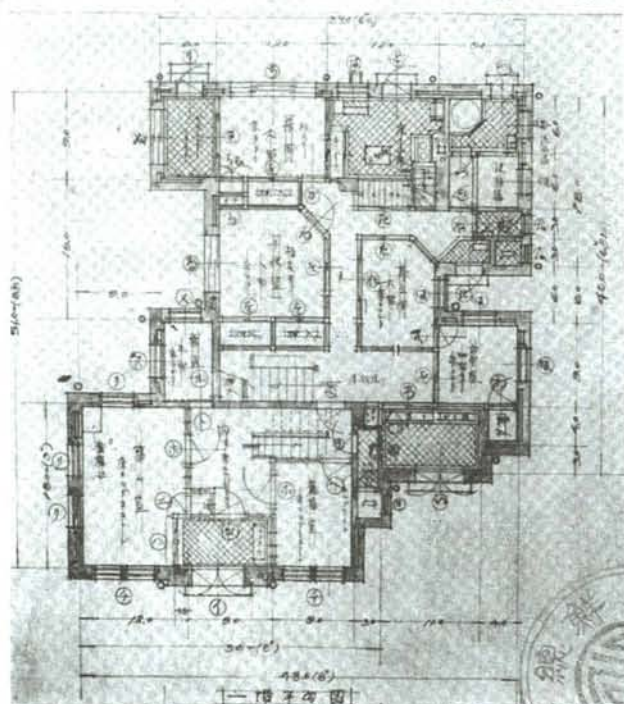
75. 西本組京城支店

주소	若草町 106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 2층(煉瓦造)
준공	1927년 4월	설계자	池田建築事務所	시공자	西本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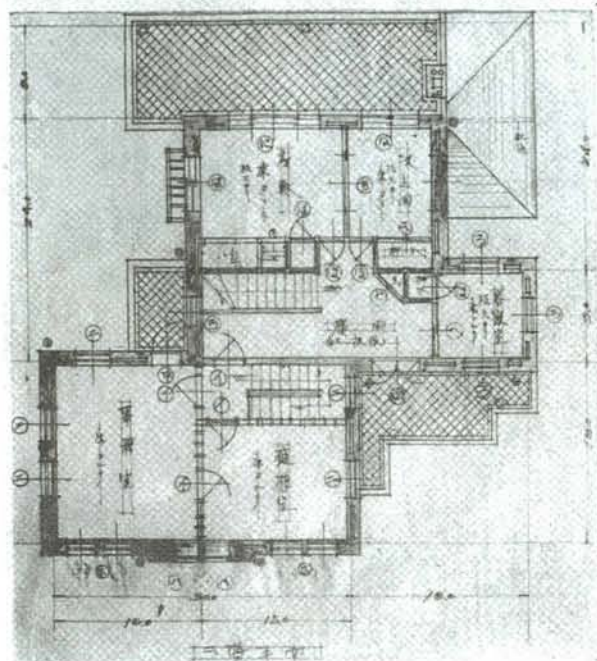




(階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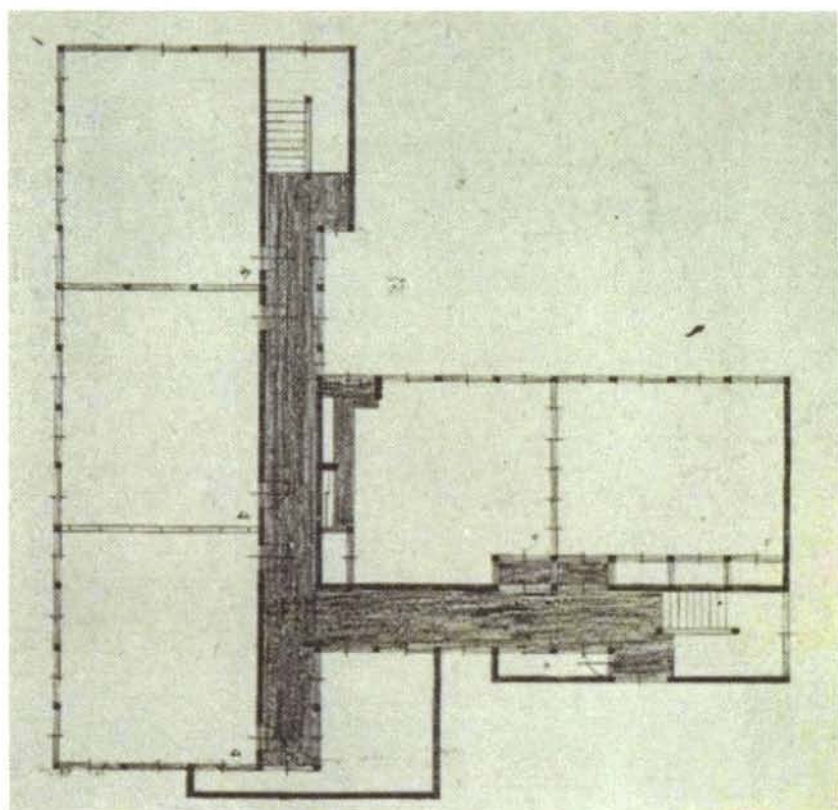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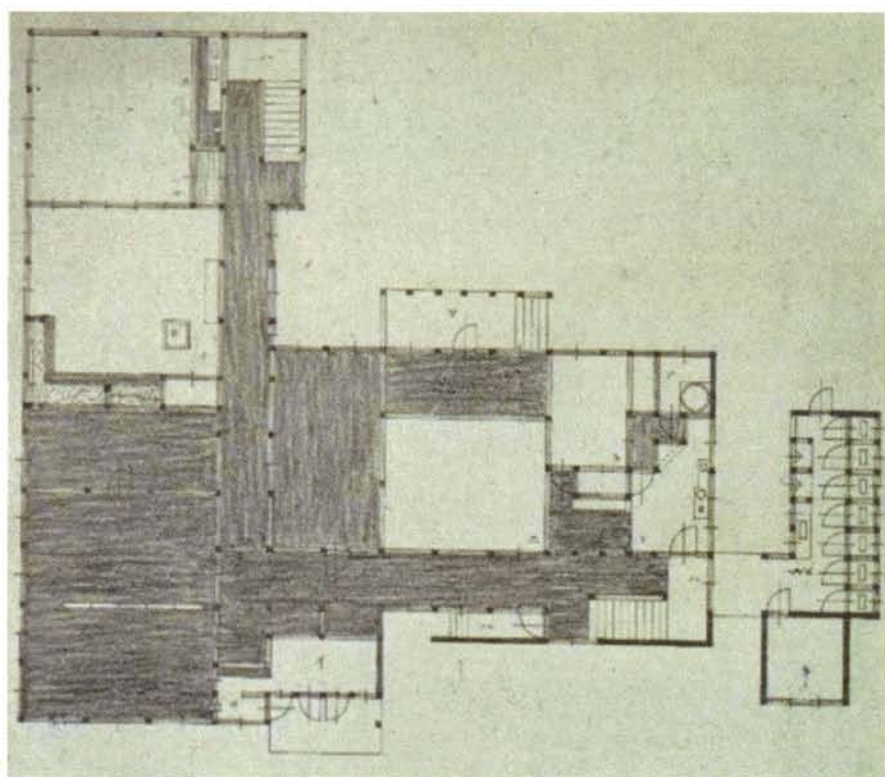
(階 二)



76. 京城軍事後援聯盟授産所

주소	若草町107	종류	병원·사회복지 건축	층수(구조)	지상2/지하1층(木造)
준공	1941년 5월	설계자	京城府營繕課	시공자	瓦田工務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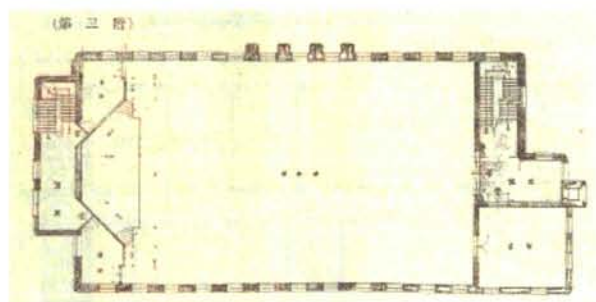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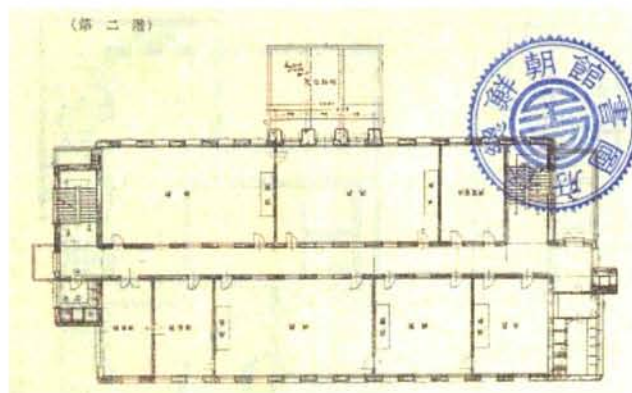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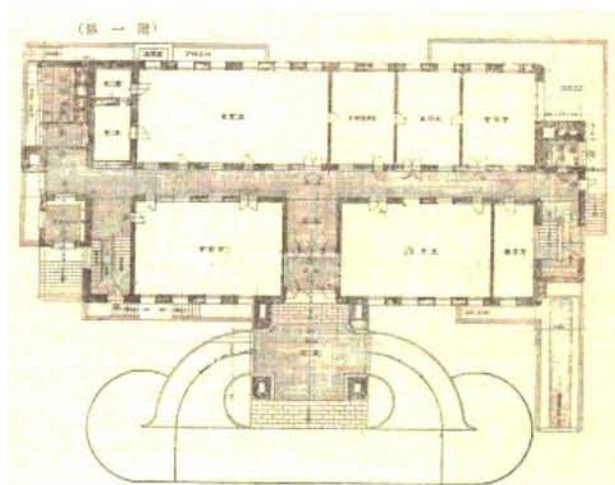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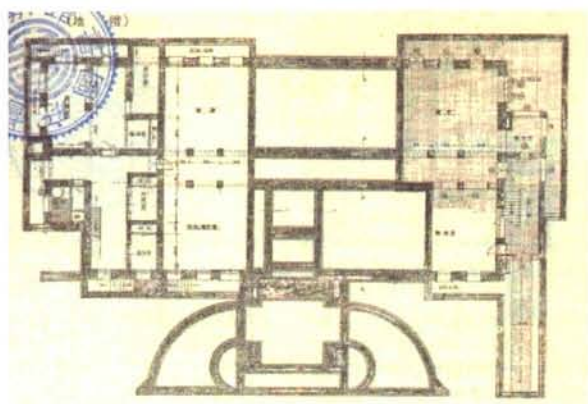
77. 朝鮮金融組合協會事務所

주소	竹添町 1 丁目 75	종류	상업 및 사무소 건축	층수(구조)	지상3/지하1층(煉瓦造)
준공	1930년 9월	설계자	-	시공자	-

朝鮮金融組合協會事務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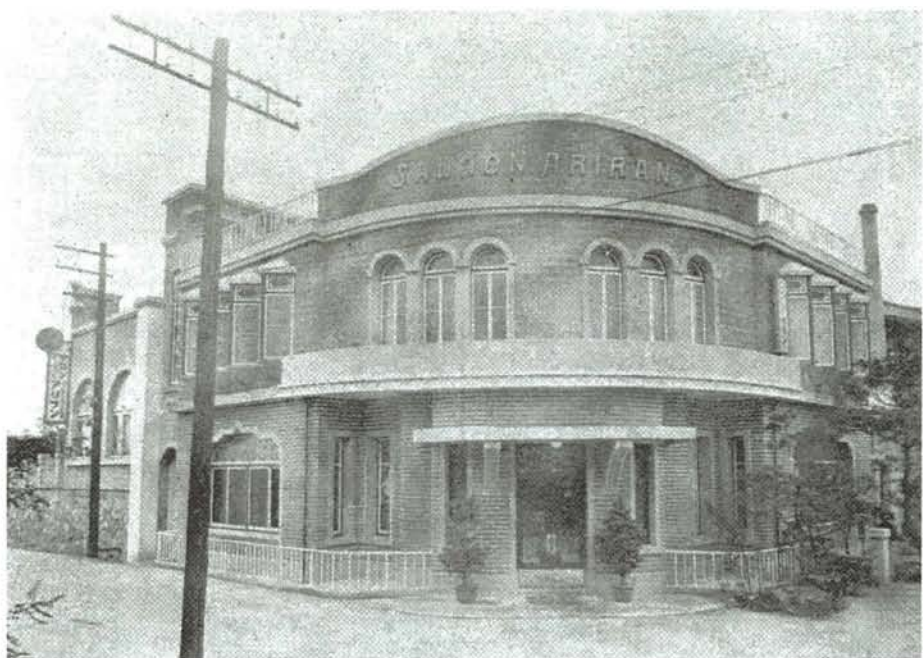
78. 新町貸座敷組合附屬病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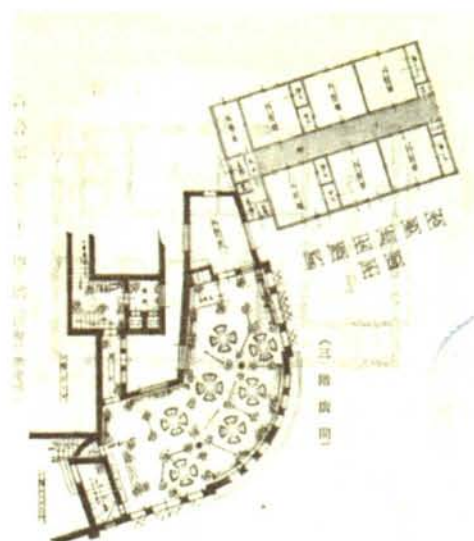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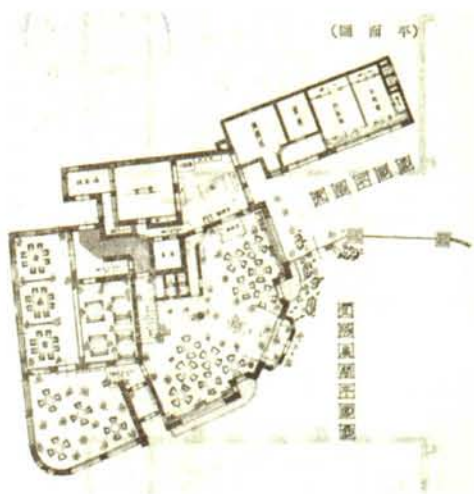
주소	新町 1 7	종류	병원 · 사회복지 건축	층수(구조)	- (-)
준공	1936년 11월	설계자	山本安弘	시공자	田邊茂作



79. 南山莊 (살롱 · 아리랑)

주소	西四軒町193	종류	식당 · 오락시설	층수(구조)	- (-)
준공	1931년	설계자	-	시공자	-





80. 京城神社

주소	倭城台町	종류	종교건축	층수(구조)	- (-)
준공	1932년	설계자	-	시공자	多田工務店





京城神社御造營配置設計圖

81. 明治座

주소	明治町 1 丁目 5 4	종류	유흥장 · 극장 · 경기장 시설	층수(구조)	지상4/지하1층(混構造)
준공	1936년 10월	설계자	玉田建築事務所	시공자	三木合資



82. 黄金座

주소	黄金町 4 丁目 310	종류	유흥장 · 극장 · 경기장 시설	층수(구조)	지상 3/지하 1층(混構造)
준공	1936년 11월	설계자	玉田建築事務所	시공자	-



83. 若草映畫劇場

주소	若草町 4 1	종류	유회장 · 극장 · 경기장 시설	층수(구조)	混構造
준공	1935년 12월	설계자	小澤建築事務所	시공사	-



주요 건축물 현 위치 목록

번호	건물명	현 위치 및 개략적인 상황
01	경성부청사	현 서울시청, 현재 리모델링 중
02	경성소방서	현 파이낸스 빌딩과 프레스 센터 사이
03	조선일보사	현 코리아나 호텔 빌딩
04	조선신문사	현 신한은행 본점 및 대한상공회의소 사이 앞쪽
05	조선실업은행 본점	현 한국은행 소공 별관
06	일본생명빌딩	현 금호종합금융 빌딩
07	야스다은행 경성지점	현 한진해운 빌딩
08	조선식산은행 별관	현 롯데백화점 본점
09	치요다생명보험상호회사 경성지점	현 하나은행
10	조선신탁주식회사	현 롯데백화점 명품관
11	조선은행 지금계실	현 한국은행 내
12	동경화재보험주식회사 경성지점	현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옆 별관
13	카페 아폴로	현 남대문로 5가 용우빌딩 옆 부근
14	일화생명빌딩	현 남대문로 5가 청송빌딩 부근
15	아치요생명보험주식회사 조선지부	현 창화빌딩 앞쪽 및 허브치과의원 일대
16	미츠이물산주식회사 경성지점	현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
17	조선빌딩	현 롯데호텔
18	카토우후미상점	현 기업은행 본점 맞은 편 함흥냉면 집 부근
19	동경건물빌딩	현 기업은행 본점 맞은 편 함흥냉면 집 부근
20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별관	현 외환은행 뒤편, 한양빌딩 맞은 편 일대
21	경성주식현물취인시장	현 명동 HMC투자증권 빌딩
22	요시노나카매점사무소	현 을지로 2가(정확한 위치는 확인 불가)
23	동아증권주식회사	현 외환은행 뒤편, 한양빌딩 맞은 편 일대
24	카페 릴리	현 을지로 2가 을지로 복합시설 건설현장 맞은 편
25	경성부 부민병원	현 국립의료원 일대
26	경성사범학교	현 계림길 옆 미군육군국동공병단 일대
27	경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	현 계림길 옆 미군육군국동공병단 일대
28	경성부영 수영장	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역사문화공원 일대
29	경성운동장선수공소	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역사문화공원 일대
30	나니와관영화관	현 하나은행 명동지점 옆
31	주식회사 경성덕력	현 명동 증권빌딩
32	마루비루화관	현 명동 우리은행 빌딩
33	모리나가캔디스토어	현 충무로 KT중앙지사 옆 주차장 건물
34	오오사와상점 경성지점	현 충무로 반포매장빌딩
35	경성중앙전화국	현 신세계백화점 신관 부근
36	경성보정종합빌딩	현 명동 KT중앙지사 옆 주차장 건물
37	아사히빌딩	현 신세계백화점 신관 부근
38	보탄	현 충무로 이끼 커피숍
39	경성여자실업학교	현 동대문 밀레오레와 두타 빌딩 사이
40	미츠코시	현 신세계백화점

41	본정빌딩	현 충무로 신한은행 명동지점 맞은 편
42	명치제과매점	현 충무로 닥스 매장 빌딩
43	동본원사 경서별원객전고리	현 한양교회
44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청사	현 대한적십자사 구관
45	조선신궁	현 남산 공원 분수대 일대
46	조선신궁 사무소	현 남산 안중근 기념관 부근
47	노기신사	현 사회복지법인 남산원 내
48	경성삼재판소	현 서울시립미술관
49	성공회 성당	현 성공회 성당
50	경성공립제일고등여학교	현 구경기여자고등학교 터
51	덕수궁 미술관	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분관
52	경성덕수공립국민학교	현 덕수초등학교 북쪽 공터
53	조선공론사	현 프라자 호텔 뒤편
54	경성부 도서관 본관	현 한국은행 본점 신관 뒷편 주차장
55	경성치과의학교	현 한국은행 본점 신관 뒷편
56	후지빌딩	현 KEB 외환은행 소공동 지점 옆 부근
57	지카자와빌딩	현 조선호텔 주차장 입구 부근
58	조선토지경영주식회사	현 소공동 아일랜드 양복점 빌딩 맞은 편
59	경성기독교청년회관	현 소공동 OCI빌딩 맞은 편
60	경성체신분장국	현 서울 흥인초학교 내
61	소화공과학교	현 한양공업고등학교 내
62	경성공립사쿠라가오카소학교	현 청구초등학교 내
63	동척구락부	현 청구초등학교 옆
64	춘휴산박문사	현 신라호텔 영빈관
65	신청월	현 충무초등학교 유치부 건물 부근
66	남산장 신관	현 장충동 장충아파트 맞은 편 부근
67	시라누이여관	현 신세계백화점 신관 옆 퇴계로
68	은급금고 경성지점	현 신세계백화점 신관 뒤 아웃백 건물
69	소화빌딩	현 퇴계로 한국화이자 빌딩 동편
70	기락구(요정)	현 신세계백화점 신관 옆 퇴계로
71	경성은행 집회소	한국은행 서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변
72	경성쿠도우부인병원	한국은행 서편 진흥상호저축은행 뒤편 주차장
73	경성역	현 서울역 구역사, 리모델링 진행중
74	중앙호텔 및 자동차회사	현 소공동 조선호텔 주차장 정문 맞은편
75	니시모토구미 경성지점	현 을지로동 초물전길 시네마극장 뒷편 주차장 옆
76	경성군사후원연맹수산소	현 동부해상화재보험 빌딩 일대
77	조선금융조합협회 사무소	현 교남동 문화일보 사옥 일대
78	신정대좌부조합부속병원	현 충무초등학교 내
79	남산장(살롱, 아리랑)	현 장충동 장충아파트 맞은 편 부근
80	경성신사	현 송의여자전문대학 내
81	메이지자	현 명동예술극장
82	코가네자	현 국도호텔 빌딩
83	와카쿠사영화극장	현 아시아 미디어 타워



신구 지명 대조표(가나다순)

	현재	일제강점기		
1	갈월동 葛月洞	강기정 岡崎町	오카자키초	
2	광희동 光熙洞	광희정 光熙町	고키초	
3	남대문로 南大門路	남대문통 南大門通	미나미다이 몬도오리	
4	남산동 南山洞	남산정 南山町	난잔초	
5	남영동 南營洞	연병정 練兵町	렌페이초	
6	남창동 南倉洞	남미창정 南米倉町	미나미요네 쿠라초	
7	남학동 南學洞	일지출정 日之出町	히노데초	
8	다동 茶洞	다옥정 茶屋町	차야초	
9	도동 桃洞	길야정 吉野町	요시노초	
10	도원동 桃園洞	미생정 彌生町	야요이초	
11	동자동 東子洞	고시정 古市町	후루이치초	
12	만리동 萬里洞 1,2가	봉래정 蓬萊町 3, 4정목	호라이초	
13	명동 明洞	명치정 明治町	메이지초	
14	묘동 廟洞	수은동 授恩町	쥬은초	
15	무교동 武橋洞	무교정 武橋町	타케하시초	
16	묵정동 墨井洞	신정 新町	신마치	
17	문배동 文培洞	경정 京町	교마치	
18	방산동 芳山洞	방산정 芳山町	호잔초	
19	봉래동 蓬萊洞 1,2가	봉래정 蓬萊町 1, 2정목	호라이초	
20	북창동 北倉洞	북미창정 北米倉町	키타요네쿠 라초	
21	사간동 司諫洞	간동 司諫町	시칸초	
22	산림동 山林洞	임정 林町	하야시초	
23	산천동 山泉洞	산수정 山手町	야마테초	
24	삼각동 三角町	삼각정 三角町	산카크초	
25	쌍림동 雙林洞	병목정 竝木町	나미키초	
26	세종로 世宗路	광화문통 光化門通	코카몽도오 리	
27	소공동 小公洞	장곡천정 長谷川町	하세가와초	
28	수표동 水標洞	수표정 水標町	수이효초	
29	순화동 巡和洞	화전정 和泉町	이즈미초	

30	신계동 新契洞	영정 榮町	사카에초	
31	신문로 新門路	서대문정 西大門町	니시다이몽 초	
32	신창동 新倉洞	청수정 清水町	시미즈초	
33	영천동 靈泉洞	관동정 館洞町	간도초	
34	예관동 藝館洞	화원정 花園町	하나조노초	
35	예장동 藝場洞	왜성대정 倭城臺町	와조다이마 치	
36	오장동 五莊洞	초음정 初音町	하쓰네초	
37	용문동 龍門洞	대도정 大島町	오오시마초	
38	원동 苑洞	원서정 苑西町	엔자이초	
39	원효로 元曉路	원정 元町	모토마치	
40	을지로 乙支路	황금정 黃金町	코가네초	
41	의주로 義州路	의주통 義州通	기슈도오리	
42	인현동 仁峴洞	앵정정 櫻井町	사크라이초	
43	입청동 笠井洞	입정정 笠井町	가사이초	
44	장교동 長橋洞	장교정 長橋町	나가하시초	
45	장충동1가 獎忠洞1街	동사헌정 東四軒町	히가시윙켄 초	
46	장충동2가 獎忠洞2街	서사헌정 西四軒町	니시윙켄초	
47	저동 茱洞	영락정 永樂町	에이라크초	
48	정동 貞洞	정동정 貞洞町	테이도초	
49	주교동 舟橋洞	주교정 舟橋町	후나바시초	
50	주자동 鑄字洞	수정 壽町	코토부키초	
51	청암동 淸岩洞	암근정 岩根町	이와네초	
52	청파동 靑坡洞	청엽정 靑葉町	아오바초	
53	초동 草洞	약초정 若草町	와카크사초	
54	충무로 忠武路	본정 本町	혼마치	
55	충정로 忠正路	죽첨정 竹添町	타케조에초	
56	필동 筆洞	대화정 大和町	야마토초	
57	태평로 太平通	태평통 太平通	타이헤이도 오리	
58	퇴계로 退溪路	소화동 昭和町	쇼와초	
59	한강로 漢江路	한강통 漢江通	칸코오도오 리	
60	회현동 會賢洞	욱정 旭町	아사히초	
61	효창동 孝昌洞	금정 錦町	니시키초	
62	후암동 厚岩洞	삼판통 三板通	산바도오리	



마무리 하면서

실로 무리한 작업이었는지 모른다. 기존에 이미 서울특별시 중구에 관한 향토자료집은 어느 정도 출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용도 매우 충실하게 제작되어 새롭게 중구를 조명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떠오른 것은 경관이라는 단어였다. 경관은 자연경관을 포함해서 인공경관을 아우른다. 자연경관이야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수용하고 인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인공경관은 바로 도시 변화를 바라 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었다. 서문에서도 언급했지만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중구를 조명해 보았다. 다만 조선시대의 경우 중구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관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각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간단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다루었으며 비교적 비중 있게 본 것은 근대의 중구였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는 오늘날의 중구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근대의 중구는 요즘처럼 근대에 대한 연구의 붐이 일고 있는 시기에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 책의 집필을 의뢰했던 조상기 중구문화원 부원장님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중구에 지어졌던 건축물에 대한 족적과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마침 공동 집필자 가운데 한 사람인 토미이 마사노리 교수께서 2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과 건축』이라는 잡지를 바탕으로 만들어 두었던 중구에 분포하는 근대 시기의 건축물 일람표가 있어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경관의 문제에서는 역시 공동 집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여환진 선생이 아직까지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카페와 다방이라는 업종으로 중구의 핵심인 본정과 신정을 중심으로 조명해 줌으로써 참신한 내용구성이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원고의 분량은 많지 않지만 소주제들은 중구의 역사를 해석해 보기 위해 설정한 것들로 스스로 신선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평가야 독자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하나 더 밝히고 싶은 것은 사용된 도판들은 필진이 발로 뛰어다니며 직접 촬영한 것이고 과거의 역사 사진들은 여환진 선생의 소장품이 대부분이다. 오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경비를 들여 구입한 것이고 자신의 논문을 위해 아껴 두었던 것인데 과감하게 공개를 결정했다. 너무도 고마운 일이다.

끝으로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의 복잡한 도면과 도표, 사진의 스캔 및 정리를 도맡아 해 준 최지해 양도 바쁜 수업시간을 쪼개어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다.

부족하지만 이 책자가 서울특별시의 중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며 필진을 대표하여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발간일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인내해 주신 중구문화원의 남상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집필자 대표 씬
2009년 12월 31일



저 자 약 력

■ 토미이 마사노리

일본 동경대학 박사

카나가와대학 교수역임

현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주된 관심분야는 근대 시기의 동아시아 주거 연구

■ 한동수

중국 청화대학 박사

인하대학교 전임강사역임

현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부교수

주된 관심분야는 동아시아건축의 교류와 비교 연구

■ 여환진

한국 연세대학교 학사

현 트리비코 대표이사 겸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주된 관심분야는 동아시아 근대도시와 건축 연구

■ 최지해

한국 한양대학교 학사

현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주된 관심분야는 동서양 근대건축의 비교 연구

■ 나카다시사토 (한국영화사연구)

일본어 감수



참고문헌

- 朝鮮と建築, 朝鮮建築會, 1922-1945年
京城電話番號簿, 京城中央電話局, 1934年
京城商工名錄, 京城商工會議所, 1935-1939年
大京城寫眞帖, 中央情報鮮滿支社編, 1936年
京城電話番號簿, 京城中央電話局, 1936年
京城電話番號簿, 京城中央電話局, 1938年
建築資料型錄, 朝鮮建築會, 1938年
京城電話番號簿, 京城中央電話局, 1940年
朝鮮人名錄, 京城日報社, 1940-1943年
私製 京城職業別電話番號簿, 朝鮮人事興信所, 1941年
朝鮮及滿洲
朝鮮公論
經濟月報
漢城城壁巡禮記, 朝光,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년, 10월(3권 10호)
鐘峴聖堂沿革, 가톨릭청년, 가톨릭청년사, 1936년 11월(4권 12호)
김승옥, 다시 읽은 한국문학시리즈 23: 서울, 1964년 겨울, 맑은 소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마르틴 바른케 노성두 역, 정치적 풍경, 일빛, 1997년
염복규, 살림지식총서 156: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살림, 2006년
박정애, 아름다운 옛 서울, 보람, 2006년
권보드래, 1910년 풍운의 시대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년
한동진, 경성탐정록, 학산문화사, 2009년
윤재석, 나의 살던 서울은, 청어, 2009년

서울 중구, 남겨진 풍경 · 지나간 흔적

중구 향토사 자료 제12집

발행처 :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발행인 : 중구문화원장 남상만

기획 : 중구문화원

집필 :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토미이 마사노리 교수

한동수 교수외 2인

발행일 : 2009년 12월31일

제작 : 상원사

비매품

중구문화원, 2009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전화 (02)775-3001

이 책은 구 예산을 지원받아 발간하였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문화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울 중구문화원

JUNG GU CULTURAL CENTER

www.junggucc.or.kr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02.775.3001 / 02.2260.1820